

바닷가의 묘지

테리사 리 소설집



Norfolk Island

미주한국소설 2024 통권제 14호

미주한국소설가협회

테리사 리의 소설을 읽는다는 건 버림받은 자들의 속울음에 귀를 기울이는 것과 다르지 않다. 들을 수 없는 소리를 듣게 해 주는 소설이 바로 여기에 있다. 독자는 파멸할지언정 패배할 수 없다는 그들을 지켜보는 동안 지금까지 상상해 본 적 없는 새로운 형태의 구원을 사유하게 될 것이다.

—손홍규(소설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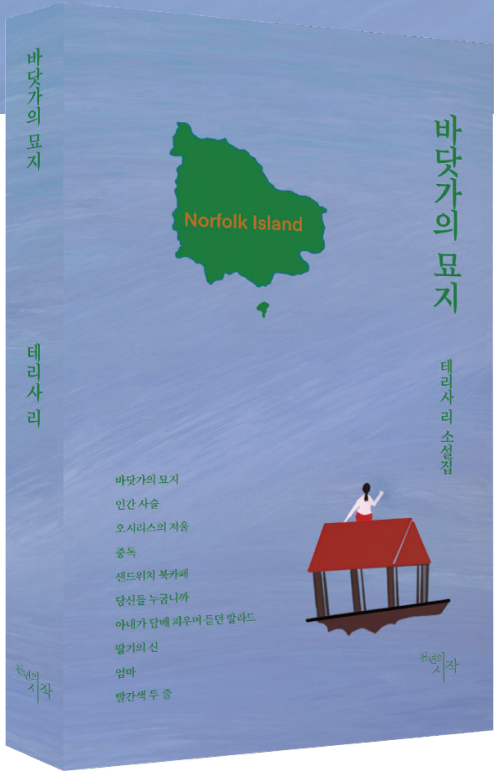
문
관
나
루

미주 한국소설 2024 통권제 14호



김수자 김영강 김외숙 박은숙
박혜자 성민희 연구호 이여근
테리사 리 한영국 홍영옥

KOREAN AMERICAN ASSOCIATION OF NOVELISTS



테리사 리 2013년 재외동포문학상 소설 부문 대상 수상으로 작품 활동 시작. 소설집 『비단땀 쿠니아의 비밀』, 『어제 오늘 내일』 출간. 《호주동아일보》 신년문학상, 해외민초문학상 소설 대상 등 수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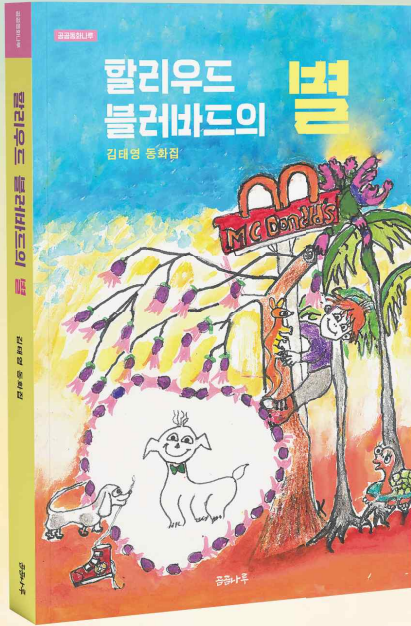
천년의
시작

주소 (03132) 서울시 종로구 삼일대로32길 36 운현신화타워 502호
전화 02-723-8668 팩스 02-723-8630 이메일 poemsijak@hanmail.net 홈페이지 www.poempoem.com

미주한국소설가협회

곰
곰
나
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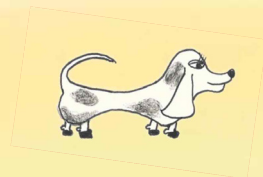
미국 LA 할리우드 블러바드의 한 아파트에서 살고 있는 작가 김태영이
20세기 중후반 한국 나주평야의 젓줄 영산강과 2020년대 미국 서부의
도시·산·강·호수·사막·개년을 넘나들며 펼친 12편의 중단편동화!
그 삶과 꿈, 역사와 자연의 이야기!



김태영 동화집

할리우드 블러바드의 별

나는 지금 미국의 캘리포니아 로스엔젤레스에 살고 있다. 할리우드 블러바드 아파트 내 창가에 서면 20층 건물보다 더 높이 자란 팜트리들이 보인다. (.....) 어느 달 밝은 밤 나는 또 달맞이꽃이 되어 별을 보고 있었다. 할리우드 스타의 거리에 완전히 인적이 끊긴 두 시였다. 나와 마주 보고 있던 팜트리가 홀연히 거리로 걸어 나왔다. 나무가 아니라 티라노사우루스였다. 7,000만 년 전의 공룡이다. “그럴 줄 알았어!” 나는 마치 기다리고 있었다는 듯이 소리쳤다. 놀라지도 않았다. 나무들에서 늘 다른 얼굴을 보았으니까. 이윽고 모든 가로수들이 공룡이 되어 저벅 저벅 저벅... 도시는 이제 공룡시대가 되었다. 물론 나도 같이 다녔다. 목마 타거나 날개에 탔다. 우리는 산타모니카와 말리부 해변에 가서 바다 쓰레기를 치웠다. 기차 지붕에 앉아 샌프란시스코도 갔다. -‘작가의 말’에서



곰곰나루(2024) 216쪽. 20,000원

한순간도 무의미하게 살 수는 없다!
척박한 밭이랑에 씨앗을 뿌리는 이야기,
보이지 않는 곳에서 사랑을 실천한 이야기,
이민자이자 목회자의 아내로 산 이야기 53편!



박영실 수필집

열지 않은 선물상자

곰곰나루 | 272쪽 | 18,000원

작가 박영실(본명 조사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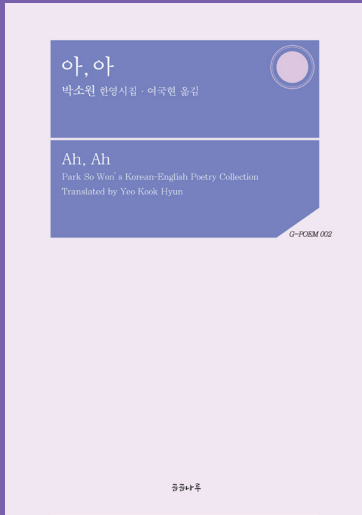
1993년부터 목회활동을 하는 남편을 도와 사역을 했다. 2003년 도미해서 캘리포니아의 여러 지역에서 목회를 했다. 2016년부터 T국을 비롯한 이슬람권 지역에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해왔다. 현재 오렌지카운티에서 남편의 목회를 도우며 선교와 교육활동을 하고 있다. 『한국문학예술』 수필 당선 등으로 수필가로 활동하면서 시와 동화 등 여러 장르의 글을 발표하고 있다.

*척박한 마음을 가다듬고 밭이랑에 씨앗을 뿌린다. (···) 가을날에 거둬들일 풍성한 열매들을 기대하며 수고를 감수해야 하리라. 갈증을 느끼는 그 순간이 살아있다는 청신호다. 내 삶에 열정을 다해 전심전력해 불태울 마음속 우물 하나 판다. 마르지 않는 생수를 마신다. 나는 살아있기에 갈증을 느낀다. 아! 목마르다. - 「갈증」에서

〈해설〉

박영실의 수필은 눈앞에서 바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저 먼 곳에 가닿아야 비로소 얻는 그것을 향하는 쉽 없는 갈증의 과정이자 그 과정에서 얻는 가르침으로 존재한다. 박영실은 매일 아침 아직 ‘열지 않은 선물상자’(‘특별한 선물’)가 기다리는 그곳으로 가고 있다.

미주한국속설 2024



박소원 한영시집
Park So Won's Korean-English Poetry Collection

아, 아 Ah, Ah

곰곰나루 | 212쪽 | 15,000원

여행과 탐색으로서의 글쓰기!
오늘을 품고 내일의 기록을 향해 가는 시업(詩業)!

2004년 '문학선' 신인상에 '매미' 외 4편 당선으로 등단한 박소원 시인의 한영시집. '나는 쓴다'라는 '쓰는 자의식'을 '가족사'와 '여행'이라는 두 가지 코드로 풀어가며 지난 시간을 훑고 내생(來生)을 꿈꾼다. 1부에 13편, 2부 13편, 3부에 13편, 4부에 9편 등 총 48편의 시를 번역문학가 여국현 시인이 번역했다. 한중시집, 한러시집에 이어 세 번째로 글로벌 문단에 발을 내딛는다.

* 박소원 시는 집에서 멀어지는 여행과 그것에서 깊어지는 시간 탐색으로 '나-자아-화자'가 발화하는 기표를 끊임없이 생산해 낸다. 그래서 자문-자답으로 이어지는 자기성찰의 시적 세계를 일구어 왔다. 자기성찰은 대체로 자기치유의 과정이 되는 법이고 박소원 시에서도 그것은 '카오스적 혼돈'에서 '코스모스적 세계'를 회복하는 정화 과정을 보여왔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박소원 시는 미처 기록하지 못한 더 많은 시간 층을 발견하고 여전한 탐색의 과정에 서 있다. 이미 지나온 줄 알았지만 다시 지나가야 생이 그 앞에 아직 두텁게 놓여 있는 셈이다. 그렇다면 시인은 '거칠고 지친 목소리'이지만 그걸 '새 목소리'로 내야 할 터. 그것이 시인의 숙명 아닐까. '지난 시간'이지만 외면할 수 없는 시간이라면 그것은 앞으로 살아가야 하는 내생(來生)과 다름없는 것. 박소원의 시는 이제 그 내생의 기록을 향할 수밖에 없다. - '해설'에서

박소원 Park So Won 1963년 전라남도 화순 출생. 2004년 계간 『문학선』 신인상으로 등단. 시집 『슬픔만큼 따뜻한 기억이 있을까』(2010), 『취호공원에서 쓴 엽서』(2013), 『즐거운 장례』(2012), 그리고 한중시집 『修飾哭聲 : 울음을 손질하다』(2015), 한러시집 『예니세이 강가에서 부르는 이름』(2023) 등. 제29회 시집 『즐거운 장례』로 단국문학상 수상.

미주 한국소설 2024 통권 제 14 호



김수자 김영강 김의숙 박은숙
박혜자 성민희 연규호 이여근
테리사 리 한영국 홍영옥

KOREAN
AMERICAN ASSOCIATION
OF NOVELISTS

미주한국소설가협회

차 례

인사말

홍영옥 오늘을 다지고 내일로 가는 6

초대시

오연희 겨울 10

고광이 세계는 자전거 바퀴살을 따라 돈다 12

초대시조

안규복 고희의 대계 14

초대수필

이현숙 광기로 뒤덮인 세일럼 15

회원소설

김수자 함께 죽기 22

김영강 백까마귀의 눈물 46

김외숙 가자미식해가 익는 시간 74

박은숙 바다로 가는 길 91

박혜자 Q-tip의 여왕 111

성민희 운정 123

연규호 어머니의 왼편 눈 148

이여근 늦기 전에 164

테리사 리 불타는 산 183

한영국 Tun으로 쓰고 Sun으로 읽는 202

홍영옥 천사의 도시 216

특별기고

김종희 한민족 디아스포라 문학의 선 자리와 갈 길 234

미주한국소설가협회 소개 250

회원 명단 및 이메일 주소 250

미주한국소설 제15호 원고 모집 255

회원 소식 255

오늘을 다지고 내일로 가는

이민자로 살다 보면 ‘내 고향은 과연 어디인가? 어쩌면 흐르다 머무는 그곳이 바로 고향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이는 사실 ‘고향을 떠난 지 오래 됐으니 이제 고향을 잊고 살아야겠다’는 다짐일 리가 없지요. 고향에 대한 그리움이 그만큼 짙어졌다는 뜻일 수도 있습니다.

고향을 떠난 지 오래 됐지만, 그래서 내가 머무는 이곳이 나중에 결국 고향이 될 것이라는 생각을 하면서도, 우리는 어느새 그런 느낌을 표현하려고 합니다. 그 표현은 당연히 언어이고, 그 언어는 결국 모국어입니다. 한글, 모국어, 쓰면 쓸수록 가슴에 품고 싶은 말, 글, 결코 내게서 벗어나지 않은 우리 것 말이지요.

미주의 모국어 창작 소설은 그 어느 지역의 이민문학에 비해 고국을 향한 향수의 세계를 노래하는 차원을 벗어나 한인 디아스포라의 삶과 의식을 반영한 서사문학으로 거듭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는 미주, 미국과 캐나다 지역 곳곳 외로운 책상 앞에서 밤새워 모국어를 글로 쓰고 계신 우리 회원들의 끊임없는 수고의 결과이지요.

미주의 우리 소설은 이제 한국문단에서 바라보는 변방의 문학이 아니라, 미주 지역에서의 풍부한 소재와 남다른 글로벌 인식에서 얻은 미주 한인문학, 미주 모국어문학으로서 하나의 장르가 되고 있다는 자부심마저 생겨나는 중입니다.

‘무소유’를 말하셨던 법정 스님은 『오두막 편지』에서 “사람은 참으로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살 수 있어야만 삶의 보람을 느낀다. 자신이 하는 일을 통해서 자신이 지닌 잠재력을 발휘하고 삶의 기쁨을 누려야 한다. 그래서 당신의 인생을 환하게 꽃 피우라”라고 썼습니다. 진정으로 하고 싶었던, 가슴에 품고 있기만 했던 이야기들이 이민지 곳곳의 일터에서 한 글자씩, 한 단어씩 뿜어 나와 하나의 작품이 된 것, 우리 이민자로서는 그게 바로 법정 스님이 말한 인생의 꽃이 아닐까 합니다.

북미권은 사막지대가 많지만 실은 이민지는 그 어디든 사막이 아닐까 합니다. 그 사막의 모래 위에 한 발짝씩 꺾, 꺾 찍어서 우리의 뜻깊은 기록을 남겨야 할 것입니다. 뒷날 우리 후대들이 우리들의 이 기록을 보고 읽고 마음에 새기며 이민문학의 역사, 한인 디아스포라의 역사를 훑아보게 되리라 기대해 봅니다.

이번 제14호에는 미주 한국문단을 각 장르별로 대표하는 분들의 작품을 받아 초대작품 지면을 열었습니다. 시(미주한국문인협회 오연희, 재미시인협회 고광이), 시조(재미시조시인협회 안규복), 수필(재미수필가협회 이현숙) 등 귀한 원고를 주신 단체 회장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소설 발표는 충열한 분이 함께했습니다. 이중에 성민희, 박은숙, 박혜자 회원은 최근 문학상 당선으로 소설문단으로 진입했습니다. 한편, 늘 우리와 함께 하시던 손

초대작품

초대시

오연희

고광이

초대시조

안규복

초대수필

이현숙

용상 회원은 그 사이 안타깝게도 유명을 달리했습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회원 작가들이 이민자로서 서로 격려하면서 모국어로서의 소설문학을 풍성하게 하는 데 큰 도움을 주는 『미주한국소설』이 될 수 있게 함께 노력하면서 남은 기간 소임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4년 10월

미주한국소설가협회 회장

홍영옥



홍영옥 본명 이영옥. 경희사이버대학교 졸업. 2002년 미주크리스찬문인협회 단편 소설, 2012년 경희해이동포문학상 단편소설, 2017년 『문학나무』 신인상 단편소설 당선. 2023년 현재 미주한국소설가협회 회장, 한국디카시인협회 로스앤젤리스 지 회장. 소설집 『어디에 있는 무엇을 원하든』(2018) 등.

겨울

오연희

슬쩍 건드리기만 해도
 풀썩 꺼질 것 같은
 공 하나
 있다

구르고 굴러
 성한 곳 없지만
 그래도
 익숙한 것은 구르는 일뿐인...

해 환한 날의 추억만으로
 굴러가는
 하루

웅크린 등뼈 사이로 새어 나오는
 열은 물기
 눈여겨보는 이 없고

말을 그려내던 입
 그 간절한 소통의 물꼬도 달혀버린

가는 세월이
 굴리고 있는
 공
 하나

어머니...



오연희 1999~2001년 KBS World Net 영국(북아일랜드) 통신원, 2002~2007년 미주 중앙일보 통신원 및 교육칼럼 집필, 2003년 미주중앙일보 신인문학상 년피션 당선, 2003년 해외문학 수필, 2004년 심상(心象) 시 등단, 에피포드예술상 시부문 본상, 시와정신 해외문학상(시 부문), 해외문학상 대상, 미주 운동주문학상 특별상, 제3회 코위너 디카시 공모전 대상, 시집 『호흡하는 것들은 모두 빛이다』, 『꽃』, 산문집 『시차 속으로』, 『길치 인생을 위한 우회로』, 현재 미주한국문인협회 회장.

세계는 자전거 바퀴살을 따라 돈다

고광이

두 개의 바퀴 사이에
몸의 중심을 엮는다
도무지 산길의 표정은 친절하지 않다
덩달아 바퀴도 투명스럽다

나는 엉덩이를 높이 쳐들고
여러 개의 바퀴살과 수직을 이루어
두 개의 대립을 달랜다
나를 비워내지 않으면
같은 방향이 될 수 없다
변수는 늘 있어 넘어지고
고장 나고 부서지기도 한다
스핀으로 돌 때 흠이 패여 나가고
삼각의 꼭짓점은 마모된다
바퀴는 평상심을 잃어버린다

세계는 자전거로 집약된다
넘어지고 부서져 본 사람은 안다
중심이 얼마나 위태로운지
다시 추스르며 일어서서

앞만 보며 달렸을 때
먼 곳이 와 있는 것이다
그렇게 산길을 오르내리면
문득 태양이 뜨고 태양이 진다

태양이여, 그대는 잘도
중심을 옮겨가고 있구나
열두 개의 바퀴살을 따라
그대가 등성을 오를 때
나도 내 중심을 그대에게 옮기고 싶다

문득 내 안이 환해진다



고광이 월간 『한울문학』 신인상(시), 크리스찬문인협회 신인상(수필) 등단. 시집 『무지개 다리를 건너』(2011), 『내 마음의 풍경 소리』(2012). 현재 재미시인협회 회장. 사단법인 한울문학 회원, 문화예술교류진흥회 회원. skykoh60@gmail.com

고흐의 대계*

앞으로 나가고자 했으나 옆결음만 친
게다리 한 쌍이 대칭으로 마주 섰다
영키고 엇갈리면서 창날처럼 세워 들고

기다림, 아우성을 묻었지 침묵 속에
서로의 단단한 등판을 마주 대고
비린내 부글거리는 시장터에 누웠지

물을 수 없는 것들 그려볼 수 없는 것에
저 멀리 어른거리는 파랑파랑波浪 그림자
진분홍 큰 게 한 마리 접시 위에 몸을 괴다

*Van Gogh: 'A Crab on its Back'



안규복 이화여대 국어국문학과 졸업. 미주중앙일보 신인상 시 부문 시조(2006년), 미주한국일보 문예공모전 자유시(2007) 입선. 시조집 『사랑은 작은 집에서』(2021), 윤동주미주문학상 대상 수상(2021), 현재 미주시조시인협회 회장, 재미시인협회 시인교실 담당.

안규복

광기로 뒤덮인 세일럼

- 아서 밀러와 나다니엘 호손이 증언하다

이현숙

붉은색의 스테인드글라스 창문은 섬뜩한 핏빛을 쏟아냈다. ‘접근하면 너도 마녀’라며 손가락질하겠다는 협박으로 보여 순간, 한 발짝 뒤로 물러섰다. 고풍스러운 건물의 두꺼운 나무판에는 ‘세일럼 마녀 박물관(Salem Witch Museum)’이라 적힌 간판이 흔들거리며 달려 있다. 세일럼은 원래 히브리어로 평화(shalom)를 의미하는데 이름과 달리 마녀사냥으로 미국 역사에 오명을 씌운 곳이다.

입구로 들어섰다. 벽의 진열장에는 17세기 당시에 입었던 뉴잉글랜드 스타일의 의상이 눈에 뜨인다. 장식을 달리 않은 소박한 디자인으로 잿빛과 보라색이라 어두웠다. 모자에서 신발까지,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몸을 꼭꼭 감출 수 있는 복장이 유리 상자 안에 여성용과 남성용으로 이름을 달고 간혀 있다. 재판 당시의 기록도 유리 상자 안에 잘 보관됐다.

문이 열리자 복도를 채운 사람들이 우르르 극장 안으로 들어갔다. 바닥의 한가운데 빨간색 둥그런 원이 있고 1692년이라고 쓰였다. 그 안에 재판에 연루된 사람들의 이름이 빙 돌아가며 새겨져 있다. 의자는 빈자리가 없어 나는 둥그런 원 위에 책상다리로 앉았다. 불이 꺼지자 서늘한 공기가 이층의 한곳에 몰리며 조명이 비추어졌다. 여자아이가 침대에 누워 있고 그 주위에 사람들이 비명을 지르는 듯한 모습이 검은 그림자 형태로 둘러섰다. 침대를 비추는 붉은 불빛이 피를 연상시킨다. 해설자가 당시의 상황을 설명했다. 실물 크기의 인형은 괴기스러운 표정으로 허술하게 서 있어서 금

방이라도 내 머리 위로 쏟아져 내릴 것 같다. 무서웠다.

당시 세일럼은 메이플라워호를 타고 신대륙에 이주하여 설립한 작은 청교도 지역 공동체다. 노래와 춤을 금지하고 휴일조차도 기도로 채우는 억제된 규범 속에서 거친 환경을 상대로 투쟁하듯 살아야 했다. 이 사건은 1692년 2월 어느 날 밤, 숲속에서 호기심 가득 찬 소녀들이 발가벗고 춤을 추며, 주술을 외우고 혼령을 불러내는 금기된 놀이를 하면서 시작되었다. 우연히 패리스 목사에게 발각된 그들은 처벌이 두려워서 악마에 사로잡힌 듯 연극을 하게 된다. 패리스의 딸 엘리자베스가 갑자기 발작을 일으키며 헛소리를 질렀다. 며칠 뒤 엘리자베스의 사촌인 애비게일도 비슷한 증상을 보였다. 마을의 다른 소녀들도 고통을 호소했다. 부모들은 이들을 위한 기도회를 열고 의사를 초빙해 소녀들을 진단하지만, 병의 원인을 찾지 못하자 악령의 짓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애비게일은 자신이 마법에 씌웠다고 거짓 자백을 하고 그 증거로 마을 사람 중 몇 명을 마녀로 지목했다. 이어 다른 소녀의 증언으로 마을 사람들은 감옥에 갇혔다. 잡혀 온 그들은 자백을 강요당해, 마지못해서 또는 평소 나쁜 감정이 있던 사람의 이름을 불렀다. 마구 튀어나온 다른 이들도 마녀의 혐의를 벗어날 수 없었다. 80세이던 자일즈 코리는 심문에 응하지 않고 침묵을 지키자 몸에 널빤지를, 그 위에 무거운 돌을 올려놓는 고문으로 처참하게 죽었다.

단두대에서 처형당하는 이웃의 모습을 지켜보던 마을 주민들은 폭풍처럼 마을을 휩쓸던 마녀 색출작업에 자신도 지명 당할지 모른다는 공포 속에 산다. 이 집단적 광기는 개인적인 이권이나 원한에 얽힌 사람을 고발하며 복수를 위한 수단으로 전락했다. 185명이 체포되고, 그중 59명이 재판에 회부돼 31명이 유죄 판결을 받았다. 그 가운데 19명은 처형되고, 1명은 고문으로 압살당하고, 세 명은 재판을 기다리다 감옥에서 사망했다. 청교도 지도층의 부인들까지 마녀로 지목되는 사태에 이르자 펄스 총독은 재판

을 중지시켰다. 새로운 재판부가 구성돼 감옥에 갇혀 있던 사람들을 모두 방면하고 사건은 종결했다.

13개의 무대가 360도 돌아가며 마녀재판 상황을 그대로 옮겨 놓았다. 이 가슴 아픈 역사가 인형들에 의해 재현되며 법정과 단두대, 화형대에서 행해지는 끔찍한 처형 모습을 생생하게 전했다. 부당하게 박해를 당한 사람들이 인형으로 변해 유리 상자 안에서 억울하다고 말을 하는데 우리에게 들리지 않는다. 당시에 그랬겠지. 마녀라는 누명을 쓰고, 그 억울함을 호소했지만, 귀를 막아버린 사람들에게는 들리지 않았을 것이다. 인간은 자신이 듣고 싶은 말만 들으려 하는 나쁜 습성이 있다.

뒤에 흘린 듯 인형들이 이끄는 데로 따라가며 ‘어머나, 저런’ 하다 보니 연극이 끝나고 극장이 환하게 밝아졌다. 일어나서 엉덩이의 먼지를 툭툭 털며 발아래를 내려다본다. 마녀로 고소된 사람의 명단이 적힌 원심에 내가 있다. 붉은 피로 물든 땅. 을씨년스럽고 스산한 바람이 극장 안을 날아 다닌다. 몇 백 년이 지났는데도 떠도는 혼령인가보다. 미안한 마음에 옷소매로 내가 앉았던 자리를 닦았다.

학자들은 세일럼의 마녀재판이 정치와 종교적인 이유라고 했다. 세일럼의 관리들이 마녀사냥을 통해 세일럼의 결속력을 다지고 더 나아가 자신들의 기득권을 확고하게 하려던 것으로 추측했다. 종교개혁으로 야기된 종파적 갈등에서 반대파를 제거하는 수단으로 악용했다는 것이다. 인간의 본능이 철저히 통제받은 억제된 청교도적 규범 속에서 주민들은 서로에 대한 오랜 앙금과 현실적 이해관계가 폭발해 악마와 대항해서 싸운다는 명분으로 비열한 복수심을 정당화시켰다. 토지를 둘러싼 잦은 분쟁으로 야기된 반목과 불화가 마녀사냥을 기해 터져 나왔다고 주장하는 역사가도 있다.

등 떠밀려 극장을 나와 선물센터로 갔다. 진열대에 아서 밀러 소설책 『시련(The Crucible)』이 보였다. 마릴린 먼로와의 결혼으로 더 화제를 모았던 그는 이 작품을 통해 미국에 몰아친 집단적 광기가 불러온 인권 유린을

신랄하게 비판한 문제작이라는 평을 받았다. 아서 밀러는 그의 작품 안에서 마녀재판은 '복수가 법을 만들고 있다'라고 했다.

세일럼에는 또 다른 작가의 혼이 서려 있다. 나다니엘 호손은 그의 고조부가 세일럼 마녀재판 7명의 특별 판사 중 하나인 존 하손(John Hathorne)이다. 조상이 지은 죄업을 물려받기를 거부하며 원래 성이던 Hathorne 에 'w'를 넣어 Hawthorne로 바꾸었다. 역사에서 가장 부끄러운 치욕적인 사건이라고 그는 말했다. 그 마음으로 청교도의 위선과 도덕적 완벽주의에 대한 강한 비판을 담고 박해받아온 약자의 삶을 조명하는 『주홍 글씨』와 『일곱 박공의 집』을 썼다.

나다니엘 호손의 『젊은 굿맨 브라운』에서도 악마를 숭배하는 모임이 나온다. 평범한 사내가 어느 날의 야행(夜行)에서 자신이 그동안 가지고 있던 믿음과 희망을 잃는 이야기이다. 악의 축제가 벌어지는 공터에는 그동안 브라운의 마음속에서 신앙적으로 믿었던 마을 사람들도, 부정적 이미지로 각인된 마을 사람들도 모두 한데 모여 있었다. 신뢰는 파도에 쓸린 모래성처럼 흔적도 없이 부서졌고 하늘이 무너진 심정이었다. 아침에 마을에서 마주친 사람들은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전과 동일했다. 변함없는 모습에 배신감마저 들었다. 그가 생생하게 현실로 겪었던 것이 설사 꿈일지라도 그는 사랑했던 아내조차 믿지 못했다. 진실을 잃어버린 빈껍데기만 남아 불행하게 살다가 죽는다. 호손과 밀러는 세일럼의 증인이자 마녀 사냥의 기록자다.

온갖 종류의 마녀 형상과 마술 도구도 있다. 경고장(Notice to practitioners of witchcraft)이라는 사진이 다양한 크기로 그 당시의 것인 양 누렇게 변색한 종이에 인쇄돼 팔리고 있다. 마녀나 마녀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사람은 잡아서 교수형에 한다는 내용이다. 이 대자보가 골목마다 붙여져 주민들을 더 부추긴 것은 아닐까. 손가락질로 지목을 당한 사람은 마녀로 몰렸던 시대를 기념해야 하는지 손에 집었다가 던지듯이 내려

놓았다.

마녀사냥은 지금도 곳곳에서 행해지고 있다. 열 명이 한 사람 바보로 만드는 일은 식은 죽 먹기라는 옛말이 있다. 권력에 대한 욕심, 욕망과 집착, 신앙의 결백성, 오만함과 편견 오늘날 다른 의미의 용어로 우리 주위에 머문다. 왕따가 그 한 예다. 사회생활을 하며 자신의 이익과 위신 때문에, 알게 모르게 행해지고 있다. 형태와 강도만 바뀌었지 마녀사냥은 인간사회에서 영원히 근절될 수 없는지도 모른다. 집단적 광기 속에서 올바른 신념은 묻혀 버리기 쉽다. 모두가 Yes라고 할 때 No 할 수 있는 용기는 시련을 불러오기에 피해 가고 싶은 길이다.

성을 고쳐가며 치욕적인 과거에서 빠져나오려 했던 나다니엘 호손과 “하나님은 죽었다.”라고 주인공의 입을 통해 부르짖었던 아서 밀러는 작품을 통해 우리에게 그 고통을 전달했다. 지금의 세일럼은 관광지로 변해 입에 올리는 것조차 금기했던 ‘마녀’를 팔아 살아가는 곳이 되어 버렸다. 오히려 마녀들이 공식적으로 존재하고 활동하는 도시다.

호손과 밀러는 지금 어떤 마음일까. 가식을 벗는 것은 힘들지만, 벗겨지는 것이 진리라고 말했던 밀러. 세상에서 잘못된 일은 내가 행한 것이든, 당한 것이든 진정으로 바로잡히지 못하는 것이 진실이라고 했던 호손. 두 작가는 각자의 작품 안에서 진리와 진실을 말하며 소설을 마무리했다. 그 차이는 무엇일까. 마녀박물관을 나서며 머릿속이 온통 형클어졌다.



이현숙 서울 출생. 『미주크리스천문학』 시, 수필 신인상(1998), 『수필문학』 천로(1999), 미주한국일보 여성칼럼 필진 역임. 현재 재미수필문학가협회 회장. 해외동포문학상 콩트부문(1999년), 미주PEN문학상, 해외 한국수필문학상, 국제 PEN한국본부 해외작가상, 재미수필문학상, 『시와 정신』 해외작가상 수상. 작품집 『사랑으로 채우는 향아리』, 『숲에 무지개가 내리다』, 『두 남자와 어울리기』, sooksenteno@gmail.com

회원소설

김수자

김영강

김외숙

박은숙

박혜자

성민희

연규호

이여근

테리사 리

한영국

홍영옥

함께 죽기

김수자

수명이 두 달 남았단다. 의사들은 참으로 정직하다. 의사들은 컴퓨터에 나타난 의료 기록을 보고 ‘제 말이 틀림없습니다.’라고 하고 있다.

수족관의 물을 잔디밭에 부었다. 온몸 속이 드러나보이는 투명 물고기 수십 마리가 달려 나왔다. 심해에서 플랑크톤을 먹고 사는 투명 물고기가 우리 집 어항에서는 팻살의 고기밥을 먹고 살았다. 투명 물고기는 가느다란 등뼈에 실 같은 갈비뼈가 붙어 있고 머리 쪽에는 튀어 나올 것 같은 눈망울이 보인다. 빛을 받으며 헤엄을 칠 때는 무지개 색깔로 변하기도 한다. 처음엔 눈을 의심했다. 어떻게 내장까지 다 보일 수가 있어? 대충 지상의 생물 중 몸속의 것은 숨기고 있는데, 이놈들은 뭐가 그리 당당해? 속이 다 들여다보이는 바다 생명의 솔직함 때문에 집에 들여 거실에 수족관을 만들었다.

당신은 정말 투명한 사람이었어. 흰 피부에 어른거리는 파르스름한 실핏줄이 영락없는 전설의 투명 물고기였어. 이 사람은 밥을 먹고 사는 사람이 아니다 생각했지. 난 말야, 당신을 처음 봤을 때 저렇게 투명해서 어떻게 세상을 살아갈까. 너무 맑고 깨끗하고 고와서, 당신을 사랑한다는 게 당신의 순결을 짓밟는 것 아닌가 했지만, 그래도 나는 이 여자를 내가 사랑해야겠구나 했지. 이렇게 말하면 믿어줄까. 어설픈 사랑의 고백이지만 해야 할 것 같다.

집 안에 많은 생명들이 서식하고 있었다. 과일 나무 장미 개 고양이 20여년을 함께 살았다. 그것들은 우리 부부와 함께 자연 수명을 누렸다. 화분들을 담 밑에 내려놓고 ‘가져가세요 Free’라고 팻말을 붙여놓았더니 하루

만에 다 없어졌다. 누군가 화분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가져갔을 것이다.

그 자식, 손 과장 말야, 매일 아침 당신보고 커피를 타 오라고 했잖아. 그 걸 거절 못하고 다소곳이 타다가 주는 것 보고 내가 얼마나 화났는 줄 알아. 한국에 결투 시스템이 있었으면 아마 결투신청을 했을 걸.

난 당신이 나를 그렇게 생각하는 줄 몰랐지. 당신은 험담하고 대학도 나오고, 난 여상 나온 주제에 아무것도 내세울 게 없잖아. 어느 날 각 지점에서 들어온 돈을 묶어서 정산과로 옮기던 중 봉투가 찢어졌잖아. 얼마나 당황했는지. 당신이 얼른 큰 봉투를 들고 와서 흩어진 돈을 담아서 안겨주었지. 휴 망신. 당신은 내가 위협에 처했을 때 늘 달려왔어. 뭐든 내말을 들어 줄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 내가 잘못을 저질러도 내 편이 되어주고 내가 넘어지면 일으켜주고 내가 화 내면 화를 풀어주고, 나는 당신한테 순전히 어리광장이었지.

포 베드룸을 채우고 있는 많은 집들은 생명이 없는 무생물인 줄 알았는데 그 속에 혼이 보였다. 부부의 채취가 묻어나 있었다. 주인의 취향과 냄새가 잔뜩 배어, 이 집의 구성물들은 점점 생물로 진화하고 있었으나 이쯤에서 헤어져야 한다. 육체가 그 기능을 잃어가고 있음을 감지했다. 아내와 나는 둘 다 폐암으로 투병 중이다. 우리는 거의 비슷한 시기에 폐암 수술을 하고 깨어났다. 수십 년을 함께 한 삶이라 병도 같이 걸렸나 보다. 위험한 다리를 건넜다고 생각했으나 폐암의 전이 현상이 일어났고 우리는 이제 죽음이라는 선고를 받았다. 죽음을 위한 준비는 없다. 죽음 그 자체를 맞이하는 거다. 죽음으로 일단은 이 세상에서 우리 부부의 자취가 없어지는 거다. 소유물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을 먼저 보내자. 생명이 있을 때 내 손으로 보내는 게 마땅하다. 옷가지가 장롱 속에 꽂 차 있다.

한때는 추울 때나 더울 때나 내 몸을 감싸고 나의 일부로 존재했던 보호막이었지만 내가 존재하지 않을 테니 그 허물들을 버려야 한다. 집안을 채우고 있는 물건들, 아무도 탐내지 않은 이런 물건을 버리려니 버릴 곳이 마

땅치 않다.

굿윌Goodwill에 전화하면 트럭 가지고 와서 다 가져갈 거다. 우리가 마지막 여행을 다녀올 때까지 마스터 베드룸 물건만 빼놓고, 거실과 각 방에 있는 것들을 가져가라고 하면 된다.

“우리 고양이 견우직녀는? 우리 개 진도와 선도는?”

“애네들도 저희들이 갈 데가 있어.”

아내의 무릎에 앉아 있는 고양이 견우직녀의 눈에 푸른 불이 켜졌다. 박 관음의 발밑에서 졸고 있던 진도와 선도도 귀를 세우고 있었다. 마당에 있는 이삼십 년 된 나무들과 현관문 양쪽에 서 있는 보라색 무궁화나무. 나무들은 뿌리가 지하로 뻗어 내려갔으니 자르지 않는다면 계속 버틸 것이다.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시고 홀어머니 혼자 동대문시장 포목점을 해서 우리 남매를 키우셨다. 난 일찍이 어머니를 돕겠다는 효심 많은 딸이었다. 국민학교 아니 초등학교 때 교내 주산대회가 열렸는데 내가 일등을 했다. 주산을 제일 잘 봤어. 손이 얼마나 빨랐는지. 우리 엄마가 매일저녁 장사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시면 나는 밥을 해놓고 기다렸다. 그리고는 주판으로 장부 정리하는 어머니를 도와드렸다. 그때 주산을 배웠다. 처음 나는 초등학교 선생님이 되고 싶어서 사범학교에 가려고 했는데, 주산 선생님이 “너는 주산을 잘 하니 여상을 가라”고 했다. 선생님 말씀대로 졸업도 하지 않았는데 은행에서 학교로 연락이 와서 모셔가더라고.

내가 가방 들어다 줬잖아. 할일이 많다며 집에 가서 밤샘이라도 해야 할 것 같다고. 팔이 그렇게 가늘어서 저걸 어찌 들고 가나 싶었지. 그때 말야, 가방 들어다 주고 어머니로부터 밥 한상 차려 받았잖아. 얼마나 기분 좋았던지.

우리 엄마는 당신이 차려준 밥을 그렇게 맛있게 먹는 걸 보고 까다로운 사람이 아니라는 걸 알았다. 그리고는 당신이 돌아간 뒤 막 야단을 치셨지. 네 몸가짐이 조신하지 않고 험하게 보였나 보다고. 직장에서 자리 잡고 일

을 하려면, 업무를 파악하려면, 십년은 걸려야 하는데 벌써 마음이 들떠서 어찌자는 거냐고 나무라셨다. 엄마는 내가 꾸준히 직장에 다니길 바라셨지. 엄마 혼자 부담했던 집안일을 내가 반쯤은 해결했으니까. 남동생 공부 시켜야 한다고 과외시켰는데 그런 걸 내가 다 대줬으니까. 엄마는 동생의 사 만드는 게 꿈이었어. 나도 동생이 잘되기를 바랐고. 그 애도 잘했지. 우리 엄마는 우리 남매가 공부 잘한다는 걸 내색도 하지 않았는데 시장통 사람들은 어떻게 알았는지 우등상 탔다더라, 일류 중학교에 갔다더라며 축하한다고 난리를 치니까 그때마다 시장통 사람들에게 국밥 한 그릇씩을 사서 돌렸다는 거야.

“엄마, 나 회사 그만 둘래. 글썄 나보고 커피를 타 오래잖아.”

우리 어머니가 한동안 침묵하셨어. 우리 어머니의 모습이 정말 엄격해 보였어. 큰일 났구나 싶을 정도로.

“얘야, 어느 사회든 그런 불공평은 있는 거란다. 얘야, 커피 타는 일이 그렇게 어렵냐?”

“어렵진 않지만 나도 엄연한 직원인데 커피 타 오라는 거는 자존심 상하잖아.”

“나는 네가 이성적인 판단을 하기 바란다. 네가 왜 회사에 다니는데?”

회사에 나가 일을 하고 월급을 받고, 그래서 우리 집 생활에 도움도 되고. 시집갈 준비도 해야 한다. 이런 현실적인 문제를 다 알고 있는 너다.

네 목표는 은행장이 되는 거라며? 너는 농담으로 했을지 모르지만 난 그 말을 잊지 못해. 은행장 되는 목표, 그게 네 인생의 목표이길 바랐다. 너 나름 목표가 있는데 그까짓 커피 문제로 목표가 달라진다면 되겠니. 소소한 일은 불사해야지. 사람이 살아가면서 참으로 견디기 어려운 것은 모욕을 참아내는 일이다.

네 아버지 돌아가시고 내가 처음으로 장삿길에 나섰을 때 너무 부끄러워서 얼굴을 못 들었다. 얼굴을 꼭 숙이고 장사를 하니 아무도 관심이 없더

라. 지금 생각해 보면 뭐가 그리 부끄러웠는지, 부끄러워해야 할 근거가 없는 거야. 고개를 번쩍 들었지. 나는 우리 아들딸하고 살아야 한다는 일념밖에 없었다. 처음에는 누비이불을 몇 개 받아다가 시장 길목에서 팔려고 했어. 보파리에 잔뜩 싸놓고 사람들이 사 가기를 기다렸지. 그렇게 숨겨놓고 장사를 하면 누가 알아. “누비이불 사세요.”라는 말이 입 밖으로 안 떨어졌어. 용기가 필요했지. 누비이불을 양 팔에 걸치고 큰소리로 외쳤지. “누비이불 사세요.”라고. 장사를 적극적으로 하니깐 돈이 모여지더라. 마침 포목점에 자리가 났는데 시장 감독이 나보고 들어오라는 거야. 점포 살 돈이 없다고 하니깐 장사해 가면서 값이라고 하더라. 장사하는 것처럼 어려운 일은 없어. 다른 사람의 주머니에 있는 돈을 내놓게 해야 되니 파는 사람은 오장육부를 다 내놓고 대해야 한다. 고객들 비위 맞추고, 철없는 사람들 모욕적인 언사도 다 감내해야지.

어머니는 평소 말씀이 없으셨는데 이렇게 조리 있게 말씀하시는 것은 처음이었다.

“기분 나쁘잖아.”

“애야, 인생은 기분이나 감정으로 사는 게 아니다. 참아야 할 때도 있다. 너같이 명철한 애가 또 어디 있겠니. 참을 때는 참아야 된다. 커피 타는 일쯤 기꺼이 봉사해도 된다. 네가 커피 같은 문제로 회사를 그만 둔다면 너는 앞으로 아무 일도 할 수 없다. 인생은 끊임없이 인내해야 자신의 길을 겨우 갈 수 있다.”

“겨우?”

그렇다. 겨우 그런 일로 참지 않고 일을 그만 둔다면 너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 된다. 인생이란 길이 멀고 험난하다. 어느 순간이고 참고 인내하며 견뎌야 한다. 우리 엄마의 이런 조언이 아니었으면 회사 그만 두었을 텐데, 그만 두었으면 당신도 못 만났을 텐데 내가 참기를 잘했지? 난 시집 가고 연애하고 그런 것 생각해 보질 않았는데, 웬 키가 큰 남자가 자꾸 나

타나서 나를 돕는 거야. 흑기사처럼.

회사 내에서 적군들에게 둘러싸였지만 남모르게 긴 사침이 계속되었지. 당신이 ‘관음 씨’라고 불려졌을 때가 무슨 과거시험에 합격이라도 한 듯 우쭐했어. 아, 나도 누구에게로부터 관음 씨라고 불리게 됐구나 하고 감격했지. 관음이란 이름이 너무 거룩해서 싫어했는데 당신이 불려주니 거룩해 보이지 않아서 좋았지.

당신이 회사 중역들과 어디 출장 간 일이 있지. 그때 며칠 얼마나 허전하고 쓸쓸했는지 왜 마음이 그렇게 심란했는지 알 수 없더군.

차가운 느낌이 들 정도로 냉정한 아내는 실은 무서움을 많이 타는 여자다. 밖에 바람이 세게 불어 윙윙 소리를 내면 무섭다고 내게 파고들었다. 대낮인데도 누군가 초인종을 누르면 선뜻 대답도 못하고 문을 열지도 못하고 나를 쳐다보는 이런 여자를 놓고 어떻게 내가 먼저 죽느냐. 불쌍하고 애처로워서.

이 사내, 장부라는 사내, 군대 가서도 고지점령 훈련할 때 제일 먼저 산꼭대기기를 탈환했고 뱀 같은 파충류는 군화로 눌러 죽이고도 꿈쩍 안 하는 냉혹, 내 앞의 모든 장애물은 다 물리칠 수 있다고 힘자랑하는 어리석어 보이는 이 남자가 내가 좋아하는 남자였지. 음식에 들어간 파도 안 먹고 마늘도 안 먹으니, 한국음식에 파 마늘 안 들어가는 음식이 어디 있냐고. 그 사람 입맛에 맞는 요리하려고 절에 가서 스님한테 절 요리하는 법을 배웠단니까. 오신채, 마늘 파 부추 달래 아위의 다섯 가지를 넣지 않는 요리를 배우는데 “남편이 불교와 인연이 있는 사람이군요.” 하더라고.

나 없으면 그는 무얼 먹고 살까. 그에게는 내가 있어야 하는데, 내가 먼저 죽으면 이 사람이 얼마나 슬퍼할까. 실은 남편은 불구자야. 왼쪽 손이 의수야. 군에 있을 때 총기 사고로 손목이 잘려 나갔대. 그는 의수를 남들이 알아볼까 전전긍긍했어.

나는 그게 아무렇지 않더라고. 그의 의수에 키스를 했으니까. 그는 평생

을 두 손 쓰는 사람처럼 모든 일에 능수능란하지. 그는 미국에 와서 미국 우체국 시험에 합격을 하고 은퇴하기까지 일했어. 나도 일했지. 한국인이 많이 사는 LA지역에 한국계 은행이 들어서면서 은행 일 할 줄 아는 사람이 필요했던 거지. 은행 점포의 책임자가 되자 우리 엄마는 “내 딸 은행장 됐네.” 하시더라고. 휴가 때마다 여행을 했지. RV를 구입해서 미국 50개 주의 국립공원을 다 다녔어. 캘리포니아의 날씨가 더없이 나무심기에 좋았어. 우린 둘 다 나무를 좋아했지. LA 근교 우리 집 10에이커의 마당에 과일 나무들, 감나무 대추나무 사과나무 배나무 뽕나무까지 심었지. 땅이 기름져서 심어놓기만 하면 크게 자란다고 감탄을 하면서.

사진을 버리자. 사진을 정리하자고 맘먹고 유리의 방에 들어갔다. 딸 유리가 태어나서부터 자랄 때까지 우리 부부가 여행가서 찍은 사진들이 크게 확대해서 4면 벽을 장식하고 있었다. 이런 것들이 뭐란 말인가.

“유리 사진은?”

“태울 거야? 쓰레기통에 넣을 거야?”

“당신이 알아서 하라구.”

박관음 씨가 성난 듯 말했다.

“당신이 알아서 하란 말 이제 그만해. 나에게 무슨 권한을 준 것처럼 말하는 데 내가 그걸 감당하느라고 얼마나 고심이 많았던 것 당신 모르지?”

“히, 참, 난 당신을 믿기 때문에 한 소리지.”

“우리 서로를 잘 안다고 생각했던 것 같애. 우리의 최대 미스테인크는 우리의 결혼 반대였어.”

“이제 와서 그런 말 왜 꺼내는데?”

“왜 그리 반대했어?”

“우리가 결혼 상대라며 집으로 데려온 애가 블랙이었잖아. 한동안 입이 떨어지지 않더군.”

“나도 그때 할 말을 잊었어.”

“그래서?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구, 그냥 결혼을 허락했잖아.”

“허락이라고? 부모가 냉담하니까 즈이들이 결혼했지.”

“우리가 임신했을 때 우린 기뻐하지 않았어.”

“우리가 말했지. 왜, 아기가 블랙이라서?”

“우리가 집을 떠나서 꼭 10분 후에 앰블런스가 달려왔지. 우리가 액셀러레이터를 최고로 밟았다는 거야. 우리가 자살한 거야. 교통사고가 아니었다구.”

“그런 말을 왜 하는 거야?”

“나도 모르게 나왔어. 하지 말아야 했는데.”

“난 당신과 살면서 후회한 적 없어. 하지만 우리 생각하면, 우린 불행한 부모였어.”

“히, 그런 말 하면 뭐 해.”

“죽기 전에 참회하는 거지. 우리 죽어서 저 세상에 가면 유리를 어떻게 보느냐구.”

“별소리를 다하네. 그건 그 애의 운명이었다고. 유리 이름 올리지 말자고. 우리가 합의를 봤잖아.”

“합의를 봤다구? 무슨 합의? 유리의 죽음이 무슨 거래야? 그런 말로 유리의 죽음이 덮어질 수 있어? 무슨 재판 해? 여기 이 가슴속에 그 애가 묻혀 있는데.”

“히 참, 유리 이름 한 번도 올리지 않던 사람이 왜 지금에 와서...”

“죽을 만큼 괴로웠지. 이름을 올리지 못할 정도로 힘들었지. 유리를 따라 죽고 싶었지.”

우리의 딸로 온 유리. 얼마나 큰 기쁨이었던가.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듯 품고 안고 길렀지. 애가 영리했어. 애를 너무 오냐 오냐 기른다고 주변에서 수군거렸지만 우린 그것도 부족하다고 했지. 우리는 뉴욕대학을 원했어. 대학에 가서 그 애는 부모와 떨어지고 독립적이 되었어. 연극영화과를

지망하며 영화를 찍기도 하고 감독도 하고 프로듀서로 자유분방한 생활이었지. 그래 뭐든 하고 싶은 것 하라고 그 애를 풀어주었지. 그 애가 사랑에 빠진 거야. 토마스와. 우리 옆을 따라 다니며 우리의 시중을 들더니 그 애와 사랑에 빠진 거야. 우리가 사랑할 수 있다는 걸 왜 우린 인정하지 않았을까. 부모가 이기적이었지.

“그 애는 부모도 자기처럼 사랑했지 않느냐고 항의했지.”

“우리 생각하면 눈물만 나는데 그만해.”

“참회하는 거지, 참회.”

우리가 세상을 떠난 후 산다는 것이 고역이었다. 아무런 희망이 없었다. 산다는 것이 고문 같았다. 딸 우리가 우리 곁을 떠났는데 무엇 때문에 무슨 소망으로 산단 말인가. 우리의 죽음은 우리 부부를 절망하게 만들었다. 이 좌절을 타인은 모른다.

“그 애가 죽은 지 20년이 흐른 거야.”

“20년 하고 20일이라고.”

“안 그런 척하면서 그 애가 죽은 날을 헤아리고 있었구만.”

“그 애 사진부터.”

부부는 마당으로 나갔다. 그리고는 나무 함 속에 빼곡히 들어 있는 사진들을 바비큐 기계에 올리고 시너를 붓고 불을 붙였다.

참으로 오랫동안 슬퍼했다. 유리에 대한 비통한 마음을 이제 털어내자고.

“유리도 유릴 용서할 거요.”

둘은 잔디밭에 무릎을 꿇어앉았다. 그리고는 용서를 빌었다.

“유리야, 우리의 유리야. 왜 그렇게 서둘러 우리를 떠났니? 너는 우리의 생명이었다. 너를 보내고 한시도 너를 잊은 적이 없다. 너의 풍성한 볼에 보보할 때의 느낌, 네가 소리 내어 웃을 때 그 소리, 강아지를 처음 안아보고 네가 흘렸던 눈물. 너에 대한 모든 것을 엄마 아빠는 여전히 이 가슴속 깊이 묻고 있단다. 유리야, 미안하다. 세월이 흘렀어도 여전히 너는 우리

안에 있고 우리와 함께 살고 있다.”

인생은 참으로 슬픈 거요. 박관음과 성옥림 부부는 서로가 붙잡아서 죽지 못하고 살았다. 소리 내어 울며 우리에게 용서를 구해 봤지만 우리가 용서하지 않을 것 같았다. 외관으로 그럴듯해 보이는 이들 부부는 실은 우리의 죽음 이후 행복이란 걸 모르고 지냈다. 웃음도 노래도 잊어버렸다. 무슨 즐거움이 있었겠는가, 무슨 기쁨이 있었겠는가. 우리의 죽음 앞에서 유리에 대한 죄책감이 하도 커서 이들 부부는 마치 고해하는 수도승처럼 자신들을 채찍질하며 살았다.

“에고, 우리 고양이 전우직녀, 우리 강아지들 진도 선도 밥 줄 시간인데.”

남편은 헛웃음이 나왔다.

“이놈들, 헤어질 때 헤어지더라도 밥은 멕여야지.”

“비로소 죽을 준비가 된 거여.”

박관음이 중얼거렸다.

남편이 우체국 다니는데 우표 없어서 편지 못하냐고 비아냥대던 친구들의 편지들이 장롱 서랍에 들어차 있다. 매년 버리는데도 서랍이 꽉 찬다. 편지를 쓰지 않으면 편지를 받지 못한다면서 절기마다 명절마다 편지를 쓰고 카드를 보냈다. 크리스마스카드를 보내지 않으면 결코 크리스마스카드를 받지 못한다는 이상한 지론을 펴며. 아내는 편지를 받기 위해 그렇게 많은 편지를 썼던가. “아, 참 곱다!” 노상 감탄을 하며 카드를 고르던 아내다. 친지들에게 편지 쓰는 이런 일도 끝나는구나.

시립도서관 서기를 만나 책 수천 권을 기증하겠다고 했더니 ‘No thank you.’였다. 슈퍼바이저라는 중년의 백인 여성이 단박에 거절을 했다. 책 기부는 고맙지만 기증 받은 책이 많아 창고에 쌓여 있다고 했다. 한국 사람들은 책을 기증하는 데 책을 돌보지는 않는다고 냉정하게 말했다. 책을 교회에 선물하려고 했으나 “불교서적이 많군요.” 하고 거절했다. 거금을 들여서 장만한 한글 팔만대장경 총 100권이 문제였다. 자신도 다 읽지 못한

책이었다. 한국어신문에서 성불사라는 광고를 보고 집에서 200마일이나 떨어져 있는 절을 찾아가 책을 전달했다. 그 절 주지스님이라는 분이 “이 귀한 책을…”이라며 절을 세 번이나 하고 받았다.

“당신 혼자 가요.”

박관음이 고양이 견우직녀가 들어 있는 캐리어를 들고 나왔다. 진도와 선도가 끄끄거리고 집안에서 나오려 하지 않는다.

“나와라, 이놈들아.”

박관음이 부드럽게 말하며 차 앞문을 열었다. 진도가 먼저 뛰어오르고 눈치를 보고 있던 선도가 올랐다. 동물보호센터에서 요구하는 병원 정기검진 서류를 보여주고 견우직녀를 내려놓았다. 진도와 선도가 직원에 끌려가며 뒤를 돌아보았다. 박관음이 차에 시동을 걸었다. 너무 많은 인연을 쌓고 살았구나.

이들 부부가 조금 망설여지는 게 있었다. 우리가 세상을 떠나고 나서 남편은 생일 때마다, 결혼기념일마다 작은 보석 반지를 끼워주었다. 굿월 악세사리 취급하는 코너 유리상자위에 물건을 올려놓았다. 직원이 급히 매니저를 불러 이들 부부가 내놓은 물건이 너무 이상하다고 일렸다.

매니저가 블랙 사파이어 반지, 붉은 산호반지, 호암석반지, 청옥반지를 들여다보며 “이것 진품들이죠?” 하고 물었다.

“슈어,”

품목을 작성하고 확인하며 ‘혹 도둑 물건 아닐까’ 의심하는 듯해서 아이디를 보여 주었더니 ‘Thank you.’를 연발했다.

얼마 있으면 지상에서 없어질 사람이라고 말하려다가 그냥 뒤돌아 나왔다. 이런 물건들을 누구인가 준다는 것은 부담을 주는 것이다. 받는 사람들은 그 물건의 값을 따지려고 보석상에 가서 감정을 받으려고 할 것이고, 아니면 죽은 사람의 소장품을 간직하는 걸 꺼림칙하게 생각할 것이다. 더구나 아는 사람들에게는 이런 물건들은 추억이나 사건들을 떠올리는 계기가

될 것이니. 물질은 사후 인연이 끝나는 것이니 들춰낼 필요가 없는 것이다. 모르는 사람한테 가면 몰라보니 괜찮을 것이다.

서울에 도착하자 그들 부부는 을지로에 입구에 있는 롯데호텔에 방을 정했다. 그러고는 각자 무슨 볼 일이 있는 사람들처럼 일주일 후에 다시 만나기로 하고 헤어졌다.

성옥림은 넓은 호텔방에 앉아서 먼저 하나밖에 없는 동생을 불렀다. 동생이라고는 하지만 75세의 노년으로 머리가 하얗게 세었다. 가끔 한국 방문에서는 동생네 집에 머무는 게 보통이어서 그 집일은 궁금하지 않았으나 올케가 아프다는 소식 때문에 부른 것이다.

“누나, 이거.”

“이게 뭐냐. 호떡이네.”

“누나가 퇴근하면서 집에 올 때 늘 호떡을 사다줬잖아. 출출할 때여서 그 호떡이 얼마나 맛있던지. 지금 호떡은 고급스러운데 그때만큼 맛이 없어. 그래도 누나 생각하면 내가 시장통으로 호떡을 사러 간다구. 애들도 고모님 호떡이라며 잘 먹고.”

“그랬니? 이 호떡 맛있다. 너도 먹어라.”

“의사인 네가 보기에 올케의 병은 어떤 상태냐?”

“우울증 증세인데 올 봄 구라파 여행 갔다 와서 나왔어.”

“안심이다. 여행 많이 가게 해줘라.”

아직도 천진스런 동생에게 누나가 곧 죽을 거라는 말을 차마 못했다. 눈치는 채고 있을 테지만.

친구들에게 전화를 걸기 시작했다. 휴가철마다 한국방문에서 한두 명을 만나 소식을 전해 듣고는 일정이 바빠 깊이 있게 만나지 못했다. 상업학교 졸업 후 지금까지 연락을 하고 지내는 친구들 기연, 해련, 증자, 선혜로 중학생 때 만나 이제 80을 바라보는 나이가 되도록 연락 가능한 친구들이다. 우리는 고등학교 시절 우연히도 주산 반에서 만났다. 어느 여름방학이었는데

데 주산 선생님이 우리를 불러서 여름방학 특별 과외를 시킨다고 했다. 선생님 말씀은 여름방학이 끝나고 바로 문교부에서 주관하는 주산대회가 있다는 것, 우리 학교에서 주산반 우리들을 내보내기로 했다며 훈련에 들어가겠다고 말씀하셨다. 무엇보다 합숙 훈련을 한다는 소리에 우리들은 가슴이 두근거렸다. 선생님들이 숙직할 때 사용하는 숙직실 건물에서 함께 기거하며 함께 밥 먹고 함께 자고 함께 주산 연습을 한다고 했다. 우리들은 합숙에 앞서 학교에서 부모님께 드리는 합숙 사유서에 부모님들의 직인을 받아야 했다. 우리 엄마는 열심히 하거라며 내심 좋아하는 편이었다. 그러니까 그해 주산대회에서 내가 1등을 하고, 기연과 혜련이 동점 2등, 선혜와 증자가 동점3등이라는 기록을 세우고 주산대회의 1, 2, 3등을 다 차지해버렸다. 우리가 전 학년 조회 때 영예로운 트로피 전달식을 할 때의 그 벅찬 순간은 말로 형용할 수 없다. 그후 계산기가 나오고 컴퓨터가 나오고 주산에 대한 관심이 없어지고 말았지만….

호텔의 스위트룸이 넓지 않았다. 추억을 공유한 다섯 명의 노인들의 수다가 끝도 없이 이어졌다.

“점심 먹으러 가자. 롯데호텔 그랜드볼룸에 예약해 놔어.”

“성옥림이 롯데호텔을 잘 알지. 옥림이가 여기 2층에 있던 조흥 은행에 제일 먼저 취직을 했잖아.”

“맞아, 옥림이가 첫 월급을 탔다며 한턱 내겠다고 해서 우루루 몰려왔는데, 글썄 시청 앞 아사원으로 데려가서 자장면을 시키는 거야.”

“뭔가 특별한 중국요리를 기대했던 우리들은 멍해졌지. 그러고는 롯데호텔 2층 조흥은행사무실 앞 로비에서 기다리라고 하더니 커피를 타가지고 나오는 거야. 어휴 이 깝정이… 그것뿐이냐. 즈네 은행에서 벌리는 ‘전 국민 통장 만들기’ 캠페인에 우리보고 들으라고 했잖아.”

“우리는 개인 통장은 물론 2년짜리 정기적금까지 들었잖아. 나중에 알고 보니 옥림이가 제일 많은 개인 구좌를 모아서 모범은행원으로 뽑혔더라

고.”

“맞아. 친구를 이용하다니 일순 꽤 씹혔는데, 나중에 보니 이 통장들이살림 밑천이 되었어. 그때 우리 계모임 하자는 얘기도 나왔는데 옥림이가 ‘계를 들면 위험해. 은행거래를 해야 나중에 혜택이 있어. 두고 봐.’ 했는데 그 말이 맞더라고. 주택청약도 빨리 해서 집 마련될 거뜬히 했잖아. 똑똑한 친구 뒤서 덕본 게 많았네. ㅎㅎㅎ.”

“S여상 주산클럽 유명했지.”

“주산대회 나가서 상 받았단니까 은행에서 데려갔잖아. 우리 다섯 주산클럽 만세다!”

“ㅎㅎㅎ 얼마나들 웃었는지.”

“내가 시간이 별로 없어.”

성옥림이 간절한 표정이 되었다. 이 친구들은 건강해 보인다. 백세 시대라니 이 친구들은 그 영화를 누리리라.

“그럴 테지. 한국이 매년 달라지니 구경 많이 하고 가라.”

“그래야지. 그런데 내일은 신라호텔 뷔페 하자.”

“히야, 거기가 제일 비싼 곳이라는데?”

“두 번도 아니고 한턱일 텐데… 괜찮아.”

“그리고 그 일식 나마스텐가 뭔가 하는 데도 알아봐.”

“그건 일인분에 오십만 원쯤 된다는데, 성옥림이 이번에 한 풀고 갈라나 보다.”

“완전 식도락이네. 돈 많은 친구 있으니 좋구나.”

“그래, 이 나이에 다시 여행 오겠니.”

소녀 시절의 주산클럽은 노인 클럽이 된 것 말고 변한 것은 없다. 다들 건강하고 유쾌하다. 젊은 시절 좋은 직장 갖고 착실하게 살았으니. 잘 된 일이다. 이 친구들은 슬픔이 없어보였다.

박관음은 팔공산 깊숙이 숨어 있는 암자로 향했다. 동대구역에서 내려 택

시로 파계사로 갔다. 파계사에서 성전암까지 찾길은 나 있지만 돌이 깔린 길이라 운전기사들이 별로 좋아하지 않는 곳이다.

“성전암까지 가주세요.”

“네에, 불자시죠?”

“아닙니다만 가끔 이 암자를 찾습니다. 20여 년 만에 오는데 여긴 변한 게 별로 없네요.”

“여긴 개발이 안 돼서. 성전암 철웅 스님 유명하시죠. 우리 집사람이 신도라서 저도 가끔 옵니다.”

“스님이 유명합니까?”

“설법을 잘 하십니다.”

“여기...”

“오만 원 짜리네요. 만원만 주세요.”

“넣어주세요.”

박관음은 대구 파계사 어귀 농사꾼의 집에서 태어났다. 손주를 바라던 할머니가 파계사 위에 있는 성전암 관음전에서 백일기도 후에 며느리한테 태기가 있어 낳은 아기였다. 할머니는 관음전 부처님이 점지한아기라 믿고 이름을 관음이라 지어주었다. 할머니의 기도를 들어 준 부처님께 감사드리려고 시주로 쌀 한 말을 이고 갔다고 했다. 관음이라는 이름이 이렇게 지어졌다는 어머니의 전언이었다. 관음이 두 돌이 좀 지나서 온 가족이 서울로 이주해 살았다. 이후 그곳과는 별 인연이 없어 보였다. 세월이 많이 흘렀는데 박관음이 성전암을 떠올린 것은 딸 유리가 죽은 후 아내의 슬픔을 달래 줄 곳을 찾다가 생각이 난 것이다.

유리의 죽음으로 심신이 탈진하다시피 한 아내를 부축해서 성전암에 오른 것은 밥 짓는 냄새가 피어오르는 저녁 무렵이었다.

“그래, 박 처사라 했나? 느그들 사이에 웬 계지바가 앉아 있노?”

스님이 박관음 부부를 보자마자 한 소리다. 아내가 놀라서 몸을 간수 못

하고 쓰러지려 했다.

“실은 우리 딸애가 얼마 전에 죽어서 우리가 슬퍼하다가 스님을 뵈고자 찾아왔습니다.”

“잘 왔다. 자, 작설차 한잔 해야지? 작설차 뭔지 알지? 순이 돌기 시작하는 어린 차 잎을 채취하여 튀어 만든 차다. 차 잎이 뾰족하게 말려들어 참새의 혀바닥 같다고 해서 붙인 이름이다. 여기 성전암 물은 약수다. 보통 차는 물을 끓여 식혀서 따끈한 물에 차 잎을 띄워 천천히 우려가며 마시는데 오늘 만난 두 분은 열이 많은 분이라 차를 찬물에 띄웠으니 그리 알고 드시게나.”

스님은 우리의 슬픔 따위가 뭐 대수로운 일이나는 듯 엉뚱한 소리만 하셨다. 차가운 작설차를 마시는데 온몸으로 생생한 청량감이 느껴졌다. 스님이 계속 말을 이어갔다.

옛날 부처님 시절 얘기다. 부처님이 탁발을 하러 마을에 내려갔는데 어느 집에서 여인의 울음소리가 났다. 스님이 여인을 불러 연고를 물으니 며칠 전 남편이 죽어서 슬퍼하노라고 했다. 부처님이 여인에게 말했다. 여인이여, 지금 바로 나가 이웃집 대문을 두드려 물어보라. 죽은 자가 없는 집이 있는지 찾아보라. 집집마다 어느 집은 아버가, 어떤 집은 어미가, 어떤 집은 아들이, 어떤 집은 딸이 과연 죽은 자가 없는 집이 없었다

여인은 즉시 깨닫고 부처님의 제자가 되었다는 이야기.

“처사는 동의보감을 누가 지었는지 아시지?”

박관음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난다는 듯 머뭇거렸다.

“어느 젊은이가, 진짜다 이 말, 동의보감 드라마의 주연 배우 전 머시기가 지었다고 해서 웃고 말았는데 이 책을 지은 허준 선생이야말로 한국이 낳은 성의고 신의다.”

허준의 동의보감에 따르면 인간에게는 일곱 개의 감정이 있는데 기쁨(희喜), 노여움(노怒), 슬픔(哀), 두려움(구懼), 사랑(애愛), 싫어함(오惡), 바람

(욕欲)을 말한다. 이 칠정(七情), 감정들은 인간 육체 그 중 오장(五臟)에 영향을 미친다. 정신과 육체가 떨어져 있지 않다. 오장이 된 줄 알제? 오장은 간장, 심장, 비장, 폐장, 신장을 가리킨다. 기뻐하면 심을 상하고, 화가 나면 간을 상하고, 생각을 많이 하면 비를 상하고, 슬퍼하면 폐를 상하고, 두려워하면 신을 상한다. 알겠나? 너무 슬퍼하면 폐가 상한다는 말을 명심하게.

스님이 차 옆이 가라앉은 찻잔에 약수를 부으며 말했다.

“딸이 죽었는데 제가 죽은 줄 모르고 부모 곁에 딱 붙어 있다. 이 애가 제 갈길 가도록 내 빌어주마. 죽은 지 며칠 됐다고?”

“일주일이지났습니다.”

“처사 부부가 이 애를 떠나보내는 게 우선이다.”

“어떻게 떠나보내지요?”

입을 다물고 있던 아내가 말했다.

“어서들 미국으로 돌아가서 하던 일을 계속하시오. 당신들은 인재이니 주저 말고 일하시어 사회에 봉사하시오. 의식은 내가 할 테니.”

철옹 스님은 상자를 불러 법당에 49재 의식을 준비하라고 일렀다. 불교에서 행해지는 49재란 죽은 사람의 명복을 비는 천도의식이다. 죽은 영혼이 좋은 곳에 태어나도록 기도하는 의식이다. 사람이 죽으면 다음 생을 받을 때까지 49일 동안 중음, 즉 죽은 후 다음 생을 받기까지의 기간을 말하며 이 기간 동안 다음 생을 받을 연이 정하여진다. 하여 7일마다 불경을 읽고 부처님께 공양하는 하는 의식을 한다. 알았나? 죽은 자로 하여금 좋은 생을 받기를 바라는 뜻에서 49일 동안 재를 지내는 것이다.

49재가 어떻게 해서 생겼는지, 내가 옛날 얘기 하나 해줄까. 부처 제자 중 지혜를 담당하는 문수보살이 있어. 신라시대의 승 자장율사가 문수보살을 친견하려고 정암사라는 절에서 기도를 하며 머물렀는데 자장이 고승으로 유명해져서 교만이 들어갔을 때지. 그때 거지로 변신한 문수보살을 알

보고 만나지 않았는데 뒤늦게 문수임을 깨달은 거야. 자장이 바로 문수보살을 뒤를 따라 하늘로 가서 문수를 만났지. 문수가 자장의 진심을 알아준 거지. 자장이 기뻐하며 제 자리로 돌아와 보니 육신이 화장한 뒤였어. 이때부터 자장의 사십구재가 시작되었다는 야사다. 야사. 49재는 살아있는 자들이 스스로 위로 받고 싶어서 하는 행위다.

“알겠나? 자네들 부부 딸이 좋은 곳으로 갈 테니 믿고 딸 걱정은 하지 말거라. 알겠나?”

스님이 거처하는 방에 병풍처럼 꽂혀 있던 한글대장경 100권을 주문한 것도 그때였다. 팔만대장경을 다 읽으려면 127년이 걸린다고. 집으로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아내가 말했다.

“철옹 스님을 뵈러 온 것 잘한 것 같아요. 철옹 스님이 유리의 천도의식을 해주셔서 감사드려요.”라고 했을 때 아내의 얼굴에 안도의 웃음이 퍼진 것을 보았다.

그러나 우리 부부는 딸의 사후 20년의 세월 동안 딸의 흔적을 끌어안고 사는 못난 중생이었다. 슬퍼하면 폐가 상한다고 했는데 그 말이 맞았나 보다. 이 암자는 변한 게 없다. 공양주가 있는 부엌 앞마당 명석 위에 빨간 고추가 널려있고 명석한 귀퉁이에서 누런 개가 늘어지게 자고 있었다. 법당 뒤편에 신발 몇 켤레가 가지런히 놓여 있었다. 공부 중인가 보다. 아무도 나오지 않고 아무도 내다보지 않는다.

“스님 계십니까?”

“누꼬?”

스님은 노쇠해 있었다.

“스님, 오랜만입니다.”

“아, 박 처사 왔구료.”

“여러분들, 이제 하산하세요. 새 손님 왔으니.”

스님은 어제 만난 사람처럼 스스럼없었다. 반질한 장판이 깔린 온돌은 암

자이라기보다 옛 선비들의 방 같았다. 작은 책상위에는 언제라도 붓글씨를 쓸 수 있는 지필묵이 가지런하고 그 옆에는 성전암 예의 그 약수가 준비되어 있었다. 청자 빛 조그만 찻잔에 차를 따르는 스님의 모습은 진정 상대를 공경하는 마음으로 비쳤다. 절을 찾는 손님들에게, 아스팔트길을 험퍽이며 달려온 중생들에게 “차 한 잔 하시게” 하는 스님의 한 마디는 일단 정지의 신호 같았다.

“예, 스님 뵙고 싶어서 찾아왔습니다.”

“이 사람, 나도 반갑네.”

“이제 갈 길은 한 곳밖에 없는 줄 알게 되었습니다.”

“와, 니 죽나?”

“80을 살았으니…”

“이보시게, 나는 94세야. 처사는 10년은 더 살아도 된다.”

“저와 마누라 둘이 똑같이 폐암 수술을 받았는데 전이되어 수명 2개월이라는 의사의 선고를 받았습니다.”

“내가 말했재? 슬퍼하면 폐가 상한다고. 의사들이 뭘 안다고. 의사들 저 것들도 병 걸려서 스님 살려주세요 하고 내게 온다.”

“아내가 혼자 죽기가 무섭다며 함께 죽자고 하는데…”

“함께 죽을 수가 있다. 죽음도 각자의 근기에 달려 있는데.”

“그래서 스님께 의논하러 왔습니다. 함께 죽는 방법을 알려주십시오. 지난번 방문했을 때 스님이 비약을 제조해서 갖고 있다고 하셨지요?”

“와?”

“그 비약이 필요합니다.”

“예끼 이 사람아, 비약이 먹고 죽는 약인 줄 알았나?”

“스님께서 돌아가실 때 저 지리산 꼭대기에 구덩이를 파고 속 들어가서 뚜껑을 덮겠다고 했고, 그 전에 온몸을 말리는 무슨 비법을 사용하실 거라고 하셨기에.”

“비법은 무슨 비법… 처사, 차 한 잔 더 들게. 정신 좀 차리게나.”

스님은 느리게 일어서더니 관음 씨를 암자 뒷방으로 데리고 갔다. 한약냄새가 은은하게 배어 있는 방이었다.

“여기 보시게나. 천정에 매달아놓은 이것들이 다 약초들이라네. 내가 특히 잘 간직하는 게 송이버섯 말린 거지. 송이버섯은 소나무의 낙엽이 쌓인 곳에서 아무도 몰래 숨어 자란다. 나만 그 장소를 안다. 송이버섯 있다고 알려주면 사람들이 산을 쑥밭으로 만들어 놓는다. 단백질, 비타민, 미네랄 섬유질도 풍부하고 변비도 없어진다. 소화가 잘 되어서 피부를 윤택하게 만들어준다. 이런 보약이 어디 있겠나?

당신처럼 죽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나를 찾아오지. 그럴 때 ‘잘 죽으시오.’ 하며 여기 있는 약초 몇 가지를 건네지. 그러면 대부분은 화를 낸다고. 죽는다는 사람한테 죽는 약 주는데 ‘진짜 죽으라는 거요?’ 하면서 화를 낸다고. 허허허. 죽고 싶다고 하는 사람들이 실은 죽고 싶지 않은 거야. 살려달라는 거지.

여기 매달아놓은 것들이 독초겠소? 내가 명색이 도 닦는 스님인데, 사람 살리는 일은 못할망정 독초를 주겠소? 팔공산을 헤매며 채취해서 말려 놓은 약초들이라오. 여기 산 약들을 다려 먹으면 우선 심신이 안정되고 소화가 잘 되고 혈액 순환이 잘되고 일주일만 먹으면 얼굴이 보양계 피어난다오.”

아, 이제 생각나네. 처사가 구입한 한글 팔만대장경 읽어보았소? 바쁜 현대인들이 이 책을 읽기는 어려운 법, 그러나 박 처사 부부에게 강권하노니, 지금부터 죽기 전까지 이 장경을 읽으시오. 팔만대장경을 모두 읽으려면 한 사람이 하루 8시간씩 읽었으면 당신들의 생명이 30년 연장될 것이오.

“우리 부부가 죽음을 코앞에 놓고 있는데 이런 장경이, 보약이 무슨 소용 입니까. 오래 함께 살았으니 죽는 길 함께 하자는 생각뿐입지요.”

“하야, 박 처사 고집이 똥고집이오. 이봐요, 처사. 부부가 오래 동고동락

했어도 삼세가 다른 법이오.”

삼세란 전생, 현생, 내생의 세 가지 생애를 말하는데 전생에서 지은 업에 대한 과보를 현생에서 받게 되며, 현세에서 지은 업에 대한 과보를 내생에서 받는다는 불교의 업보설이며 연기설이다. 내용이 복잡하고 어려워. 한 10년 공부해도 머리 나쁜 자속들은 깨치지 못하는 이론이지.

기독교에서도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예수께서 얼마나 쉽게 설명했냐고. 이걸 목사들이 예수를 믿으라는 얘기라고 해석을 제멋대로 한단 말야. 천국의 열쇠를 누가 쥐고 있다느니 하면서. 열쇠는 자신들이 쥐고 있다는 소리요. 인과응보를 얘기한 거다.

박 처사, 약 먹고 죽고자 한다고? 이거 자살한다는 거 아니요. 자살은 살생이니 불교에서 금하는 일이라는 것 알고나 계신지. 사람은 누구나 죽는다. 가만있어도 죽을 텐데 무엇 때문에 자살을 해서 살생을 하겠다는 거요. 살생을 하면 그에 따라 일어나는 연을 어찌 하겠다고.

스님이 독경을 해주셨는데 나는 그 소리를 들으며 눈물이 났다오. 그러고는 편해져서 깊은 잠에 빠졌는데 스님은 새벽 예불할 때까지 내게 독경을 해주셨던 거요.

불교에서는 원칙적으로 자살을 금지하고 있다. 석가모니조차 자신을 불사르는 소신공양에 대해 언급한 적이 없다. 살생을 금하는 종교가 분신자살을 부추길 이유가 없는 것이다. 스님의 독경소리가 귀에 쟁쟁하다. 그 암자에 가면 이상해. 잠도 잘 오고, 밥맛도 좋고, 따뜻한 장판방에 열십자로 누워 자고 나면 온몸이 거뜨해지거든. 살겠구나 하는 느낌이 들어. 스님이 말씀하셨어.

‘해로동혈(偕老同穴)’이라. 부부가 ‘함께 늙어 같은 무덤에 잠들다’라는 뜻이야. 당신 부부 원대로 함께 잠잘지어다.

“이 뭐꼬? 돈 봉투? 너무 많다. 반만 여기 상좌스님한테 주고 가라.”

답답한 마음이 확 풀렸는데 그 정체를 모르겠어. 스님이 우리 가는 길을 끝까지 지켜본다는군. 바른 길로 가라고 하면서. 그렇게 하면 두 혼이 만날 거라 하셨어. 그 암자 공양주음식 솜씨가 아주 좋더라고. 당신이 만든 음식 같았어. 내 입에 딱 맞았어. 아무 양념도 안한 김장 김치가 얼마나 개운한지 밥맛 나더라고. 된장찌개 맛도 좋고, 가지, 호박, 산나물 다 맛있었어.

“당신은? 친구들하고 재미있었어? 이 방에 들어서는데 당신 얼굴이 환하게 빛나더군. 무슨 환희가 있었을까?”

“있지요, 있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옛 이야기하며 떠들고 웃었어요. 오해도 풀고. 정말 재미있었어. 웃음이 계속 나오고. 여보, 난 말야, 지금 아주 행복해. 친구들 만나서 잘 지내라고 인사를 하고나니 마음이 이렇게 편할 수 없어. 이제 됐다. 당신과 손잡고 죽음의 나라 어디든지 갈 수 있어. 우리가 지금 이렇게 손을 잡고 있는데 아무도 우리를 갈라놓지 않을 거요. 그런 확신이 들었어요. 그래서 기쁜 거죠.”

“당신 도통했구만. 도통이 별 것 아니더라고. 당신처럼 확연히 자신을 깨달으면 도통인 거요.”

사람이 죽으면 어디로 갈까. 스님은 천국도 지옥도 없는 공이라고 하시던데. 종교에서 지옥이다 천국이다 하는 것은 중생을 가르치는 비유요 방편이라는 거야. 근기가 약한 대중들에게는 불효하고 거짓말하고 사기치고 살생하면 지옥 간다고 은근히 겁을 주며 바르게 살라고 하는 경고라. 부처님 가르침대로 살라는 거지. 스님은 죽음이 삶의 일부라고 했어. 우리 태연하게 죽음을 기다립시다.

“지금 친구가 주고 간 이 책 그리스신화를 읽고 있는 참이네요.”

그리스신화를 읽으며 당신을 기다렸는데 ‘레테의 강’이야기가 흥미 있더군. 레테의 강을 건너면 기억이 없어진다고. 자식에 대한 기억도 남편에 대한 기억도 없어진다고? 그리스신화에 나오는 레테여신 이야기는 참으로 대단한 설정이잖아. 죽은 자는 명계로 가면서 레테의 강물을 한 모금 마셔

야 되는데 그 물을 마시면 기억을 지우고 전생의 번뇌를 잊게 된다. 레테의 강은 알게 모르게 죄를 짓는 사람들에게 얼마나 큰 위로냐고. 레테의 강을 건너기 만하면 과거의 삶의 흔적이 없어지는 거야. 희망 아니겠어. 그러니 죽음이란 새로운 시작이란 말이지.

당신에 대한 기억이 없어진다면 나는 싫은데. 신보다도 인간의 의지가 힘이 더 세다고 스님이 말씀하셨어. 자꾸 원하고 원하면 뜻대로 된다고. 내가 스님 만나고 이상한 체험을 하면서 도통한 것 같애.

죽은 후 손잡고 다닐 필요가 있어? 죽음은 육체를 버리고 혼이 되어 자유로워지는 거야. 우리가 죽어 손이 없는데 형상이 없는데 무슨 손을 잡고 어딜 간단 말어요. 당신도 자유 나도 자유란 말어요. 죽음이란 완전 자유라는 것을 알게 되었소. 이게 얼마나 큰 위로입니까. 괜한 걱정 맙시다.

스님 말씀은 사후의 세계가 이승 사람이 사는 모습 그대로라는군. 비슷한 영혼들이 모인다네. 착한 영은 착한 영끼리. 나쁜 영은 나쁜 영끼리. 혼도 유유상종인가 봐. 혼은 자유로울 테니. 육신이 없는 혼, 얼마나 자유롭겠어. 당신과 내가 반백년 이상을 함께 살았고 저승에도 함께 가려는 의지가 있으니 만날 가능성 99퍼센트.

스님이 그러시더라. 느네 부부가 시한부 인생을 살고 있다고는 하지만 아직 살아 있지 않느냐. 가만있으면 죽을 텐데 뭐 하러 약 먹고 자살하려고 하는 거냐. 다시 말하지만 불교에서는 자살을 금하고 있어. 자살은 곧 살생이라는 거야. 그러니 살생하지 말라고. 느그들 가만있어도 죽는다. 암 수술 의사가 말했다며? 2달 후라? 80이 된 사람은 편안한 마음으로 자연히 숨이 멈출 때까지 기다리는 거야. 그냥 지내면 심심할 테니 대장경을 읽으면서 기다리라고.

내가 기쁜 것은 모든 것을 내가 결정해야 된다는 사실이야. 내세 이야기를 하는 불교도 기독교도 내세에 대한 답은 없어. 저 세상 일은 누가 결정하는 게 아니야. 자신들이 지상에서 하는 거야. 그러니 우리는 이제 우리가

결정을 해야 돼. 가만있어도 인간은 수명을 다 하면 죽는다는 것, 사후는 자유라는 것을….

여보, 마음이 가벼워졌어. 이제는 정말 편안해. 죽은 후도 그리 겁나지 않아. 스님의 버섯 차를 마시며 죽음이라는 친구를 기다립시다. 박관음이 성옥림의 앙상한 손을 꼭 잡았다.



김수자 1999년 『미주 한국일보』 문예공모 소설 당선. 미주 한국문인협회 회원. 달라스한인문학회 회장 역임. 현재 하와이한인문인협회 회원. 소설집 『바람 지나가다』

티나의 짓이 분명하다. 혹시 다른 데에 두었나 하고 기억을 되살려 볼 필요조차 없다. 현금 천 달러를 봉투에 넣어 분명히 안방 화장대 작은 서랍에 넣어두었었다. 그런데 돈이 들어 있는 봉투가 사라져버렸다.

티나는 하나밖에 없는 수미의 딸이다. 그녀는 동부에 있는 A대학에 합격해 곧 집을 떠나게 돼 있다. 수재만 모인다는 A대학에 너끈히 합격해 부모를 한껏 기쁘게 해준 딸이기도 하다. 학교에서는 책임감 강한 모범생으로 선생님들의 칭찬이 자자해 아버로부터는 완전 크레딧을 받고 있는 티나다.

그러나 수미 생각은 다르다. 무슨 엄마가 그리 쉽게 딸을 의심하느냐고 나무랄 수도 있겠지만 수미는 확신한다.

이번 문제는 그냥 넘어갈 수 없다. 티나는 분명히 아니라고 발뺌을 할 것이고, 남편 역시 딸 편을 들 것이 뻔하지만...

수미의 마음은 가슴에 시커먼 돌덩이 하나가 얹혀 있는 듯, 친근만근 무겁다.

수미는 그때 그 일을 지금도 선명하게 기억한다. 티나가 아홉 살이 되던 해였다. 핸드백 지갑에 20달러짜리가 넉 장이 있었는데 석 장밖에 없었다. 그러나 혹시 자신이 잘못 생각했나 하고 그냥 넘겼다. 사실, 돈이 정확히 얼마가 지갑 안에 있는지를 모를 때가 더러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아니었다. 티나 짓이 확실했다.

그 이주일 후 또 그런 일이 생겼다. 많은 액수는 아니었으나 돈이 몽땅 다 없어져버렸었다. 역시 핸드백에 넣고 다니는 지갑에서였다. 엄마의 직감은 정확했으나 티나는 끝까지 발뺌을 했다.

지난번에 20달러 없어진 것까지 들추며 어릴 때 ‘아이를 바로잡아야 한다’는 아내의 주장을 무시하고 남편은 ‘엄마가 어찌 딸을 믿지 못하느냐’면서 티나 편을 들었다. 말이 없고 지극히 조용한 그가 적극적으로 딸을 두둔했다. 수미가 어디다 쓰고 기억을 못 한다는 것이었다. 그들이 너무 완강해 도리어 ‘내가 괜한 의심을 하나?’ 하고 수미가 얼떨떨할 정도였다.

이런저런 상상이 꼬리에 꼬리를 물면서, 어쩌면 자신이 모르고 있는 사건도 더러는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정수리를 친 적도 있다. 마켓에서 작은 물건을 호주머니에 넣고 나오는 것쯤은 마음먹기 달린 것이기에... 그것은 분명히 도벽이다.

어느 날은 친구네에서 인형을 몰래 가져와서 자기 방에 감추어놓은 것을 발견했었다. 고급 프랑스제 인형이었다. 느낌만으로도 ‘몰래 훔쳤다’와 ‘감추어놓았다’는 사실을 확연하게 알 수 있는 상황이었다. 그러나 티나는 아니라고 우기며 부인했다. 친구가 훔다는 것이었다. 친구 누가 훔느냐고 물어도 대답은 않고 엄마를 원망했다.

“돈 훔쳤다고 야단치고 이번에는 인형 훔쳤다고 야단쳐? 엄마는 내가 그렇게 미워?” 하면서 큰 소리로 대들었다. 수미는 어이가 없었다.

“왜 내가 널 미워하니? 안 미워해.”

“뭐? 안 미워해? 지금 미워하고 있잖아. 엄마는 나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왜 무조건 훔쳤다고 그래? 무슨 그딴 엄마가 다 있어?”

엄마에게는 말할 기회도 안 주고 티나는 마지막 한 마디를 남기고는 자기 방으로 들어가 문을 꽁 닫아버렸다.

“친구 누구라면 엄마가 알아?”

엄마를 무시하는 태도가 역력했다. 엄마에게 뒤집어씌우는, 그 미워하는 감정이 티나의 온몸에서 발산되고 있었다. 수미는 티나가 자신이 낳은 딸 같지가 않다는 느낌까지 들었다.

‘엄마가 뭐 어찌겠어? 영어도 못 하면서.’ 하는 소리가 귓전을 때렸다.

보통 때도 엄마가 영어 못 하는 것을 은근히 나타내는 티나다. 천천히 알아듣게 말을 하면 다 이해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일부러 말을 속사포로 쏟아놓으며 못 알아듣게 만든다. 도대체 소통이 안 된다. 정말 못된 딸이다. 수미의 자격지심에서 온 느낌만은 절대 아니다.

‘남편에게 얘기해서 해결을 해야 하나?’

남편은 항상 딸 편을 드니 이번에도 티나 말을 믿을 것이다.

‘만일 티나가 결백하다면 아빠한테 얘기를 하지 않을까?’

하지만, 남편에게서는 별 말이 없었다. 티나는 더 입을 꼭 다물었다. 티나가 거짓말을 한다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수미는 속으로 끔끔 앓기만 했다. 커가면서는 한참은 뜸했으나, 혹시라도 바깥에서 그런 사고를 치면 어찌나 하는 강박감에 시달리기도 했다. 그리고 어떤 일이 꼭 일어나고 있을 것만 같은 불길한 예감이 들어 전화벨 소리에 깜짝깜짝 놀란 적도 있다.

남편은 티나를 철석같이 믿었고, 의견이 서로 맞지 않을 때에도 그는 항상 티나가 옳다고 했다. 머리가 좋으니 판단력도 옳을 것이란 믿음일 게다. 처음엔 맞서서 주장을 펴봤으나 결과는 늘 수미의 참패였다. 언제나 스코어는 2대 1이니 게임이 안 되었다. 그냥 입을 꼭 다물고 있는 것이 자신을 보호하는 최선의 길이었다.

하고 싶은 말도, 꼭 해야 할 말도 표현을 못 하고 참고 사는 것이 어렸을 적부터 잘 길들여진 수미 삶이다.

수미는 태어나자마자 부모님의 얼굴도 모른 채 고아원 문 앞에 버려졌다. 자라면서 그녀는 ‘내 부모는 어떤 사람일까? 왜 나를 버렸을까?’ 하는 고민 속에 빠져 잠 못 이루는 밤도 많았다. 깊고 고요한 밤 고아원 문 앞에 자신의 분신을 버려놓고 눈물을 흘리며 숨어서 지켜보는 엄마의 모습도 상상해 봤고, 뒤도 안 돌아보고 달아나는 엄마의 울음소리도 상상해 봤다.

고아원 하늘에 피어 있는 고은 노을을 쳐다보며 ‘우리 엄마는 이 세상 사람이 아닐 거야. 아마 저 하늘나라에 있을 거야.’ 하는 생각도 했었다. 이 세상 사람이라 하더라도 수미에게는 아무런 연결고리가 없다.

다른 아이들의 서류함에는 이름과 생년월일을 적은 쪽지가 거의 다 보관되어 있는데 수미에게는 아무것도 없다. 고아원에 들어온 날이 생일이었고, 이름은 원장이 지어주었다. 버려진 아기에게는 아무런 흔적도 남아 있지 않았던 것이다.

수미는 어린 시절을 무사히 넘기고 고아원 살림살이 전반의 일을 맡아 생활을 하면서 어렵게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생이 되었었다. 입학금은 겨우 마련이 되어 등록은 했으나 그 다음이 문제였다. 계속 학비를 조달하는 것은 어렵도 없는 일이었다.

그때 일찍 고아원을 뛰쳐나가 공장에 다니는 친구의 권유에 수미는 혹했었다.

“너는 대학생이고 얼굴도 예쁘고 늘씬하니까 본사 비서실에 들어갈 수 있어. 내가 실장한테 얘기해 봤으니 꼭 될 거야.”

그러나 친구는 공장에 다니는 것이 아니고 유흥업소의 호스티스로 일하고 있었다. 아무 것도 모르고 있다가 결국은 그녀의 유혹에 넘어갔다는 것을 알았을 적에는 이미 때는 늦었었다. 하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학비는커녕 당장 먹고 살 길이 막막했으니까.

참 힘든 세상이었다. 그 힘든 세상에서 수미가 터득한 것은 그 누구도 믿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었다. 그리고 자신을 그대로 드러내서도 안 되는 것이었다. 불신으로 푹푹 멍친 그녀 눈에는 세상에 온통 마귀들만 득실거렸다.

대학생이라는 신분 덕에 수미는 일류 호스티스로 인기가 대단했다. 타고난 미모와 몸매가 한몫을 더했다. 학교에는 벌써 휴학계를 낸 상태였으나 수미는 언제나 대학생으로 통했다. 철저히 포장을 한 것이다. 되도록 포장을 하고 살아야 하는 것이 그녀가 사는 세상의 현실이었다.

자신이 고아라는 사실도 숨기고 싶은 수미다.

‘고아가 된 것은 내 잘못이 아니다. 내가 원해서 고아가 된 것도 아닌데 왜 나는 고아라는 사실을 숨기려고 애쓰며, 부끄러워하고 주눅 들어야 하는 것인가?’

고아를 바라보는 세상의 눈이 차갑기 때문이다. 본인은 아무 잘못이 없고, 어려운 환경에서도 나쁜 짓 안 하고 착하게 살아도 세상은 비정하다. 수미 역시 착하게 살았다. 그러나 학교 다닐 때에 선생님으로부터 차별대우를 받았고, 아이들에게서도 왕따를 당했다. 참 억울하다. 이 모두가 다 부모에게서 버려졌기 때문에 겪는 일임은 틀림없다.

‘오죽하면 자식을 버렸을까? 그럴 수밖에 없는 사정이 있었겠지.’ 하고 낳아준 엄마를 이해하고 또 미화시켜서 홀로 상상을 한 적도 있다. 그러나 밀바탕에는 늘 원망이 깔려 있었다. 포장을 하고 살아야 하는 것도 부모 탓이라 생각을 하니 그들도 이 세상에 들끓는 마귀와 다를 바 없다고 느껴졌다.

포장, 거기에는 또 하나의 비밀이 숨겨져 있다. 착한 일 중에서도 지극히 착한 일을 한 사실에도 수미는 포장을 덮어씌우고 있다. 그녀는 신장이 하나밖에 없다. 고아원에 있을 때, 신장 하나를 떼어냈다. 같은 고아원에 있

는 생명이 위독한 친구에게 이식을 해준 것이다. 수미와 가장 친한 친구였다.

공장에 다닌다는 친구의 꼬임에 빠져 고아원을 나온 것이 사실이긴 하지만 신장이식 후, 원장에 대한 불만이 쌓인 것도 또 하나의 이유였다. 대학 4년 학비는 꼭 지급해주겠다던 약속이 입학금 한 번만으로 끝났었다. 그렇다고 학비 때문에 신장을 떼어준 것은 절대로 아니다. 그 당시, 수미는 친구를 살려야 한다는 데에만 급급했었다. 가장 친한 친구를 잃는 것이 두려웠다. 진심이다.

신장 하나만으로도 잘 살 수 있다는 의사의 말을 듣기 전부터 수미는 자신의 건강에 대해 아무런 걱정을 하지 않았다. 그 말을 들은 후에는 백프로 그대로 믿었고, 그 믿음이 그대로 이루어졌다.

3

어느 날 아침이었다. 여행을 떠나려고 예약을 하고 보니 시간이 급했다. 행선지는 제주도였다.

부리나케 공항으로 나가 가방을 끌고 뛰다가 수미는 그만 어떤 남자와 맞부딪쳐 나뒹굴어졌다. 그 남자는 끄떡도 안 했고, 수미는 바위에 부딪친 느낌이었다.

남자는 외국인이었다. 그는 수미가 나뒹굴어지자마자 얼른 일으켜주었는데, 뜻밖에도 그의 입에서 “아이쿠, 미안합니다.” 하는 한국말이 튀어나왔다. 미안해서 어쩔 줄을 몰라 하면서 뒤이어 나온 말도 역시 한국어였다.

“어디 다친 데는 없습니까?”

수미는 깜짝 놀라 다시 쳐다봤는데 분명히 외국인이었다. 얼굴이 다른 외국사람과는 달리 이목구비가 선명하지 않고 평퍼짐했다. 키는 작은 편이고 체격은 다부지고 가슴은 넓었다. 그 남자는 그녀와 같은 비행기를 타게 돼

있었다. 서울에 불일이 있어 왔다가 제주도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다.

그들은 이렇게 운명적으로 만났고, 만나자마자 급속도로 가까워졌다.

그의 이름은 데이브 우드였다. 데이브는 제주해양센터의 연구원으로 5년 계약을 맺고 한국에 파견을 나온 해양학박사로 이제 곧 계약기간이 끝나 미국으로 돌아가게 되어 있었다. 수미의 영어 실력보다는 데이브 한국어 실력이 월등히 나아 서로의 의사는 소통을 할 수 있는데도 그는 말수가 극히 적었다.

수미는 고아원에 있을 때도, 호스티스로 일을 할 때도 영어를 접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기에 조금은 귀가 틈었고 외국인에게 호감을 갖고 있었다.

수미는 데이브가 좋았다. 그의 품은 따뜻하고 편안했다. 어려운 일이 닦쳐도 그가 다 해결해 줄 것 같아 든든했다.

데이브 역시 마찬가지였다. 첫눈에 아주 예쁘다는 데에서 단박에 끌렸고, 화장기 없는 깨끗한 이미지에 우수에 젖은 듯한 눈동자가 신비스럽기까지 했다. 보호본능의 감정까지 우러나왔다.

수미는 데이브에게 고아원 얘기는 입 밖에도 꺼내지 않았다. 대학에 입학하자마자 교통사고로 부모님이 돌아가셨다고 둘러댔다. 물론 유흥업소에 나간다는 사실도 숨겼다. 제주도와 서울의 거리 때문에 자주 만나지는 못했으나, 신분은 탄로 날까봐 그를 만날 때마다 불안에 떨었다. 신장이 하나 뿐인 것에도 신경이 쓰였다. 신장 하나가 없다는 것을 여느 때는 의식도 못하고 살아왔는데 데이브를 만나고부터는 그것도 자꾸 마음에 걸렸다.

포장은 두겹 세겹으로 갈수록 늘어갔다. 포장에 벗겨져버리면 그가 떠나버릴 것 같아 사실대로 말할 수가 없었다.

불신의 세계에서 외로움에 지쳐 있던 수미에게 데이브의 존재는 든든한 언덕이었다. 사랑의 힘으로 외로움을 씻어줄 수 있는 넉넉한 강줄기였다.

열 살이라는 나이 차이가 오히려 그녀에게는 의지가 되었다.

데이브는 그녀가 감히 올려다볼 수 없는 거목이고, 자신은 풀포기에 불과하다는 것을 수미는 잘 안다. 차라리 그도 풀포기에 불과했으면 싶다.

그러나 데이브가 결혼하자고 했을 때 수미는 그의 손을 덥석 잡았다.

누군가가 속삭였다.

‘너의 인생을 바꿀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왔는데 왜 망설여? 잡아. 잡아. 데이브의 손을 꼭 붙들어. 사랑하잖아? 사랑은 쟁취야.’

4

한국을 떠나면서 수미는 맹세했다. 다시는 돌아오지 않으리라고. 태어나서 스물두 해, 좋은 기억이라고는 하나도 없는 세월이었다. 그녀는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미국으로 간다는 자체가 좋았다. 하지만, 미국은 좋기만 한 땅은 아니었다.

믿음직하고 든든한 데이브와 결혼을 했지만, 그녀는 자신의 앞날에 대해 확신이 없었다. 뭔가 모를 불길한 예감이 자꾸 앞섰다. 사춘기 때부터 그랬다. 웬지 자신이 빨리 죽을 것만 같다는 엉뚱한 생각에 시달린 적도 있다.

5년 동안의 한국 근무를 마치고 해양연구소 본부로 돌아와 보니, 데이브는 너무나 뒤떨어져 있었다. 그는 어릴 적부터 공부밖에 모르는 공부벌레였다. 항상 수석을 고수했고, 박사학위도 남들보다 일찍 받았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다. 앞서가는 후배들을 따라가려면 그들보다 두배 세배 시간을 투자해야만 했다. 직장에서의 일상이 너무나 바빴고 집에서 밤늦게까지 컴퓨터에 매달려 있어야 했다. 논문 제출할 기일이 급박했을 때는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니었다.

그렇지만 누군가와 같이 있다는 자체가 무거운 스트레스를 덜어주는 데

에 큰 도움이 되었다. 아내와 함께 라는 것이 좋았다. 웬지 결혼을 못 할 것 같은 예감이 늘 앞을 가로막았던 데이브다. 한국에 나가 수미를 만나고, 결혼까지 했다는 사실은 정말 꿈같은 현실이었다. 크나큰 행운이었다.

그러나 데이브에게는 아내에게 관심을 쓸 겨를이 없었다. 오직 직장일이 우선이었다. 첫 대면에서 보호본능의 감정까지 느꼈고, 차차 만나면서는 연민의 정을 깊이 느껴 '이 여자는 꼭 내가 지켜주어야 한다.'고 다짐했던 그였다.

말없이 일에만 몰두하는 남편을 보며 수미는 별별 상상을 다했다.

'혹시 나의 실체를 알아버렸나? 아니면 겉모습에 반해 결혼을 했는데 알고 보니 속이 텅텅 비고 말이 안 통해 실망이 커서 저러는 걸까? 결혼을 잘 못했다고 후회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알 수가 없었다. 알 수가 없는 건 그의 가족관계도 마찬가지였다. 아무리 가닥이 다르다 치더라도 수미로서는 이해가 안 되었다. 그는 다섯 살 때 어머니를 여윈 후, 계모 밑에서 자랐고, 의붓동생이 하나 있었으나, 가족 간의 왕래가 일체 없었다. 수미가 미국에 온 한참 후에 인사차 딱 한 번 만났을 뿐이다.

그때, 시아버지가 하신 말씀은 잊히지가 않는다.

"데이브는 어릴 적부터 참 조용한 아이였어요. 부끄럼을 너무 많이 탔지요. 그래서 나는 아들이 결혼을 못 할 것 같았는데, 내 아들과 결혼해줘서 고마워요."

수미는 집에서 가까운 옥스나드 커뮤니티칼리지 영어 클래스에 다녔다. 계속 다니다 보니 유창하지는 못 해도 웬만한 대화는 할 수 있게 되었으나 공부는 어려웠다.

남편은 여전히 연구소 일에만 몰두했다. 직장 일에 관해서는 일체 말이

없는 남편이라 수미는 그가 무슨 일을 하는지 잘 모른다. 해양학박사이니 바다에 관한 것이라고만 막연하게 짐작할 뿐이다. 수질을 연구하고, 물고기나 조개류가 병들거나 미역, 다시마 등에 관한...

언뜻 이런 생각이 들기도 했다.

'내가 설명을 해주어도 너처럼 무식한 여자가 뭘 알겠니? 다른 부인들은 남편의 논문도 정리를 해주고 하는데 도대체 너는 날 위해 뭘 해줄 수 있니?'

한번은 연구소의 가족 모임에 남편이 수미를 데리고 갔다. 직원들은 물론이고 부인들도 아주 인텔리 여성들이었다. 영어를 겨우 알아듣기는 하겠는데, 무슨 말을 하는지 하나도 귀에 들어오지 않았다. 혹시 누군가가 말이라도 걸어오면 어쩌나 하는 걱정에 그들을 똑바로 쳐다보지도 못했다. 긴장을 하다 보니 배까지 아팠다.

세월이 갈수록 수미는 자신이 남편에게 무용지물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외로웠다. 해가 질 무렵, 저녁노을이 붉게 물든 하늘을 바라보고 있노라면 그만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리곤 했다. 지긋지긋하던 한국이 그리웠다. 집으로 돌아가고 싶었다. 그러나 수미에겐 돌아갈 집이 없었다. 그녀에게는 오직 남편뿐이었다.

어느 날, 남편이 생각지도 못한 뜻밖의 말을 했다. 한국 교회에 한 번 나가보라는 것이었다.

"신앙을 가지면 당신 생활이 활기차고, 지금보다는 더 재미있는 삶을 살 수 있을 거야."

수미도 신앙이 없지만 그 역시 마찬가지인데, 어찌 그런 생각을 했는지도무지 알 수가 없었다. 뽕뽕 뽕 포장이 벗겨질까 겁이 나서 수미는 즉석에서 거절했다. 그리고 곰곰 생각해봤다.

'내가 자기만 바라보고 사는 것이 부담스러운가? 내 삶의 재미를 교회로 돌려 자기로부터 떨어져나가게 하기 위험일까? 그럼 내가 지금 재미없게

외롭게 살고 있다는 것은 알고 있던 말인가?’

무심한 그가 아내의 건강을 챙기기도 했다. 특히 신장을 거론하면서, 꼭 정기검진을 받아야 한다고. 사실, 수미의 한 겹 포장은 티나를 임신했을 때 벗겨졌다. 그녀는 언니한테 신장을 떼어주었고, 언니는 그 일 년 후에 죽었다고 거짓말을 했다.

5

돌이켜보니, 티나를 낳은 후의 2, 3년 동안이 수미에게는 가장 행복한 시기였다. 고아인 그녀에게도 피를 나눈 자식이 있다는 것이 신기했다. 아이는 볼수록 사랑스러웠다. 손가락 발가락 하나하나도 그리 예쁠 수가 없었다. 그것들이 고물고물 움직일 때는 생명의 신비함에 가슴이 떨렸고, 아이가 방긋방긋 웃을 적에는 그녀의 입가에도 활짝 웃음이 퍼졌다.

그 당시, 불현듯 자신을 버린 부모가 떠올라, 뒤엉키는 혼란스러움에 감정을 주체 못하고 휘청거렸던 기억이 지금도 생생하다. 그러다가 ‘오죽하면...’ 하고는 다시는 생각말자며 고개를 세차게 흔들었다. 아기가 태어난 큰 축복을 받았으니 이제부터는 좋은 생각만 하고 싶었다. 아이를 통해 보이는 세상은 더없이 아름답게 펼쳐질 것 같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아이가 커가면서부터 세상은 전혀 예상 밖으로 흘러갔다. 도난 사건이 그 한 이유일지도 모른다. 부부 사이를 이어줄 수 있는 티나라는 끈이 세월이 흐를수록 점점 걸림돌이 되어 가고 있는 것이었다.

티나는 어릴 적부터 아파하고만 붙어다녔다. 남편은 컴퓨터에 매달려 있다가도 아이가 어딜 가자고 하면 두 말 없이 데리고 나갔다. 필요한 것이 있어도 티나는 엄마와는 외출을 안 했다. 엄마의 말에는 무조건 ‘노오’였다.

‘그래? 아무리 모녀지간이라 하더라도 인간은 상대적인 동물이야.’

한때는 이런 오기가 뻗쳐올라 일부러 쌀쌀맞게 대한 적도 있었으나, 딸에게 가까이 가보려고 노력을 안 한 건 아니다. 어떤 땐 아이가 좋아하는 인형을 사와, 거실 탁자 위에 놓아두고는 그게 바닥에 팽개쳐져 있나, 없어졌나를 살피기도 했다. 없어졌으면 티나가 가져간 것이기에 혼자 속으로 좋아했다.

‘엄마가 한국인이라는 자체가 싫은 걸까? 영어를 유창하게 못해 부끄러운 걸까?’ 하는 생각을 한 적도 있고, 수미 자신이 엄마의 사랑이 뭔지도 모르고 자랐기에 ‘내가 딸을 사랑하는 방법을 모르는 것은 아닐까?’ 하는 의문이 들기도 했다.

티나가 커갈수록 수미는 딸이 엄마한테 질투심을 품고 있다는 것을 느꼈다. 티나는 아빠를 판에 박은 봉어빵이다. 바로 그의 분신이다. 엄마를 닮은 구석이라고는 거의 없다.

오래 전에 어느 실없는 부인이 티나 앞에서 아주 묘한 얼굴로 “엄마는 미인인데 딸은 엄마를 전혀 안 닮았네요.”라는 말을 해, 티나는 그날 집에 와서 영영 울었다. 그땐 질투심이라고는 상상조차 못 했다. 그런데 그게 아니었다. 딸이 커갈수록 느끼게 되는 감정, 그것은 분명히 질투였다.

수미 역시 마찬가지다. 남편이 티나를 바라보는 눈에는 그윽한 사랑이 가득 담겨 찬란한 빛이 난다. 수미는 남편의 그 눈빛이 기분 나쁘다.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무조건 티나 편을 드는 그가 야속하다.

‘내가 티나한테 질투를 하고 있는 것인가? 엄마가 딸한테?’

둔기로 한 대 맞은 것 같다.

6

그렇게 부연 안개가 서린 집안에 현금 천 달러가 봉투째 없어진 사건이

터진 것이다. 남편에게 어떻게 얘기를 끄집어내느냐도 문제였다.

돈 봉투가 없어졌을 때, 수미는 열린 티나 방으로 가 샅샅이 찾아보았다. 흔적을 남기지 않으려고 애를 쓰면서 옷장에 걸린 코트 호주머니까지 뒤지는데 답답한 가슴이 터질 것 같았다. 그러나 돈 봉투는 없었다.

예상대로 티나는 자기는 절대로 가져가지 않았다고 극구 부인했다. 남편도 완전히 딸에게 덮여져버렸다. 예상했던 일이다. ‘어디 다른 데에 두고 애매한 사람을 잡는다’는 것이었다. ‘당신 어디 아프냐’고 티나와 똑 같은 말을 하며 남편도 합세를 했다. ‘정말, 내가 어디에다 두고 깜박한 것일까?’ 하고 수미의 정신까지 오락가락할 정도로 그들은 강경했다.

또 입을 꼭 다물어버리는 수밖에 별 도리가 없었다.

입을 꼭 다물어버리는 데에는 피할 수 없는 슬픈 현실이 도사리고 있다. 수미의 영어가 일상적인 대화는 그런대로 통하지만 깊고 미묘한 속마음을 소통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상대방의 마음을 움직여 설득을 할 만한 실력은 더더구나 없다. 남편 역시 마찬가지일 것이다. 그의 한국어에도 한계가 있는 것은 어쩔 수 없다. 수미와 얘기를 하다가도 그는 영어를 자주 섞었는데, 티나가 태어나고부터는 아이에게는 영어만을 사용했다. 그녀 역시 어쭙잖은 영어로 말할 수밖에 없었다. 급할 때는 자기도 모르게 한국말이 툭툭 튀어 나오곤 했다.

어디 다른 데 둔 것일까 하고 곰곰이 생각을 해봤다. 아무리 생각해도 안방 경대 서랍에 넣어둔 기억은 확실하다. 그래도 혹시나 하고 서랍이란 서랍은 다 열어보며 여기저기를 찾아봐도 지갑은 없었다.

‘아, 참. 게스트 룸 생각을 못 했구나.’

수미는 게스트 룸에는 거의 발걸음을 하지 않는다. 항상 텅 비어 있는 게스트 룸에 들어가면 왠지 손님이 된 것 같은 썰렁한 기분이 들어서 싫었다.

‘네가 지금 완전 포장을 하고 살고 있는데, 그 포장이 얼마나 가겠니? 그래서 네가 매일 초조하고 불안하고 더 외로운 거야. 그러니 빨리 실토하고 용서를 구해라.’

조소어린 눈빛으로 누가 훑쳐보고 있는 것 같아 흠칫 소름이 끼친다.

돈 봉투가 게스트 룸에 있는 경대 서랍에서 나왔다. 천 달러도 그대로 있었다. 티나가 갖다 놓은 것이 분명하다. 남편은 대뜸 “그거 봐. 당신이 거기다 둔 게 분명하네.” 하고는 돈을 찾았다면서 곧바로 딸에게 전화를 걸었다. 그는 딸에게 이렇게 말했다.

“엄마가 돈 봉투를 게스트 룸 경대 서랍이 넣어두었어.”

그리고 정신을 어디다 빼놓고 다니느냐면서 앞으로는 제발 정신 똑바로 차리라고 주의를 주었다. 아내 말에는 손톱만큼도 귀를 기울여주지 않았다. 기가 막히고 역장이 무너졌다.

어느 소설에서처럼, 남편과 딸이 합세를 하여 언젠가는 그녀를 정신병원에 처넣을 것 같은 불길한 예감이 들었다. 섬뜩했다. 그들이 몰아붙이면 진짜로 정신병자가 될지도 모를 일이다. 정신 바짝 차려야 한다. 수미는 부모도 형제도 의지가지 하나 없는 외톨이다.

혼자라는 사실이 너무 서글프다.

언뜻, 그들에게서 완전히 버려지는 자신이 상상되었다. 두려웠다.

‘차라리……. 돈 봉투를 게스트 룸에 두고, 그냥 깜박했었다고 남편과 딸의 비위를 맞춰볼까?’

핑, 눈물이 돌았다.

7

티나의 각본대로 연극이 끝난 후 수미는 며칠 동안이나 정신이 멍했다.

어디든 가야 했다. 마음을 다스려야 했다. 정처 없이 달리다 보니 차는 코리아타운 올림픽가에 와 있었다. 두 시간도 더 달린 셈이다. 한글 간판들을 보니 콧잔등이 찡해왔다.

코리아타운에 들어섰을 때다. 암만해도 차의 상태가 보통 때와는 다르다는 느낌이 들어 우선 눈에 띄는 정비소에 차를 세웠다. 차를 들여다보다가 정비원이 깜짝 놀랐다.

“아니 이 차를 어떻게 운전을 하셨습니까?”

큰일 날 뻔했다는 것이다. 옥스나드에서부터 두 시간 이상을 운전하고 왔다는 얘길 듣고 그는 더 놀랐다.

수미는 남편에게 차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 전화를 걸었다. 차에는 도사인 남편이니 정비사와 얘기를 하면 금방 통할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 전화를 바꾸겠다고 하니 그럴 필요가 없다고 했다. 그리고 다음에 이어지는 말에 그녀는 잠깐 어리둥절했다.

차에 문제가 있는 것을 그는 알고 있었다. 지극히 태연한 어조였다. 그녀는 세상이 뒤집어지는 듯한 허탈감에 빠져 그 자리에 풀썩 주저앉았다.

‘운전을 하면 안 될 정도로 차에 문제가 있다는데, 그걸 알면서도 아무 말 안 하다니.’

눈앞이 노래지며 줄줄이 늘어서 있는 차들이 한데 엉켰다. 정비원이 놀란 얼굴로 물었다. 어디 편찮으시냐고.

‘아, 차라리 이혼을 하자고 그러지.’

수미는 남편을 기다리면서 근처 커피숍에 앉아 생각에 잠겼다. 애초에는 여기저기 돌아다니려고 했지만, 도무지 그럴 기력도 생각도 없었다. 그가 언제 올지 모르니 시간은 충분했지만 우두커니 커피숍에 낫 나간 사람처럼 앉아 있었다.

‘내가 먼저 이혼을 제안하자. 날 위해서다. 생명의 위협을 받고는 살 수가

없지 않은가?’

만일 이혼을 하면 재산을 받을 주어야 하는 것이 미국의 법이다. 폼아보니 그가 가진 재산이 꽤 된다. 갑자기 그가 무서워졌다.

문득 남편에게 여자가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었다.

‘혹시 나를 만나기 전에 사귀었던 옛 애인일까? 그렇지, 서른이 넘어 결혼을 한 남자가 결혼 전에 애인이 없었다는 건 말이 안 된다. 와이프가 왜 가지고 어찌 그리 눈치를 못 챘단 말인가?’

생각이 이어질수록 남편에게 다른 여자가 있다는 것이 어느새 기정사실이 돼 버렸다. 남편은 수미보다 열 살이 위이다. 수미는 데이브의 첫인상에서 그렇게 짐작을 했고, 나이가 든 것이 오히려 더 좋았다. 그러나 데이브는 수미가 그리 어린 줄은 몰랐었다. 그 당시 그녀는 스물두 살 애송이에 불과했으나 보기에는 그 나이처럼 발랄하고 풋풋하지가 않았다. 마음 들 곳 없는 청춘이었기에….

실내에는 한국 가곡이 흐르고 있었다.

내 고향 남쪽 바다 그 파란 물-- 눈에 보이네,

꿈엔들 잊으리요-- 그 잔잔한 고향 바다.

지금도 그 물새들 날으리--

가고파라 가고파---

핑 돌던 눈물이 주르르 흘렀다. 다시는 돌아오지 않으리라 다짐을 하며 떠난 고향이 그리움의 파도가 되어 눈앞에서 넘실거렸다.

‘이 노래의 제목이 뭐더라? 이제는 이 유명한 노래 제목도 잊었던 말인가? 내 고향 남쪽 바다? 아냐. 아냐. 그렇지 가고파, 가고파야. 아---, 가고파. 가고파. 정말 가고파다.’

정확히 두 시간 후, 남편이 도착했다. 정비사와 대화를 주고받더니 남편은 그 차로 옥스나드 집으로 돌아가도 된다고 했다. 지금 현재는 별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것이니 안심하라고 태연하게 말했다.

수미는 남편 차에는 익숙하지 못하다. '문제의 내 차를 나보고 운전하라고 할 것인가?' 하는 생각이 뇌리를 치면서 앞이 캄캄했다.

'결국은 나를 죽음으로 몰아넣을 작정인가? 그렇다면 나보고 운전하라고 하지 왜 달려왔지? 그랬어도 내가 운전을 안 하리라는 것을 알기에?'

뜻밖에 그가 이왕 코리아타운에 왔으니 여기저기를 둘러보자고 했다. 온화하고 편안한 표정이었다. 그녀는 그의 제안을 거절했다. 피곤하다는 핑계를 댔으나, 정말이지 남편과 같이 다니고 싶지 않았다. 어서 집으로 가자고 했다. 둘 중 누가 문제의 차를 운전해야 하는지가 빨리 알고 싶었다.

'내가 너무 앞서 갔나?'

남편은 수미에게 자기 차를 운전하라고 말하며 차 열쇠를 건네준 후, 태연하게 문제의 차로 향했다.

"내가 뒤따라 갈 테니 먼저 떠나. 운전 조심하고."

순간 걱정이 되기는커녕 수미는 속으로 외쳤다

'아무리 네가 차를 안다고 해도 정비사만 하겠니? 그래 차라리 네가 죽어라.'

8

운전을 하는 동안 허리가 무겁고 다리가 아팠다. 통증이 점점 심해졌다. 올 때도 조금씩 아프긴 했으나 금세 괜찮아졌고, 운전을 할 때는 자주 그러다가 또 낫곤 해서 별 신경을 안 썼다. 실은, 서너 달 전부터 원다리가 욱신 욱신 저려오고 허리 아래쪽이 묵직했지만 늘 그런 것이 아니어서 이러다가 낫겠지 하고 내버려두었다. 특히 밤중에 더 심했다.

허리 아래쪽이 뜨끔뜨끔해 몸을 좀 움직였더니 갑자기 원다리에 쥐가 났

다. 엉덩이에서 뭐가 쪽 뻗쳐 발가락 끝까지 침범을 했다. 배까지 아팠다. 식은땀이 났다. 그래도 집에까지는 가야지 하고 참아봤으나, 나중에는 머릿속이 텅 비어 하얗게 돼버렸다.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다.

프리웨이 갓길에 차를 세웠다. 일단 차를 세우니 안도의 숨은 쉬어졌지만 통증은 여전했다. 몸을 뒤로 젖히고 머리를 의자에 기대니 눈이 저절로 감겨졌다.

누가 창문을 두드렸다. 실눈을 뜨고 고개를 돌린 수미는 하마터면 외마디 소리를 지를 뻔했다. 웬 남자가 유리창에 코를 문대면서 그녀를 향해 바짝 얼굴을 들이밀었다. 남자의 얼굴이 운동장만 했다. 남편이었다.

그가 얼른 차안으로 들어왔다. 원다리를 칼로 후벼파는 것 같은 통증이 몰려와 수미는 "아.아." 신음하며 다리를 엉겨주춤 들었다. 다리를 위로 올리니 통증이 조금 덜했다.

응급실로 향하는 중, 운전을 하는 남편의 표정이 심각했다. 얼굴에 땀이 송송 솟아 있었다. 그 와중에도 수미는 차의 상태가 궁금했다. 남편은 정비사의 오진이 있었다고 하면서 별 문제가 없으니 안심하라고 했다.

동시에 수미의 입에서는 "근데, 왜 데리러 왔어요? 그냥 오라고 하지." 하는 말이 튀어나왔다.

"당신이 아프잖아."

전혀 예상치 못했던 말에 수미는 침묵했지만 '이 남자가 이런 언변도 있었나?' 하는 의아함이 생겼다.

검진 결과가 나왔다. 원다리에 통증이 온 것은 디스크 증세였다. 3번과 4번 사이의 연골이 흘러나와 신경을 눌렀기 때문이라고 했다. 검진 결과가 나올 즈음에는 아픈 것이 많이 완화가 되었었다.

그러나 일은 다른 데서 터졌다. 신장에서 종양이 발견된 것이다.

조직검사를 한 결과 암으로 판정이 났다. 수미의 것은 신장암 중에서도

신세포암이라고 했다. 암 때문에 나타난 증상은 아무것도 없었다. 옆구리가 아프나, 소변에 피가 섞여 나오느냐 하고 의사가 물었으나 수미에게는 그런 증상이 전혀 없었다. 복부에서 만져지는 멍울은 더더구나 없었다. 또한 발열, 빈혈 등도 전혀 느끼지 못했다. 체중이 좀 준 것은 사실이다. 피로하고 식욕부진일 때가 더러 있긴 했다.

신세포암이란 것이 초기에는 별 증상 없는데 다행히 수미의 것은 초기였다. 최선의 길은 근치적 신적출술을 시행하는 것이었다. 쉽게 말하면 신장을 완전히 제거하는 수술인데 수미에게는 불가능했다. 그녀는 신장이 하나 밖에 없기 때문이다. 잠시 생각에 잠겼다. 신장을 괜히 떼어주었다는.

이런 일이 생기리라고는 상상조차 못했었다. 그때 수미는 신체의 일부를 잘라낸다는 것에 대해 심각한 고민을 하지 않았고, 친구의 살릴 수 있다는 데에만 마음이 쏠렸었다. 지금 생각해보니 원장의 눈부신 화술도 한몫을 한 것 같다.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지만.

‘그 애는 지금 잘 살고 있을까?’

이식수술 후, 고모가 사는 시골로 가게 되어 그들은 헤어졌다. 태어날 적부터 신장이 약했는데, 그걸 모르고 아무런 조치를 안 하고 있다가 그만 두 개의 신장이 다 망가져버린 케이스로 2년을 무척 고생하던 중, 생명이 위험한 상태에 가서야 이식수술을 받게 되었다. 정말 기적이었다. 수미의 신장이 그 애한테 들어맞은 것은 신이 내린 기적이었다. 그 애의 가장 가까운 곳에 수미가 존재하고 있었다는 사실부터가 기적이었다. 또 그 애가 가장 친한 친구인 것도 인연 중의 인연이었다.

‘신장적출은 불가능한 일이니, 전이가 되기 전에 일단 종양을 잘라내야 하겠지? 다행히 초기이고 전이가 되지 않았다고 하니 시간은 좀 벌여줄 거야. 항암치료도, 투석도 병행해야 되고……. 괜히 주위 사람 힘들게 하지 말고 모든 치료를 거부하고 그냥 이대로 내버려둬?’

이리하나 저리하나 이 세상에 남은 기간은 마찬가지로일 것 같다. 아무튼 이식을 받는 것이 최상의 길이지만 얼마나 기다려야 할지는 기약이 없다.

지금 현재 수미에게 신장을 떼어줄 사람은 아무도 없다.

‘이럴 때 부모형제라도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얼굴도 모르는 부모가 그림기 그지없다. 원망과 증오의 대상이 된 적도 있었으나, 이제는 마냥 그림기만 하다. 곁에 있기만 해도 위로가 될 것 같다. 이미 하늘나라에 갔을 것이라고 단정을 지었는데도 불구하고, 천사가 되어서라도 이 세상에 내려와 주었으면 정말 좋겠다는 생각이 가슴에 가득 찼다.

9

‘나는 왜 이리 운이 없을까? 이제 겨우 마흔둘인데 지금 죽는다는 것은 너무 억울하다. 그리고 무섭다. 이대로 죽을 수는 없다. 남들처럼 내세에 대한 확신이 있어, 천당 간다는 믿음이 굳건하면 억울하지는 않을까? 편안한 마음일까? 그럼 나도 지금부터 하나님을 믿어볼까? 천당 간다는 희망을 갖기 위해.’

남편의 말대로 한국교회에 나가 봐? 나의 과거가 탄로 난들 그게 뭐 어때? 삶과 죽음이 맞닿은 상태인데 그런 것이 무슨 대수랴. 만일 하나님이 있다고 믿었더라도 나는 그분을 원망하며 살았을 것이다. 태어나면서부터 지지리도 운이 없었던 나이니까. 남편을 만나 미국에 온 것도 지나고 보니 좋은 운은 아니었다.’

신에게 매달려보고 싶은 욕망이 갑자기 전신을 엄습했다. 원망의 신이 희망의 신으로 바뀌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죽은 자도 살리시는 하나님이니 이깟 병 고치시는 것은 아무 문제도 아니잖아요? 제 병만 고쳐주시면…….”

기도를 어떻게 하는지를 몰라 그냥 말하듯이 중얼거리는데 콧잔등이 시큰해지며 눈물이 핑 돌았다.

“하나님께서서는 제가 그동안 어찌 살아왔는지 잘 아시잖아요. 제가 불쌍하지도 않으세요? 낡자마자 부모한테서 버려져 고아원에서 살다가 친구에게 신장 하나 떼어준 것 아시지요? 그러니까 지금 갚아주셔야 해요.”

기도 중이었다. 뭔가가 뇌리를 휩 스치고 지나갔다.

‘그 애의 가장 가까운 곳에 내가 존재하고 있었다는 사실에서 기적이 비롯되었다면, 그 기적이 내게도 이어질 수 있지 않을까?’

순간, 암이 낫든 안 낫든 간에 믿음을 가지면 평화와 안식을 얻을 수 있고, 자신에게 의지와 위안이 될 수 있다는 깨달음이 왔다.

수미는 매일 정성껏 기도했다. 절실한 마음으로 신에게 매달렸다.

그러던 중, 가정의 평화를 위해 기도하고 있는 자신을 발견했다. 남편과의 관계, 딸과 관계에서 생긴 매듭을 풀어주십사는 기도를 하고 있는 자신을 보면서 수미는 놀랐다. 그리고 그 매듭은 누구도 아닌 수미 자신이 만들었다는 깨달음에 또 놀랐다.

엄마의 상태를 모를 리 없건만 티나는 별 말이 없었다. 하지만 측은한 눈빛으로 엄마를 본다는 것은 느껴졌다. 암 판정을 받은 후부터는 티나에게서 어딘지 달라진 느낌이 수미에게 와 닿았다. 자신의 감정도 그랬다. 딸과의 관계도 그 누구도 아닌 수미 자신 때문에 매듭이 만들어졌다는 사실이 문득문득 뇌리를 쳤다.

항상 딸 편만 드는 남편이 야속했던 수미다. 그런데 아니었다. 오히려 그건 남편이 잘한 일이었다고 감사한 생각까지 든다. 만일 아버지가 엄마 편을 들며 티나를 몰아부쳤다면, 그녀는 지금 어찌 되어 있을까? 아버지가 두둔하며 감싸준 것은 티나가 절실하게 원하는 현실이었다.

수미는 딸이 무엇을 원하는지조차도 몰랐다. 그리고 매사에 표현방법이

지극히 서툴렀다. 말을 하면 편잔을 받았기에 침묵을 지키기가 일쑤였다.

이러한 수미가 티나에게는 무심한 엄마로 비추어질 수밖에 없었다.

돈 잃고 난리를 겪은 일이 아주 옛날같이 아득하다.

10

뿌연 안개 속에서 새 한 마리가 수미의 주위를 날고 있었다. 새의 형체는 선명하지가 않고 색깔만 어렴풋이 잡혔다. 하얀 색이었다. 하얀 참새가 있다는 얘기는 들었으나 참새보다는 컸다. 꿈인지 생시인지 분간이 안 되는 상황이라 아주 희미했다.

어디선가 “엄마, 엄마.” 하고 부르는 소리가 들렸다.

멀리서 들려오던 소리가 점점 가까워졌다. 그리고는 또 점점 멀어지다가 긴 여운을 남기며 사라졌다. 엄마를 애타게 찾고 있는 슬픈 목소리였다.

이 세상 천지에 수미를 엄마라고 부를 사람은 티나밖에 없다.

갑자기 가슴이 쿵쿵 뛰었다. 벌떡 일어나 후들후들 떨리는 다리를 겨우 가누면서 티나 방으로 향하는데 하얀 새가 따라왔다. 방문 틈새로 불빛이 새 나오면서 뿌연 안개는 걷히기 시작했고 하얀 새는 불빛을 따라 티나 방으로 사라졌다.

11

신장암 때문에 디스크는 밀려났다. 다리의 통증도 가라앉아 그 누구도 디스크는 언급을 안 했다. 암의 위력이 크긴 컸다.

요즘은 의학이 발달해서 혈액형이 달라도 웬만큼만 적합하면 신장이식이 가능하니 곧 수술을 할 수 있으리라고 남편은 수미를 위로했다. 그리고 용기를 주었다. 말이 없던 그가 이제야 말문이 트인 듯했다.

그의 진심이 느껴졌다. 고맙고 든든했다. 미안해서 눈물이 났다. 건강할 때는 항상 불안해서 뭔가에 쫓기는 기분이던 것이 건강을 잃고 나니 도리어 마음이 편안했다.

남편을 꼭 붙들면 살 것 같았다. 멀리서 바라보기만 했던 남편이 이젠 수미 곁에 있다는 믿음이 생기기 시작했다. 더 이상 혼자가 아니라는 믿음이…….

응급실에 도착했을 즈음에 수미는 육체의 통증에서 조금씩 벗어났었다. 한데 남편의 얼굴이 그녀보다 더 땀에 배어 있었다. 자신의 통증을 그도 느끼고 있다는 전율이 전신을 엄습했다. 이상했다. 그는 분명히 통증에 시달리고 있었다. 차안에서부터 내내 그랬다. 티나를 임신하고 신장이 하나밖에 없는 것이 탄로가 났을 때도 그랬다. 그 당시에는 겁부터 앞서 그냥 무사히 넘긴 것만으로 안도의 숨을 쉬었었는데, 이제야 그의 진심이 느껴진다. 속였다는 사실에 대해서도 조금도 섭섭해 하지 않고 걱정스런 눈빛으로 아내를 다독거리려 주었다.

그리고 언니에게 신장이식을 해주었고, 그 일 년 후에 언니가 죽었다는 거짓말이 또 추가되었으나 그는 그 말을 그대로 믿었다. 신장이 하나만 있을 경우는, 그 한쪽이 두 쪽의 신장 기능을 하기 위해 더 강해진다고 도리어 아내를 격려해주었다.

‘아, 나는 왜 그 당시에는 고마움을 못 느끼고 이렇게 한참 지난 다음에야 깨닫게 되는 것일까? 인간은 궁극적으로 죽음에 직면해야만 깨달음이 오는 걸까?’

거짓으로 푹푹 뭉쳐 불신만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살았던 수미다. 열등의식에 사로잡혀 혼자 생각하고 혼자 단정 짓고, 혼자 판단하고, 그리고 혼자 괴로워하고 또 울고…….

그렇게 차가운 마음에 가득한 사랑이 눈물의 강을 이룬 것이다. 사랑하는

법을 배울 기회가 없었기에 그 사랑의 물결은 더욱 뜨겁게 넘쳐흘렀다.

정밀검사를 받기 위해 다시 입원을 했다. 마음이 점점 편해졌다. 남편이 그녀 곁에 있다는 확신이 생기고 보니 무서울 게 없었다.

이튿날 아침이었다. 수미에게 맞는 신장이 나타났다는 기적의 기별이 병실로 날아들었다.

‘아, 이럴 수가…….’

진실로 진실로 기적이 이루어졌다. 50%만 맞아도 이식이 가능한데 거의 100%가 들어맞는다고 했다. 당장에 이식수술을 할 수 있게 된 것이다.

꿈인지 생시인지 분간이 안 돼 실감이 안 났다. 그 애가 수미를 보고 웃고 있었다. 지금은 40대의 아줌마가 되어 있을 터인데도 옛날 모습 그대로였다.

“어떤 사람이예요?”

남편은 모른다고 했다. 기뻐서 상기되었던 얼굴에 언뜻 그림자가 드리우는 것 같았다.

공교롭게도 수술 날짜가 티나의 입학식과 맞물렸다. 기적적으로 거의 100% 맞는 신장을 이식받게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티나는 남편처럼 흥분하지 않았다. 집을 떠날 때도 별 말이 없었고 수술 받는 날 아침에도 전화 한 통 없었다. 그래도 섭섭한 감정은 없고 그냥 담담했다. 입학식에 혼자 간 것이 도리어 미안했다. 대학생이 되었다 하더라도 이제부터는 혼자 살아가야 할 티나가 걱정스럽기도 했다.

‘혼자 살아가야 할 티나?’

갑자기 앞이 캄캄해지면서서 엄마 없이 혼자 살아가야 할 티나가 상상되었다. 신장이식은 대수술인데 부정적인 그 1%에 수미가 해당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암 판정을 받고 생사의 갈림길에서 살려달라고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할 때에 수미는 자기 자신 생각만 했다. 엄마 없이 혼자 살아가야 할 딸은 염두에 없었다. 티나 걱정은 손톱만큼도 안 한 것이다. 엄마로서의 자격을 완전히 잃었었던 것 같다.

‘티나야! 미안하다. 아! 이런 내가 무슨 엄마란 말인가? 티나는 자립심이 강하고 현명해 혼자 힘으로도 넉넉히 살아갈 수 있다고 믿는 잠재의식이 있었기 때문에 그랬을까? 나에게서는 남을 걱정하는 마음이 없단 말인가? 고아로 자라서? 피붙이까지도?’

한데, 수술 받는 날 아침, 티나가 기숙사에서 ‘혼자 살아가야 한다’는 생각을 하다가, 그 생각이 이어져 하나의 깨달음이 정수리를 친 것이다. 참으로 혼란스럽다. 엄마 없이 혼자 살아가야 할 하나밖에 없는 딸 걱정을 지금에야 하다니.

‘과거는 다 잊고 이제부터는 딸을 많이많이 사랑해주리라 다짐했는데...’

12

‘여기가 어딜까?’

캄캄한 어둠 속에서 뭔가 허여스름한 물체가 주위를 빙빙 돌고 있었다.

하얀 새였다.

언젠가 한 번 나타났다가 티나의 방으로 사라진 바로 그 새였다.

‘아, 백까마귀다.’

새끼새가 먹이를 날라와 아픈 어미새의 주둥이에 넣어준다는 백까마귀였다. 천 년의 길조를 알리는 전설의 백까마귀였다.

아무것도 분간이 안 되는 상태인데도 새의 형체는 분명히 잡혔다. 백까마귀가 훑훑 나르며 수미 주위를 맴돌고 있었다.

그리고 잠시 사라졌다가 무슨 소리와 함께 다시 나타났다. 귀가 열리기

시작한 것이다.

‘이게 무슨 소리지?’

아주 낮고 느린 목소리였다.

“네가 그동안에 너무 힘들게 살아, 이제는 이 세상에서 더 살고 싶지가 않은 모양이구나. 세상만사 보는 것조차도 두려워 눈을 뜨기가 싫으냐? 눈 뜨기 싫어도 이제는 일어나거라.”

수미는 깜짝 놀라 벌떡 일어났다. 나즈막하고 느린 목소리가 다시 이어졌다.

“그렇지, 일어나야지. 얼른 백까마귀 날개에 매달려라.”

순식간에 백까마귀 날개에 매달린 수미가 훑훑 날고 있었다.

아주 멀리서 무슨 소리가 또 들렸다.

어디에서 들리는지 방향을 잡을 수도 없고 무슨 소리인지 감을 잡을 수도 없었다. 수미는 전신의 힘을 귀에다 모았다. 미세했던 소리가 조금씩 분명해졌다.

그 소리는 눈물을 흥건히 머금고 누군가를 애타게 부르고 있었다. “엄마, 엄마…….”

티나의 목소리였다.

‘티나는 지금 동부에 있는데 어떻게 음성이 바로 옆에서 들리지? 꿈인가?’

“티나야, 어땀니? 엄마 여기 있어. 엄마 여기 있다고.”

입을 열었는데도 소리가 안 나왔다. 눈을 뜨려고 애를 써도 뜰 수가 없었다. 그러나 티나의 음성은 분명하게 들렸다.

“엄마, 벌써 사흘이 지났어요. 의사 선생님은 아무 이상이 없다고 하는데, 왜 아직도 안 깨어나는 거예요. 제발 일어나세요.”

‘아참, 내가 신장이식 수술을 받았지. 그러니까 수술 후, 사흘이 지나도

못 깨나고 있다는 얘기네.’

순간, 아주 낮고 느린 목소리가 획 하는 바람소리가 되어 가슴을 스쳤다. 수미의 의식을 돌아오게 한 바로 그 목소리였다.

“……눈뜨기 싫어도 이제는 일어나거라…….”

가슴을 스친 바람이 갑자기 불꽃이 되어 피어나기 시작했다.

티나가 울고 있었다.

“엄마, 제가 잘못했어요. 내가 못된 딸이었어요. 나는 엄마가 나를 미워하는 줄 알았어요. 아무 관심도 없어요. 그래서 엄마 관심을 끌려고 빛나갔나 봐요. 제가 너무 철이 없었어요. 나 때문에 엄마가 속이 썩어서 병이 든 것도 모르고…. 암에 걸린 것도 다 나 때문이에요. 지금 생각하니 내가 너무 나빴어요. 정말 못됐었어요. 미안해요. 엄마. 엄마, 빨리 깨어나요. 앞으로는 제가 잘할게요. 엄마…. 엄마…….”

‘티나가 티나가, 엄마한테 잘못했다고 빌다니…. 아니다. 아니다. 엄마가 잘못된 게 더 많다. 엄마라는 사람이 어린 너랑 똑같이 굴었으니 말이다.

티나야, 엄마는 말야. 어릴 적부터 고아원에서 눈칫밥을 먹으며 자랐단다. 누구로부터도 사랑을 받아본 적이 없어. 물론 어머니의 사랑도…. 변명 같지만, 그래서 사랑을 어떻게 줘야 하는지를 몰랐나 봐. 나를 지키기도 벅찼으니까. 눈에 보이는 사실만 인정하고 맘속에 있는 내 자식을, 내 사랑을 보지 못했으니 그게 무슨 엄마냐? 다 내 잘못이야. 내 탓이야, 모두 다 내 탓이야! 미안하다. 티나야. 내 딸 티나야!!’

흐느끼던 티나의 음성이 조금은 가라앉았다.

“엄마, 수술도 잘 되었어요. 엄만 이제 새 생명을 얻었어요. 저도 거듭났어요. 우리 이제 한 생명이 되었다고요. 엄마와 한 몸이 되었고, 마음도 하나가 됐어요.”

‘티나와 내가 한 생명이 되었다고? 한 몸이 되고 한 마음이 되었다고? 그러면 티나가? 티나가…….’

갑자기 온몸이 더워왔다. 생명의 불꽃이 서서히 수미의 몸에 피기 시작한 것이다. 온몸을 타고 흐르는 기쁨에 손끝이 찌릿찌릿했다. 뜨거운 눈물이 두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그 순간이었다. 티나가 자지러지듯이 소리를 질렀다.

“엄마! 엄마! 이제 정신이 드세요?”

수미는 “티나야, 티나야.” 하고 계속 불렀다. 입이 조금씩 열렸다. 목청이 터져라 불러대는 그 소리가 작은 신음처럼 새어나왔다.

멀리서부터 한 줄기 찬란한 빛이 가슴 속으로 스며들었다. 주위가 점점 환해지면서 티나의 얼굴이 어렴풋이 시야에 들어왔다.

아직도 수미는 백까마귀 날개에 매달려 있었다.



김영강 본명 이영강(李鎭江). 이화여대 국문과 졸업. 소설집 『가시꽃 향기』 『무지개 사라진 자리』, 중편소설집 『꿈꾸는 우리 가족』, 장편소설 『침묵의 메아리』, 글벗동인 5인소설집 『다섯 나무 숲』, 등 8권의 책과 그 외 한국학교 교재 다수 출간. 미주한국일보 소설 신인상, 예피포도문학상 소설 금상, 해외문학상 소설 대상, 고원문학상, 미주가톨릭문학상 수상. 이화여대 남가주동창회보 편집장, 계간 미주문학 편집장, 미주가톨릭문학 편집장 역임. 현재 미주한국문인협회 회원. kaykim1211@gmail.com

가자미식해가 익는 시간

김외숙

현관 벨이 울렸을 때 나는 급히 창문부터 열었다. 창을 열자 공원으로부터 바람이 밀고 들어왔다. 집안엔 미처 빠져나가지 못한 냄새가 있었다.

현관문 밖에는 수아가 서 있었다. 수아는 어쩌면 내가 끊었던 담배를 다시 시작했다고 여길지도 모르겠다. 눈에도 보이지 않는 틈 사이로 아래층에서 올라오는 담배 냄새 스트레스엔 같이 피우는 것이 약이라고 했더니 수아가 말했다. ‘그러지 말아요, 언니. 힘들게 끊었는데.’라고.

“좀 심하지, 이 냄새?”

현관문 앞에 선 채 좀 큰 소리로 냄새부터 들먹였다. 수아가 몇 번 코를 킁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여행용 가방도 따라 집 안으로 들어왔다. 나는 잠시 가방에다 눈길을 주다가 이내 수아에게로 시선을 돌렸다. 내 시선을 느낀 수아가 눈을 내리깔았다.

“앉아라, 수아야.”

따라온 가방에 대한 궁금증을 다스리며 나는 부엌으로 갔다. 가방을 현관 입구에다 세워둔 수아는 내가 책상 곁 식탁으로 쓰는 테이블에 가 의자를 뽑아내 앉았다.

“작업 중이었어요, 언니?”

컴퓨터의 커서가 내가 쓰고 있던 작품의 끝부분에서 여태 깜빡거리는 것을 보며 수아가 말했다.

“응.”

나는 수아를 돌아보지 않은 채 대답하고는 커피를 내리기 시작했다.

‘얼굴은 왜 저렇게 상한 거야?’

그러나 끌고 온 가방에 대해, 상한 얼굴에 대해 아무것도 묻지 않은 채 졸졸 빠지는 연갈색 커피를 바라보며 속으로 중얼거렸다. 앉아있던 수아가 창가로 갔다. 수아의 눈길이 가 있는 창밖 공원엔 송아지만 한 개를 앞세운 남 녀가 걸어가고 있었다.

‘공원 때문에 언니는 이 집, 못 떠나실 거예요.’

수아는 내 집에 올 때마다 마치 자신이 서 있어야 할 자리인 듯 저 창가에 서서 탁 트인 공원 바라보기를 즐겨 했다. 그때 내가 이렇게 말했던가. ‘넌 더 좋아하잖아.’ 하고.

오랜만에, 그것도 가방까지 앞세우고 내 집을 찾았으니 할 말이 많아야 할 것 같은데 수아는 물끄러미 바깥을 내다볼 뿐 말이 없고 나도 ‘저 가방은 뭐며, 네 얼굴은 왜 그렇게 상했니?’라는 말을 할 수 없었다. 어차피 내가 묻지 않아도 조금 시간이 흐르면 수아는 스스로 속을 드러낼 것이고 그것은 수아가 내 집을 찾는 이유일 것이다. 실은 수아가 통곡하며 들어선대도 ‘수아야, 왜?’ 하고 나는 묻지 않는다. 말을 하지 않을 때는 분명 이유가 있기 때문이고 나는 수아의 그런 점을 이미 알고 있으므로 스스로 마음의 문을 열기까지 늘 기다린다.

‘언니는 나 같지 않아요.’

기다리는 일만큼은 저보다 내가 낫다고 생각하는 수아가, 그래서 좋다는 뜻인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뜻인지 모를 말을 언젠가 했었다.

실은 수아가 모르는 것이 있었다, 내가 참을성이 있어서가 아니라 사람의 마음이란 것이 억지로 연다고 쉬이 열리는 것이 아님을 알고 있을 뿐이란 것을, 기다리지 못해, 참지 못해 범한 오류는 이 나이가 되면 이미 손가락으로 꼽을 수 없을 정도여서 그렇게 되풀이하다 보니 알게 모르게 참을성이 있는 사람으로 보일 뿐이란 것을.

창으로 들어오는 바람결에 커튼 자락이 일렁인다. 나는 머그잔 두 개와

사각 유리그릇을 쟁반에 얹어 수아가 앉았던 책상 겸 식탁으로 들고 왔다.

“김치 담았어요, 언니?”

창에서 돌아서며 수아가 말했다. 유리그릇 속의 내용물이 붉어서 김치로 아는 것 같았다.

“알아 맞춰봐, 뭔지.”

김치를 못 알아볼 정도로 수아가 이 땅에 오래 살지는 않았음을 이미 알고 있음에도 내 속에서 사뭇 장난기가 발동했다. 여행 가방을 끌고 내 집으로 와야 했던 그 심정보다 통 속의 음식에다 수아의 관심을 붙잡아 두고 싶은 마음도 있었다. 김치 아닌 것이 이렇게 고춧가루와 버무려질 것이 무엇일까, 그것을 알아내면 이 집안에 찬 정체를 모를 냄새도 알게 될 것이란 묘한 표정으로 수아가 통을 들여다보며 고개를 갸웃했다.

‘가꾸면 눈길이 더 갈 얼굴인데...’

나는 어린아이 같은 수아의 표정을 보며 자신을 저리도 가꾸지 않는 이유를 짐작해 보았다. 마음을 늘 탄 곳에다 두고 있기 때문일 것이었다. 저 모습을 대해야 하는 푸른 눈의 심정도 짐작되었다.

“가자미식해 먹고 싶다고 했잖아.”

수아를 더 궁금하게 하기 싫어서 예사롭게 말했다.

“가자미식해예요?”

들고 있던 커피잔을 소리가 나게 놓으며 수아가 목소리를 높였다. 먹고 싶다고 간단하게 만들어질 수 있는 음식이 결코 아닌 줄 수아가 더 잘 알았다. 이곳은 가자미도 좁쌀도 없는 타국의 변방이므로. 마치 입덧하듯 당치도 않은 어떤 음식이 어느 날 갑자기 먹고 싶어 정말 환장할 것 같아도 먹을 방법이 없어 더 미치는 곳, 안 되는 것은 안 될 수밖에 없는 땅이 이곳이었다.

“언니도 참, 무슨 말을 못하겠어요.”

수아가 타박 아닌 타박을 하며 집짓 눈을 흘겨서 ‘나, 있는 거라곤 시간뿐

인 사람이잖아.’ 하며 웃었다. 수아의 얼굴에도 이내 웃음이 번졌다.

‘웃으니 얼마나 보기 좋아.’

웃음 번진 수아의 입가를 물끄러미 바라보며 내가 생각했다.

“참가자미여야 하는데 노르웨이 산이라나? 찬밥 더운밥 가릴 입장 아니었어.”

나는 수아의 얼굴에다 저 웃음기를 더 오래 붙잡아 두고 싶어 표정까지 약간 뒤틀었다.

수아도 고개를 들어 깊게 날 바라보았다. 참가자미는 아니어도 가자미와 좁쌀을 구하기 위해 내가 장거리를 다녀와야 했다는 사실을, 저를 위해 낫선 음식을 만들었다는 사실을, 자신이 전화하지 않은 동안 가자미식해는 익었고 결국, 오래 소식 끊어서 미안하다는, 참으로 많은 말을 눈으로 하는 것 같았다.

수아는 내게로 준 눈길을 돌려 투명한 유리그릇을 통해 속을 들여다보다가 뚜껑을 열었다. 집안에 찬 냄새의 정체가 수아가 뚜껑을 여는 것과 동시에 다투듯이 쏟아져 나왔다.

“좀 심하지?”

그 콧콧하고 탐탐한 냄새가 내 탓인 듯이 내가 짐짓 큰 소리로 말했다.

좁쌀과 잘게 썬 가자미, 무채가 붉은 양념과 어우러져 삭으면서 내는 냄새였다. 이미 형체 잃은 좁쌀은 무채와 가자미와 한데 어우러져 김장 속 같았다.

만들기는 수아를 위해서인데 난데없이 내 입에서 군침이 돌았다. 입에 침이 고이면서 식욕이 일었다. 잘 삭아 비린내도 가시고 좁쌀 냄새도 없는, 가자미가 입속에서 콧콧한 맛을 내며 즐겼하니 씹힐 것만 같았다. 만들어 두고 수아가 올 때까지 기다린 가자미식해였다.

“가자미식해 만드는 법은 어떻게 알았어요, 언니?”

나는 입에 군침이 도는데 수아는 눈물이 그러한 채 말했다. 코끝과 눈시

울이 붉었다.

“내가 유년을 일본에서 보냈어. 거기서 함경도가 고향이시던 엄마가 가자미식해 담그실 때 어깨너머로 좀 봤지.”

장황하게 한 말은, 입맛이란 것이 그렇게까지 질기더라 의미였다. 그때 어렸던 내가 냄새 때문에 코부터 쥐면, 어머니는 기름기 자르르 흐르던 더운 흰밥 위에도 잘 익은 가자미식해를 듬뿍 얹어 먹으며 말했다, ‘이제야 살았구나 야.’ 하고. 함경도의 딸은 일본에서, 일본에서 자란 딸은 북미주 어느 곳에서 가자미식해를 담은 것이었다. 그것도 귀밑머리가 허연 이 나이에.

그런데 그때 수아는 왜 난데없이 가자미식해 생각이 났던 것일까? 자주 먹은 음식도 아니었을 것이고, 집에서 만들어 본 적도 없을 터였다. 그렇다고 내 어머니처럼 수아 어머니가 함경도에 고향을 둔 분도 아니고 수아는 가자미식해 만드는 것을 어깨너머로도 본 적 없다고 했었다.

‘가자미식해가 있던 식탁에의 기억 때문일 거야.’

나는 그렇게 생각하기로 했다. 식욕이란 것이 원래 그런 것이 아니던가, 어느 날 불쑥 솟구치면, 유치하도록 집요하게 따라다니던 본능. 그 기억이 깊은 곳에 파편처럼 박혀있다면 더욱.

‘가자미식해가 먹고 싶어, 언니.’

수아가 가자미식해를 처음 말한 것도 내 집에서였다. 그때 수아는, 낯선 곳에서 푸른 눈과의 삶에 마음 붙이지 못해 삭정이처럼 마르는 것이 만날 때마다 내 눈에 보였었다.

‘가자미식해라고 했니?’

그때 난데없던 낯선 음식 타령에, 마음 붙이지 못해 마르는 것이 아니라 입덧 때문이었구나, 하고 생각을 고쳤었다. 눈이 푸를 아이도 뱃속에서는 가자미식해를 찾는 것이 신기해 혼자 속으로 웃었다, 알고 보니 입덧도 아

니였지만.

그때 수아가 말했다, 첫 남편에게서 아이 가졌을 때 가자미식해로 입덧을 다스렸었다고. 그리고 이렇게 덧붙였던가, ‘바닷가에 사는 친구에게 부탁했어요, 그이가. 우리 수아가 해물을 좋아해.’라고.

목에 넘긴 것은 모두 게워내던 아내를 지켜본 수아의 그이는 입맛 돌아오게 할 싱싱한 해물을 부탁했는데, 그 친구는 가자미식해를 함께 보내며 ‘원래 영똥한 것이 입에 당기기도 하는 것이 입덧이야.’라고 했다지 아마. 수아의 그이는 수아가 좋아한다고 냉장고에서 가자미식해가 떨어지지 않게 했었다고, 그것이 겨우 두 해 동안이었다고, 수아가 흐느끼며 말했다.

수아가 가자미식해를 먹고 싶어 한 것이 아니라, 가자미식해를 먹었던 그 기억을 그리워한다는 사실을 나는 그제야 알 수 있었다. 가자미식해를 좋아한다고 생각한 그 사람에 대한 그리움. 다 게워내면서도 그것은 게걸스럽게 퍼먹었던 그때의 그 입덧. 몸은 고달팠어도 모두가 살아 있던 때였으므로 생명감으로 넘치던 때이기도 했으리라. 뱃속의 생명과, 건강하던 두 해 동안의 남편과의 삶의 희열로 충만하던 때의 그리움이 가자미식해로 떠올랐을 터였다. ‘입덧이 원래 그토록 행복을 느끼게 하는 것이라면, 품은 생명을 낳을 때까지 입덧하고 싶었는데, 그 생명은 세상을 보지 못했다.’라고 말하며 수아는 울었었다.

영문도 모른 채 제 방법으로 달랠을 파란 눈의 남자 앞에서 한꺼번에 밀려온 그리움의 실체에 대해 차마 말하지 못하고 수아는 가자미식해를 떠올렸으리라. 가자미식해가 무엇인지 알지도 못하는 푸른 눈은, 그래서 더 난감했으리라.

“제대로 익었나 맛 좀 보자.”

냄새만 요란한지 제대로 맛이 들었는지 나도 정말 궁금했다. 문 앞에 세

워둔 가방에 대해서는 묻지 않았다. 묻기는커녕 가방 쪽으로 눈길도 주지 않았다. 그리고 부엌으로 가 더운 김이 오르는 흰 밥을 수복이 담았다.

수아가 내 집을 찾는 날은 괜히 분주하다, 뭐든 먹이고 싶어서. 오늘 나의 동동거리는 분주함을 통해 수아는 뭘 생각할까? 궁금해도 아닌 척 가장하는 내게서 어쨌든 먼저 묻지 않는 고집스러운 뭔가를 또 읽을 것이다.

‘언니는 아무것도 묻지 않으면서 다 말하게 해요.’

들어서 난감할 것 같은 일엔 절대로 먼저 묻지 않는 날 두고 수아가 그렇게 말했었다. 수아는 묻지 않는 내 고집에 속으로 혀를 내두르면서도 결국 드러내는 것으로 동조할 것임을 나는 이미 알고 있었다.

나는 더운밥 두 그릇과 김이 오르는 미역국이 담긴 대접을 쟁반에 얹어 테이블로 왔다.

“언니 생신이었어요?”

미역국에다 준 눈길을 거둬 수아가 내게 주었다. 나는 수아 손에다 수저를 쥐여주었다.

“생일 아니면 미역국 못 먹나 뭐?”

내가 싱긋 웃었다. 미역국은 가자미식해의 맵싸할 맛을 다스릴 조치였다.

“듬뿍 퍼서 가자미식해랑 먹어 봐. 매우면 미역국으로 달래고.”

마치 본보기를 보이듯이 내가 먼저 숟갈 듬뿍 밥을 퍼 밥 위에다 식해를 얹었다.

밥 한술과 가자미식해를 입에다 떠넣기도 전에 입 안 가득 침이 고이듯 문득 눈물이 고였다. 내가 먼저 이래서는 안 되는 일이므로 나는 볼이 미어지도록 밥을 퍼 넣었다.

“언니!”

나처럼 한 숟갈 듬뿍 밥을 뜨고 그 밥 위에다 가자미식해를 얹으며 마침내, 수아가 울었다.

“제대로 익었네!”

나는 수아의 울음소리보다 짐짓 더 큰 소리로 말하며 가자미식해를 씹었다. 실체도 없는 그 그리움 때문에 그렇게 마르도록 힘들어하지 말고 이제는 맞닥뜨려 이겨내라고 하고 싶었다. 그러나 나는 그 말도 하지 않았다.

수아가 칩거하던 동안 나는 왜 가자미식해를 만들 생각을 했을까, 어쩌면 수아는 말해 놓고도 잊어버렸을지도 모를 그것을. 그것은 결국 내가 많은 날 동안 수아를 생각하고 또 했다는 뜻이고, 수아의 전화를 기다렸다는 뜻이고, 전화하지 않는 수아의 심정까지도 헤아리고 있었다는 의미이기도 했다.

수아는 뽕뽕 숨어 마치 가까이 없는 듯이 지내다가 느닷없이 전화해 심통을 부리곤 했다. ‘언니 앞에서는 늘 발가벗겨지는 것 같아!’라며. 나는 수아의 그러는 심정도 알고 있었다, 그것은 실은 다 알아줘서 고맙다는 의미의 어리광이란 것을. 그러면 나는 말한다, ‘수아야, 사람이 나이를 먹으면 말이다, 몰라도 되는 것까지 알게 된단다. 너도 나이 먹어봐라.’라고.

“식해는 익어가는데 ...”

더운밥 한 술과 가자미식해를 입에다 문 채 우느라 삼키지를 못하는 수아를 두고 내가 말했다. 한 번쯤은 나도 수아 앞에서 속을 보이고 싶었다. 그러나, 가자미식해가 익을 동안, 애타게 수아 소식 기다리면서, 끊은 담배를 다시 시작했다는 말은 하지 않았다.

그나저나 가자미식해가 익을 동안 수아는 도대체 소식도 주지 않고 뭘 한 것일까? 잠깐 수아 속에서 일렁였던 새 삶에 대한 욕구는 생각보다 만만찮아서 그 만만찮은 실체를 넘을 수도, 다시 돌아갈 수도 없는 막막함에 빠져야 했을지도 몰랐다. 도대체 무슨 정신으로 이 낯설고 낯선 땅에 올 생각을 했던지 수아는 자신을 이해하지 못해 굶고 또 굶었으리라. 그리움을 정리하지 못한 채 그 위에다 덧씌운 푸른 눈과의 새 삶은 수아뿐 아니라 푸른

눈에게도 고통이리라.

수아 모습에서 나는 한때의 날 읽는다, 내가 처음 이 땅에 왔을 때, 그래서 낯선 이 땅에다 마음 붙이지 못해 손대지 말아야 했던 것에 손을 대고 있었던 그때의 나를. 어느 하나에 빠지면 옳은지 그른지 분별하지도 않은 채 그것에 몰입하고 말던 때였다. 비틀거리고 흔들리면서도 엉뚱한 것으로 해결하지 않고 날 찾아오는 수아에게 마음이 가는 이유는, 많이 나 같으면 서로 나 같지 않은 수아의 어떤 면 때문일 것이다.

‘가자미식해는 익어가는데...’라며 삐죽이 날 드러내니 수아가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화장기 하나 없는 저 얼굴에다 화사하게 화장해 주고 싶다, 조금만 신경을 써도 고을 저 얼굴에다.

“무소식이 희소식이라잖아요, 언니.”

물끄러미 날 바라보던 수아가 말했다. 가자미식해는 익어가는데 먹어야 할 사람은 소식을 끊었으니 내가 얼마나 애태웠을지 수아도 이미 알고 있으리라. 수아는 무소식을 희소식이라는데, 수아가 전화하지 않으면 나는 무슨 연유로 불길한 상상부터 하게 되는지 모르겠다. 아마도 언젠가 내 앞에 드러낸 하소연 때문이거나 아니면 지난날의 내 삶을 반추하면서 그렇게 생각하게 된 것인지도 모른다.

‘죽을 것 같아, 언니.’

그날 내 집으로 온 수아가 무너지듯 바닥에 앉으며 말했을 때 날 지탱하고 있던 뭔가가 무너지는 것 같은 위기를 느꼈었다.

짐을 꾸려두었는데 ‘나는 어찌라고?’ 하며 꾸려둔 짐을 풀던 남자의 푸른 눈 속에서 수아는 뭔가를 보았다고 했다. 바닷가의 친구에게서 가자미식해를 날라다 주던, 가자미식해를 좋아한다고 여긴 건강했을 때의 수아의 그

이, 그가 건강을 잃어 떠날 수밖에 없다는 걸 직감한 후 바라보던 그 눈빛, 그러니까 죽음을 눈앞에 두고 ‘수아야, 널 어떡하니?’ 하던 그이의 그 눈빛을 푸른 눈동자 속에서 읽었다고 했다. ‘나는 어찌라고?’란 푸른 눈의 그 말은 곧 입덧으로 존재를 주지시킨 후 어둠 속으로 흘러버린 생명에 애달파할 겨를도 없이 갑자기 선고받은 병으로 마치 꺼져가는 촛불 같던 그를 안고 울부짖었을 때의 수아 자신의 목소리였다고도 했다.

‘다정도 병이구나.’

그때 나는 수아에게 말했었다. 간다는 말을 입에 달고 사는 사람을 놓아주지 못하던 푸른 눈의 다정이 외려 슬펐다. 모질지도 못하면서 저도 아프고 푸른 눈도 고통스러울 이별을 저렇게 입에 달고 살아야 하는 수아도 안 쓰러웠다. 수아 속을 스쳐 간, 짧으나 강렬했던 삶의 자락을 정리하지 못한 채 잇을 방편으로 푸른 눈의 품에 왔으니 잊지도 새로운 것에 마음줄 수도 못하는 것이 눈에 보이는 듯했다.

‘널 보노라면 왜 한때의 날 보는 것 같은지 모르겠다.’

수아가 허물어져 울도록 둔 채, 내가 말했었다.

“이제는 가라 하면, 정말 떠날 테야? 하대, 그 사람이.”

현관을 들어설 때부터 아무것도 묻지 않은 채 이상한 냄새와 가자미식해로 이야기가 곁돌자 마침내 수아가 속에다 뽕뽕 뭉쳐둔 할 말의 주머니를 풀었다. 수아와 나는 더운 흰밥에다 가자미식해를 얹어 콧잔등에 땀이 맺히도록 먹고 입안에서 알알한 가자미식해 맛은 후루룩 소리까지 내며 미역국으로 다스린 뒤였다. 그동안의 일이 궁금했어도 가자미식해를 먹고 차를 마시며 내가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은 수아도 알고 있었다.

“가지 말라는 절규네.”

내가 작은 소리로 말했다. ‘나는 어찌라고.’ 하며 싸든 짐 보따리를 풀던 사람이 보일 수밖에 없던 마지막 카드 앞에서 넌 정말 가방을 앞세웠구나,

란 말은 숨긴 채였다.

‘그래, 가라 그리운 곳으로. 인생 뭐 그렇게 복잡하게 생각할 거 있니?’라고 내가 말해 주기를 수아는 기다리는 것일까? 가방을 끌고 내 집으로 온 것은 그 말을 듣기 위해서였을 것이다.

인생, 복잡하게 생각할 거 있니? 라는 말. 헝클어진 실타래 같은 모습을 하고 내 앞에 앉았을 때, 마치 내 입에서 나올 말 한마디가 잠언인 듯 수아가 간절히 기다리는 심정이었을 때마다 나는 머리와 꼬리는 다 잘라버린 것 같던 그 말로 위로했었다. 답일 것 같으면서도 여전히 답이 될 수 없던 그 말을 할 때마다 나는 생각했었다, 떠나는 것이 정녕 인생 간단하게 사는 방법일까 하고. 실은 떠나봤던 내게도 인생은 여태 복잡하고 무거운 것이어서 늘 휘둘리고 있었다.

나는 시선을 창 너머로 던졌다. 송아지만 한 개를 앞세우고 가던 커플은 이미 저만치 사라지고 한 여자와 남자가 롤러스케이트를 타고 지나가고 있었다. 쪽 뺨은 허연 다리, 휘젓는 팔이 마치 춤을 추는 것 같다.

‘하여튼 기죽게 하는 여성인자라니까.’

저를 향한 잔한 심정이 표정에 드러날 것 같아 롤러스케이트를 타고 사라지는 커플 쪽에다 시선을 두고 내가 혼잣말했다.

“수아 너, 돌아가!”

그리고 혼잣말을 하던 내가 대뜸 잔하던 마음을 싹둑 자르며 낮게 명령했다. 그만큼 애태웠으면 그만하라는 의미였다. 그러나 그 명령이 앞뒤 다 자른, 너무나 엉뚱하면서도 느닷없는 것이어서인지 수아가 ‘똥금없이 무슨 소리아, 언니?’ 하는 것 같은 어리둥절한 눈으로 날 바라봤다.

이제는 가라고 하든, 그래도 남아라고 하든, 그럴 수밖에 없겠구나, 하는 설득이랄까, 내 특유의 다정한 대화를 기대했을 수아는 나의 돌변한 언어

표현에 뒤통수를 한 대 맞은 표정을 하고 있었다.

“언니!”

이미 의외의 명령에 대한 반응이었으므로 수아의 표정과 말투도 고울 리 없었다. 언니가 뭔데, 내게 누군데 그렇게 다 된 일에 명령하느냐는 불만이 깔려 있었다. 이렇게 몰라주는 사람에게 가방을 앞세우고 왔으니, 세워둔 가방을 들고 도로 나가고 싶을지도 모르겠다.

“그래, 나, 네 친언니 아니야.”

그러나 나도 이미 내킨 걸음이었다. 친언니도 아니면서 왜? 라는 반발이 수아의 얼굴에 그대로 드러났다. 갑자기 살벌하게 변해버린 분위기로는 수아와 내가 원수지간이었다.

“넌 오래전의 나야.”

시선은 이미 떨어진 롤러스케이트 커플을 따라가도록 둔 채 내가 말했다. 이랬다저랬다 하는 나의 언어 표현 방법에 수아가 마구 휘둘리고 있는 것 같았다.

“가, 도로. 집으로 가란 말이다.”

“...!”

지나가는 말 한마디에 가자미식해 만들고 더운밥 먹인 사람에게서 나온 말이라기엔 너무 가혹했으리라. 밥 한 그릇 먹여놓고 문전박대 한다고 여기리라. 서러움보다 차라리 어리둥절하리라. 수아는 분명 인생 뭐 그렇게 복잡하게 생각할 거 있니, 라며, 그래 가라, 가서 다시는 오지 마라, 며 길을 띄워주기를 기대했을 것이다. 짧은 인생 복잡하게 생각할 것 없다는 결론을 얻도록 세상을 더 살은 내가 가방을 앞세워 문을 나서기까지 낮췄과 씨름했을 수아의 그 심정을 모른다고 할 수 없는 일 아닌가.

“왜 이래요 언니, 나한테?”

급기야 수아가 바람 대들었다. 나를 알고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보인 적이 없던 모습이었다.

그동안 쌓인 스트레스를 내가 수아에게 풀어놓고 있다고 여길지도 모르겠다. 유색인종이라고는 수아와 나, 둘 뿐인 작은 동네에서 마치 서로가 서로를 지탱해주는 버팀목인 듯 기대며 지냈는데, 이것으로 관계는 금이 가고 헝클어질지도 모르겠다. 말하지 않았고 묻지 않아 모른다고 겉과 속이 다르다고는 한 번도 생각한 적이 없는 둘의 관계가 이것으로 끝이 될지도 몰랐다. 그러나 나는 수아가 떠나기 전에 할 말을 해야 할 것 같았다, 떠나는 일에만 골몰하느라 간과했을 수도 있는 푸른 눈이란 존재에 대해.

끊었다가 수아를 기다리며 다시 손대기 시작한 담배 한 개비에다 불을 붙였다. 내가 다시 담배에 불을 붙이니 수아가 묘한 표정으로 바라보았다. ‘그러면 그렇지?’ 하는 조소가 묻은 눈빛 같았다. 한 모금 깊게 빨아 다시 내뿜으며 나는 눈길을 창밖에다 두었다. 송아지만 하던 개를 앞세운 부부는 이미 보이지 않고 롤러스케이트 커플도 이미 시야에서 아스라이 멀어져 간 후였다. 햇살 받은 창밖 호두나무 잎들이 참기름 바른 축질편처럼 윤기가 흘렀다.

이 좋은 날씨에 수아와 내가 입씨름하고 있음이 문득 짜증 났다. 결국 수아 문젠데, 수아 문제로 왜 나까지 이려고 있는 것인지, 수아는 왜 자신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지 못하고 특하면 끌고 와 이제는 잊고 싶은 지난 일까지 돌이키게 하여 내 심정까지 헝클어진 놓는 것인지 그것도 못마땅했다. 이미 간다며 가방 앞세워 집을 나섰으면 곧장 떠나든가, 나한테 무슨 좋은 소릴 들겠다고... 정말 짜증이 났다.

수아가 떠난다면서도 미적대며 시간을 끈 배후에는 당연히 붙잡은 푸른 눈의 남자가 있었고, 마치 그에게 사주받은 사람처럼 수아가 하소연할 때마다 쓰다듬어 지금까지 주저앉도록 한 내게도 원인이 없다고는 할 수 없다.

“한 여자가 있었어.”

길게 연기를 불어낸 후 접시에다 재를 털며 내가 말했다. 한 번도 나 자신의 지난 얘기는 한 적이 없으므로 내가 말하는 한 여자는 당연히 내가 쓰고 있는 소설 속의 어떤 캐릭터일 것이라 수아는 생각할 것이다. 어쩌면 아닐지도 모른다, 허구인지 사실인지 구별하지 못할 정도로 수아가 서사에 문외한은 아니므로.

“이 땅으로 공부하러 왔는데 공부보다 마약을 먼저 알아버렸어.”

그때는 왜 그렇게 허하고 외로웠을까? 그가 누구든, 그것이 무엇이든 마음을 끄는 그 무엇에 마치 소용돌이에 빨려들 듯 대책 없이 빠져버렸었으니까. 낯선 것을 이기려던 방편이었다면 변명일까?

마약이란 말에 수아가 고개를 돌려 날 바라보았다, 마약이란 것이 순탄한 스토리에 등장할 소재는 결코 아니므로. 평소 실없는 말을 하는 사람은 아니라고 여겼던지 수아는 조금은 불이 부은 채 내 말에 귀를 기울이고 있었다.

“그때 한 남자를 알았어. 약 대신 내게 취해 봐, 라며 다가온 남자였어.”

‘내게 취해 봐.’라던 그에게 마치 약에 빠져들었던 때처럼 그렇게 견잡을 수 없도록 흔들렸던 걸 보면 이 땅에서의 나는 숫제 뿌리가 없는 부초였을지도 모르겠다. 그러나 그 정도 삼류 소설로 독자는커녕 내 마음도 끌기는 틀렸다는 듯이 수아가 표정 없이 날 바라보다가 창밖으로 시선을 끌고 갔다. 이미 창밖으로 간 수아의 시선과 상관없이 나는 말을 이어야 했다, 어차피 시작된 이야기이므로.

“남자가 둘 중 하나를 택하라고 했어, 사랑이든 약이든”

그것이 마약을 끊게 하기 위한 남자의 교육책이란 사실을 나는 모르지 않았다. 남자는 둘 중 하나를 택하라고 했지만, 그러나 나는 둘 다이거나 둘 다 아닌 방법뿐이라고 고집했다. 뿌리가 없던 나는 둘 다에게 이미 뿌리 내리고 있었고, 둘 다가 아닌 바에야 떠나는 것이 답이었다.

“그래서요?”

그런데 내가 생각해도 삼류 소설인 이야기에 수아가 돌연 눈을 반짝이며 의자를 끌어당겼다. 내가 씨익 웃었다. 드디어 수아가 이야기에 흥미를 보이는구나. 그런데 그래서 어떻게 되었더라?

“남자가 주사기와 팔을 내밀었어, 이 길뿐이라며.”

약도 남자도 붙들고 놓지 않자 남자가 먼저 모진 결단을 했다. 차라리, 같이 하자고. ‘멘정신으로는 더 이상 널 그 속에다 방치할 수 없어.’라고 했던가. 몽롱하던 내 정신이 얼음물을 뒤집어쓴 듯 확 깨던 느낌이 든 것은 그때였다.

나는 그즈음에서 잠시 숨을 골랐다. 문득 아련한 그 무엇이 가슴을 먹먹하게 했다. 코가 빠근해지면서 눈물이 핑 돌아 급히 고개를 돌려 눈길을 창밖에다 두었다. 그때 남자를 홀로 두지 않았다면 그렇게 되지 않았을까? 그랬다면 나는 또 어떻게 됐을까?

둘 다 이거나 둘 다가 아닌 것만이 내 방법이었으므로 그 길로 나는 작별 인사도 없이 그를 떠났다. 그의 팔에다 바늘 꽂아가며 함께 하느니 내가 떠나는 것이 답이었다. 내 몸이 허기진 약으로 몸부림할 때마다 팔을 내밀던 그를 떠올리며 나는 더 모질어야 했다. 그래서 가까스로 마약에서는 벗어났는데 그 남자를 잊을 수 없었다. 나를 마약으로부터 구하기 위해 자신의 팔을 내밀던 남자였다.

“낯설던 땅에 다시 찾아왔어, 그 남자 때문에. 그런데…”

나보다 깊이 중독이 된 채 남자는 영어의 몸이 되어 있었다. ‘그리워 죽을 것 같아서 시작했다.’라고, 폐인이 된 남자가 말했다.

그 대목에서 나는 울기 시작했다. 깊게 팬 눈꼬리의 주름이 고랑인 듯 눈물이 스미도록 방치했다. 듣는지 마는지 심드렁한 표정이더니 수아가 그윽이 날 바라보았다. 이야기를 통해서가 아니라 내 눈물로 지금까지의 얘기

가 내 얘기인 줄 수아는 확실히리라.

수아는 확신했겠지만 내게는 여전히 헛갈리는 이야기이다. 하도 많이 생각하고 또 해서 이제는 이것이 내 얘기인지 커서가 깜빡이고 있는 컴퓨터 속의 허구인지조차 모르겠을 정도로. 그 낯설던 시간을 이기지 못해 마약에 손대고, 내가 망가지고, 한 사람의 인생도 망가뜨리고….

나는 그래도, ‘그래, 내 얘이야.’라는 말은 입 밖으로 드러낼 수가 없었다. 다만, 수아 너는 나처럼은 살지 마라, 고만 말하고 싶었다.

“수아야.”

내가 목소리를 가라앉혀 수아를 불렀다.

“그 사람과 너는 가자미와 좁쌀 같은 관계야.”

낯설만 가득 사이에 둔 사람들, 그래서 마음 붙이는데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할 수밖에 없는 관계였다. 그러나 달라도 함께 어우러져 시간을 보내노라면 낯설었던 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삭아 없어질 수도 있는 관계였다. 공통점이라고는 하나도 없는 가자미와 좁쌀이 어우러져 식해가 되듯이. 결국 인내의 시간이 답이었다.

인내의 시간 앞에서 나는 실은 할 말이 없는 사람이다. 지난 삶 속에서 저지른 오류, 그래서 여태 그 속에서 허우적댈 수밖에 없는 이유도 오래 참고 기다리는 일에 미숙했기 때문이다. 지금은 알 수 있는 것을 그때는 왜 몰랐을까?

언니, 오늘 참 엉뚱하다, 하는 눈으로 수아가 날 바라보았다.

“좀 더 시간을 가져보자, 낯설이 삭을 시간 말이야.”

그리고 나는 접시에다 담배를 비벼 끄고 사각 유리그릇을 램으로 싸매기 시작했다. 자신이 왜 가방을 끌고 내 집엘 왔는지 잊은 사람처럼 여태 붉은 눈자위를 하고 수아가 날 물끄러미 바라보고 있었지만, 나는 말없이 여러 겹 싸매고 또 싸맸다. 콧속을 알싸하게 하는 콧속하면서도 톡 쏘는 것 같은 냄새를 가두는 장치였다.

수아의 눈빛이 신기한 뭔가를 바라보고 있는 아이의 그것 같았다.

‘낮쌌을 삭혀가며 그렇게 살아야 할 텐데...’

유리그릇을 종이가방에다 넣으며 생각했다.

“아끼지 말고 먹어. 두 번째는 더 쉬울 거야.”

내가 수아 손을 잡았다. 수아가 말없이 날 바라본다. 수아는 기어코 그리움의 그곳으로 떠나게 될까, 아니면 행여 푸른 눈이 냄새라도 맡을세라 냉장고 깊이 가자미식해를 넣어두고 입에 당길 때마다 끄집어내 먹게 될까? 이제는 다 아는 줄 알았는데, 저 눈빛으로는 도무지 속을 가늠할 수 없다. 그러나 내가 다 알아야 할 필요는 없다, 수아가 아무리 오래전의 내 모습이어도 내 역할이란 거기까지이므로. 수아와 푸른 눈 사이에 낮쌌이 삭을 만큼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게 하기까지다.

내 손아귀 속 수아의 손이 거부하듯 잠깐 뻗었다. 나는 말없이 마주 바라보며 잡은 손에다 힘을 주었다. 수아가 바로 떠나는 대신, 저 가방을 끌고 내 집부터 찾은 진정한 의미는 어찌면, ‘언니, 날 좀 붙잡아 줘.’라는 의미 일지도 모르므로.



김외숙 명지전문대 문예창작과 졸업. 1991년 단편소설 『유산』으로 계간 『문학과 의식』을 통해 등단. 장편소설 『그대 안의 길』, 『아이스 와인』, 『유쾌한 결혼식』, 『그 바람의 행적』, 『그 집, 너싱홈』, 『엘 콘도르』, 영문 『EL CONDOR』, 소설집 『두 개의 산』, 『바람의 잠』, 『매직』, 산문집 『바람, 그리고 행복』, 『춤추는 포크와 나이프』 출간. 1998년 한하운문학상, 2003년 한국크리스천문학상, 2006년 재외동포문학상, 2007년 미주동포문학상, 2010년 천강문학상, 2016년 직지문학상, 2017년 해외한국소설문학상, 2023 『시와 정신』 해외문학상(산문).

바다로 가는길

박은숙

홍할매는 감초할매에게 이른 새벽 전화를 걸었다. 혹시 모를 경우를 대비해 뭔가 남겨둬야 할 것 같은 예감이 밤새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아직 동트기 전인데, 창밖은 눈빛으로 대낮보다 밝았다. 감초할매가 도착했다.

“왜 이른 아침부터 부산하게 불러대는 거? 이 짐들은 다 뭐여?”

“미안하이. 내가 부탁할 게 있어서 불렀네.”

만난 지 이십 년이 넘었어도 서로 이름도 성도 모른다. 그저 남들이 감초할매라 부르길래 그녀도 홍할매라 일렀다. 감초할매는 홍할매의 이른 새벽 생똥맞은 호출에 궁시렁거리며 집안으로 들어섰다.

“오는 길이 얼마나 음산했는지 아남?”

감초할매는 계속된 폭우와 폭설로 뿌리째 뽑혀 나갔거나 꺾여 나간 가지들로 거리가 마치 폐허가 된 전쟁터와 같다는 등 호들갑을 떨며 이런 날 마다않고 불나게 달려온 생색을 냈다.

“내가 한국에 잠시 갔다 와야 쓰것는디, 돈 쪼매하고 집 열쇠를 좀 맡기고 가야 할 것 같아.”

“뭘, 돈? 열쇠? 늘 갖고 댕겼잖여?”

“가지고 갔다가 잃어버릴까 염려돼서.”

“오매, 할매가 안 하던 짓을 허네?”

“글쎄, 두말 말고, 미안하지만 맡아줘.”

평소 남에게 부탁이라고는 할 줄 모르는 홍할매가 보자마자 밀도 끝도 없이 퍼런 봉지를 내밀자 감초할매는 얼떨결에 비닐에 둘둘 말린 봉지를 받아 들었다.

“얼만지 세 봐야지?”

“셀 만큼은 아니며, 혹시 나 없는 사이 셈할 거이 있는데, 잇은 게 없나 싶어서 말기고 감세. 늦겠어, 지금 공항으로 나서야 돼.”

“한국 아들네 가남? 다시는 안 돌아올 사람처럼 구네, 참말로.”

가방을 다 들어내고 흥할매는 집 안 구석구석을 둘러보았다. 가지런히 정돈된 집 내부가 한눈에 들어왔다. 정부 임대 아파트는 이사하지 않는 한 처음 입주할 때와 다를 게 없다. 몇십 년은 된 듯 닳아서 반질거리는 카펫에 가구라고는 달랑 한쪽 다리가 기우뚱해 신문지를 접어 중심을 세운 침대와 좁은 나무 탁자, 가운데가 움푹 꺼진 의자 하나와 오래된 티브이 한 대가 놓여 있다. 탁자를 마주한 주방은 자루 떨어진 냄비가 반들반들하게 스토브에 올려 있고 선반에는 크고 작은 양념 병들이 울망줄망 차지했다. 창가에는 흰 인조 무궁화가 생뚱맞게 플라스틱 컵에 꽂혀 있었다. 처음 왔을 때보다 의자 한 개가 줄었다. 익숙하지만 낯선 풍경은 20년 전 모습 그대로였다.

흥할매의 여행 짐이 집 안에 남아 있는 물건보다 더 많아 보였다. 처음 캐나다에 들어올 때 가지고 온 낡은 까만 나일론 삼단 가방, 분홍 비닐 리본이 달린 돌돌이, 어깨끈이 늘어진 배낭을 멘 흥할매가 오늘따라 더 늙어 보였다.

‘흥! 팔순 넘은 할매가 저걸 혼자 지고 메고 끌고 스카이 트레인에 버스까지 갈아타고 공항까지 간다고!’

흥할매의 붓짐을 내려다보는 순간 감초할매는 그녀와 보낸 오랜 시간이 차창 밖의 그림처럼 스치고 지나갔다. 공항까지 태워다 준다는 감초할매의 말에 흥할매는 극구 손사래를 쳤다. 식전 땀바람부터 굳이 밴쿠버 국제공항까지 배웅하려는 의도는 아니었지만, 그 정도의 상황이라면 모르는 이도 도와줄 수밖에 없을 일이다. 방계만 한 감초할매의 차 트렁크에 흥할매의 짐을 실어 올렸다. 생각보다 가방은 무거웠다. 이게 다 뭐지, 저 작은 집에

서 다 나왔으리라고는 상상할 수 없는 짐의 부피와 무게였다. 괜찮다고 하면서도 흥할매는 그녀의 호의에 고마워하시며 가뿐하게 조수석에 올랐다.

“뭐가 많네?”

“많긴, 뭐이 많아. 팔고 남은 고사리랑 도토리묵 가루, 블루베리, 송이버섯 말린 거, 뭐 그런 거지. 또 코스코 가서 처음 앳싸이 베리 줌 샀어. 무거운 짐에는 아랑곳없이 그녀는 귀에 걸리는 웃음으로 금세 얼굴이 밝아졌다.

“코스코 카드도 없이?”

“이 없으면 잇몸인겨. 내가 영어 한마디 못해도 버스 타고, 스카이 트레인 타고 안 가는 데 없는데 코스코엔 왜 못 가?”

“회원 카드 없으면 입장이 안 되는데?”

“사람이 많아서 그런지 검사 안 하데. 그래서 그냥 들어가도 되는 줄 알고 들어가서 아들 내외랑 손녀딸 주려고 앳싸이 베리 몇 통 골랐어.”

“어떻게 알고?”

“내가 눈썰미가 있잖아, 옆집 크리스 할매 집에서 봤거든. 탕글탱글 새까만 열매가 매달린 그림을 잘 눈여겨봤다가 가서 골랐지.”

“대단혀. 영어도 모르면서”

“계산하려고 계산대에 가니까, 뭘 달라는 눈치여. 내가 뭘 알아. 근데 가만 보니께, 우리 콘도 3층에 사는 사람인 거. 내가 못 알아듣는 줄 아니까 자기 주머니에서 뭘 꺼내더니 그걸루 기계에 대고 띠릭 하더라구. 난 돈만 냈어. 그럼 된 거 아녀.”

“정말 대단혀. 잘하셨어. 담엔 나하고 같이 가.”

“바쁘데 미안해서 쓰간디.”

“괜찮아. 감초가 빠지면 되나.”

새벽부터 일어나 한국에 갈 채비로 피곤했던지 흥할매는 아아아~야! 내 나이가 어때서~~ 하고 흥얼거리더니 코까지 골며 잠이 들었다. 시내를 벗

어나 국제공항으로 가는 길이 많이 막혔다. 며칠 전 내린 폭설로 거리의 설경은 눈이 부시도록 아름다웠지만, 차들은 도로에서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정지된 장면처럼 느리게 움직였다.

홍할매의 남편, 도영감은 4년 전 같이 도토리를 주우러 나갔다가 뇌졸중으로 쓰러진 후, 치매 증세가 있어 한국에 사는 아들 집으로 옮겨갔다.

“나두 같이 가잘 줄 알았지..., 영감 혼자 갈 줄 알았어...”

회복되면 돌아올 줄 알았던 영감은 3년이 지나도 돌아오지 않고 홍할매는 빈집을 혼자 지키고 살고 있었다. 그녀는 코비드 때문이라고 믿고 싶었지만, 영감이 떠난 후 발견된 빈 통장을 보고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걸 직감했다. 한국에 사는 도영감의 아들에게 전화를 걸어봐도 모르는 전화번호라는 기계음만 들리고 이내 ‘뚜뚜’ 소리와 함께 끊어졌다.

홍할매는 이십 년 전 홀아비인 도영감과 재혼하고 한국에서 캐나다 밴쿠버로 이주했다. 재혼이라야 도영감이 살던 침대 하나 누울 자리뿐인 방에 겨우 붙은 주방과 욕실이 딸린 정부 임대 아파트에 웅색한 가재도구가 전부였으니, 그 흔한 구리반지는 언감생심이었다. 둘째 아들만 사고로 죽지 않았어도 재혼은 생각하지도 못할 일이었다.

“나이 삼십에 청상으로 키운 아들 둘이 유일한 하늘이었지. 술 먹고 누가 데려간 줄도 모르고 비명횡사한 남편이라야 기집질과 노름에 절은 망나니였어. 동대문시장에서 새벽부터 밥쟁반이고 나른 폰돈조차 마음 편히 애들 걸어 먹이는데 써보지도 못하고 고스란히 남편의 매질에 못 이겨 뺏기고 나면 살길이 막막했어. 남편 죽고 나니 그제서 아이들이 보이데. 째질만 하고 밖으로만 돌던 큰놈도 수그러들고, 학교에서 받아온 술한 상장들도 김치국물에 물들고 찌지에 절여 가방 밑구녕에 깔고 다니던 둘째 녀석도 얼굴에 생기가 나 더만. 애비 죽고 의사가 되겠다고 죽도록 공부만 하더니 의사로 첫 출근 하던 날, 사고로 죽고 말았어. 그 날도 오늘처럼 폭설이

내리길래 택시 타고 가라고 한 게 그만...”

“고생 많으셨어. 이제는 좀 내려놓고 사셔.”

“그럼, 그래서 가끔 봉사라도 땀기면서 사는 게 난 즐겁다니까. 내 손으로 해준 밥 먹고 성공한 사람이 얼마나 많은 줄 아남? 동대문에서 밥장사로 몇십 년 살았는데, 봉사한다고 나가서 한국 밥 그리운 이들에게 밥하고 뜨끈한 국 끓이는 건 일도 아니여. 밥이 하늘인데, 그 공을 하늘은 알것지.”

가끔 여기저기 지역 행사에 불려 나가 봉사하던 홍할매와 달리 감초할매는 들녘으로, 산으로 나가 돈 버는 일밖에 몰랐다. 가진 거 한 푼 없이 어디로 나가 행방불명 된 남편 대신 타국에서 자식 둘 먹여 살리는 일로 허리 펴 줄 모르고 살았다. 영어 한마디 못하는 홍할매는 어디든 마다하지 않고 자원봉사를 요청하면 돈 버는 일보다 먼저 나서는 게 감초할매는 늘 의아했다.

홍할매는 감초할매와 함께 하루도 쉬는 날도 없이 일했다. 심은 이 없이 산비탈, 돌 틈마다 함초롬히 홀로 제비꽃이 피면 홍할매의 일손도 바빠졌다. 지천으로 널린 썩이며 냉이, 참나물을 캐 마트에 내다 팔면 손에 몇십 달러가 쥐어졌다. 세상에 그보다 더 고맙고 좋은 일이 없었다. 그중 가장 돈이 되는 것은 고사리 꺾는 일이다. 숲이 울창해 그늘진 지역의 고사리는 길이가 길고 통통해서 맛이 일품이었다. 사방에 널린 고사리는 해가 떨어져도 손을 놓을 수 없을 만큼 매혹적인 데다 삶아서 말리는 수고만 더하면 상품 가치가 높아 꽤 짭짤한 수입을 올리곤 했다. 그뿐인가, 여름내 동트기 전부터 일어나 주먹밥 서너 개 싸 들고 버스를 타고 한 시간여 걸리는 블루베리 농장에 나가 해가 떨어지도록 블루베리를 따다. 두 할매가 하루 따는 양은 그 누구도 따르지 못할 만큼 빠르고 깔끔해서 농장주들은 블루베리가 끝날 무렵이면 이듬해에 꼭 다시 와 달라는 확답을 받곤 했다. 홍할매는 한 낮의 햇살도 다 돈으로 환산하고 싶었다. 손톱 밑에 짙은 보랏빛 물이 들고

해가 저물어 블루베리가 보이지 않을 때까지 손 감각으로 훑어 내다보면 농장 주인이 그만 가라고 손짓하곤 했다. 여름 한 철 블루베리 농장은 보물 창고와 같았다.

“블루베리가 효자여, 손톱만 한 그 알갱이를 가볍게 쥐고 훑으면 보랏빛 보석이 손아귀에서 순순히 떨어져 양동이에 금방 차. 가끔 따라나선 영감은 손이 느리고 영글지 못해서 따는 건 잼뱅인데, 내가 딴 블루베리를 신바람이 나서 옮겨다 저울대로 가져가면 다른 사람들이 얼마나 부러워하네. 이 농장 돈은 저 노인들이 다 쓸어간다 나.”

심술궂은 인도 여자는 틈만 나면 따 놓은 남의 바구니를 슬쩍 집어 가기도 하고 툭 건드려 쏟아 버리곤 했다. 피는 물보다 진하고, 돈은 피보다 진하다고 믿는 흥할매는 아랑곳없이 블루베리 따는 데만 전념했다. 새벽녘은 선선해서 블루베리 따는 일이 수월하지만 해가 중천이면 땀과 모기와의 전쟁이 시작됐다. 흥할매는 시장기가 돌면 그늘에 앉아 싸 가지고 온 썩개떡을 씹으면서도 해가 잘 들어 블루베리가 더 잘된 곳을 기웃거리느라 썩개떡은 어디로 넘어가는 줄도 몰랐다. 한 철 블루베리 따는 수확이 끝날 무렵이면 그 많던 농장 일꾼들의 발걸음이 뜸해져도 흥할매와 감초할매는 미로 같은 밭에 남아 마지막 블루베리를 훑어 내곤 했다. 흥할매가 돌아간 블루베리 농장은 그녀가 흘리고 간 동백 아가씨의 붉은 꽃등이 서리에 젖곤 했다.

블루베리 수확이 끝날 무렵이면 채소 농장에서 두 할매의 손길을 기다렸다. 한여름 밭에서 나온 채소 단을 묶고 포장하는 일부터 추수가 끝난 밭일을 정리하는 일도 두 할매의 몫이었다. 배추, 무, 콩, 옥수수 외에도 사과, 배, 감, 포도, 무화과, 등 가을걷이를 하고 빈터에 마늘을 심었다. 종일 쭈그리고 앉아서 마늘을 심는 일은 고되긴 해도 그런 일 하려고 달려드는 사람이 없어 별이가 쓸쓸했다.

“며칠 안 보이더니 어디 댕겨 왔남?”

“아들 내외랑 낚시하러 섬에 갔다 왔제.”

“낚시?”

“낚시 따라가서 낚시꾼들 낚시밥 끼워주고 잡은 고기 내장 발라주고 매운탕 끓여주면 솔찮게 돈도 생겨. 님도 보고 뽕도 따고 얼마나 좋아. 바다가 그냥 바다여, 태평양 아니여. 그 넓은 바다를 보면 가슴이 땡 뚫린다니까. 살다 보니 돈 주고도 못할 구경 다 하고 사네. 한국에서 밥쟁반이고 다 님서 번 짠 돈하고는 다르다니까.”

흥할매에게 캐나다는 황금알을 낳는 어장이었다. 영어알파벳도 모르는 할머니가 세금 없이 버는 돈은 아마도 대학 졸업한 엘리트에 못지않았다.

“건강 생각해. 이제 일 그만하고 여행도 다니고 근사한 레스토랑도 가고.”

“일하면서 경치 좋은 곳은 다 훑고 다녀. 버스 타고 스카이 트레인 타고 통통배도 타. 시니어라 다 공짜 아녀. 뭐 하러 돈 주고 허투루 놀러 다녀. 돈 별면서도 다 하는데. 한국에서 입양 온 아그들한테 봉사하는 윤선상님 이랑 근사한 식당도 댕겨 봤지, 봉사한답서 철마다 멋진 공원, 캠핑, 뭐 유명한 데는 다 댕겼는데, 뭘 더 바래. 팔자에 없는 호사 다 누리고 사는데.”

“그저랑 다르지.”

“일하는 게 노는 거고 노는 게 일하는 거. 허투루 살면 누가 날 반기겠어. 내 손이 바쁘고 젖어야 내가 거기 있는 것 같고 남들도 내가 비면 금방 그 빈 자리를 느끼는데.”

가을이 익어갈 무렵, 밤새 비바람이 나뭇가지를 흔들고 가면 흥할매는 소풍 가는 어린애처럼 들떴다. 지나다니며 눈여겨 봐 둔 도토리나무가 있는 곳을 아는 그녀는 새벽부터 도영감을 채근하여 주먹밥 서너 개와 마실 물을 배낭에 넣고 길을 나섰다. 도토리 철이 되면 천근같은 발걸음이 어찌나 가볍고 빠른지 동동 뚫다. 평지에 떨어진 도토리는 인적이 드문 시간에 주위도 되지만 대부분 도토리는 비탈진 곳이거나 숲이 우거진 곳에 많다. 누

군가 의아한 의심의 눈초리로 신고라도 하게 되면 배보다 배꼽이 더 클 일이 생길지도 모르는 두려움 때문에 오히려 스틸을 느끼기도 했다. 쪼그리고 앉아 도토리를 줍다 보면 허기도 잊고 해가 지는 줄도 모르고 피와 살 같은 도토리만 보였다. 해가 산마루에 걸칠 즈음이면 가지고 간 자루와 배낭, 돌돌이 가방 가득 도토리가 차였다. 그 무게보다 더한 즐거움으로 이고 지고 끌고 버스 정류장에 이르면 벌써 해를 삼킨 어둠이 발을 덮곤 했다.

“영감, 저녁은 지난번 낚시 가서 잡은 가자미를 기름에 살살 튀겨볼라니까, 좀만 기다려요.”

“가자미 말고 사냥해 온 그거 있잖아. 왜, 사슴고기 별경게 얼큰하게 해 봐.”

“사슴고기는 아들네가 가져갔고 우리네는 꿩이 있잖아.”

“그럼 그거라도 해 봐. 막걸리 한잔 할랑께”

“그라지라, 사슴 대신 꿩이 더 나올 수도 있제. 꿩 귀 먹은 자리는 재만 남는다 안 하요.”

홍할매는 들어오는 길에 베트남 식당에 들러 월남국수라도 한 그릇 먹고 오자고 하고 싶어 입이 달막거렸어도 영감 눈치를 보다 말았다. 입자 밥이 비싼 식당보다 제 입에 맞는다는 말에 도영감이 알밋다 가도 붉은 녹두 살 녹긴 한다. 홍할매는 까투리 까투리~~ 까투리 타령을 흥얼거리며 간혹 어깨춤에 겨워 다리를 살포시 굽혔다 펴가며 꿩탕을 끓인다. 집안 가득 얼큰한 꿩 탕의 냄새가 찾아들고 그녀의 어깨에 푸드덕 꿩이 날아오른다. 도영감은 한 병에 15볼이나 하는 소주 대신 홍할매가 누룩으로 만든 막걸리 한 잔을 걸치고는 씻지도 않고 코를 곤다. 도토리 줍는 일은 만만한 일이 아니다. 쪼그리고 종일 앉아 있어야 하거나 비탈진 산에서 작업하기 때문에 발가락 끝에 힘이 들어가 피로감이 배로 쌓인다. 도토리 자루를 지고 이고 끌고 버스를 타고 내려 집까지 끌고 오는 대장정은 밥알의 소중함을 절로 느끼게 한다. 도토리 철이 되면 침대와 탁자가 있는 자리를 빼고는 도토

리를 넣어 말리느라 좁은 집은 발 디딜 틈조차 없다. 펄 취 놓은 도토리가 다 마르면 껍질을 벗겨 물에 담가 쓰고 뚫은 맛을 빼고 말려 농장에 가서 방아를 쪼으면 봉지에 담아 팔아야 돈이 된다. 도토리 분말은 한국 사람이면 누구나 좋아하는지라 오히려 양이 문제이지 파는 것은 문제가 없다.

홍할매는 운선생에게 전화를 돌렸다.

“운선생님, 도토리 가루 다 됐는데, 언제 봐?”

“에구, 고생하셨어요. 오늘 될까요?”

“그러, 나가 도토리 팔아서 돈 좀 벌었응께, 커피 한 잔 살께. 한 봉다리에 올해는 80볼 줘야는디, 선상님은 70볼에 줄라요.”

“네, 그럼 제가 밥 사고, 어르신은 커피 사주세요.”

홍할매는 한 번도 본인이 더 갔다고 생각하면 뭐라도 챙겨주고 통 쳐야 직성이 풀렸다. 가끔 운선생이 안 입는 옷이라며 건네도 손칼국수라도 한 쟁반 밀어서 건네야 마음이 편안했다. 나이 들면서 염치도 없으면 안 된다는 게 홍할매의 철칙이다. 그녀의 공간은 재물이 모였다. 아니, 도영감의 통장은 저절로 구른 듯이 새끼를 치고 붙어났다.

도토리 벌이가 끝나면 홍할매는 송이버섯을 따러 산을 뒀다. 송이는 낮은 산보다는 산기슭의 소나무가 있는 곳에서 자라기 때문에 가장 고된 일이다. 그럼에도 아랑곳없이 송이를 따러 나서는 날은 우산 살을 벗겨낸 지팡이를 들고 동도 트기 전 길을 나선다. 버스를 타고 서니 시간을 달려 호프너머 내를 건너 산에 오른다. 홍할매는 송이를 잘 찾는다. 휘 둘러보다가 지팡이로 툭툭 눌러보고는 쪼그리고 앉아 송이를 따고 그 옆 가지까지 살살이 뒤져 송이 가족인 양 모여 있는 너댓 송이를 집어 올린다. 기막힌 눈썰미가 아니면 절대 따라 할 수 없는 마술 같다. 운선생도 한 번 따라나섰다가 송이 몇 송이 따고는 깊어 가는 가을 산의 풍광에 빠져 홍할매의 뒤꽂무니만 따라다니다 와서 꼬박 일주일을 앓았단다.

“추석이라 용돈 좀 드리려고 하는데, 순댓국 드시러 나오실래요?”

“윤선상님요, 당치도 않소, 나가 무슨 염치로 교통비를 받아. 한국에서 얼굴도 모르는 양부모한테 입양 와서 사는 올 아그들 생각하면 내가 목이 메이요. 올 아그들 맛있는 거나 더 해줍시다.”

“어르신! 남편이 어머니라 생각하고 챙겨줬어요. 자식이라 생각하고 용돈 준다면 나오셔야죠!”

“나는 쌀하고 고춧가루 말고는 돈 쓸데가 그다지 없어라. 채소는 농장에 일하러 가면 허드렛거 주는 대로 받아먹고 사냥 따라가서 잡은 짐승 손질 해 주고 얻어 온 고기 있지, 낚시 가서 얻어 온 생선 있지, 게다가 어디 봉사라고 가면 식용유, 김, 뭉 생다지 주는 거 쓰다 본께 국수나 가끔 사다 먹고 쓰는 돈이 별거 없어. 머리도 몇 가락 없어서 거울 보고 나가 자른께 미용실 갈 일두 없지.”

윤선생과 만나 한국 입양인을 위한 봉사활동을 한 지도 벌써 15년이 지났다. 늘 한결같은 윤선생이 딸같이도 느껴졌지만, 말수가 적어 웬지 어려웠다.

“윤선상님, 바깥 사장님 송이 좋아하시지라? 나가 송이 좀 가지고 맥으로 갈께, 오늘 집에 기셔.”

“에구, 고생해서 탄 건데, 팔아서 필요한데 쓰세요. 저는 마트에서 조금 사다 먹으면 돼요.”

“좋은 건 다 팔고 이걸 삐뚤이여. 맛은 별반 차이 없으께, 드셔 봐.”

윤선생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흥할때는 송이버섯을 팔각 채반에 정성껏 담아 그녀에게 건넸다. 깨끗하게 손질한 송이버섯은 삐뚤이 아니라 최상급으로 안 돼도 몇백 불은 뛴직한 양이었다. 지난번 받은 교통비가 영 부담이 됐던 차에 이만하면 값은 치른 것 같아 흥할때는 어깨춤이 올라갔다. 흥할때가 송이를 가져간 날은 마침 김장을 하려고 배추를 마당에 부려 놓은 날

이었다.

“위메, 김장 함시로 나한테 말도 없이 어찌 다 하려고 혼자 벌렸데.”

“바쁘실까 봐, 배추 절이는 거까지는 혼자 하려고 했죠. 내일 김장하는 날이라 아이들이 오기 전까지 씻어서 건져 놓으면 시간도 절약되구요. 송이 넣고 밥 조금 안칠게요. 식사하고 가세요.”

“그냥 뒤. 나는 밥이야 어디 가나 굶고 안 다니닌께.”

윤선생이 밥을 안치는 눈치길래 흥할때는 주방에서 칼부터 들고 나가 벌써 배추를 다듬기 시작했다. 아이야, 뛰지 마라. 배에 꺼질라. 가슴 시린 보릿 고~갯길... 마당에는 흥할때의 노랫가락이 무화과나무 아래 붉게 물들고 감 가지를 타고 올랐다. 핵교에서 가르쳐야 돈 쓰는 짓만 가르치지, 돈 버는 거 가르치간디. 핵교 근처도 갈 생각 말라는 흥할때의 어머니 덕에 국민학교 문턱 대신 동생 업고 산으로 들로 나물 캐러 다니던 시절이 떠오르던 흥할때... 배고픈 것보다 핵교 문턱도 못 밟은 설움이 컸던 흥할때의 어린 날은 종종 뽕짝을 타고 흘렀다.

가을이 깊도록 산기슭을 타고 오르내리면 송이버섯 따는 일도 끝이 난다. 비가 추적추적 내리고 오후 네 시만 돼도 어두컴컴한 뽕나무의 겨울 우기가 와도 흥할때가 할 일은 또 있다. 성탄절에 쓸 장식을 만드는 공장은 부지깽이도 없어서 못 쓸 만큼 바쁘다. 두 한국 할매의 손놀림은 이미 알려진 터라 시즌만 되면 전화통에 불이 난다.

“만드는 수량만큼 인건비가 나가니 많이만 만들어 주세요!”

흥할때는 중국인 사장의 경쾌한 목소리만 들어도 절로 신바람이 났다. 빨리 많이 만들려는 욕심에 일하다 보면 오줌보가 터지도록 참을 때가 많다. 그러다 감초할때가 먼저 허기는 참아도 거시기는 참으면 병 된다고 소매를 잡아끌면 못 이기는 척 화장실을 땡겨오는 게 다반사다. 끼니때도 놓치고 일하다 보면 중국인 사장이 플라스틱 도시락을 가져다주곤 했다. 별건 소

시지에 양파와 부추, 계란을 넣은 볶음밥이 들어 있기도 하고 튀긴 면에 버섯 소스를 뿌린 차오미엔을 주기도 하지만 가끔은 캔맥주를 한 캔씩 건네기도 했다. 감초할때는 갈증을 참은 탓에 별척별척 숨도 거르지 않고 주욱 들이켰다. 흥할때는 영감 갖다 준다고 배낭에 슬쩍 넣고는 겹연쩍게 웃으면 두 볼이 맥주를 마신 감초할때보다 더 볼그스름해졌다. 탕수육 같은 고기라도 들어 있는 도시락이 나오면 속이 안 좋다며 가방에 넣어 가던 흥할때를 흘려보다 감초할때는 목이 메곤 했다. 본 영감도 아닌 영감탱일 뭇 그리 챙겨. 저나 챙기지. 듣거나 말거나 혼잣말로 되뇌도 그녀는 어디서 그런 흥이 나오는지 동백꽃 아가씨부터 여자의 일생 등 이미자의 노래는 꺾치고 흥얼거렸다. 그녀에게 딱 어울리는, 왜 다들 그녀를 흥할때라고 하는지 알겠으면서도 한편으로는 그 흥이 한인지 서러움인지 분간하기 어려웠다.

흥할때의 일년건이가 거의 끝나면 가끔 어린애를 봐 주거나 청소 일을 하러 가기도 하지만 겨울만큼은 흥할때의 농한기이다. 어쩌면 흥할때의 겨울은 변변찮게 사는 큰아들 내외를 방문하는 시기이기도 하다. 성탄절이 지나면 흥할때는 도영감과 한국으로 나가 봄이 돼야 돌아왔다.

“잘 다녀오세요. 가시면 심심할 텐데, 재밌는 여행도 하고 친구도 만나고 맛있는 거 많이 드시고 오세요.”

“심심할 틈이 어디 있잔디? 친구는 없어도 아들 며느리, 손녀딸 보느라 시간 가는 줄 몰라. 여행은 여기가 여행인데, 뭘 여행을 하것어라. 그랴, 선상님 잘 챙겨주세요. 건강 잘 챙김서 일하요. 이제 선상님이 챙기던 애들도 다 컸으께, 몸 챙기는 거 소홀하지 마셔.”

흥할때와 도영감은 서울에 도착하면 각자 자식들 집에서 지내다 돌아올 때 같이 들어오곤 했다. 인색한 도영감이 챙겨주는 용돈으론 아들 집에 가야 내놓기도 낫부끄러울 지경이었다. 그렇다고 곳곳한 성격에 뒷주머니를 차지는 않았다. 아들 집에 챙겨 가는 거라고는 도토리 가루나 블루베리 말

린 거, 송이버섯 말린 게 전부였다. 그 흔한 영양제 한 통 마음대로 사 들고 다니질 못했다. 무뚝뚝한 아들 내외와는 달리 살갑게 흥할때를 대하는 손녀딸을 보는 맛에 한국 나들이는 늘 설레었다. 환갑 넘은 나이에 재산도 없는 도영감한테 재혼이라고 떠난 흥할때가 아들 내외에게는 달갑지 않았을 게다. 당시를 떠올리니 한숨이 터져 나왔다. 둘째 아들을 잃고 식음을 전폐 하다가 사업이 어려운 큰아들에게 시장통 밥집을 팔아서 보태 주고는 자식한테 짐이 될까 봐 정도 없는 도영감과 재혼을 하고 한국을 떠났었다.

흥할때는 도영감이 손에 쥐여 준 용돈으로 맛별이하는 아들 내외와 손녀딸에게 밥 해주고 집안일을 거들다 보면 겨울은 순식간에 지나갔다. 아들 내외가 밥이라도 먹고 들어온다는 날은 하릴없이 버스를 타고 동대문 시장으로 나가곤 했다. 떠나 온 밴쿠버의 집처럼 익숙했지만 낯설었다. 동대문 운동장도 달라지고 건너편 덕수상고도 없어졌다. 그 많던 고물상과 헌책방도 사라진 동대문은 대형 패션몰이 들어왔다. 달라진 것은 또 있었다. 시장 귀퉁이에 자리 잡고 있던 흥할때의 밥집 자리에는 샌드위치와 음료수 가게가 생겼다. 새벽부터 일하는 사람들이 빵 쪄가리나 먹고 일할 수 있나 싶다가도 요즘은 김장도 안 하고 밥 대신 빵을 먹는 사람이 더 많았던 손녀딸의 말이 떠올랐다. 한 뭉치에 만 원하는 양말을 리어카에서 사 들고 지하철을 타러 지하철역 계단으로 내려갔다. 흥할때 가랑 된 노인이 추운 겨울에 계단참에 앉아 이제는 아무도 쓰지도 않는 참빛이며, 발꿈치 각질 제거하는 돌, 칼 가는 돌, 귀 파게, 화투, 이태리타울, 고무줄, 병어리 장갑 등을 팔고 있었다. 순간 흥할때는 가슴 한켠이 아려 왔다. 내가 한국에 살았으면 저런 모습은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 머리를 스쳤다. 흥할때는 그 자리를 그냥 지나칠 수가 없어 몇 번을 망설이다 병어리 장갑을 오천 원 주고 샀다.

“점심은 자셨니꺼?”

“맞은편 아즘니가 파는 바람떡으로 허기는 메웠소. 할때는 자셨니꺼?”

“동향인갑다. 어디메요, 할때?”

“사는 데가 고향이지, 별거 있소.”

“하긴, 사는 데가 고향이지라.”

“바람떡 하나 드실라우?”

“그랍시다. 병어리장갑이 참 따숱겠소.”

흥할매는 노점 할매와 바람떡 두어 개를 받아먹으며 주머니 받거나 한참을 얘기하고서야 자리를 떴다. 돌아서면서 좀 전에 산 양말 뭉치를 노점상 할매에게 크리스마스 선물이라며 건넸다.

“바람떡 하나 월매 안하는디, 워짜나.”

“바람떡 값이 아니고 친구가 주는 선물이니 받아두쇼.”

“새해 복 많이 받으셔. 예구. 고마워 워쩐데.”

“새해 순대국밥 한 그릇 먹읍시다. Happy New Year!”

“영어 할매랑께, 워매 겁나 부러워잉.”

흥할매는 생전 처음 친구가 생겼다. 그뿐인가, 말로만 듣던 영어도 한마디 내뱉지 않았다. 흥할매는 속으로 “야아~ 내 나이가 어때서”를 흥얼거리며 지하철역으로 향했다. 너무 오랜 시간을 보낸 것 같아 서둘러 집에 돌아오니 아들 내외는 아직 돌아오지 않았다. 손녀딸은 편의점에 아르바이트 하러 나가 새벽이나 돼야 들어올 게다. 빈집에 적막감이 땀들었다. 큰아들이 어릴 적에 느낀 외로움과 불안감은 얼마나 컸을까? 애비도 없이 새벽부터 시장통에 밥이고 돌아치는 애미한테 무슨 투정 한 번 부려 봤겠으며 뜨끈한 밥 한 번 제대로 밥상머리 앉혀서 먹여 봤나. 흥할매는 속에서부터 서러움과 주글스러운 감정이 복받쳐 올라 눈시울이 붉어졌다. 누가 만든 길이나, 나만이 가야 할 슬픈 길이네... 낮은 소리로 이미자의 들국화를 바람 빠진 자전거 타이어처럼 읊조리다 냉장고 문을 열었다. 흥할매는 미리 장 봐다 놓은 재료를 꺼내 만두 속을 만들기 시작했다. 숙주와 당면을 삶고, 두부를 으개어 푹푹 짜고 돼지고기와 소고기를 넣고 양파 껍질을 까는 동안 주책없이 자꾸만 눈물이 솟구쳤다. 계란을 툇툇 털어 넣고 만두 속을

치대다 시계를 보니 어느새 자정에 다다랐다. 아들 내외는 왜 이리 늦는 걸까? 무슨 일이 생긴 게 아닐까? 만두를 빚는 손이 파르르 떨리고 안절부절 걱정하던 찰나, 인기척 소리에 놀라 창밖을 보니 술에 취한 듯한 아들이 머느리 어깨에 기대고 들어오는 모습이 보였다.

“어무니, 아직 안 주무셨소.”

“니들이 아직 안 들어왔는데, 어찌 잠이 오겠냐. 웬 술을 이리도 마신겨.”

“망년회라 한 잔 걸쳤소, 어무이. 나가 능력이 없어서 어무니 못 모시고 산께 어무이가 캐나다까지 시집 안 가 버렸소. 못난 아들 용서하쇼.”

“야가 무슨 말이로. 애미가 자숙한테 해준 것도 없음 시렁 집까지 돼야 쓰간디.”

“구두쇠 영감이 어매 구리반지도 하나 안해 줍디까? 서울 온다고 번듯한 옷 한 벌은 아니더라도 재혼해 갈 때 입고 간 옷은 안 입혀 와야지. 와 그렇게 사는교?”

“어매가 언제 그런 거 신경 쓰고 살간디. 그런 소리 말어. 산 좋고 물 좋고 경치 좋은 데서 낚시 땡기고 사냥 따라 땡김서 좋은 데는 다 땡겨 감시 사니께. 여기 살면 어디 그런 데 땡겨가며 살 것냐.”

“어무이요. 그만 소리 마쇼. 그쪽 자숙들이 캐나다서도 살고 한국에서도 잘 산다면서 어무이 신발 한 켤레 안 사줍디까?”

“나가, 새 신은 있어도 헛 거이 발이 편해서 신고 왔어야.”

“어무이 모시려고 암만 발버둥 치고 살아도 운이 안 따라준 개 헛발질만 하고 안 사요. 코로나 때문에 겨우 일어난 현수막 사업도 문 닫고 택배 막 노동 안 하요. 뭐가 되는 게 없어야. 집사람 무뚝뚝하다고 서운해 마쇼. 집사람도 어무이 못 모시고 멀리 보내서 가슴이 아파 안 그런다 요. 집사람도 반찬값이라도 별겠다고 밥집 땡기문서 어무이 고생한 거 생각하고 읊디다.”

“서운키는 와. 나가 며누리한테 서운노? 고상하고 사는 것만 해도 고맙지로.”

“어무이요. 용서하소. 자식 노릇 못해서 미안하구먼요.”

“어여, 피곤한데 자라. 널 일찍 나가야 한다면서.”

아들 내외가 방으로 들어가고 흥할매는 빗다 만 만두 속을 채웠다. 꺾꾹 입 다문 만두 속이, 꺾꾹 입 다물다 빠져나온 만두 속이 어찌 그리 자신을 닮았는지 모를 일이다. 아들 내외는 도영감이 아들 집으로 가버려 흥할매가 혼자 지내는 줄 모른다. 이참에 한국에 눌러앉을까 싶어 한국에 나왔지만, 아들 내외에게 눈치가 보여 아직 말도 못 꺼냈다. 흥할매는 새벽녘 손녀가 들어올 때까지 헛소리 반, 눈물 반을 섞어 꺾꾹 눌러 만두 속을 채웠다. 피곤도 하련만 맑게 웃고 들어서는 손녀딸 손에 빨간 털 신발이 들려 있었다. 흥할매가 손녀에게 주려고 노점상에게 산 병어리장갑과 똑같은 색이었다.

“할머니, 신어 봐. 이게 젤 안 미끄럽고 따뜻한 거래.”

“할미도 너 주려고 병어리장갑 샀다. 꺼 보라.”

손녀딸은 병어리장갑을 끼어 보고 고맙다며 볼에 제 볼을 부비대고 할머니도 어서 자라고 채근하고는 방으로 들어갔다. 밖은 벌써 먼동이 트고 꿈지럭꿈지럭 아침이 밝아 오고 있었다. 흥할매의 마음도 새 아침처럼 한결 가볍고 밝아졌다. 아들이 그동안 속으로만 움켜쥐고 있던 마음을 터놓을 수 있기까지 얼마나 오랜 시간이 걸렸던 걸까?

늘 이번에는 돌아가면 도영감에게 얘기해서 몇만 불이라도 얻어서 아들 내외에게 줘야겠다고 다짐했었다. 염치없는 것 같기도 하고 당연한 것 같기도 했지만 도영감에게 오해라도 살까 봐 병어리장갑마냥 참고 기다렸다. 영감의 통장엔 적어도 몇십만 불, 아니 백만 불 이상은 축히 들어 있었을 게다. 정부에서 꼬박꼬박 집세 제하고 나오는 연금도 다 쓰지 않고 모으고 살았지만 한 번도 통장에 얼마나 들어 있는지, 뒤에 쓸 건지 묻지 않았다.

모았다가 양쪽 자식들 힘들 때 보태 주려나 기늠할 뿐이었다.

흥할매는 매일 아침 아들 내외를 위해 따뜻한 밥상을 차리는데 모든 정성을 쏟았다. 상 머리에 앉아 생선 가시도 발라주고 밥을 다 먹을 즈음에는 구수하고 뜨끈한 누룽지로 속을 달래 일터로 내보냈다. 한두 달 사이 아들 내외의 얼굴이 보양계 살아나고 웃음 진 얼굴이 보기 좋았다. 손녀딸은 여전히 명랑한 얼굴로 시도 때도 없이 와락 안기며 할머니가 돌아갈 날이 다가오는 걸 아쉬워했다.

흥할매는 귀국을 며칠 앞두고 동대문 시장 지하철역 계단참에서 만난 노점상 할매가 떠올랐다. 흥할매보고 영어 할매라고 겁나 부럽다고 한 말이 떠올라 혼자 빙그레 웃었다. 습관처럼 흥얼거리던 노래가 입 밖으로 터져 나왔다. 순대국밥 한 그릇 먹자고 했으니 약속은 지키고 떠나야 했다. 흥할매는 손녀딸이 사준 새 신발을 신고 동대문으로 향했다. 지하철에서 내려 올라가는 계단참은 비어 있었다.

“아지매요, 여기서 장사하던 할매 오늘 안 나왔니꺼?”

“에그, 어찌나? 그 할매 돌아가신 지 달포는 됐어요. 손님도 없는데 매일 나오시더니 화장실 가다가 계단에서 굴렀어요. 119 불러서 병원에 갔는데 뇌진탕으로 하루도 못 넘기고 돌아가셨어요.”

“저런 저런. 쫓쫓. 장례식에는 가 봤나요?”

“자식도 없이 혼자 사는 노인네라 장례식이랄 게 뭐 있나요? 그냥 시에서 화장하는 날 여기 노점상 몇 사람이 갔다 왔어요. 참 쓸쓸하고 안됐어요.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맨날 추운 돌 위에서 종일 쪼그리고 앉아서 팔리지도 않는 물건 앞에 계셨으니, 그만큼 산 것도 기적이지요. 그 할머니는 왜 찾으세요? 돈 받으실 게 있는 건 아니죠? 할머니 돌아가셨다는 말 듣고 몇 사람이 돈 받을 게 있다고 다녀갔어요. 제가 아는 할머니는 절대 남한테 돈 빌리고 사는 노인이 아니거든요. 순 거짓말이에요. 돌아가셨다니까, 설마 숨겨 놓은 돈이라도 있나 하고 허튼수작 부린 거죠.”

“설마, 사람이 죽었는데….”

“산 사람만큼 징그러운 짐승도 없지요.”

“할매 뜨끈한 순대국밥이라도 한 그릇 사드리려고 왔더니만, 마음이 안 됐네요.”

“친구 하나 없이 살다가 외국 친구 생겼다고 좋아하셨는데, 살아 계실 때 오셨으면 얼마나 좋아하셨을까요? 죄송하지만 두 분 다 너무 안 되셨네요. 어찌죠.”

“하는 수 없죠. 그래도 우린 곧 만나지 않겠어요.”

“할머니같이 마음이 따뜻한 분이 오래 사셔야죠.”

홍할매는 노점상 할매에게 순대국밥 한 그릇 사주지 못하고 떠나보낸 것에 대해 후회했다. 만난 날 그 자리에서 선뜻 순대국밥 한 그릇 사주고 왔어야 했는데. 돌아오는 발길이 무거웠다. 홍할매는 노점상 할매에게 쓸데 없는 기대로 실망만 안겨준 것 같은 자책이 들어 지키지 못할 약속이 얼마나 허망한지 못내 아쉬웠다.

“어머니세요? 겨울이라 한국에 오실 줄 알았어요. 언제 돌아가세요?”

“잘 있었는가? 나는 내일 가네. 도영감님은 잘 지내시제?”

전에는 한 번도 어머니라 부르거나 안부 전화도 할 줄 모르는 도영감의 며느리가 출국 전날 전화를 해 왔다. 모를 일이다. 홍할매 모르게 한국으로 떠나기 전 자식들에게 20년 동안 모아 둔 돈을 다 빼돌리고는 소식도 끊고 살지 않았나?

예정된 귀국하는 날이다. 출근해야 하는 아들 내외와 버스 정류장에서 작별 인사를 나누고 국제공항으로 향했다. 홍할매는 몇 년만 더 고생해서 자식들한테 짐 되지 않을 만큼 벌어야겠다고 다짐하니 홀가분해졌다. 올 때와는 달리 훌쩍해진 홍할매의 배낭에는 손녀가 선물한 따뜻한 털 신발 한 켤레가 홍할매의 시린 가슴을 채웠다.

예전 같으면 공항에서 도영감을 만나 같이 밴쿠버로 돌아가곤 했다. 공항

에서 석 달 만에 만난 도영감의 얼굴은 떠나기 전보다 뿌옇게 살이 오르고 머리에 염색해서 십 년은 젊어 보였었다. 자식이 좋긴 한가 보다. 새로 해 입은 양복에 빛이 번쩍이는 구두, 증절모를 쓰고 나타난 도영감은 전혀 다른 사람이었다. 밴쿠버 집에 돌아와 도영감의 가방을 풀면 가방에는 싸 보낸 도토리, 송이버섯, 나부랭이 대신 바다 내음이 실린 푸른 새 가디건과 셔츠, 남성용 화장품 등 자식들이 사준 물건으로 가득했다. 홍할매 것은 없었다. 홍할매의 가방 속에서도 비릿한 바다 향이 나는 미역과 김, 그리고 멸치, 새우들이 미안한 듯이 허리를 구부리고 줄 비엔나소시지처럼 꾸역꾸역 나왔다. 도영감이 좋아하는 얼린 순대와 전빵이 얼굴을 내미는 사이 큼직한 냄새를 타고 오징어젓, 멸치젓, 명란 창난젓이 끊임없이 나왔다. 홍할매의 가방에서 나온 물건을 보고 도영감은 한동안 돈 들어갈 일 없다며 흐뭇해했다. 가족이라는 한 끈을 잡은 이상, 절대 놓치지 않으려는 홍할매의 통한이 담긴 한 끼 찬이었다. 별을 키우면 달이 보이고 달을 키우면 별이 보여. 정신을 차려 보니 누군가 몰래 외진 곳에 양심 내려놓고 버리고 간 개처럼 혼자 우두커니 남아 있었다. 이십 년 동안 전처가 남기고 간 자식에 손주 뒷바라지로 농장으로 산비탈로 홍할매의 손은 쉴 새 없이 바빴지만, 그들에게 홍할매는 타인보다 멀었다.

혼자 국제공항에서 캐나다로 돌아가는 길이 가을걷이 끝내고 곱게 비질한 마당처럼 쓸쓸했다. 뒤에서 누군가 할매라고 부르는 것 같았다. 잘못 들었을 거라 믿으면서도 뒤를 돌아보았다. 예전과는 달리 초췌하고 땃국물이 줄줄 흐르는 물골로 홍할매를 보고 반기는 도영감이 보였다.

“할매, 염치 없지만 같이 가고 잡아 나왔네, 그려….” 홍할매는 심장이 통떨어질 것 같은 충격에 휩싸였다. 벌써 보낼 옷가지 보통이도 부치고 탑승만 하면 될 찰나였다. 홍할매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 산비탈 길을 오르내리며 주운 도토리 자루가 와르르 쏟아지는 착시 현상과 팍과 모기 범벅인 블루베리에서 본 해질 녘 노을이 요동치는 가슴을 뚫고 머리를 스쳤다.

“땀기는 뭉땀시 탄다요. 그냥 갯내 나는 바다로 께기들 밥이나 주러 갑시다.” 순순히 흥할때를 따르는 도영감의 바짓가랑이 사이로 흥할때의 참아낸 눈물이 쏟아져 내렸다.

Q-tip의 여왕

박혜자

우리 이혼의 표면적인 주범은 큐팁이라고 한다. 이비인후과 의사들은 큐팁으로 귀를 자주 후벼 파면 고막에 염증이 생겨, 심하면 청력을 잃을 수도 있다고 했지만, 나는 세상에 태어나 이처럼 가성비 좋은 물건을 보지 못했다. 샤워를 하고 났을 때, 누군가 내 흥을 보는 것처럼 귀가 간질간질 할 때, 구석진 창틀의 먼지를 닦을 때, 컴퓨터 자판기 글자사이 먼지를 제거할 때, 은밀한 곳에 무얼 바를 때 등등 큐팁의 용도는 나열하자면 끝이 없다. 세상엔 거자씨처럼 작지만 제 역할을 톡톡히 하는 물건이 있는 법이다. 덩치만 크지 먹고 싸는 것 외에는 아무 쓸모가 없는 제이에 비하면 큐팁이야말로 생활의 동반자이며 없어서는 안 될 인생 필수품 인 것이다. 하지만 사흘 전 느닷없이 나에게 걸려온 전화는 이런 나의 큐팁 사랑에 찬물을 대량으로 끼얹었다. 목소리부터 교만 끼가 푹푹 흐르는 여자가 자신을 이혼 전문 변호사라고 하며, 제이가 이혼을 청구했음을 알려온 것이다.

유창한 영어와 어설픈 한국말을 번갈아 가면서 사용하는 미미 김은 에너지 드링크를 한 손에 들고 있었다. 마치 프로 게이머가 시합을 할 때처럼 그녀는 간간이 에너지 드링크를 마시며, 나를 이모저모 살펴보는 눈치였다. 나 역시 나의 무능한 뇌신경을 탓하며 이 예기치 못한 상황을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를 신속하게 궁리 했다. 아무리 생각해도 제이에게 이용당하고 뒤통수를 얻어맞은 기분은 확실히 들었는데, 딱히 그 더러운 기분의 정확한 실체를 알 수가 없어 좀 혼란스런 기분이 들었다. 결국 착하게 산 끝은 이런 것이다.



박은숙 1961년 서울 출생. 경희사이버대학원 미디어문예창작학과 졸업. 2002년 캐나다 밴쿠버로 이민했다. 2009년부터 현재까지 캐나다 밴쿠버 헤오름한국문화학교 교장을 맡고 있다. 서울이야기 공모전 수필, 경희 해외동포문학상 소설, 무궁화문학상 동화, 보훈문예작품상 수필, 재외동포문학상 소설 등 입상.

미미킴은 서류를 뒤적이는 척하더니 제이가 접수한 접수장을 들고 와서 선 채로 물었다.

“혹시 이혼의 사유가 무엇인지 짐작이 가는 것이라도 있나요?”

난 미미킴을 빤히 쳐다보았다. 흰색 블라우스 소매 끝이 누렸다. 머리는 며칠 감지 못한 것처럼 보였고, 립스틱은 너무 빨갛다.

“아니요, 모르겠어요... 오늘 아침 먹을 때까지도 아무 말이 없었는데요.”

“아, 두 분이 평소에 대화를 전혀 안 하시는구나.”

“...”

“오브 코오스, 원래 그래요, 이혼 소송이란 게 황당한 거예요. 그런데 남편 분께서 위자료를 요구했는데 어찌죠?”

“오마이 갓, 무슨 명목으로 위자료를 요구해요?”

“결혼 생활 동안 너무 비위생적인 와이프 때문에 힘들어서 정신적 스트레스가 심했다고 했어요”

“헐!”

“특히 큐팁 때문에 결혼생활이 거의 불가능할 지경이었다고 하던데요”

나는 어이가 없었다. 아니 그 까짓 큐팁 때문에 이혼을 하겠다니, 아무리 이혼이 흔해진 세상이라고 하지만, 지나가던 개가 웃을 일이었다. 그런 이유로 이혼을 할 것 같으면 세상의 부부 짝 반은 갈라서게 될 것이다. 나는 너무 화가 난 나머지 이혼도, 위자료도 줄 수 없다는 말을 반복하고, 미미킴 변호사 사무실문을 쾅 닫고 나왔다.

근래에 제이는 퇴근 하면 집에 오자마자 욕실로 들어가 에피솜 솔트를 잔뜩 붓고, 욕조에 물부터 받았다. 그런 후 차가운 와인 한 병을 잔과 함께 들고 들어가, 욕실 벽면에 설치된 티브이를 켜놓고 잠이 들 때 까지 욕조 안에 누워있었다. 가끔 그런 모습을 본 내가 침대에 가서 자라고 하면 화를 벌컥 내곤 욕조물이 차가워지면 할 수 없이 방으로 기어들어갔다. 그날도

나를 부르는 제이의 목소리가 심상찮았다.

- 은미야! 은미야! 이게 뭐야, 또!

그때 나는 귀에 이어폰을 꼽고 힙합 가수 Q-tip의 Vibriant thing 이란 노래를 듣고 있었다. 가수 이름이 내가 좋아하는 큐팁인 것도 특이했지만, 곱슬머리 큐팁은 내가 큐팁으로 귀를 후비고 나면 상쾌해지는 것처럼, 정말이지 활기차게 노래를 잘도 불렀다.

마침내, 제이가 수건으로 아래만 가리고 욕실 밖으로 나왔다. 제이의 손엔 욕조 밑바닥에서 발견 한 듯한 물먹은 큐팁 몇 개가 쥐어져 있었다.

- 제발 이 빌어먹을 큐팁 좀 욕조 안에서 안 쓸 수 없어? 쓰고 나면 휴지통에 잘 버리든지 욕조에 물이 안 채워져서 봤더니, 이게 욕조 하수도 구멍 안에 세 개나 들어있어서 물이 계속 새고 있었던 말이야!

- 아, 그럼 버리면 되지, 뭘 그런 걸로 날 불러.

- 뭘, 그런 걸로? 매번 그것 때문에 제 때 목욕을 할 수가 없잖아!

제이는 그날 이미 화가 난 상태로 집에 도착했다. 전에 다니던 직장을 그만 둘 때와 상황이 비슷했다. 그때도 공교롭게 세면대에 큐팁이 걸려 물이 내려가지 않는다고 투덜대더니 다음날부터 직장을 나가지 않았다. 처음엔 병가, 일주일쯤 지나면 휴가라고 핑계를 대다가, 끝내는 회사를 그만 두는 일을 반복하며, 점점 규모가 작은 회사로 밀려나기를 밥 먹듯이 하더니, 최근에는 회사라 하기에 민망한 한인이 운영하는 뷰티 서플라이 가게를 다니고 있었다.

유학비자로 미국엘 온 제이는 끝내 박사학위도 끝내지 못하고, 비자종료를 3개월 앞둔 시점에서 우연히 나를 만났다. 당시 나는 부모가 운영하는 도넛샵에서 캐시어를 하고 있었는데, 제이는 가끔 도넛과 커피를 사러 오더니, 비가 억수로 쏟아지던 날 나에게 데이트 신청을 했다. 그리고는 채 두 달도 지나지 않아 내게 청혼을 했다. 양가 부모 모두 결혼식에 참석하지

않겠노라고 해서 우리는 라스베가스 웨딩채플에 가서 10분 만에 결혼식을 후딱 올리고 왔다. 물론 결혼 라이선스는 당일로 받았다. 특목고에 스카이를 졸업하고 박사공부까지 한 제이의 선택을 제이의 부모는 당연히 받아들이지 않았다. 우리 집에서는 무임금으로 평생 부려먹을 수 있는 딸을 빼앗긴 것이 분해서 나의 결혼을 반대했다. 사실 나는 제이와의 결혼을 서두를 이유가 별로 없었다. 그때까지 나는 한 해 쉬고, 한 해 다니는 식으로 6년째 대학생 노릇을 하고 있었다. 졸업을 하고나고 나면 일단 미국 횡단 여행을 먼저하고 천천히 취직을 할 생각이었다. 『분노의 포도』에 나오는 오래된 길, 루트 66를 따라 캘리포니아까지 가면서 큐팁처럼 작은 나의 존재에 대해 고민을 좀 해볼 참이었다. 낫킹콜의 흐느적거리는 목소리로 루트 66를 듣고 있으면, 웬지 모르게 그 길을 천천히, 아주 천천히 몇 년여에 걸쳐 달려보고 싶은 충동이 일었는데 그 계획이 곧 나의 미래였다. 초등학교 때 이민을 왔지만, 난 여전히 한국인도 미국인도 아닌 어중간한 코메리칸이었다. 이곳 아이들 속에 있으면 어김없이 얼굴 납작한 동양 여자에였고, 한국 사람들 속에 있으면 어설픈 한국어를 구사하는 바나나처럼 걸만 노란 미국인이었다. 우리 집은 사용하는 언어만큼이나 모든 것이 한국식도 아니고 미국식도 아닌, 좀 어정쩡한 상태였다. 엄마는 날이 갈수록 국적불명의 음식을 만들었는데 이를테면 떡볶이에 닭고기나 스파게티 면을 집어넣는 식이었다. 엄마의 주장에 의하면 우리는 이제 언어든 음식이든 이곳 사람들 식으로 변해야만 이 신대륙에 적응할 수 있다고 했다. 하지만 엄마 본인도 이곳사람들 식이 확실히 어떤 식인지 명확하게 알지 못했다. 아니 처음부터 이곳에 어떤 규정은 없었다. 사실 우리 가족은 말이 좋아 미국시민이었지 서툰 영어에, 도넛가게 손님 외에는 제대로 된 미국인을 접해본 적도 별로 없고 텍사스를 벗어나 본 적도 없는 거의 미국속의 외딴섬 같은 존재들이었다. 그런 나와 결혼을 제이가 몹시 서둔다는 느낌이 들었다.

빨강 넥타이를 즐겨 매고 만화영화에 나오는 태즈매니아처럼 생긴 새 대

통령은 불법체류자들을 모두 쫓아내고, 잃어버린 블루칼라 백인들의 자긍심을 되찾게 해주겠다고 연일 떠들어대고 있었다. 텍사스와 멕시코 국경에 만리장성 같은 거대한 벽을 설치하기 시작한 것도, 미시간호를 둘러싼 러스트 벨트 지역을 자주 방문해서 ‘힐빌리의 노래’를 자주 언급한 것도 그 무렵이었다. 무엇보다 제이는 한국으로 돌아가지 않으려 했다. 가기만 하면 최소 대한민국 상위 5%들이 누릴 수 있는 호사를 마다하고 밀바닥부터 시작해야 될 이곳에 안주하려는 제이의 의중을 난 알 수가 없었다. 어쨌든 제이는 시민권자인 나와 결혼한 뒤, 영주권이 나오자마자 그때부터 일을 하다 말다 하면서 내가 끊임없이 큐팁 생각을 하게 만들었다.

큐팁은 일단 가려운 곳을 긁어주는 중요한 기능이 있다. ‘가렵다’라는 느낌은 뭔가가 충족되지 못하고 아쉬울 때 생겨난다. 물론 생리적이거나 병리적인 현상 때문에 가려움이 오기도 한다. 어찌 보면 인류의 역사는 항히스타민의 역사이다. 인류를 가렵게 하는 요인은 봄날 풀풀 날리는 꽃가루부터, 수만 가지 음식, 인간관계의 부조리에서 오는 스트레스 등 무수한 원인이 있다. 오죽하면 요즘 병원에는 이런 케이스만 전문적으로 다루는 알레르기과가 따로 있을까. 인간에게 가려움을 유발하는 알레르기의 원인은 수천 가지라는데, 난 아직 어떤 사람이나 동물, 식물 등이 내게 알레르기를 일으키는지조차 잘 모른다. 이런 연유로 제약회사들은 끊임없이 신약개발에 목숨을 걸고 우리는 비싼 연구비가 포함된 새로운 항히스타민제를 해마다 구입하고 있다.

모름지기 부부라면 서로 가려운 데를 긁어줄 줄 알아야 한다. 하지만 오랜 세월을 함께 산 나의 엄마, 아빠는 물론이고 나와 제이도 서로의 가려운 곳이 어디 인지조차 모른다. 아니 알면서도 외면하거나 서로 긁어줄 능력이 안 되어 모른 척했는지도 모르겠다. 누군가 세밀하게 가려운 곳을 서로 긁어준다면 세상은 좀 더 살맛이 날 것이다. 사실 나는 결혼 전까지 엄마 아빠의 큐팁 역할을 했다. 영어가 필요한 일은 항상 나의 일이었다. 병원을

예약하는 일, 은행 가는 일, 고지서가 잘못 나와서 따져야 하는 일, 크레딧 카드를 발급 받는 일, 엄마 옷을 바꾸러 가는 일 등등, 소위 주로 돈과 관련된 일들이었다. 한 번은 내가 이제 이런 일들은 아빠가 직접 처리해야 하지 않겠느냐고 물었더니 아빠는 얼굴이 붉어지면서 나를 한 동안 노려보았다. 그럴 때마다 나는 큐팁을 가지러 갔다. 아빠의 이해할 수 없는 표정을 보자 갑자기 귀가 가려워 지는 것이다. 나는 주로 난처한 일을 당하거나, 관계가 어그러질 때, 일이 잘 안 풀릴 때, 아니면 누군가 먼 곳에서라도 내 흉을 보고 있다고 여겨질 때 주저 없이 큐팁을 찾았다. 가끔이긴 하지만 기분이 아주 좋을 때도 마찬가지이다. 또한 큐팁을 일반적인 용도로 사용할 때는 나에게 딱 맞는 옷을 입은 것처럼 기쁘다. 샤워나 목욕 후는 물론이고 모기나 개미에게 물려서 큐팁으로 분홍색 칼라민로션을 바를 때는 작은 펄펄마져 느껴진다. 그런 연휴로 찜질방이나 수영장 탈의실에 큐팁이 보이지 않으면 나는 견잡을 수 없이 화가 난다. 인간의 심리를 그렇게 모르는 해당 업소의 매니저라면 해고를 당해야 마땅하다. 그들은 알맞게 숨이 말려있는 큐팁으로 양쪽 귀를 돌리다 보면, 출광대가 아슬아슬하게 공중에서 줄을 밟고 건너는 것 같은 짜릿한 기분이 든다는 걸 모른다. 이때 눈은 먼 곳을 향하며, 강아지들이 기분 좋을 때 하는 동작처럼 꼭 한 발을 들게 되는데, 몇 분간 그러다 보면, 쓸데없는 근심 걱정이 눈 녹듯이 사라지고, 무한 긍정의 마음이 되는 신비로운 경험까지 하게 된다. 또한 귀 안이라는 작은 동굴엔 한계가 있지만, 구석구석 감각만으로 귀안을 해집고 다니다 보면 묘한 쾌감마저 느껴져 나도 모르게 신음 소리가 나기도 한다.

아마도 나의 하루 큐팁 사용량이 급격하게 증가하게 된 계기는 제이와 각 방을 쓰게 된 이후부터였을 것이다. 너무 자존심이 상하는 일이지만 제이는 뚜렷한 이유 없이 결혼하고 일년 정도가 지날 무렵부터 나와서 잠자리를 거부했다. 이걸 물론 내 입장이다. 제이 나름대로의 사정이 있을지도 모른다. 처음에 나는 오랜 실업으로 무기력증에 우울증이 겹쳤다고 여겼다.

나는 쾌락이나 섹스를 즐기는 타입은 아니다. 그렇다고 수도자처럼 금욕을 신성시 하지도 않는다. 나는 어떤 면이든지 평범한 사람처럼 살기를 원한다. 일전에 본 기사에 의하면 건강한 30대 부부라면 일주일에 두세 번 정도가 적당하다고 한다. 물론 힘이 넘쳐 날마다 하는 부부도 있겠지만 섹스 리스로 사는 건 확실히 부부관계의 위험한 적신호일 수 있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에 동의한다. 한 번은 내가 정색을 하며 제이에게 그 이유를 물은 적이 있다. 제이는 자신의 부모도 30대부터 각방을 썼는데 아직도 부부라고 대답했다. 제이는 부모를 그렇게 혐오하면서도 닮아가고 있다. 제이가 된장국을 먹지 않는 것과 골프를 싫어하고, 키 큰 여자를 별로 좋아하지 않는 이유를 얼마 후 나는 알게 되었다.

내가 지나다니는 동선 어딘가에는 꼭 쓰다만 큐팁이 있는데, 제이는 기분이 좋을 때면 큐팁을 발견한 족족 휴지통에 넣으며 '어구 헨텔과 그레텔이 흘리고 다닌 빵조각 같네' 하면서 웃었다. 사실 당시에 우리 둘은 부모에게 버림받은 헨텔과 그레텔 같았다. 조건만 다를 뿐이지 부모들은 자식들이 자신들의 욕구에 부응하지 못한다 싶으면, 이 핑계 저 핑계로 자식들을 버리기 일쑤이다. 교육열이니 뭐니 하는 것들은, 모두 본질은 제쳐두고 대리 만족을 하기 위함이라는 걸 우리는 이미 초등학교 때부터 알고 있었다.

진정한 교육열의 발로는 자식의 행복이어야 한다. 그럼에도 자식이 자기 뜻대로 통제가 안 된다 싶으면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는 말로 자기들 자존심세울 궁리부터 먼저 한다. 그러기에 부모에게 상처받지 않고 자란 자식들이 더 드문 세상이 되었다. 고아와 같은 심정이 된다는 것은 이런 것이다. 우리가 다시 돌아오기를 애타게 기다리는 부모도 없었을뿐더러, 혐악하고 어두운 숲 같은 세상에 내 던져진 기분, 아무도 주목하지 않고, 아무도 간섭하지 않는 인생들, 그 인생들이 우리였다. 둘이 애쓰고 벌어야 겨우 빠듯하게 살 수 있는 처지였는데, 별 희망이 보이지 않는 것도 문제였다. 여기서도 대학졸업장이 없으면 하는 일은 뻘해서 나는 주로 옷가게나 미장

원, 도넛샵 같은 곳에서 캐시어를 했고, 제이는 석사학위가 있었지만, 전공이 심리학인 탓에 직장을 구하기가 쉽지 않았다. 게다가 제이는 믿는 구석이 있어서인지 직업에 대한 절박함도 없었다.

하루는 샤워를 끝내고, 큐팁으로 귀를 후비다가 '자긴 왜 하필 심리학 같은 걸 전공했어' 하고 물어 보았다. 제이가 아동병원 카운슬러 면접을 보고 온 날이었다.

그냥...

제이는 맥주를 마시며 심드렁하게 대답했다. 제이는 스무고개를 해야 본심을 드러낸다. 무얼 물어도 첫마디는 짧고 간단하다. 둘 사이 대화가 부족한 것이 처음엔 언어차이로 여겼는데 지나고 보니 그건 여러 가지 복합적인 이유가 있었다. 살아온 환경이 다른 것은 커다란 문화차이를 낳는다. 초등학교 때 이민 온 나는 한국말을 제법 잘한다. 그래서 주로 한국말로 얘기하려 하는데, 카운슬러가 목표인 제이는 유창한 영어가 필요해서 인지, 가급적 영어로 말하려고 애쓴다. 맥주를 여섯 캔 정도 마셨을 때 제이는 심리학을 전공하게 된 결정적인 이유가 부모의 끔찍한 불화였다고 말했다.

- 날마다 서로 죽일 것처럼 싸웠어, 그런데 참 신기한 게 그러면서도 이혼은 안 하더라고...

- 그런 부부들이 많아, 우리 집도 그런 편이야!

- ...

- 그래서 심리학 전공한 뒤론 부모가 좀 이해되었어?

- 아니, 배우고 나니 더 이해가 안됐어. 일반적인 사람들은 스트레스에 장기간 노출되면 다른 길을 찾거든. 그런데 우리부모는 둘 다 누가 더 스트레스에 강한지 실험하고 있는 사람들 같았어.

- 자기는 부모님 안 닮았네... 스트레스에 취약하잖아!

- 사이코 되는 것보다는 낫잖아.

- 그럼 자기 부모가 사이코란 얘기야? 두 분은 결혼이라는 제도를 좀 다

르게 받아들이고 있는 게 아닐까?

참 제이의 부모가 특이하기는 했다. 둘은 석 달 간격으로 번갈아 가면서 미국여행을 왔다. 둘 다 골프 파트너를 따로 동반하고 말이다. 제이가 몇 년 만에 들은 아버지 목소리에 대고 한 첫마디는 펍큐였다. 전화벨이 몇 번 더 울리다 말았다. 석 달 후 제이 엄마에게서 전화가 왔다. 제이는 당신이 라고 칭했고, 자신은 이제 누구의 자식도 아니니 제발 그만 좀 상관 말라고 소리를 질렀다. 그리고 며칠 후 제이 엄마가 우리 앞에 나타났다. 현관문을 열었을 때 60대라고는 도저히 믿기지 않는, 모델처럼 키가 크고 날씬한, 도자기처럼 하얗고 투명한 피부를 가진 몹시도 세련된 한국여자가 서 있었다. 여자는 나를 보더니 네가 은미구나 하면서 악수를 청했다. 나는 악수에 익숙지 않아 한동안 손이 없는 사람처럼 서 있다가 그 여자의 손이 무안할 것 같아 살짝 스치게만 해주었다. 막 샤워를 하고 난 제이는 제 엄마를 보더니 문 닫아버려! 하면서 이층으로 올라가 버렸다.

들어오세요, 여자는 들어오면서 차에 남아있는 젊은 남자에게 잠깐 들어갔다 나올게 하는 사인을 보냈다. 집안으로 들어온 여자의 시선이 블라인더 살이 몇 개 떨어져나간 창가에 머물렀다. 요즘 제이는 뭐해?

그냥 집에 있어요.

제이야! 제이야! 엄마랑 이야기 좀 하자, 여자가 아들을 부르는 소리는 제이가 화가 날 때 은미야! 은미야! 하는 것처럼 들렸다. 여자는 30분쯤 어색하게 서성이다가 돌아갔다. 가고 나서 보니 거실 창가에 하얀 봉투가 놓여 있었다. 제이는 그 봉투를 집어 나에게 주며 마음껏 쓰라고 했다. 봉투 안에는 용돈이라고 하기에는 꽤 많은 삼만 불이 들어 있었다. 도넛가게에서 몇 십전짜리 도넛을 파는 엄마가 알면 펍이나 좋아할 뉴스였다. 엄마에게 사람의 인품은 곧 돈 액수와 정비례했다. 젊은 애인과 골프 치러 왔다가 아들에게 주고 간 돈이에요 하면 엄마는 뭐라고 할까, 능력 있구나 네 시엄마. 나도 그렇게 한 번 살아봤으면 좋겠다. 나는 평생 입맛 까다로운 네 아

버지 밥해주며 세월 다 보냈단다. 요즘 세상에 나처럼 사는 여자도 드물 것이다. 그렇게 좀 사먹어, 한인타운에 식당도 많은데 촌스럽게 집 밥을 고집하는지 몰라, 답답하게 사는 것은 모전여전인지 나도 그렇게 살고 있다. 백수에 일찌감치 발기부전인 제이를 군말 없이 돌보고 있으니 말이다.

미미킴을 만나고 난 뒤 나는 곧장 집으로 왔다. 제이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티브이를 보면서 피자를 먹고 있었다. 나는 피자 박스에 남아있는 세 조각의 피자를 모두 제이 얼굴을 향하여 무더기로 집어 던졌다.

- 감히 니가 나에게 이혼을 요구해? 지난 4년간 너를 먹여 살린 내게!

- 왓 더 헬?

- 위자료 받아야 할 사람은 나야, 이 비겁한 새끼야!

- 나는 네가 얼마나 비위생적이고 더러운지 증거를 다 가지고 있어.

제이가 차라리 다른 이유를 대며 이혼을 요구했다면 나는 이렇게 까지 화가 나지 않았을 것이다. 가령 소비습관이 안 맞는 다든지, 정치성향이나 음식 취향이 다르다든지, 시댁과의 갈등 등등 얼마든지 누구나 납득할 수 있는 이혼 사유가 널려있는데, 제이는 뜬금없이 큐팁을 이혼 사유로 택한 것이다. 이건 억지다. 이게 억지가 아니라면 뭐란 말인가. 큐팁으로 인해 작은 불편을 겪었을 수는 있지만, 결정적인 이혼 사유가 될 만큼 그에게 치명적이었는지 알 수가 없다. 제이는 큐팁에게 질투를 느끼고 있는 게 확실하다. 내 손에 큐팁이 있으면 항상 난 웃고 있기 때문이다. 반대로 제이와 함께 있으면 우울할 때가 더 많아진다. 제이는 지금 거의 백수에 가깝고 미래에 대한 계획도 희망도 없다. 게다가 성격이 좋은 것도 아니고, 집안일도 거의 도와주는 법이 없을뿐더러 양가 부모와의 사이도 최악이다. 언젠가부터 친정부모도 제이를 부담스러워하는 눈치이다. 게다가 제이 역시 자신의 부모와 사이가 안 좋은 탓인지 나이든 사람들을 몹시 불편해 한다. 나는 갑자기 귀가 또 가려워졌다. 이번에는 양쪽 귀가 가려웠다. 나는 급히 화장실

로 걸어갔다. 그러나 큐팁 통은 텅 비워져 있었고 수많은 큐팁이 변기 안에 버려져 있었다. 나는 어지러웠다. 나의 말없는 충직한 신하들이 변기통 안에서 생을 마감하고 있다니 있을 수 없는 일이었다. 갑자기 제이에게 걸잡을 수 없는 분노가 일어났다. 나는 차고로 나갔다. 그곳에는 제이가 가장 아끼는 노란색 페라리가 한쪽에 얌전히 놓여 있었다. 나는 그 페라리의 커버를 벗기고 본넷에 kill you라는 글자를 칼로 북북 긁기 시작했다. 잠시 뒤 차고로 나온 제이는 하얗게 질린 표정으로 '오마이 갓'을 연발했다. 그러더니 갑자기 구석에 있던 골프채를 집어 들고 나를 향해 돌진했다. 나는 고개를 숙여 가까스로 위기는 모면했는데, 차고 벽에는 커다란 구멍이 여기저기 생겼다. 제이는 나를 향해 계속 골프채를 내리쳤는데 마지막 스윙에 나는 팔꿈치를 크게 다쳤다. 뼈가 금이 간 것인지 말할 수 없는 통증이 느껴지며, 팔꿈치가 풍선처럼 벌겍게 부어올랐다. 나는 차고 문을 열고 앞집으로 뛰어가서 도와달라고 소리를 질렀다. 잠시 뒤 내 모습을 본 앞집 여자는 어디론가 전화를 했다. 곧 이어 사이렌 소리가 온 동네를 깨우고 제이는 경찰서로 나는 병원으로 실려 갔다. 긴 하루였다.

그 뒤 제이의 변호사, 미미킴은 내게 만나자는 전화를 수시로 했다. 그녀는 위자료든 뭐든 내가 원하는 대로 해줄 테니 제발 제이가 가정폭력범으로 구속되지 않게만 해달라고 호소를 했다. 나는 그 제안을 단번에 거절했다. 며칠 후, 제이 엄마에게서 소포가 왔다. 소포 박스는 꽤 컸는데 그 안에는 엄청난 수의 큐팁 박스와 두툼한 현찰봉투, 그리고 쪽지가 한 장 들어 있었다.

은미야, 미안해!

너의 소중한 것들을 함부로 대한 제이를 용서해 주길 바란다.

큐팁이 너에게 소중한 것처럼, 제이도 나에게겐 그런 존재란다.

선처를 바라며….

나는 큐팁과 현찰들을 모두 돌려보냈다. 그리고 새 큐팁을 사서 크리스탈 통마다 가득 채웠다. 와인 한 잔을 들고 향기로운 버블 배스를 하는 평온한 저녁이 내게 다시 돌아왔다. 어디선가 휴대폰 울리는 소리가 계속 나고 있었다.



박혜자 미주중앙일보 신인문학상, 재외동포문학상, 해외 품꽃 시인상 등. 현재 달라스 KTN 칼럼니스트.

운정

성민희

만딸이 현관문을 들어서자마자 호들갑이다.

“아버지, 아버지! 저 골목 입구에 엘리트 세탁소 간판이 바뀌었어요.”

가끔 반찬을 해다 나르는 딸이 기이한 장면이라도 본 양 목소리를 높인다. 남의 세탁소 이름이 바뀌든지 말든지 뭘 상관이란. 심드렁한 김씨의 표정에 대고 딸이 또 한마디 한다.

“주인이 한국 사람으로 바뀌었나 봐요. 간판이 ‘운정’으로 변했어요.”

운정이라는 말에 김씨의 눈이 휘둥그레 커진다.

“운정? 운정이라겠나? 운정이라는 말이 흔치 않은데? 한자로 우째 썼더노?”

“아이고, 아버지도. 미국에서 무슨 한자를 씁니까? 영어로 쓰지요. 더블 유 오 오 엔 제이 유 엔 지 라고 좌악 붙여서 써놨죠.”

한국의 시골 동네 이름이 미국 가게의 상호로 씌어졌다는 사실이 놀라운 김씨와는 달리 딸은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여느 때처럼 저녁을 차린다. 오늘의 메뉴는 육개장에 계란찜하고 김이다. 음식 해다 나르느라 고생이 많다. 그냥 마켓에서 사 먹어도 된다는 등 김씨가 미안해하자 이 나이에 ‘아버지’하고 부를 사람이 있어서 좋다며 딸은 설거지까지 해놓고 갔다.

거실의 불을 끄고 안방으로 들어가며 김씨는 집안을 한 바퀴 휘 둘러본다. 앞마당으로 향한 창문 커튼은 열어본 지 오래다. 다이닝 룸의 식탁도 거실의 소파도 사람 냄새 맡아본 지 언제인가 싶다. 아내 떠나보낸 지 벌써 삼 년이 되었다. 그리 살갑게 정을 나누며 살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함께 미국까지 와서 자식들 잘 키우고 남부럽지 않았는데. 그때는 알지도 못했고

느끼지도 못했던 아내의 혼기가 그림다. 거실 벽 한쪽에 걸린 가족사진 속에 분홍색 한복을 입은 여자가 활짝 웃고 있다. 아이들이 차려준 그녀의 철쭉 잔치상 앞이다. 김씨는 혼자 중얼거린다.

“다른 집은 남자가 먼저 간다카던데... 평생을 설치면서 나를 끌고 다니더니 가는 것도 앞장서서 가버렸네. 와? 그곳에도 나보다 앞서가고 싶었나? 허.”

김씨는 해가 지붕 위에 올라앉을 무렵 집을 나선다. 어제 딸이 말한 그 운정세탁소가 궁금해서다. 세탁소는 골목 입구 작은 상가 건물에 있다. 그곳은 스킨케어, 네일 샵과 함께 리커스토어가 있어서 동네 사람들이 굳이 차를 타지 않고도 편안하게 드나드는 곳이다. 거기에서 5분쯤 더 걸어 나가면 4차선 대로가 나오고 사거리로 중심으로 큰 쇼핑몰과 주유소가 있다. 샵핑몰 넓은 파킹장에는 맥도널드와 델타코가 나란히 자리하고 있어서 김씨는 점심 요기를 하러 가끔 그곳으로 간다. 오늘은 맥도널드로 가기 전에 세탁소에 먼저 들러 볼 참이다. 늘 가던 길 방향을 바꾸어 작은 상가 건물 쪽으로 걸어가 보니 딸의 말대로 세탁소 간판이 바뀌었다. ‘Woonjung Cleaner’. 진짜로 운정세탁소다. 김씨는 슬그머니 가게 안으로 고개를 들이밀어 본다. 나지막한 음악이 흐르고 계산대에는 아무도 없다. 왼쪽에는 도르래로 돌아가는 기계 위에 옷이 두 줄로 걸려 있고 천정에도 비닐을 덮어쓴 옷과 이불이 나무에 열매 맺히듯이 주렁주렁 매달려 있다. 김씨는 큰 소리로 주인을 부르면서 계산대에 있는 벨을 누른다. 계산대 옆에 자리한 옷 수선용 재봉틀 옆에는 빨강, 파랑, 하양, 검정색 실이 어지럽게 놓였고 한국 신문도 있다.

“웰컴, 켄 아이 헬프 유?”

하얀 블라우스를 단정히 입은 40대쯤으로 보이는 여자가 옷걸이를 든 채 나온다. 김씨를 발견한 여자는 한국 사람을 처음 본 듯 깜짝 놀라며 반갑다

고 한다.

“나도 반갑네요. 옆에 리커스토어도 한국 주인인데. 이제 이 건물도 한국 사람이 다 차지하게 생기뵈네요, 허허.”

사실 그랬다. 이곳은 학군이 좋다고 소문난 동네라 한인이 많이 몰려와 지금은 심심찮게 한국 사람이 보인다. 길 건너 대형 샵핑몰에도 코리언 바비큐, 횃집, 순두부, 중국집 등 한국 식당이 네 개나 된다. 20년 전 김씨가 이사를 올 때만 해도 한인을 보기 힘들었는데 이제는 이국땅이라도 아쉬울 것이 없는 동네가 되었다. 여자는 손에 아무 것도 들지 않고 들어선 김씨에게 세탁물을 찾으러 왔는지 묻는다. 간판이 한국 시골 동네 이름이라 호기심에 들어와 봤다는 그의 말에 여자가 활짝 웃는다.

“네. ‘운정’은 주인 부모님의 고향 이름 같아요. 원래 세탁소를 부모님이 운영하셨는데 아버지 돌아가시고 나서 지금 아들이 물려받은 걸로 알고 있어요. 이곳은 이번에 새로 하나 더 오픈을 했구요.”

“그렇구나. 부모 고향이 운정이구나. 돌아가신 주인 아버지 성함이 어찌 됩니까?”

“잘 몰라요. 주인 성이 황씨인데요.”

황씨라? 황씨가 어디 한두 집이까? 황상구? 그 잘난 부잣집 아들놈이 미국꺼정 와서 세탁소 할 리는 만무하고... 김씨는 서운한 얼굴로 돌아선다. 자기 고향도 운정이라 혹시 고향 사람인가 싶어서 들어왔다는 말에 여자가 그를 불러 세운다.

“주인 오시면 고향 분 다녀가셨다고 말할게요. 어르신 성함은 어찌 되시는지요?”

“나는 김도식이라카요.”

김도식. 여자의 중얼거리는 소리를 뒤로 하고 김씨가 가게를 나서는데 여자가 또 부른다.

“혹시 전화번호라도 주실 수 있어요? 주인의 어머니가 아직 살아계시니

까 어찌면….”

김씨는 오늘도 에버그린 노인센터(Evergreen Senior Center)에 왔다. 이곳은 한인이 많이 거주하는 동네라 한국 노인이 많다. 건물 본관에서 음악 소리가 울리자 매니저 헬렌이 점심시간이 끝났다는 방송을 한다. 이후로는 허리가 아프거나 거동이 불편한 사람은 물리 치료실이나 한방의료실로 가고, 흥이 많은 사람은 노래공부방이나 무용실로 흠어져지만 김씨는 평소처럼 식당 구석자리에 그대로 앉아 있다. 흰칠한 키에 술이 많은 은빛 머리카락. 나이답지 않게 등이 꼳꼳한 김씨가 무연한 얼굴로 센터에 들어서면 할머니들은 김씨에게 시선을 보내곤 한다. 순박해 보이는 그의 모습을 두고 상처(喪妻)를 했을 거다, 어찌면 아픈 아내는 양로 병원에 가 있을 거라는 등 뒷말도 분분하다.

종이컵에 담긴 물을 벌컥 들이키는 김씨의 허리춤에서 핸드폰이 부르르 몸을 뒸다. 낫선 번호다.

“여보세요?”

“…”

아무 말이 없다. 그저 숨소리만 들린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기분이 이상하다. 짧은 정적이 주는 이 느낌은 뭔가? 김씨는 꿀꺽 침을 삼킨다.

“…오빠 맞네. 도식이 오빠 맞네.”

수화기 너머에서 꺽꺽 울음을 참는 소리가 들린다. 순간 숨이 멎는 것 같다.

“누고? 이 목소리는…”

아련한 기억 속에서 가늘게 울려오는 목소리. 순례다. 겹겹이 먼지가 쌓여도 원래의 투명한 모습은 숨어 있는 유리알처럼, 둔해진 음성 속에 맑은

그 목소리가 남아있다.

“순례? 순례아가?”

김씨의 말은 격한 날숨에 실려 쇠쇠 소리를 낸다. 아, 아프지 않고 고향을 떠올려본 적이 있었던가. 김씨는 울음소리만 들리는 수화기를 가슴에 꼭 안고 눈을 감는다.

아무리 생각해도 김씨는 꿈을 꾸고 있는 것만 같다. 미국에 온 후로 한 번도 잊어본 적이 없는 ‘운정’이 아닌가. 영원히 문혀져 있을 것만 같았던 먼 옛날의 기억이 빛도 바래지 않은 채 하루 만에 현실로 다시 태어났다. 믿을 수도 없고 있을 수도 없는 일이 벌어졌다. 순례가 지금 내 앞에 나타났다. 그녀에 의해서 내 존재가 의미를 찾았다고 하면 너무 과장인가.

그때는 그랬다. 온 동네가 힘겨운 보릿고개를 넘고 있을 때에도 방앗간집 굴뚝에서는 밥 냄새가 풍겨 나왔다. 순례 아버지가 운영하는 방앗간은 김씨 아버지의 직장이자 온 이웃의 사랑방이기도 했다. 김서바양~ 하고 어르신이 부르면 아버지는 한 밤중에도 허리춤을 끌어올리며 뛰어 나갔다. 어느 집 잔치가 있는 날이면 아버지는 김이 술술 나는 떡을 신문지에 말아들고 환한 얼굴로 들어왔다. 주문한 떡을 찌주고 남은 것을 굶어모아준 어르신이 고마워 아버지는 싸리문 너머 순례네 집을 향해 고개를 조아렸다.

초등학교에 다닐 때 김씨보다 세 살 어린 순례는 “오빠, 도식이 오빠” 하며 따라다녔다. 두 집이 나란히 붙어있었기에 학교로 갈 때나 올 때 손을 잡아주면 순례는 깡충거리며 개울을 건너곤 했다. 여동생이 없는 김씨는 그런 순례가 한없이 귀여웠다.

초등학교 시절 내내 전교 일등을 도맡아서 하던 김씨가 중학교에 수석으로 합격했다. 평소 김씨를 아들처럼 귀애하던 순례 아버지 조 씨는 잔치를 열어주었다. 동네 사람들이 막걸리를 마시며 시끌벅적할 때 순례는 마당 한쪽 구석에서 질금질금 울었다. 도식이 오빠가 다른 학교로 가기 때문에 더 이상 함께 다닐 수 없다는 어른들의 말에 슬개 울었다. 어른들은 “너그

엄마 죽었나?” 하며 놀려먹었다.

3년 후 고등학교 입학시험에도 역시 김씨는 수석 합격을 했다. 동네 사 람들은 미래의 검사, 판사가 우리 동네에서 나올 거라며 야단법석이었지만 김씨의 집에서는 한숨만 흘러나왔다. 다행히 등록금은 장학금으로 대체가 되었다. 그러나 읍내에 있는 고등학교까지 유학 시킬 형편은 못 되었다. 아 래로 셋이나 되는 동생들을 먹고 입히는 것만으로도 벅찬 가정이었기에 합 격자 발표 이 후로 근심이 깊어졌다. 김씨는 아버지에게 사정했다.

“아버지, 일단 학교에 입학만 시켜주이소. 낮에는 공부하고 새벽에 신문 배달도 하고 밤에는 어데라도 가서 돈 벌끼라예.”

“니 혼자만 있다카몬 와 몬 보내주겠노. 밑에 동생들이 줄줄이 있으니 말 이다. 니가 떠나삐몬 집안일도 문제다 아이가.”

김씨는 주먹으로 눈물을 닦았다. 한숨만 쉬고 있는 부모님의 사정을 모르 는 바 아니지만 정말 학교는 가고 싶었다. 김씨는 슬며시 일어나 사립문 밖 으로 나갔다. 순례네 집은 방마다 불이 켜져 있었다. 김씨는 갑자기 순례가 보고 싶어졌다.

고등학교 입학 등록 마감일이 코앞에 닥쳤는데도 김씨 집에서는 아무런 대책이 없었다. 김씨는 그저 아버지 눈치만 보고 있는데 늦은 저녁에 순례 아버지 조 씨가 김씨와 아버지를 방앗간으로 불렀다.

“읍내 장에 있는 싸전에서 일군을 구하는데 도식이를 보내몬 어떻겠노.”

학교에 보내주는 대신 싸전에 붙어있는 쪽방에서 먹고 자면서 학교 시간 외에는 일을 한다는 조건이었다. 밤에 싸전을 지키는 것도 그의 할 일이라 고 했다. 김씨는 날아갈 듯이 기뻐다. 밤에 잠을 안자고도 싸전을 지킬 수 있고, 새벽에 일어나서 등교하기 전까지 얼마든지 일을 할 수 있다며 김씨 는 순례 아버지의 손을 덥석 잡았다가 깜짝 놀라 도로 놓았다. 순례 아버지는 허허 웃어주었다.

“니는 이때꺼정 우찌 살았노? 영감은?”

순례를 만난 지 이틀이 지나도록 입에 물고만 있던 궁금증이다.

“영감 죽은 지 벌써 10년도 더 넘었다아잉교. 오빠는?”

“우리 할마시? 허허허”

대답보다 웃음이 먼저 나온다. 가슴 한켠에 불이 확 켜지며 알 수 없는 환 희가 몽실몽실 피어난다.

“죽은 지 삼 년 났다. 역시기 살라꼬 몸부림치더마는 딱 일 년 아프다가 가더만. 그노무 할마시가 돌도 씹어묵겠더마는 위암이라카데. 그거는 수술 하몬 된다카던데 그것도 초기에 발견했어야 말이지 너무 늦게 알았던 기 라. 껍떡거리싸도 소화가 안 되는 줄 알았지 누가 암에 걸렸다고 상상이나 했나.”

“그랬구나. 우리 영감은 회사에서 미국 지사장으로 왔다가 귀국 안하고 고마 여기 주저 앉았다아이가. 아이들 때문에. 그런데 뭐, 회사 그만 두니 까 할 일이 있어야지. 모아놓은 돈으로 세탁소 차려가지고 열심히 했는데. 난데없이 교통사고가 나 빠렀다.”

군데군데 지워져 얼룩졌던 그림이 입을 오물거리는 순례의 얼굴에서 선 명하게 살아난다. 따뜻한 바람이 두 사람 사이를 휘적이며 지나간다. 김씨 는 눈가 주름이 깊은 순례의 얼굴 속에서 펄펄 날리던 쌀겨와 함께 방앗간 천장을 울리던 어르신인 음성을, 떡시루를 들어 올리던 아버지를, 고개를 꾸벅하며 방앗간을 들어서던 자신을 본다.

“지금은 우찌 사노? 여자는 혼자 살아도 되지만 남정네는 불편할 낀데. 자식 집에 얹혀살기도 그렇고.”

“나는 혼자 산다아이가. 할마시 죽기 전부터 살던 집이라 그냥 살고 있 다. 아직 내 몸 성한데 자식 신세 지기 싫다.”

“맞심더. 혼자 살 형편 되면 혼자가 편하고 좋지에. 나는 아들네서 산다. 노인 아파트로 나가고 싶은데 신청한 후 5년은 기다려야 빈 방이 나온다케 서.”

“진작 신청하지 그랬노. 언제 신청했는데?”

“인자 겨우 2년. 그 전까지는 둘째 아들네 손자 봐주고 살림 살아주고. 따로 떨어져 나가 살 처지가 못 되었다아이고. 며느리하고 아들하고 둘이서 저그 아버지가 놓고 간 세탁소에 매달려 있는데 모른 척 못 하겠더라카이. 그런데 인자는 괜찮아예. 손자도 모두 다 컸고 세탁소도 많이 컸다아이고. 분점까지 차리고. 인자는 혼자서 좀 자유롭게 살라가요.”

이야기를 하다 보니 팔랑팔랑 징검다리를 날아가던 방앗간 집 순례가 진짜로 날아온 것 같다. 김씨는 찬바람이 잉잉대는 들판에 홀로 서 있다가 어느 날 갑자기 따끈한 온돌방에 들어와 앉은 기분이다.

김씨는 시니어센터로 가는 발걸음이 가볍다. 집에서만 소일하던 순례도 김씨의 안내를 받아 이곳의 학생이 되었다. 아침마다 시니어센터에서 마주 앉아 옛날이야기를 나누면 두 사람의 하루가 너무 짧다. 버스를 타고 한인타운에 나가 사먹는 칼국수의 맛도 날마다 색다르다. 함께 한국마켓에 가면 뭘 살까 기웃거리지 않아도 된다. 가끔 순례가 들고 오는 김치나 밑반찬으로 저녁상을 차리면 김씨는 혼자 먹는 밥상이라도 행복하다. 몇 년 전에 운전 면허증 갱신을 하지 않은 것이 후회된다. 75세가 넘으면서 갱신 조건이 까다로운 터라 그냥 포기해 버렸는데 이런 날이 올 줄은 상상도 못했다. 운전만 할 수 있으면 산타모니카 바다에도 가고 꽃이 지천인 테스칸소 식물원에도 가련만 동네만 뱅뱅 돌고 있으니 괜히 미안하다. 소소한 이야기에 활짝 웃는 순례의 모습이 좋아 한국 신문도 신청해서 구석구석 읽는다. 시니어센터가 주말에는 왜 문을 닫는지 원망스럽기도 하다. 언제부터인가 자식들의 전화는 귀찮고 방문은 더더욱 질색이다.

두 사람의 해후가 시니어센터에서는 썬나는 뉴스거리지만 자식에게는 걱정거리로 떠올랐다. 집 명의를 물론 은행 예금조차 아들 이름으로 해 두었던 김씨가 어느 날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다. 통장에서 목돈을 좀 찾아달라고 했다. 영문도 모르는 자식들은 무슨 일이냐며 웅성거리지만 김씨의

성화가 쉽게 가라앉지 않으니 황당하기만 했다. 갑자기 변한 아버지의 태도가 마뜩잖은 맏딸이 아버지 집으로 동생들을 소집했다.

“아버지. 갑자기 그 큰돈을 어디다 쓰려고 갑자기 이러십니까?”

“와? 내 돈 내가 쓰겠다는데 무슨 간섭이고? 일일이 너그한테 허락 받고 써야 되나?”

“그게 아니고요, 아버지가 무슨 일을 하고 계시는지 궁금해서 그러지요. 사업하실 것도 아니고... 참, 어디 여행 가시려고 그러니까?”

“그래. 여행도 가보고 싶다. 양복도 한 벌 사 입고, 맛있는 것도 먹으러 다니고. 집수리도 하고. 나도 인제 돈 좀 쓸란다.”

“어머니 살아계실 때 두 분이 함께 여행 좀 다니시라 그리 권해도 꿈쩍도 안 하시더니 갑자기 웬 양복이며 여행입니까? 혹시 아버지 바람나신 거예요?”

맏내아들의 농담에 식구들은 왁자하고 웃음을 터뜨린다.

“너그 엄마 살았을 때는 내가 몰랐다. 맨날 늙어서 돈 없으면 안 된다고 해 싸니 나도 그래야 되는 줄 알고 살았지. 너그 엄마 죽고 나니까 돈 그거 움켜쥐고 있어봐야 아무 소용없더라. 다 바보짓이더라.”

자식들은 김씨의 진지한 모습이 뜨악하다. 이런 아버지의 변화는 단순한 노인의 트적질로만 생각할 일이 아니다. 병원비 아끼느라 소화제로만 버티었던 어머니는 이제 아버지의 눈에 한낱 바보로 전락되었다. 시니어는 택시를 싸게 탈 수도 있지만 어머니는 한 번도 타본 적이 없었다. 단 몇 불도 아까운 마음에 한 시간 거리쯤은 너끈히 걸었다. 말로는 운동 삼아 걷는다고 했지만 어찌면 지체할 수 없이 남아도는 시간을 그 몇 푼과 바꾼다는 것이 아까웠는지도 모를 일이었다.

“사실은 고향에서 같이 살던 동생을 만났다. 미국 와서 살면서 내가 너그들 말고 마음 터놓고 지낸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있었나. 그런데 이상하더라. 이 동생하고는 헤어진 지 60년이 다 되는데도 남 같지가 않은 기라. 그

게 참말로 신기하제. 만나자마자 그냥 마음 문이 탁 열리베는 기라. 우째 그리 그 시절로 금방 돌아가 그때 그 마음이 되는지 몰라.”

말로 뵈고 보니 그렇다. 어린 시절 쌓았던 옛정이 생각보다 도타왔다. 헤어져 살았던 긴 세월 동안에도 마음 깊숙한 곳에서는 푸욱 정이 삭고 있었나 보다. 술이 익듯이 숙성되고 있었던 모양이다. 김씨의 얼굴에 얼핏 흥조가 어린다. 자식들에게 한 번도 보여주지 않은 표정이다. 귀 밑까지 번지는 아버지의 미소를 보며 만딸이 바짝 다가앉는다.

“아버지. 고향 동생이라는 분이 혹시? 여자예요?”

질문이 우습기도 하지만 모두의 마음 한구석에는 설마 하는 마음이 스치는 듯 서로 눈을 맞춘다.

“시니어센터에 가신다고 하더니 거기서 누구를 만나셨군요. 요새 혼자되신 할아버지가 인기라고 하던데. 아버지 정도의 외모에다 건강이라면 엄청 좋은 조건인데요.”

“그래. 여자다. 사실은 저기 운정세탁소 주인의 모친이 알고 보니 내 고향 동생이더라.”

자식들은 반쯤 일어섰던 엉덩이를 풀썩 내려앉히며 김씨의 얼굴을 쳐다본다. 벌린 입도 다물지 못한다.

“운정세탁소? 옛날 우리 마켓 이름도 ‘운정’이라고 지었잖아요. 고향 이름이라고. 그렇죠?”

막내아들이 손뼉을 치며 좋아한다.

“아이고. 올 아버지 참말로 반가웠겠어요.”

“아버지, 그러면 그 분하고 사귀시는 거예요?”

아들의 반응과는 달리 심각해진 만딸의 말에 오히려 자식들은 킁킁 웃음을 흘린다. 모두 웃음을 참느라 고개를 옆으로 돌리고 손으로 입을 틀어막는다.

“이놈들이 아버지를 갖고 놀릴라카나. 고~안 놈들. 그래. 내가 사귀다.

와.”

김씨는 카펫에서 먼지가 풀썩이도록 발을 탁 굴리며 일어선다.

“내가 미국 온 후로 어데 여행을 가봤나. 친구를 사귀어봤나. 그저 너그엄마 등살에 죽자 살자 가게에 매달려 좋은 세월 다 보냈다. 너그 보다시피엄마 각 죽고 나니까 남는 기 뭐 있더노. 먹을 거 안 먹고 입을 거 안 입고 고생만 바가지로 해가며 모은 돈, 한 푼도 몬 써보고 가버리니 간 사람만 빙신이지. 나는 그렇게 안 살 까다. 누구 좋은 일 시킬라꼬.”

김씨가 완강하게 말한다. 자식들은 갑자기 목대가 세어진 아버지의 태도에 아무 말도 하지 못한다.

시니어센터가 텅 빈 것 같다. 순례가 결석한 지 나흘이 지났다. 아프다는 연락이 오기는 했지만 궁금하다. 오늘은 나타날까 하는 마음에 눈길이 문쪽으로 자꾸 간다. 얼마나 아프기에 나흘씩이나 못 오는 걸까. 전화도 안 받으니 마음이 불안하다. 김씨는 사무실로 가서 한국 직원을 찾았다.

“조순례 할머니 집 주소 좀 알 수 있는교?”

“왜요? 찾아가 보시게요?”

“며칠째 안 나오니 걱정스럽네요. 한번 찾아가 봐야 할 것 같아서.”

점심시간이 되기가 무섭게 택시를 불렀다. 미국 온 지 겨우 일년이 되었다는 운전기사는 다저스 티셔츠에 시커먼 야구모자를 쓰고 있다. 영주권이 없으니 취직도 어려워 노인 상대로 이렇게 불법택시 운전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차를 출발시키기 전에 차비부터 먼저 달라고 한다. 혹시 돈을 주고 내리는 것을 경찰이 보면 불법택시 영업을 들키기 때문이다. 돈 없이 오는 이민 초기 고생은 듣지 않아도 익히 짐작이 간다. 열심히 살면 좋은 일이 있을 거라며 톱도 넉넉하게 주었다.

8324 Garden View Ave. 순례의 집은 붉은 기와를 얹은 이층집이다. 앞마당의 푸른 잔디 주위로 보라색 제비꽃과 흰 썸바귀가 화려하게 피었다.

입을 반쯤 벌린 우체통 다리 밑으로 달팽이 한 마리가 긴 꼬리를 그리면서 지나간다. 이곳에 순례가 산다. 김씨는 집 앞에 가만히 섰다. 어디선가 썩냄새가 난다. 음매에, 풀을 뜯어먹다 언덕배기에 배를 깔고 누운 누렁이 소리도 들린다. 차도 사람도 지워진 텅 빈 세상 한가운데 우뚝 선 집 한 채. 김씨 혼자만 서있는 듯 적요하다. 저 문만 열면 세상의 모든 곳으로 통하는 길이 있을 것 같다. 허공을 달려 끝없는 하늘 속으로 들어갈 수도 있을 것 같다. 새처럼 훨훨 날아 구름도 뚫을 것 같다. 뭔가 형용할 수 없는 기운이 가슴을 차고 오른다. 초인종을 누르고 기다리니 조용히 문이 열린다.

“실례합니다. 혹시 조순례 할머니 댁 맞습니까?”

젊은 여자 뒤로 거실의 소파가 보인다. 된장국 끓이는 냄새가 문 밖으로 퍼져 나온다.

“할머니가 시니어 센터에 며칠째 안 와서. 많이 아프가 하고요.”

“아, 혹시... 어머니 고향분이세요? 어머니께서 말씀하시던?”

옆머리에 아무렇게나 꽃혀있는 머리핀과 화장기 없는 얼굴에 피곤이 서렸다.

“어머니께서 중풍을 맞으셨어요. 지금 침실에 계신데.”

중풍? 순례에게 중풍이라니? 김씨는 급히 여자를 따라 방으로 들어간다. 머리가 베게에 묻힌 순례가 눈으로만 김씨를 올려다본다. 푸석푸석 부은 얼굴, 검버섯이 더욱 짙어진 뺨, 반쯤 벌린 입술 사이에 고인 침이 불빛에 반짝한다. 눈꺼풀을 억지로 뜨며 바라보는 눈이 금방 축축해진다.

“아이쿠우, 이기 무슨 일이고? 순례야, 니가 이기 무슨 일이고?”

김씨는 갑자기 가슴이 빠근하게 조여움을 느낀다. 온몸에 전기가 찌르르 지나가고 금방이라도 오줌을 지릴 것만 같다. 다리가 후들거려 주저앉고 싶다. 김씨는 두 손으로 순례의 얼굴을 감싸 안는다. 왼쪽 눈은 반쯤 감기고 입 끝은 귀 밑으로 올라가 있다. 어깨 아래로 손을 넣어 뒷목을 일으키자 왼손이 툭 떨어지며 눈물이 주르르 뺨에 흐른다.

“어머니가 원래 혈압이 높았어요. 며칠 전부터 계속 머리가 아프다 해서 도 우리는 그냥 감기인가 했지요.”

자신을 둘째 며느리라고 소개한 여자는 두서가 없어 보인다. 처음 보는 김씨 앞에서 마치 자기 보살핌이 소홀했던 것으로 보일까 봐 변명하는 기색이 역력하다.

“지난 토요일 저녁 화장실에서 나오시다가 그냥...”

말꼬리가 힘없이 사라진다. 며느리의 말은 귀에 들어오지 않는다. 순례의 툭 떨어진 팔이, 반쪽 감긴 눈이 김씨의 심장을 후빈다. 중풍은 낯선 말이 아니다. 중풍에 걸린 사람도 많이 보았다. 하지만 순례는 아니다. 순례를 일으켜 가슴에 끌어안는다. 앙상한 등허리의 뼈가 손끝에 부딪히며 차가운 왼쪽 볼이 힘없이 어깨에 얹힌다. 어디선가 강물이 훑고 지나가는 소리가 들린다.

홍수 때면 철철 물이 넘쳐흐르던 개울이 있었다. 운정저수지가 부려놓은 개울이었다. 김씨는 조심조심 발을 내디뎠건만 험거운 고무신은 사정없이 흙탕물 속으로 휩쓸려가 버렸다. 손뼉을 치며 웃어대는 친구들 앞에서 김씨는 한쪽만 남은 고무신을 움켜쥐고 씩씩 눈물을 닦았다. 질척거리는 논바닥을 허리도 못 펴고 종일 헤매던 어머니. 저녁마다 물에 툭툭 붙은 발을 주무르던 어머니를 생각하며 울었다. “내게는 이 신발밖에 없단 말이야.” 고무신 한 짝을 물고 간 개울가를 해가 저물도록 떠나지 못했다. 그 물소리가 들린다.

김씨 어깨에 온몸을 얹은 순례가

“도-시기 오바아...”

어눌하지만 알아듣겠다. 오빠가 와서 반갑다고. 차도 없는데 어떻게 왔느냐고. 온몸이 아닌 한쪽으로부터 마비가 와서 다행이라고. 순례의 눈에서 끝없는 말이 흘러나온다.

“MRI를 찍어보니 다행히 뇌출혈은 아니고 혈관이 막힌 뇌경색이랍니다.

의사 선생님 말씀이 이삼주가 지나면 차츰 좋아진대요.”

며느리가 방문 앞에 서서 말한다. 감기가 오려는지 으스스 등에 찬기가 들면서 갑자기 허기가 진다.

“암, 암, 좋아져야지. 하모, 좋아지고말고. 하모, 하모.”

김씨는 매일 아침이면 시니어센터가 아닌 순례네 집으로 간다. 뒷마당에 나가 조심조심 걸음마를 시키고 신문을 읽어주면서 어제보다 조금 더 나아진 모습을 보는 것, 그것은 여간 즐거운 일이 아니다. 한 달이 지나자 비뿔어진 입도 제 자리를 찾아왔고 눈을 반쯤 덮고 있던 눈꺼풀도 슬그머니 제 자리로 올라갔다. 감각이 없던 팔 다리도 조금씩 움직일 수 있다. 아직 기신이 없긴 하지만 혼자서 걷는 일만 남았다며 김씨는 스스로를 위로한다.

“순례야, 니하고 같이 있으니까 고향 생각이 많이 난다.”

“그렇게? 나도 그렇다. 오빠하고 같이 있으면 와 이리 고향 생각이 간절한지 모르겠다.”

“그때 말이다. 추석 전 날이었던가. 갑자기 비가 억수로 퍼부었제.”

“그날을 우찌 잊어묵겠노.”

기억은 풍경과 사람과 감정을 한꺼번에 싣고 날아가 생각나는 옛날의 그 장소에 데려다 놓는다. 아니, 내동댕이친다. 그 힘이 얼마나 거센지 현실은 순식간에 의식의 등 뒤로 밀려나버린다. 순례의 두 볼이 발그레 물이 든다.

추석 하루 전날이었다. 사람들은 퐁퐁 불린 쌀을 들고 방앗간으로 왔다. 인근 동네에서도 몰려온 덕분에 쌀 대야는 방앗간 마당 끝까지 줄을 지었다. 발밑에 쌀 대야를 두고 삼삼오오 수다를 떨고 있는 사람들 머리 위로 조금씩 비가 내리기 시작하더니 시간이 가면서 소나기로 변했다. 무섭게 퍼붓는 비로 금방 쌀 대야에 물이 고였다. 당황한 일꾼들은 뛰어 나와서 쌀 대야를 방앗간 안으로 옮겼다. 사람들의 동동거림이 기계 돌아가는 소리에

섞여 방앗간은 더욱 소란스러웠다. 모처럼 명절을 쇠러 온 도식이와 순례도 우왕좌왕 사람들 속에서 뛰어 다니며 도와주었다.

“순례 니가 비를 맞으면서 그 무거운 것들을 들어 나르는데 참말로 애처럽더라.”

손님의 떡값을 계산해서 받던 도식이가 돈 주머니를 겨드랑에 낀 채 순례의 두 팔에 안긴 대야를 받아들였다.

“오빠가 내 대야를 몇 번 받아 주는 새에 다른 동네에서 온 사람이 돈도 안내고 도망가뻘제.”

“너그 아버지한테 혼나고. 허허허. 혼나는 모습을 니한테 보이는 기 부끄럽기는 했지만 그래도 기분은 좋더라.”

“나는 그때 우리 아버지가 너무 밋더라. 오빠가 그리 열심히 도와 준 거는 안중에도 없고 얼마나 통박을 놓던지.”

순례는 아버지 앞에서 고개를 숙이고 서 있는 도식이 옆으로 가서 바짝 붙어 섰다.

“아부지, 도식이 오빠가 열심히 일할 때는 칭찬 한마디 없디마는 그깟 돈이 얼마나 된다고 이랍니껴?”

생전 얄전하기만 했던 딸의 상상도 못한 모습에 조 씨는 눈이 휘둥그레졌다.

“잉? 순례 니가 와 나서노?”

“오빠는 오늘 점심도 먹는 등 마는 등, 옹게 먹지도 못했어예. 바빠서.”

“도식이 점심 못 먹은 거를 니가 우찌 아노?”

“같이 일하는데 그것도 모르겠어예? 오빠가 얼마나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아버지는 무조건 사람을 무시하고…. 오빠가 아직도 아버지 일꾼인 줄 압니껴?”

“이 노무 가시나가 마!”

순례 말이 끝나기도 전에 얼굴이 벌게진 조 씨의 오른손이 번쩍 들렸다.

아들이 야단을 맞을 때는 멀리서 결눈질만 하고 어쩔 줄 모르던 도식이 아버지가 와다닥 달려왔다. 순례를 등 뒤로 밀어내며 조 씨를 가로 막았다.

“아이고, 어르신 와 이라십니까? 마, 참으시라요. 도식이 저놈이, 마, 마,” 옆으로 밀려나있는 도식에게 발을 탁 구르며 어서 가서 일하라며 고함을 질렀다. 그제야 일군과 손님들의 눈을 의식한 조 씨는 못 이기는 척 돌아섰다.

“...알았다. 어서 일해라.”

한 마디를 하고 안집 마당으로 통하는 뒷문을 열고 나가버렸다. 무안하기도 하고 화가 난 순례도 씩씩대며 방앗간 밖으로 몸을 돌려 뛰쳐나갔다.

“순례야, 이 비를 맞고 어디로 가노?”

놀란 도식이 순례의 뒤를 따라 나갔다. 장대비로 질퍽해진 마당에는 처마 밑에 매달린 전등이 안간 힘으로 어둠을 쫓아내고 있었다. 둘은 쏟아지는 비를 피해 엉겁결에 방앗간 뒤 헛간으로 뛰어 들어갔다.

“순례야, 고맙다.”

도식의 손이 순례의 양 어깨에 걸쳐지자 순례는 와락 그 품에 안겼다.

“그때 오빠가 고마운 마음만큼 측은하더라니까. 나를 볼 때마다 씨익 웃어주던 오빠가 좋았는데. 그날은 참말로 좋더라.”

순례는 희끗희끗 쌀가루가 묻은 그의 바지가 저녁 내내 머리에서 떠나지 않았다는 말도 한다. 난생 처음 느껴보는 이상한 감정에 밤을 새웠다고도 했다. 김씨도 그랬다. 그 날 이후로 예전에는 더넘차기만 하던 순례를 자신 있게 불렀다. ‘순례야~’ 크게 부르고 나면 웬지 기운이 솟았다. 공유한 비밀을 나누듯 ‘오빠야’ 대답하며 미소를 지어주는 순례의 모습에 마음속의 맞방망이질을 누르느라 한참 서 있기도 했다.

몇 년 후 김씨는 공무원 시험에 합격해서 밀양 읍내 우체국 직원이 되었을 때 순례의 결혼 소식을 들었다. 신랑은 동네에서 제일 부자로 소문난 황

씨 집 아들 황상구라고 했다.

“그 방앗간 아직도 있을까?”

“모르지. 니가 결혼해서 서울로 가고 나서도 한참 더 있다가... 내가 떠나 온 지도 벌써 30년 넘었다 아이가.”

“가보고 싶다.”

“나도. 그 헛간도 그대로 있겠제?”

“...”

“그리고 고맙고 인정 많던 어르신 산소하고 우리 아버지 산소에도 가서 절을 올리고 싶다. 우리 둘이 같이 가몬 참 좋아하시겠제.”

“내가 평생 불효로 살았다 싶다. 아버지 산소는 어찌 되었는지도 모르고 살고 있다 아이가.”

“한번 가보고 싶나?”

김씨가 순례 집을 드나든 지도 어언 한 달이 되었다. 순례의 병세는 눈에 띄게 호전되었다. 부축을 받으면 걸을 수도 있고 숟가락질도 서투르나마 혼자서 할 수 있다. 어느덧 겨울도 가고 뒤뜰에 새싹이 연초록 잎사귀를 밀어 올린다. 김씨는 시간이 갈수록 고향에서의 기억이 점점 더 선명해져 간다. 그의 깊은 의식 속에는 끊임없이 돌아가는 무성 영화가 있다. 순례를 만난 이후로 상영되는 그들의 영화다. 우리는 무엇 때문에 여기에서 이렇게 살고 있는가. 10년을 살아도 30년을 살아도 이방인일 수밖에 없는 이곳에서 말이다. 누가 시키지도 않았고 법으로 막지도 않는데 우리는 왜 고향에도 못 가고 이리 살고 있을까. 아무리 세월을 흘려보내도 지워지지 않는 그리움을 안고 말이다. 바보같이.

김씨는 딸에게 전화를 했다. 한 자식도 빠지지 말고 모이라고 했다. 지난번에 툭 던져준 아버지의 말이 여전히 이해되지 않고 아버지의 변화가 용납되지 않는다고 구시렁거리던 자식들은 호출이 편하지 않은 듯 무거운 걸음으로 왔다. 김씨는 며칠 내내 생각했던 말을 꺼낸다. 고향에 한번 가보

고 싶다고. 순례와 함께.

“그러면 아버지. 중풍 맞은 그 할머니하고 같이 말입니까?”

“누가 가서 산다고 하나. 그냥 한번 다녀 오겠다는 긴데 와 이리 말이 많노.”

“몸도 성치 않은 할머니가 시골에 가면 얼마나 불편하시겠어요. 병원도 시원찮을 거고. 그러다가 사고라도 나면 어떻게 해요. 아버지.”

모두 아버지를 불러대지만 김씨는 입을 꼭 다문 채 눈마저 감고 앉아 있다.

“너그들이 암만 그래싸도 나는 결심했다. 고향에 가 볼란다.”

“아버지. 고향에 누가 있습니까? 누구 볼 거라고 가 본다 합니까?”

“아무도 없기는 와아 아무도 없노. 산도 있고 강도 있고 나무도 있고 내가 먹이던 소도 있다. 방앗간도 있을 까다.”

자식들은 어이없는 표정으로 멀뚱히 쳐다만 볼 뿐, 단호한 아버지의 생각에 맞설만한 한마디 말도 찾아내지 못한다. 억지도 보통 억지가 아니다.

“산도 강도 나무도 소도, 그것이 그 자리에 있기는 한단 말입니까? 설사 있다고 하더라도 연로한 육체를 이끌고 가보실 이유가 됩니까?”

“너그들 마음도 잘 알겠는데, 나도 생각 많이 했다. 마지막으로 나도 내 마음 가는 대로 한번 살아볼란다. 평생 눈앞에 어른거리는 고향에 가서 뜨끈뜨끈한 온돌방에서 마음 놓고 한숨 자고도 싶고, 옛날 꼬치 친구도 만나 텃텃한 막걸리 주고받으면서 이놈 저놈하며 욕도 하고 싶다. 내 나라 우리 말 실컷 하면서. 버스 타고 기차 타고 여기저기 다녀보고 싶다. 킁킁한 밤길도 마음 놓고 편하게 걸어보고 싶단 말이다. 너그들이 내 맘을 우찌 알겠노.”

방안이 잠시 조용해진다. 끊임없는 풀무질로 김씨의 가슴은 별경계 달아 오른다. 점점 거세어지는 풀무질이 피워 올리는 불꽃이다. 모든 것 다 태우고 재만 남은 그루터기 어디에 이런 불씨가 남아있었을까. 그 불씨를 어떻

게 모른 척 외면하고 살아왔을까. 김씨는 자식들에게 아무 거리낌 없이 욕대기고 있는 자신을 돌아보며 새삼 자신에게 놀란다.

“딱 한 달만 여행하고 돌아오꾸마.”

김씨는 오른손으로 무릎을 짚고 꼬응 일어선다.

그 후로 김씨와 순례네 식구는 의논 자리를 가졌다. 노인들의 한국 여행에 대하여 밀고 당기는 씨름은 계속 되었지만 두 사람의 결심은 단호하다. 자식들의 염려는 아무런 힘이 없다. 자식들은 결론을 내린다. 겨울도 가고 새 봄도 무르익는 4월에 그렇게도 그리던 고향 땅을 한번 밟아보고 오시라고. 마지막 효도라는 말에 모두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다. 김씨의 세 아들과 딸, 그리고 순례의 두 아들은 서로 처음 만나보는 얼굴인데도 오랜 세월 함께 한 사람 같아 보인다. 한 번도 가보지 못한 시골 고향이지만 마치 자기들도 복닥복닥 함께 자란 것 같은 착각마저 드는 모양이다.

드디어 고향으로 떠나는 날이 닷새 남았다. 김씨는 한인타운에 있는 선물센터에 들러 아직도 고향을 지키고 있는 사촌 동생과 친지들에게 선물할 게 뭐가 있나 둘러보는 중이다. 영양제 코너를 기웃거리고 있는데 전화벨이 울린다.

“할아버지세요? 저, 조셉입니다.”

몹시 급한 어투다.

“아, 순례 아들이가? 그래, 우짤 일이고?”

조셉이 잠시 뜸을 들인다.

“와, 무슨 일이고?”

“할아버지. 큰일이 났습니다. 어머니가 넘어져서 병원에 실려갔습니다.”

“어이? 거기 무슨 말이고?”

무슨 뜬금없는 소리인가 싶은 마음은 잠시, 침대에 누워 있던 순례의 모습을 처음 보던 날처럼 전율이 전신을 찌르르 훑어 내린다. 차가운 피가 온몸에서 모두 빠져나가는 듯 현기증이 인다. 갑자기 하늘이 빙 돌며 다리가

꺾여 김씨는 찬 바닥에 첩버덕 주저앉는다.

“할아버지, 할아버지.”

수화기 너머에서 점점 커지는 목소리에 겨우 정신을 차린 김씨는 앉은 채로 전화기를 귀에 갖다 댄다.

“그래, 많이 다쳤나?”

“예, 고관절이 부러졌습니다.”

“어느 병원이고?”

김씨는 들고 있던 바구니를 선반 아래에 던져두고 계산대로 갔다.

“택시, 한국 택시 좀 불러주소. 아이고, 큰일 났네.”

영문을 모르는 가게 주인의 급한 호출에 택시가 왔다. 김씨는 조셉이 문자로 넣어준 주소의 병원으로 가면서 두 손을 모으고 간절히 기도한다.

“하나님, 제발제발 툭툭 털고 일어나게 해주이소.”

응급실 한쪽 귀퉁이에 조셉과 며느리가 보인다. 며느리는 침대 옆에 앉아 앙상하고 흰 순례의 손을 잡고 있고, 조셉은 등을 돌리고 서서 창밖의 먼 하늘을 바라보고 있다. 필리핀계로 보이는 간호사가 환자감시모니터(Patient Monitor)를 들여다보며 뭔가를 적더니 눈으로 인사를 하고 나간다. 순례는 가슴만 달짝이고 있을 뿐 잠을 자는 건지 꿈짜도 않고 누워 있다.

“의사가 뭐라카더노?”

황망히 자리에서 일어서는 며느리의 인사를 받는 등 마는 등, 김씨는 누워 있는 순례에게 시선을 쫓은 채 물어본다.

“고관절이 부러져서 수술을 해야 한답니다. 지금 수술 날짜를 의논 중입니다.”

“수술하몬 괜찮나? 의사가 괜찮타카더나?”

“수술을 하기는 해야 하지만 워낙 몸이 쇠약해서 마취와 수술을 잘 견딜

까 걱정이랍니다.”

김씨의 가슴 속에 설렁한 바람이 지나간다. 김씨는 조셉이 가져다주는 의자에 앉으며 두 손으로 얼굴을 쓰윽 문지른다. 이게 꿈이라면 얼마나 좋을까. 시계바늘을 하루만 더 뒤로 돌릴 수 있다면. 아니, 아니, 앞으로 빨리 돌아서 순례가 수술도 끝내고 다시 뒷마당을 걸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순례가 감고 있던 눈을 뜬다.

“오빠, 미안해. 내가 또 이 꼴이 되뻤다 아이가.”

“아이고. 무슨 소리. 크게 안 다치고 이만큼 한 것도 참말로 고마분데. 고맙다. 고맙다. 눈 떠줘서 고맙고 살아 있어서 고맙데이.”

김씨는 목소리가 꺾꺾 목젖에 감겨든다. 눈물 같은 것, 설움 같은 것, 울분 같은 것이 가슴을 치고 올라온다.

주위에 함께 누운 응급 환자들이 하나둘 병실을 찾아 떠나더니 드디어 순례 차례가 되었는지 파란 옷을 입은 두 명의 남자 간호사가 들어온다. 한 사람은 곱슬머리와 까만 피부에 쌍꺼풀 없이 찢어진 눈이 흑인과 아시안의 혼혈인 듯하다. 다른 사람은 굵은 팔뚝에 문신이 요란한 멕시코 청년이다. 두 간호사가 위아래에서 순례가 누워 있는 시트 자락을 통째로 들어 올린다. ‘조심조심’ 김씨는 복도를 지나갈 때도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릴 때에도 두 손을 침대 모서리에서 흔들며 애원을 한다. 두 간호사는 마주보고 픽 웃으며 김씨의 목소리가 들릴 때마다 일부러 조심하는 척 어깨를 아래위로 들쭉여준다. 순례는 6층의 2인실 병실에 내려졌다.

복도에 음식 냄새가 자오록 퍼지고 병실마다에 저녁식사가 배달될 때 얼굴이 하얀 백인 간호사가 들어왔다. 허공에 매달린 링거병에 진통제를 주입하며 순례에게 얼마나 아프냐고 묻는다.

“진통 정도에 따라 1에서 10까지 번호를 매긴다면 지금 어느 번호쯤이예요? 최고로 아픈 게 10이구요. 번호가 낮아질수록 덜 아픈 거예요.”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고 멀뚱히 쳐다보는 순례에게 조셉이 설명을 해 준다. 순례는 가만히 생각하더니 8이라고 한다. 간호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곧 나아질 거라는 한 마디를 해주고 나간다.

“수술은 꼭 해야 되나? 언제 한다카더노?”

김씨는 이 상황이 너무 답답하다. 한국 여행 때문에 한껏 부풀었던 마음이 여지없이 구겨진 것도 못내 속상하다.

“내일 아침에 의사가 의논하자고 했습니다. 할아버지는 이제 들어가 보세요. 여기는 저희들이 있겠습니다.”

순례도 손사래를 친다,

“오빠가 있다고 안 아플 것도 아이고 고마 가이소. 다음에 수술한다카몬 오이소. 수술하기 전에 얼굴은 한번 보고 들어갈라요.”

김씨는 식탁에 앉았다. 딸이 갖다 준 시래기국과 밥에서 하얀 김이 보일 듯 말 듯 올라온다. 밥을 한 술 입에 퍼 넣으며 혼자말로 중얼거린다. ‘수술하기 전에 얼굴 한번 보고 들어갈 끼라꼬? 그기 무슨 소리고? 그러몬 죽으러 간다는 말이가?’ 그 말이 너무 마음에 걸린다. 큰일이 아니라고 마음을 아무리 달래도 불길한 예감을 떨칠 수가 없다. 주위에서 고관절 수술하는 사람을 하나 둘 본 것도 아니고, 그 수술로 죽었다는 말은 들어보지도 못했는데…。 김씨는 고개를 설레설레 흔들며 마음을 다독인다.

몇 술 뜨지도 못한 김씨가 갑자기 손가락을 국그릇에 걸쳐둔 채 딸에게 전화를 한다.

“그러면 비행기 표부터 캔슬해야겠네요.”

자초지종을 들은 딸의 첫 마디다. 어쩌다 그리 되셨대요? 할머니 수술은 언제하신대요? 회복되려면 얼마나 걸린대요? 아버지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곧 일어나실 거예요. 이런 따위의 위로는 못해 줄망정. 못된 년. 나쁜 년. 애비 마음 같은 건 안중에도 없고 비행기 값 걱정부터 한다.

“캔슬하지 마라! 날짜만 좀 미뤄라!”

노여움이 잔뜩 묻은 김씨의 목소리에 딸은 무슨 말을 할 듯하다가 곧 네, 한 마디만 하고 전화를 끊는다.

수술은 사흘 뒤로 잡혔다. 온갖 검사로 순례의 상태를 살핀 후 내린 결론이다. 몸이 쇠약해서 걱정스럽기는 하지만 달리 방법이 없다는 의사의 소견이다. 꼼짝 못하고 누워서 통증을 호소하거나 잠만 자는 순례의 모습을 보며 김씨는 헛웃음을 웃는다. 하나님은 왜 이리도 내게 인색하실까. 친구들과를 부러워하며 보낸 어린 시절, 가난에 놀려 입에 풀칠만 하다가 똑똑한 간호사 딸 덕분에 미국까지 왔다. 한국과는 달리 부부가 밤낮으로 일한 끝에 겨우 작은 가게도 마련하고. 거기에 더하여 미국 주류사회에서 변호사로, 대기업 임원으로 성공한 자식들 덕분에 평생 지고 다닌 열패감이 조금씩 줄어들어 갔더니 털썩 아내가 떠나버렸다. 속살까지 적시는 외로움에 서서히 익숙해질 무렵, 어쭙잖은 축복이었을까. 순례를 만났다. 자기 인생에 이런 화사한 햇살이 기다리고 있었음에 그는 놀랐다. 환호했다. 미칠 듯이 기뻐했다. 그런데. 그의 인생은 처음부터 누군가의 낙서장이었을까. 무채색으로 뒤죽박죽 환칠해진 화판이었을까. 김씨는 자신의 인생을 이해할 수가 없다. 가난했지만 불행하지 않았고 외로웠지만 슬프지 않았다. 그런데 이걸 뭐가. 세상을 향해 주먹질이라도 하고 싶다.

무겁기만 하던 몇 밤이 지나고 그날이 왔다. 아니, 영원히 오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까지 한 그날이다. 김씨는 새벽부터 일어나 샤워를 하고 노란색과 남색의 체크무늬 남방에 베이지색 바지를 입는다. 수술실로 들어가는 그녀에게 밝은 모습을 보이고 싶어서다. 기다리고 있겠다는 강한 열망도 보여주고 싶다. 한국행 비행기 표는 아직 캔슬하지 않았다고 꼭 말을 해 줄 거다.

병원에는 순례의 두 아들과 며느리, 그리고 교회의 목사님 부부가 와 있다. 수술은 오후 두 시에 시작한다고 한다.

“좀 어땡노? 잘 할 수 있제?”

어제 오후부터 금식을 한 순례는 침대에 널브러진 채 눈을 뜨기도 힘 드는지 고개만 끄덕인다. 김씨는 얇은 눈꺼풀 아래에서 선하게 흔들리는 순례의 시선을 느낀다. 허연 쌀가루를 묻힌 채 비에 젖어 축 들리붙은 바지에 주던 따뜻한 시선을. 어르신 앞에서 고개를 푹 숙이고 있는 그의 이마에와 살포시 앉던 촉촉한 시선을. 뜨거운 그의 입술 아래에서 바르르 떨어진 그 부드러운 입술과 수줍은 시선을.

병원의 시간은 다른 곳에서의 시간보다 열 배는 빠르게 지나간다. 의사와 간호사가 들락거리더니 긴장한 두 남자 간호사가 들어왔다. 이동 침대로 옮겨진 순례를 따라가며 김씨는 “조심조심!” 크게 외친다. 이놈들아, 너 에미 모시듯이 좀 살살 해라. 수술실로 들어가는 침대에 긴 꼬리표를 붙이듯 김씨는 끝까지 ‘조심조심’을 붙여서 들여보낸다.

광 닫힌 수술실 문에 얼굴을 박고 서서 돌아설 줄 모르는 김씨에게 간호사가 다가왔다. 가족 대기실에 가 있으면 수술 끝나자마자 연락을 줄 거란다. 모두 고개를 숙인 채 산란한 표정으로 대기실 의자에 앉는다. 눈물을 닦는 며느리에게 목사 사모가 말한다.

“수술하러 들어가는 사람 보고는 울면 안 돼요.”

김씨는 미국에 들어오면서 끊은 담배 생각이 간절하다. 한 대 푸우 피우면 좋겠다. 어디선가 강물이 훑고 지나가는 소리가 들린다. 홍수 때면 철철 넘쳐 오르던 그 개울물 소리다. 한쪽만 남은 고무신을 움켜쥐고 씩씩 눈물을 닦던, ‘내게는 이 신발밖에 없단 말이야.’ 해가 저물도록 떠나지 못했던 그 개울물 소리가 들린다. 너무 크게 들린다.



성민희 경희사이버대학 미디어문예창작학과 졸업. 『현대수필』 『수필시대』 수필 신인상. 『한국소설』 소설 신인상. 재미수필문학가협회 회장, 이사장 역임. 현재 미주한국문인협회 감사, 재미수필문학가협회 이사, 한국디카시인협회 OC지부장, 가든수필문학회 지도강사, 미주한국문인협회 이사, 한국산문상 수상. 수필집 『사람이 고향이다』 『아직도 뒤척이는 사랑』 출간.

연규호

1

어느새 12년 전, 내 나이 31세가 되던 해였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UCLA 대학병원에서 안과 전문의사 과정을 끝내고 어렵지 않게 단번에 전문의 시험에 합격을 하였으나 앞으로 무엇을 해야 할지 심각한 고민에 빠진 적이 있었다.

학문을 하기보다 돈을 벌고 싶어 할리우드가 지척에 있고 한인타운도 멀지 않은 웨스트우드(West Wood)에서 개업을 시작했다.

뜻밖에 '닥터 최는 동양인이 갖고 있는 손재주가 뛰어나 안과 수술을 아주 잘한다. 그러기에 그는 못 고치는 병이 없다.'라는 소문이 짝 퍼지기 시작하자 환자들이 밀려들었다.

백내장, 녹내장, 수술만 해도 눈코 뜰새 없이 바빴다. 현금 내는 부자 환자와 좋은 보험을 가진 환자들만 선별해 수술하다 보니 은행 통장에 현금이 눈덩이처럼 쌓이게 되었으며, 경영학을 전공한 아내가 주식투자를 잘하다 보니 43세가 되면서 백만장자를 넘어 천만장자에 가까워졌다. 그뿐인가. 생글생글 웃는 사슴 같은 아내와 칼리만탄에서 캐온 보석처럼 반짝이는 아홉 살짜리 아들과 다섯 살 된 딸이 퇴근하는 나를 향해 "대디! 대디!"라고 소리치며 달려드니 하늘 아래 천국이 따로 없는 듯하다.

어제 아침 11시경이었다. 2층에 있는 나의 진료실에서 창문을 통해 아래를 내려다보니 붉은 장미와 모란이 화단에서 봄을 찬양하듯 짙은 원색을 자랑하고 있었다.

게다가 가로수로 심어진 자카란다 나무에서 떨어지는 파란 꽃잎들이 마치 가시광선에서 나오는 일곱 가지 무지개 색깔을 대표하는 듯했다.

“한 떨기 장미꽃과 자카란다 꽃들은 족잖마는 꽃망울은 없나.”

마치 멀리 바다 건너에서 울려오는 합창소리에 나는 멍하니 취해 있었다.

순간, “닥터 최. B교회 담임 목사님이 오셨습니다.”라는 간호사의 알림을 듣고 펄쩍 정신을 차렸다.

B목사님의 사연인즉, 교회 신도 한분이 갑자기 눈가장 자리에서 번갯불이 튀더니 시야가 좁아지며 시력도 떨어져 이제는 주위를 살피기가 어렵다고 설명해 주었다.

“B목사님, 망막이 떨어져나가고 있군요. 응급입니다. 즉시 앰블런스를 불러 저의 진료실로 보내거나 아님 응급실로 보내면 응급조치하고 입원시키겠습니다.”라고 나는 B목사에게 명령 비슷하게 말했다.

“닥터 최. 그런데 환자는 남편도 잃고 아들 하나 데리고 사는데 아주 가난...”

“걱정 마시고 어서 보내주세요.”라고 나는 재차 말해 주었다.

그러나 기대했던 환자는 하루가 지난 다음날 오후 진료실로 들어왔다.

“레지나 씨, 역시 망막이 분리되고 있군요”

나는 응급실로 보내 그곳에서 레이저 치료를 한 후 안과 병동에 입원을 시켜 조치하고는 ‘아무도 면회시키지 말고, TV도 켜지 말고 철저히 눈을 보호하게 하라’고 간호사에게 부탁했다.

저녁 늦게 퇴근하기 전에 레지나가 누워 있는 병실로 찾았다. 환자 곁에

70~80세가 된 듯한 노인이 검은 안경을 쓰고 앉아 있었다.

“아, 가족이 있군요. 아버지인가요?” 나는 환자에게 물었다.

“아, 아닙니다. 아들입니다.”라고 안대로 눈을 가리고 있는 레지나가 대답해 주었다. 아들이라기에는 너무나 나이가 든 노인 같아서 나는 아들 가까이로 가서 그를 훑어보았다. 체구가 5.4피트 정도나 될까. 얼굴은 마치 80대 노인처럼 주름이 많이 졌다. 흰 수염이 입술을 덮고 있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그가 맹인이라는 사실이었다.

“아, 시각장애이군요?” 나는 눈에 안대를 덮고 있는 레지나에게 물었다.

“예, 저는 선천성 시각장애자이고…” 아들은 우물우물 말을 흘리고 있었다.

“닥터 최, 제 아들은 조로(早老)증 환자입니다.” 이번에는 어머니 레지나가 확인해 주었다.

“아, 그렇군요. 그렇다면 나이가 몇 살인가요?”

“올해 여덟 살이 됐습니다. 그런데…” 레지나는 무슨 말을 하려다 멈추었다.

순간 나는 의과대학생 시절과 인턴, 레지던트 시절에 보았던 조로증 환자가 기억에서 떠올랐다. 조로증 환자의 1년은 정상 사람의 10년에 해당된다고 하니 레지나의 아들 토니는 이미 80살의 노인에 해당한다.

“닥터 최, 저의 어머니를 잘 부탁드립니다.” 아들 토니가 내게 말했다.

나는 병실에서 나가기 전에 토니를 다시 한번 살펴보았다. 그의 인생은 남들보다 10배가 빠른 초고속이기에 아마도 지능도 어른의 지능일 거라는 추측도 해봤다.

빨리 늙어버린 어린 아이로 선천성 맹인이라니, 과연 그는 어머니를 어떻게 알고 있을지도 궁금했다. 게다가 선천성 시각장애인이면서 어머니를 걱정하다니.

선천성 시각장애와 후천성 시각장애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다.

비록 나는 모든 안과 질환을 고친다는 소문과는 달리 안과 질환에 대해 모르는 게 더 많음을 고백하게 된다.

3

망막수술을 받고 누워 있는 환자 레지나 박은 금년 44세로 산전수전을 다 겪은 비교적 왜소한 여인이다. 그녀의 입을 통해 과거 이야기를 들으면서 나는 그녀가 마치 화성에 갔다 돌아온 나의 누나라고 착각이 들었다. 나와 그녀 모두 이민자로서 같은 종류의 과거를 살았다는 생각도 했다.

그녀의 얘기는 24년 전으로 돌아간다.

한국에서 여고를 가깝스로 졸업한 후 가족이민으로 뉴욕으로 왔다. 한국 사람들이 많이 사는 플러싱에서 한국인이 경영하는 세탁소, 봉제공장 등에서 밤낮 없이 일을 하였다. 2년간 일하면서 운전면허증도 취득하였고 중고차도 하나 구했다. 마침내 커뮤니티 2년제 대학에 등록해 기초회계학을 공부한 후 회계사무실에서 보조원으로 취직을 하게 됐다. 얼마 후 회계상의 소개로 자동차 정비공을 만나 결혼을 하였다. 교회에 나가 신앙생활도 하며 남부럽지 않은 생활을 하다 서른한 살 때 첫 딸을 낳았다.

3년 뒤 첫째 아들 토니(Tony)를 낳았는데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다. 낳은 지 얼마 후 토니는 주위를 못 알아보는 듯했다. 그래도 조금 더 두고 보면 알아보겠지 하고 기다렸으나 소아과 의사는 ‘선천성 시각장애’가 있다고 알려주었다.

그뿐인가 출생 1년 후, 피부가 눈에 띄게 달라지더니 얼굴이 3~4살 아이로 보였고 키도 꽤 커졌다.

“조로증(Progeria)인 것 같군요.”라고 말하는 소아과 의사는 힘이 빠져 있었다. “조로증 환자의 1년은 마치 10년과 같답니다.”

“10년? 그렇게 되면 토니는 어찌 되는 거지요?” 레지나는 온 천지가 무너진다고 느껴졌다.

여섯 살 때 신체검사소견은 아래와 같았다.

키 5피트 2인치, 120파운드, 고지혈증과 콜레스테롤이 높으며 당도 높은데 혈압마저... 60세의 나이와 맞먹음.

어머니 레지나는 아들을 위해 다니던 직장을 사직하고 남편의 수입에 의존해야 했다. 아주 힘들었다.

설상가상, 불행하게도 남편이 정비중에 실수로 오른쪽 손가락 두 마디를 다치게 되었는데 잘리지는 않았기에 다행이었다. 수술을 받고 재활을 받았으나 정비소에서 일을 계속하기에는 부적합해 권고사직을 당했다.

뉴욕에서 아들을 데리고 살기에 너무나 벅차 망설이던 차에 로스앤젤레스 한인타운으로 가면 도움을 받을 수가 있다는 목사의 말을 들었다.

그 말은 사실이었다. LA로 이사를 와 목사님들의 도움으로 아들과 남편이 그럭저럭 생활을 꾸려가고 있었다.

4

선천성 시각장애인은 날 때부터 아예 사물을 보지 못했다.

“토니, 너는 무엇이 보이니?” 어머니가 바보처럼 안타깝게 물었다.

“어머니, 보이는 것은 없으나 상상은 해봅니다. 손으로 만지고 귀로 들어서...”

“토니야! 여기 이것이 사과란다. 한 번 만져보고 기억하거라.” 결국 시각장애인의 교육은 시각을 배제한 청각, 촉각, 후각, 미각, 그리고 내부감각(내장), 고유감각에 의존했다. 결국 시각장애인의 내면세계는 추론과 유추에 의한 것은 정상인과 비슷했으며 거기에도 행복은 존재했다.

“토니야? 너에게 이 에미는 어떤 형태로 보이니? 아니 느끼니?” 어머니가

물었다.

“어머니는 둥글고 보드랍고... 또 어머니의 형태는 내 마음속에 들어 있어요. 그리고 어머니의 마음도 나는 보고 있어요.”

“아니, 토니야? 넌 내 마음도 볼 수 있다고?”

“예, 어머니...”

선천성 시각장애인은 그 나름대로 빛과 색깔 그리고 형태와 이미지를 갖고 있다고 하는데 주로 흑백으로 되어 있는 듯했다.

“토니야? 네가 눈을 뜨고 본다면 내 얼굴을 곧 구별할 수가 있을까?”

“얼굴은 알 수 없어도 어머니는 곧 알아 볼 것 같아요.”

이와 같은 대화는 아들과 어머니 사이에서 눈물겹도록 이어져 왔으나 결론은 없었다.

“토니? 내 얼굴은 몰라도 나를 기억하면 돼. 나는 너를 알고 있으니까.”

5

어머니(레지나)의 망막 수술을 한 지 일주일, 조마조마한 관찰 끝에 별문제가 없어 일단 퇴원했다.

레지나는 닥터 최에게 감사 그리고 또 감사를 했다. 그리고 보니 감사할 일이 수도 없이 많았다.

남을 용서하면 그 상대방에게 연민이 생기며 사랑을 하게 되며 이와 반대로 남의 용서를 수용하고 나면 오로지 감사한 마음뿐이며 마침내 상대방에 대한 존경심이 생기고 있었다.

조로증 환자를 아들로 준 하나님에게 감사를 하면서 레지나는 아들을 꼭 끌어 안으며 울고 있었다.

그리고 또 힘든 2년이 흘러 오늘에 이르렀다. 토니 나이 열 살. 조로증 환자로서는 거의 인생을 다 살아온 셈이다. 정상사람으로 환산하면 80에서 100살이 되는 나이이다. 토니는 월서가에 있는 특수학교에 다니고 있는데 학교에서 점심도 제공하고 버스로 데려오고 데려다 주며 불구자에게 보조금도 지급되기 때문에 지난 10년 큰 어려움이 없었다. 그러기에 어머니 레지나 씨는 회계사무실에 나가 일을 할 수가 있었다.

오늘도 레지나 씨는 아들이 학교에 가는 것을 확인하고 회계사무실로 가 일을 하고 있는데 올림픽경찰서에서 사무실로 연락이 왔다.

“레지나 씨! 급히 헐리우드장로병원으로 가보세요. 아들 토니가 아파트 밖에서 쓰러져 응급실로 실려갔습니다.”

급히 병원으로 달려가 보니 아들 토니는 중환자실에 누워 있었는데 얼굴에는 산소마스크를 쓰고 팔뚝에는 주사바늘이 꽂혀 있어 수액이 푹푹 떨어지고 있었다.

담당의사의 설명에 의하면 토니는 나이가 많아 관상동맥이 딱 맥혀 있어 보호자의 허락을 기다리기가 너무 촉박해 응급으로 3개의 스텐트를 이미 넣었는데 워낙 광범위해 죽을 수도 있다고 알려주었다. 그러나 생각보다 예후가 좋아 토니는 정상으로 회복돼 퇴원을 하게 되었다.

그리고 보니 서른네 살에 낳은 토니가 어느새 열 살, 어머니 레지나는 마흔네 살이 되었다.

조로증 환자인 토니는 이제 80세를 넘긴 노인이기에 머리칼은 온통 흰색, 대머리가 여기저기에서 운동장을 만들고 있었으며 얼굴에는 주름살이 여기저기에서 계곡을 만들고 있기에 틀림없는 노인이나, 실제로는 4학년 소년이라고 보아야 했다.

토니보다 세 살 더 많은 누나와 비교해 보면, 마치 손녀딸과 할아버지가

나란히 앉아 있는 듯했다. 수술 받은 토니를 보는 어머니의 눈은 안타까움이었다.

그때 토니가 뜻밖의 제안을 어머니에게 했다.

“맘, 꿈속에서 하나님이 내게 ‘토니, 너도 눈 수술을 받으면 눈을 뜨고 볼 수 있을 것이다’라고 말하셨습니다.”

“그래? 볼 수 있을 거라고?”

“그리고 맘! ‘천국에는 시각장애인이 없다’라고 흰옷 입은 천사가 말했어요.”라고 토니는 힘주어 말했다.

며칠 후 토니 어머니, 레지나는 주치의사를 만나 토니가 한 말을 말해 주면서 어떻게 안과 수술을 해 잠시라도 좋으니 한번 보게 해줄 수가 없겠는가를 물었다.

“토니 맘! 안과 수술은 커녕 이대로 두면 6개월 더 못 살고 죽을 것 같습니다.”

“토니는 안 죽습니다.”라고 레지나가 말했다.

“토니 맘, 얼마 못가 토니는 죽습니다. 그러니 장지를 구해 놓으시거나 가능한 화장을 하는 것이 더 좋을 듯합니다. 서운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토니 맘!”

“닥터 최! 토니는 안 죽습니다. 안 죽어요...” 레지나는 큰 소리로 말했다.

주치의사의 말은 100% 맞는 말이었다.

조로증 환자인 토니는 점점 걷기가 힘들고 소변을 참지 못하고 침도 흘렀다.

그리고 보니 금년에 78세인 레지나의 시아버지(토니의 할아버지)는 혼자

걸으면서 골프도 치며 인생을 즐기고 있었으니 열 살 된 손자는 머지않아 죽게 된다고 하니 어머니 레지나는 심장이 쿵쿵거리며 멀리 우주 속, 블랙홀로 빨려 들어가는 느낌이었다. 죽는다고 알려주는 주치의사가 원망스러웠다.

8

모든 안과 질환을 수술로 모두 고칠 수 있다고 알려진 나는 금년 마흔세 살, 걸으로 보기에는 잘 나가는 연예인처럼 인기를 타고 있으나, 그렇지가 않았다. 내 인생도 레지나, 토니와 못지않은 시궁창에서의 어린 시절을 지냈기에 토니와 레지나가 마치 나의 식구라고 착각을 하게 되었다.

나의 과거를 “어머니의 쪽 눈은 어디로 갔나?”라는 문장으로 정리할 수가 있기 때문이다. 나의 어머니의 왼쪽 눈은 가짜 눈이다. 막말로 개눈이라고도 하는데 술에 찌들리고 무책임하고 폭력적이었던 남편(나로서는 아버지, 그러나 그렇게 못 부르겠다) 때문에 생긴 일이었다.

우리 집은 인천 변두리 쓰레기를 매입하던 간석동에 빈민들이 몰려 사는 천막촌에서 살았다. 아버지는 술꾼에 도박꾼으로 돈도 벌어 오지 않고 아내를 폭행하다가 내 나이 세 살 때 어디론가 사라졌다고 한다.

그래도 어머니는 남편을 기다리며 누나와 나를 먹여 살리느라 장사를 다녔기에 나와 누나는 근처에 있는 고아원에 가서 놀고 얻어먹으며 연명을 하였다.

유년기 때 나는 이유 없이 고아원 형들에게 얻어맞고 살다보니 맷집이 좋아졌고 원한과 복수로 살아왔다. 그래도 열 살쯤에는 동네 깡패들에게 달려들어 싸우기도 할 만큼 성장했다.

우리가 살던 움막집은 비가 오면 여기저기에서 새고 바람이 세게 불면 지붕이 날아가기도 했다. 그래도 그런 움막집이 있다는 것도 행운이었다.

오늘날 돌이켜보면 나는 깡패, 소매치기, 양아치가 됐어야 했는데 어머니가 고생했던 눈 질환 때문에 나는 오히려 긍정적으로 발전해 오늘날 안과 의사가 된 것은 기적이지요, 하나님의 섭리라고 생각한다.

내가 열 살, 누나가 열세 살 때, 밤낮을 가리지 않고 우리 남매를 먹여살리려고 허드렛일을 마다하지 않고 해오던 어머니의 왼쪽 눈에 심각한 염증이 생겼다. 왼쪽 눈이 퉁퉁 부었으며 눈가에서 농이 나오기 시작했다. 아프기도 하고 우선 잘 보지를 않아 큰맘 먹고 어머니는 남매를 데리고 걸어서 서울에서 아주 유명한 K안과 병원을 찾아갔다.

‘눈에 심각한 염증이 생겨 곧 수술을 해야 한다’라는 진단을 받았으나, “여기서는 이렇게 큰 수술은 할 수 없으니 S대학병원으로 가보라.”라고 밀어내듯이 몰아냈다. 할 수 없이 어머니는 남매를 데리고 걸어서 S대학병원으로 찾아갔다. 비록 내 나이 열 살이었지만 나는 어머니의 사정을 이해할 수가 있었다.

수술비를 준비해서 다시 오라고 하여 우리는 있는 돈을 탈탈 털어서 다음 날 찾아 갔다.

“이 돈으로는 턱도 없네.” 결국 진료거부를 당하고 울면서 돌아왔다.

여기저기에 가서 돈을 빌리기도 하고 보조를 받아 일주일 후에 다시 찾아가니, “때가 늦었다.”라고 하며 결국 왼쪽을 적출해 내었다.

왼쪽 눈은 실명되었고 미용상 “개 눈을 박았다.”라는 말을 들었다.

“빌어먹을 놈의 돈 돈 돈... S 대학병원... 똥쓸 놈의 아버지...” 이 세 가지가 이후 나의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다.

“그래, 보자. 나, 돈도 벌고, 그리고 안과의사가 돼서 어머니의 시력을 다시 회복시켜 주겠다.” 나는 결심을 하였다.

이렇게 가난한 내가 과연 돈 많이 드는 의사가 될 수 있을까, 나는 그것은 몰랐으나 S대학병원에서 안과의사가 돼 거기서 어머니를 고쳐주겠다는 각오는 변하지 않았다.

S대학병원! 나는 너를 미워하지만 나는 거기서 안과 의사가 될 것이다!

그리고 불쌍한 어머니, 왼쪽 애꾸눈... 내가 고쳐준다. 내가... 내가... 나는 열 살 나이에 안과 의사가 되기로 다짐했으며 S대학병원에서 안과 의사가 되어 어머니에 대한 복수를 할 것이라고 결심했다.

9

그리고 3년 후, 나는 열세 살 누나는 16살... 경천동지(驚天動地)란 말처럼 10년전에 식구들을 팽개치고 어딘가로 도망간 아버지가 우리에게 돌아왔는데, 우리 식구를 모두 미국으로 이민시킨다고 큰 소리를 쳤다.

“미국? 미국?”

우리들은 미국을 지상낙원으로 알고 있었는데 아버지가 와서 우리를 미국으로 이민 보낸다고 하니 지금까지 갖고 있던 아버지에 대한 원한이 짝 사라졌다.

“그래, 이놈들아. 미국은 지상낙원이야. 미국 텍사스주 휴스턴으로 간다. 알겠나? 수속은 이미 다 마쳐놨으니 잔말 말고 비행기 타고 오란 말야. 나는 한 달 더 있다가 먼저 가서 기다릴 테니...”

놀라운 일은 지난 10년 어떻게 미국에 갔으며 어떻게 식구들을 이민 초청 수속을 했는지 도저히 알 수가 없어 반신반의했다. 아버지란 사람은 생각했던 술꾼, 도박꾼은 아닌 듯했다.

3개월 후 우리는 아버지 친구라는 사람의 도움으로 신체검사, 그리고 영사관에 가서 인터뷰를 한 후 비행기를 타게 되었으니 마치 귀신에 홀린 듯한 기분이었으나 가난하고 힘없는 여기 한국을 떠난다는 것이 기뻐다.

막상 미국에 와보니, 우리가 살아야 할 곳은 휴스턴에서 떨어진 바닷가 항구 갈베스톤의 게토 촌이었다. 칼부림과 마약, 그리고 창녀들이 웃음을 비밀리에 파는 곳이었다. 알고 보니 그동안 아버지는 외항선원으로 여기저

기 떠돌아다닌 모양이었다.

그래도 한줌의 양심은 있어 자식들을 갈베스톤에 불러들이고는 임무를 다했다는 듯이 손을 탈탈 털고 배를 타고 사라졌으며 언제 돌아올지 알 수가 없었고 우리 가족은 또 다시 이민 가족이 되었다. 우리 가족은 이곳에서도 빈민으로 배가 고팠다. 오른쪽 눈만 사용하는 어머니와 우리 남매는 막고 살기 위해 식당에서 세탁소에서 봉제업소에서 공사판에서 마켓에서, 어디든지 돈이 된다면 지옥이라도 찾아갔다.

그러는 중에서 나는 중고등학교를 다녔으며 먹고 살기 위해 일도 하였다. 그러나 나는 공부가 재미있었으며 성적도 좋아 텍사스 B대학에 입학했다. 누나는 어머니와 동생인 나를 위해 대학은 포기하고 공장에 다니고 옷장사도 해 동생인 나를 도왔다. 나 같은 가난뱅이가 하버드의대에 장학생으로 입학해 4년을 마친 것은 불가사의한 기적이었다.

그러나 어머니는 내가 의과대학 2학년이 되던 그해에 돌아가셨다. 안과 전문의사가 돼 어머니의 눈을 고쳐주겠다고 서원한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하고 말았다.

나는 어머니의 관을 붙들고 한없이 그리고 원통하게 땅을 치며 울었다.

“어머니, 어머니, 조금만 더 기다리면 되는데... 어머니! 돈이 없어서, 돈이 없어서 눈이 멀었지... 미안해, 어머니...” 나는 울고 또 울었다.

“아들아, 돈 없는 사람 많아. 너무 많아. 나는 그래도 눈 하나라도 있지 않니. 두 눈이 안 보이는 사람도 있어. 제프야!” 어머니의 목소리는 내 귀에서 예코로 들려오고 또 들려왔다.

어머니를 화장해 갈베스톤 바닷가에 뿌렸다.

“어머니, 멀리 멀리 바다를 헤치고 나가세요. 크게 숨을 쉬고 인천 앞 바닷가까지 달려가세요.” 나는 한움큼으로 변한 어머니의 화장재를 갈베스톤 바닷가에 뿌린 후 머리를 질끈 동여매고 공부에 전념했다.

졸업 후 나는 UCLA안과병원에서 전문의과정을 마친 후, 단 한번에 전문

의시험에 합격하였다.

어디에서 개업을 할까? 아님 학교에서 교수가 될까? 나는 여러 생각을 하다 문득 한국의 S대학병원을 생각하고 일단 대학병원에 교수 자리를 구할 수 있는지를 타진하니 당장 오라는 연락을 받았다.

“하버드대, UCLA 안과 전문의사가 왜 여기 S대학병원을 택하셨나요?” 안과 과장이 물었다.

“조국에서 봉사하고 싶어서입니다.”라고 대답했다.

생각해보니 나는 금의환향하는 의사가 된 셈이었다. 그리고 진정 나는 한국에 가서 붙잡힌 환자들을 도와주려는 마음이었다. 막상 S대 의대 안과에서 나를 조교수로 대접할 수 있다고 하니 문득 옛날 어머니가 받았던 푸대접이 생각났으며 마음이 아팠다.

빈민가에 살며 S대학병원에서 눈수술 받을 돈이 없어 마지못해 한쪽 눈(왼쪽 눈)을 적출했던 어머니가 서럽게 울던 그 모습이 이번에는 나를 울렸다.

“아 나는 마침내 여기 S대학병원에 와서 조교수가 되는데 왜 이다지도 마음이 불편하지? 복수를 한 셈인데, 그런데, 나는 여기에서 어머니 생각하면서 다른 사람을 위해 안과 수술을 제대로 할 수 있을까?”

그 대답은 “아니올시다”였다.

“아, 과장님, 잠시 S의대에서 봉사하고 싶은 마음으로 찾아왔는데, 마음을 바꿨습니다.”

“바꾸다니요. S의대가 마음에 안 드시나요?” 과장은 의아해 하며 물었다.

“예. 옛날 어머니가, 어머니가 생각이 나서...”

“어머니가 어찌 됐습니까? 여기에서?” 과장은 다시 물었다.

“아, 아닙니다 과장님! 사양하겠습니다. 내가 있어야 할 곳이 아닌 것 같아서...”

나는 마침내 눈물을 흘리고 말았는데 과장은 나를 이해하지 못했다. 그리

고 나는 미국으로 다시 돌아왔다.

그리고 미국으로 돌아온 나는 돈을 벌겠다는 마음으로 배우들이 많이 사는 할리우드와 한국 사람들이 많이 사는 한인타운 가까운 웨스트우드에서 제프 최(Jeff Choi) 안과클리닉을 개설하고 지난 10년 나는 악착같이 놀지 않고 환자수술에 전념을 해 성공한 안과 의사, 돈 번 의사로 성공, 아메리칸 드림을 이루었다.

‘안과 수술은 못하는 것이 없는 하버드-UCLA 안과 전문의사 제프 최의 사전에는 불가능이 없다.’라고 알려졌다.

10

오늘 아침 나는 나의 오만과 자존심을 여지없이 깨부순 환자를 만나게 되었다.

아침 10시경, 레지나 씨가 아주 심각한 얼굴로 나를 찾아와 부탁을 하였다.

“닥터 최, 내가 알기로는 선생님은 눈에 관한 한 못하는 수술이 없다고 하는데, 하나 부탁을 하려고 하는데 들어주시겠습니까?”

“알겠습니다. 무슨 부탁인지요?” 나는 웃으면서 오만하게 말했다.

“닥터? 내 아들 토니가 단 하루, 아니 단 10분 만이라도 볼 수 있게 수술 해 주세요. 단 10분만이라도...”

“단 10분? 왜 그렇죠, 레지나 씨?”

“토니는 곧 죽게 됩니다. 이 에미보다 먼저 죽어 천국에 갑니다. 그리고 나도 천국에 가면 서로 알아보아야 하니깐요. 하실 수 있죠, 닥터?”

나는 깜짝 놀랐다. 왜냐하면 선천성 시각장애와 후천성 시각장애는 엄연히 다르기 때문이다. 선천성 시각장애는 보는 감각세포 자체가 잘못된 것이기 때문에 아무리 현대의학이라도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대뇌 후두엽에

모여 있는 1차 시각 신경세포와 신경감각세포가 무려 10억 개가 넘는 한 사람의 영역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내가 그 일을 할 수가 있을까? 지금까지 이런 생각은 해본 적이 없었다.

더욱이 인간 세상에서의 시각세포와 천국에서의 시각세포는 분명 다를 것임에 틀림이 없다고 생각한다. 우리 인간은 가시광선의 범위에서 보고 형상을 만든다. 그러나 저 천국에서는 가시광선을 넘어선 적외선, X-선, 마이크로웨이브 등을 볼 수가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여기 인간세상에서도 천국처럼 수술을 통해 못 보던 세포를 보게 할 수가 있을까? 나는 자신이 없었다. 그러나 레지나 씨는 나를 마치 하나님처럼 생각한다고 하니 부담이 들었다.

“레지나 씨, 제가 오늘은 대답을 못하겠군요. 오늘밤에 하나님에게 기도를 해보고 알려드리겠습니다.”

“기도를 해보고? 아, 알겠습니다. 꼭 부탁드립니다, 닥터.”

토니 어머니가 돌아간 후 나는 무슨 수술을 어떻게 하면 토니가 볼 수가 있을까 곰곰 생각해 보았으나 대답이 떠오르지 않았다.

11

오늘밤을 기약해 본다. 무슨 방법이 나올지….

“어머니, 어머니처럼 돈 없어 수술을 못 받아 실명하는 환자를 돕는 의사가 되겠습니다. 어머니, 그런데 토니를 보게 하는 수술? 방법을 모르겠어요, 어머니!” 어머니를 호명하며 답을 구해 보았다.

단 10분이라고 좋으니 얼굴을 보게 해달라는 토니와 어머니. 그들이 죽은 후, 천국에 가서 서로의 얼굴을 확인해 보려는 마음을 어떻게 해야 할까. 나는 절벽에 부딪치고 말았다.

“제프, 책을 보려무나.”라고 어머니는 한 마디를 던지고 사라졌다.

“예? 책을? 무슨 책을요?”

“그 책, 내가 늘 보던 그 책.”

“아, 그 책, 알았습니다.” 나는 기쁜 마음으로 그동안 펴보지 않아 먼지가 낀 성경을 들었다.

‘어디를 볼까? 아, 그렇지 예수님이 눈을 뜨게 했던 성경 구절들을….’ 나는 주님이 선천성 맹인의 눈을 만지시며 “믿음이 너를 낳게 하였다.”라는 구절에 눈이 머물렀다. 그리고 생각을 깊이 해보았다. 이게 무슨 말인가?

나는 조용히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

“우주에 가득 찬 전자파를 만드신 하나님! 제게 현명한 가르침과 능력을 주셔서 토이의 눈을 뜨게 하셔서 10분 만이라고 보게 해주소서.” 그리고 나는 밤잠에 빠져 들었다.

분명 내게 들리는 소리가 있었다. 꿈일 수도, 아니면 말씀일 수도 있었다.

“천국에서는 소경도 병어리도 그리고 너 같은 의사도 없어… 그러니 네가 토니에게 해줄 일은 없어. 있는 그대로 보내거라.”

동녘에서 밝은 해가 떠올랐다. 가시광선을 보는 눈으로 나는 어제와 똑같은 해와 햇살을 볼 수가 있었다.

“맞아, 그래!”

마침내 나는 레지나와 토니에게 알려줄 나의 대답을 얻게 되자 깊은 안도의 숨을 내쉬었다.



연구호 延圭昊, Kyu-Ho Yun 연세의대 졸업. 미국 내과 전문의사. 미국-한국문인협회, 미국-한국소설가협회, 미국펜클럽 회원. 미주펜문학상, 미주문학상 수상. 연세의대총동창회공로상, 미주장한연세인상 수상. 소설집 『꿈』 『두만강 다리』 외, 장편소설 『안식처』의 13편.

늦기 전에

이여근

나는 눈을 떴다.

사방이 캄캄했다.

- 한밤중인가?

깊은 잠이 들었다가 그 잠이 깬 사이의 흐리멍텅함 속에서 나는 의식을 찾으려고 온 정신을 집중시켜 갔다.

그런데 흠이불 같은 것이 내 얼굴을 덮어씌우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고, 그것은 꼭, 밀폐된 공간에 남아 있는 공기가 벽과 벽 사이에 남아 있다. 벽 하나가 움직여 가깝게 다가옴으로써 면적이 좁아지며 공기가 팽창해지는 중압감 같은 숨쉬기 불편한 그런 기운 같은 것으로도 느껴졌다.

그래서 나는 손을 뻗어 그것을 벗기려 노력해 보았으나 어떤 일인지 마음대로 손을 움직일 수가 없었다. 기력이 없어서인지 아니면, 어떤 힘에 의해 불가항력적인 사유인지 아니면 실질적으로 내가 깨어 있는 것이 아닌 꿈속인 것인지 사실 그것도 알 수가 없었다.

장갑 같은 것을 끼고 있는 것처럼 손도 답답하기만 하였다. 발도 묵직한 느낌이 드는 것이 양말과 신을 신고 그 발이 어디에 묶여 있는 것처럼 자유스럽지도 않고 무겁기만 하였다. 이걸 마치, 여태껏 붙어 있던 손가락 하나가 절단기에 동강 끊어져 바닥에 떨어져 있는 것을 본 것 같은 내것도 네것도 아닌, 그걸 보고 있는 심사였다.

- 여기가 어디지?

나는 도대체 내가 왜 이 모양으로 사방이 캄캄한 곳에 누워 있는지 사라지려 하는 명확한 의식의 꼬트머리를 잡으려고 안간힘을 다해 원인을 찾

으려 사력을 다했다. 그러나 나는, 갇힌 의식의 벽을 허물지 못하고 숨 쉬기를 답답해하며 슬며시 안개빛 저편 너머로 다시 가물가물 잠겨들고 말았다.

어디서 본 듯한 사내아이가 저쪽에서 나를 향해 아장아장 걸어오고 있었다. 그리고 계집아인지 사내아인지 도대체 감을 잡을 수 없는 아이가 그 사내아이 뒷편에 숨어서 또 쫄래쫄래 따라오고 있었다.

- 재네들은 누구지?

나는 웬지 모르게 갑자기 들이닥친 불투명한 두려움을 느끼며 아이들의 정체를 밝히고자 기억을 뒤집다가 또다시 잠재의식 속에서 더 깊은 무의식의 골짜기로 깊이깊이 잠겨가고 말았다.

그러나 그 찰라에, 느닷없이 여자 하나가 나를 향해 애잔한 연민의 표정을 지으며 홀연히 나타났다. 그때, 나는 분명 눈을 감고 있다고 생각했는데도 나는 그 여자가 누구인지를 단박에 알아보았다.

- 어? 당신? 당신이 여기 웬일이야?

나는 내가 묻고자 하는 의문의 핵심이 이 말이 아닌 다른 말인 것만 같았는데도 잘못을 저지르다 들킨 사람처럼 아내를 보고 더듬거리며 당황해 하였다. 하지만 내내는,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채 슬며시 내 앞을 스쳐 지나가고 있었고 뒤이어 초췌한 모습의 젊은 여자 하나가 갑자기 모습을 나타내었다.

- 어? 너,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이게 얼마 만인거야? 아마 십수 년은 되었지? 야, 이거 오랜만이네. 간간이 궁금했는데... 그동안 어떻게 지냈어? 어? 아까 그 애들 아냐? 어떻게 된 거야? 개들은 누구야? 왜 네가 그애들을 데리고 있어? 아, 너 결혼했나 보구나?! 니 애들이지? 근데 왜 아무 말도 안하고 그러고만 서 있어? 뭐라고 말 좀 해봐... 어? 아니, 말은 안하고 또 어딜가? 얘기 좀 하고 가지 않고.

나는 오랫동안 잊고 있었던 여자의 이름이 생각나지 않아 골똘히 정신을 집중시켜 가고 있음에도 또 다른 기억과 병행하여 헤매고 있음이 순간적으로 기이한 일이라고 생각했으나 그 여자 역시 우윳빛 저 너머로 막 사라져 가고 있었기에 나는 희미해지는 여자의 뒷모습을 쫓아 허둥지둥 달려가다 그만 보이지 않게 다가온 벽에 부딪혀 나동그러지고 말았다.

나는 다시 눈을 떴다.

눈은 떴으나 무언가가 잔뜩 앞을 가로막고 있어서 사실은 눈을 감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라는 느낌이 또 다른 자아 속에 존재하고 있는 듯 나는 허둥대고만 있었다.

- 도대체 여기가 어디야? 내가 왜 여기 누워서 움짱달짝 못하고 있는 거지?

까마득하게 높이 있는 것만 같은 실마리를 풀기 위해 나는 다시금 줄기차게 기억의 사다리를 오르려 애를 썼다. 그러다 그만, 층계 하나를 헛짚고서 의문을 찾는 중심을 잃을 뻔도 하였다.

등줄기를 타고 식은땀이 죽 소름끼치게 흐르고 있었다.

- 가만있어 봐. 마누라 뒤따라 모습을 보였던 그 여자. 예전에 나하고 동거했던... 맞아! 한 아이는 중절수술해서 지웠고 그 후 집을 나가 어디선가 아들이일 하나 낳았다는 얘길 들은 기억은 나는데... 이름이? 그래, 수애! 수애였어! 근데, 이 여편네는 아까 보이더니 어딜 가서 보이지 않는 거야?

나는 이제 겨우 잡게 될 것 같은 얼키설키 매듭진 실타래를 풀기 위해 한 발짝씩 기를 쓰며 다시 기억의 사다리를 오르고 있었다.

- 또 어딜 갔어? 내가 셀 수 없이 수십 번도 더 너한테 말했지? 한 번만 더 집에 박혀 있지 않고 출랑거리며 나돌아다니면 그뻘 너하고 끝장이라고 했어? 안 했어? 니 오빠가 죽어서도 날 못 잡아먹어 안달이겠지만 너 이렇게 집 나가 버릇하면 난 이대로 떠나겠다고 그랬어, 안 그랬어? 나는 한다

면 하는 놈이야 알았어? 그래, 좋아. 이걸로 '땡-' 마지막 증은 쳤어. 너와 나는 오늘로 끝! '땡-' 알았어?

그래, 그때 내가 그런 내용의 편질 써놓고 서울을 떠났지. 지금 생각하면 그 여자, 그래 이제 이름이 정확히 기억 나누만. 신수애! 그래, 그 수애가 좀 불쌍하다는 생각이 들긴 했지만... 내가 그때 '네 오빠가 선대로부터 물려받아 하던 쇠붙이를 녹여 여러 물건을 만들던 주물공장에서 말야, 너 배울 만큼 배우고 군대도 마친 놈이 이렇게 빈둥거리고 놀고 있으면 어떡하니?' 하고, 나하고 고등학교 동창인 네 오빠가 '학창 시절 너 수학 잘했지?' 하면서 날 자기가 운영하는 그 공장에 회계 담당으로 취직시켜 줬을 때 말야, 네 오빠 날 이용만 했어. 너도 그거 알지? 어느 날 네 오빠가 나 보고 그랬어. 야! ...그러니 이렇게 쪼끄만 업체에서 이것저것 떼고 나면 뭐가 남겠니? 회사 운영하기 정말 참 힘드는구나! 어느 날 퇴근 후 회사 부근 포장마차에서 단 둘이 한잔할 때 불쑥, 푸념 비슷이 그런 말을 내게 하더라구. 그래서 그 후, 나는 친구의 이득을 위해 세금 등 기타 경비들을 장부상으로 정리하면서 슬금슬금 몇 푼, 그래 몇 푼밖에 안 돼. 그 돈 가 동생, 바로 너 수애, 너하고 놀러 다니는데 좀 썼지. 어때 장래 처남과 매제 사이인데 말야. 짜식... 나중에 회사 문 닫게 되자 ...참 그날, 폭풍우가 몰아쳤었지. 네 오빠, 사무실에서 책상을 내리치면서 날뛰고, 난리도 그런 난리가 없었지... 하지만, 사업체 문 닫는 게 왜 나 때문이야? 지나 나나 피장파장이지. 뭐? 내가 지 동생 바람나게 해가지고서 식구끼리 고소할 수 있느냐고 내가 너를 방패삼아 머리를 썼던 것이라고? ...웃기는 친구였지. 네가 날 좋아해서 네가 나와 동거한 거지, 그게 어디 나만 좋아해서 될 일이야. 민주주의 국가에서? 그런데, 그 후에 어떻게 됐어? 넌 특하면 말없이 집을 뛰쳐나가곤 했지. 봐! 네가 날 버렸지 내가 널 버린 게 아니잖아. 나는 몇 번이고 너더러 한번만 더 말없이 집 비우면 같이 안 살겠다고 여러 번 경고했잖아. 정말이지 일방적이 아니고 너 알다시피 누차 기회를 줬다고... 근

데, 왜 나 보고 내가 먼저 자길 버렸다고 생각 하는 거야? 뭐? 너는 아무말도 안했는데 왜 나보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느냐구? 아니, 난 네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을 거라는 짐작이 들어서 말야. 내가 그후 훌쩍 미국으로 떠나 오긴 했지만 미국이란 나라가 어디 이웃 동네도 아니고 멀기는 멀어서 날 찾지 못해 어쩔 수 없이 날 포기했다고 생각할 순 없잖아! 분명히 난 집 나가 버릇 하는 너하곤 안 살겠다고 여러 번 다짐을 쫓으니깐 나를 탓해선 안 되는 거고 우리는 자신의 언행에 책임질 성인들이잖아! 근데, 그때가 언젠데 왜 이제 나타난 거야? 난, 지금 너하고 노닥거릴 시간이 없어! 난 빨리 '샌드라'를 만나러 내 사업체에 나가 봐야 해. 아참, 넌 샌드라가 누군질 모르지! 그나저나 지금이 몇 시지? 이것 참 미치겠네. 내가 왜 이러고 있는지 알 수가 없으니. '샌드라'는 지금쯤 출근해서 내 사무실 정돈도 하고 커피도 끓여놓고 내가 나타나기만을 눈이 빠지게 기다리고 있을 텐데 말야. 언젠가, 네 나라 고향으로 여행 한번 가자고 해봤더니만 샌드라가 그렇게 좋아할 수가 없었고 나도 의견 일치를 하고 보니 생각만 해도 즐겁두만. 정열의 나라에서 이국녀와 단둘이 걷는 대서양의 해변가, 거기다 호텔 레스토랑에서의 황홀한 저녁식사. 그것 참 벌써부터 몸이 근질근질해서 견딜 수가 없잖아. 근데 참, 아까 여편네가 잠깐 보였는데 그 여편네가 무슨 낚시 찰린 것 아냐? 그 예수쟁이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날 노려보기만 한 것 같았는데. 그래, 노려보며 말없이 내 앞을 스쳐 지나갔어. 날 절대 곱게 바라보는 눈빛이 아니었어. 히야, 그것 참, 점 보기도 전에 산통 다 깨진 것 아냐? 내 어찌다 팔자가 사나워 그 여잘 만나 벌써 10년이나 같이 살게 됐는지 정말 내 성질에 알다가도 모를 일이야. 정말이지 그놈의 마누라 뺨에 내 인생 많이 조졌지.. 아, 내가 하는 일에는 참견 말고 집구석에만 처박혀 있으면서 어디가 덧나냐? 그렇게만 해줬으면 내 진즉에 출세해 이름도 날렸을 텐데 말이야. 그리고 보니 지금 여편네 처음 만났을 때가 생각나네. 그 왜, 내가 관광 비자로 와서 눌러 앉은 이 나라 N시에서 말야. ...나 혼자 생

각하는 거니 그때 일, 속으로 생각해도 아무 탈 없는 거겠지? '제임스' 니 첫 남편이 운영하던 주유소에서 말야, 내가 불체자로서 가진 돈도 몇 푼 없고 내 모든 자존심을 다 내려놓고 첫 잡을 뛰게 되었을 때, 내가 그 친구한테 신임을 얻으려고 얼마나 열심히 일했어? 난 정말이지 너 아다시피 아침 7시부터 밤 11시까지 꼬박 열여섯 시간 각종 사무적인 일이다 간단한 차 정비 일까지 도와주며 일해 줬잖아. 그렇게 한 1년쯤 지독히 일하던 어느 날, 그 친구가 나와 자기 마누라에게 주유소 이런저런 일을 다 맡기고서 잠시 고국에 다녀오겠다고 하고선 나갔다가 나는 알 수 없는 어떤 싸움에 말려들었다가 비명횡사했잖아! 그런 일이 있는 후 얼마 안 있다 '혼자 지내시기 외로우시죠?' 하고 내가 그의 아내인 지금 내 마누라 된 너에게 전화했지? 어, 아니지! 내가 먼저 나에게 전화했지 참. 그래서 그날 밤 네 집에서 내가 사들고 간 비싼 와인을 마셔가며 이런저런 얘기 한마디씩 안주삼아 먹을 때 너는 '얼굴에 남편이 하던 걸 떠맡고 보니 빛이 있는 사업체니 이걸 어떡하면 좋겠어요?' 하며 못 마시는 술이라면서도 훌쩍이는 네 팔짱 설움 다 들어주며 밤새워 주다가 그만, 그 밤에 내가 너한테 코를 꿰어버렸잖아! 그러니 어떡하겠어? 그 뒤 내가 나를 붙들고서 하소연하는 빗투성이인 그 주유소 내가 해보려 했지만, 내 형편엔 얼마라도 그 은행 빚 갚을 여력이 안 되어 다른 사람에게 넘기고서 네 처지가 하도 딱하여 하룻밤 함께 지낸 연분으로(아니, 시민권자인 당신과 혼인하면 내가 불체자에서 영주권자로 신분이 바뀌어 자유스럽게 이 나라 살아가는 데 아무 탈이 없게 될 것이기에 널 이용 했다고는 생각하지 마!) 남의 눈도 있고 하여 이 착한 내가 너를 버리지 못하고서 여기 H시로 오게 되었잖아. 그리고 여기 와서도 말야, 예전에 한동네에서 살던 친구를 우연히 만나, 그 참 우연이었지, 내 팔짱 하곤 참..., 그때 그 친구가 제법 규모가 크게 사업하던 뷰티 서플라이 가게에서, 내가 이제 막 이 도시로 옮겨와 지리도 잘 모르고 하기에 이쪽 사정도 알 겹해서 잠깐 쉴다가는 간이역으로 생각은 했으면서도 당신 알다시

피 내가 또 얼마나 열심히 일했어? 그런데 그 친구 나한테 봉급 주는 것 좀 봐. 아주 쥐꼬리만큼이더라구. 자기 말로 법정 최저 임금은 넘게 다른 가게 종업원보다는 더 준 것이라 했지만서도 아파트 렌트비 하며 단돌뿐이지만 식구 식품비에다 자동차 개스비, 그리고 이런저런 용돈에 몇 푼씩은 저축할 수 있는 봉급은 쥐야 하는 것 아니겠어? 그래야 나도 번듯한 사업 한번 해보고 집도 사는 거지 안 그래? 친구 좋다는 게 뭐야? 그 X 그따위로 구는 데 내가 가만히 당하고만 있을 것만 같아? 나는 절대적으로 내 인권 같은 것을 착취 당하면서 살 사람이 아니야! 그러니 다른 것으로 일거리를 찾아 또 떠나볼까 하다가 위기가 기회다 생각하고 하루 매상에서 내 인건비 나름대로 계산해서 따로 모으는 게 당연하잖아. 너도 알다시피 그렇게 한 2년쯤 됐지 아마? 그놈 별 받더라구. 이상하게 매상이 줄어들어 큰일이라고 하던 그놈, 결국엔 파산하고 말았잖아! 하지만 그 후 내가 그놈 대하는 걸 봐. 마음씨 좋고 이해심이 많은 나인데, 그 친구 파산하는 걸 그간의 정리나 친구 관계로서 어찌 가만히 보고만 있을 수 있었겠어? 아니, 친구가 아니더라도 어찌 사람이 자빠진 사람 일으켜 세워주진 못할망정 모가질 밝을 수가 있느냐 말야? 그래서 내가 그 친구가 달라는 금액에서 당신 첫 남편 주유소 정리하면서 챙긴 몇 푼 좀 더 얹어서 그 가겔 인수했잖아! ...내가 주인 되고 나니까 장사가 더 잘만 되네. 사람들이 내 사업 수완 좋다고 얼마나 칭찬이 자자했어? 아, 주간 동포신문에도 '파산한 사업 단기간에 정상으로 일으켜 세운 이 사람' 하면서 파산대소하는 내 사진 실렸잖아! 사업이 잘 되고 안 되고는 주인이 머리 쓰기 나름이더라구. 그런데 그 가게가 있는 곳이 잡범들이 들끓고 좀 시끄러운 거리가 되어서 말야, 그런 내색은 하지 않고 가게 권리금 좀 낮춰서 처분하고 뭐했지? 그래, 규모가 큰 옷도 매상 차렸잖아! 근데 말야, 당신 무슨 짓 했어? 뷰티 서플라이 말아먹은 내 동네 그 친구 X, 그 X을 만나 내가 어렵사리 저축해 놓은 돈, 그 돈을 내 허락도 없이 그 X에게 한 움큼 쥐어 줘버렸었잖아! 나도 배울 만큼 배운 놈이

고 한때는 경험을 살려 큰 회사 장부정리 같은 것 귀신같이 하던 놈이지만 아, 어디 그게 그렇게 쉬워? 빼돌리려면 나한테 한수 배우든가... 이놈의 여편네 집에 뒤도 쓸모없어 데리고 나와 일좀 시켰더니 그렇게 표 나게 몽치 돈을 빼네? 모르는 놈 믿을 수 없어 그래도 살 섞은 내가 날 것 같아 말렸더니 이건 완전히 생선가게 고양이였어. 난 그래도 귀싸대기 정도의 폭력은 좀 있었지만 널 불구자로 만들진 않았어. 난, 그런 사람이야. 나는 사람들이 내 앞에서 말 한마디 잘못하면 의식적으로 그걸 꼬투리 잡아 악착같이 물고 늘어져 기어코 그 사람의 잘못을 인정시키고 내가 앞으로 그 사람과의 관계에서 고삐를 확 틀어진 입장에서 내 입맛대로 요리할 줄 아는 처세술을 가지고 있는 배짱있는 사내란 말이야. 그래서 내가 그답에 어떻게 했어? 그놈이 불쌍해서 도와주고 싶어서 그랬다는 당신 말을 듣고 내 예전에 그놈과 친분 관계도 있고 해서 한번은 용서해 준다 하고서 앞으로 절대 내 일에 관계치 못하게 하고선 영수증 보여주면 생활비를 주기로 하고 은행 통장은 내 이름으로만 오픈했잖아. ...가만있어 봐. 또 이런 생각도 나네. 내가 또 옷 도매상 수준급으로 매상 올려놓고선 권리금 잔뜩 챙겨 팔고선 잡화 도매상으로 갈아타고 아시아 모 나라에 출장 가서 선금 얼마 주고 물건 수령 후 후불하기로 하고 잔뜩 이것저것 주문해 놓고 와서 내가 그 물건들이 도착하면 내 주문대로 제작이 안 됐다고 클레임을 걸어서 말야, 개네들이 통관은 안 되지 도로 신고 가자니 손해가 이만저만이 아니지, 할 수 없이 개네들이 두손 들고 만세를 불렀을 때 내가 '샌드라'의 날라리 오빠를 시켜서 그걸 몽땅 혈값에 샀잖아. 그래도 개들 이문이 많이 나지 않아서 그렇지 뒷말 있게 손해 보게 하진 않았을 정도였어. 그것 봐, 내가 얼마나 사업 수완이 좋은 사람이야? 이건 수완이지 어디까지나 사기하곤 차원이 다른 얘기라구! 사기란 말야! 명품으로 몸 감싸고 비싼 자동차에 향긋한 비누냄새 은밀히 날리며 주둥아리로 돈 한 푼 안들이고 남 등쳐서 뺏어먹는 거, 그게 사기라구. 근데 이놈의 여편네 좀 봐. 나보고 뭐? 사악한 사람이라고?

너 나하고 단둘이 있을 때만 그런 말 했었더라면 내 좀 참았겠어. 아, 이놈의 여편네, 교회를 다니면서 거 뭐가 통성기도라나? 그런 걸 하면서 ‘아버지 회개합니다. 이 죄 많은 여자 죽어서도 묘비에 이름 석자 올리지도 못할 인간이옵나이다. 죽어 죽어 골백번 죽어도 제가 저지른 죄 다 갚을 수가 없사옵나이다, 아버지! 이 죄 많고 가련한 여자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거기까진 좋았어. 근데, ‘지금의 제 남편 역시 남을 구렁텅이에 빠트려 놓고도 그게 죄인 줄을 모르고 있사옵나이다. 아버지! 제 남편도 어서 바르게 살아 갈 수 있도록 회개하게 하옵소서. 어서 사악한 길을 헤쳐나와 아버지 앞에 무릎 꿇고 가슴 치며 자복하게 하옵소서. 아멘.’ 하고 아멘 어찌고 하면서 나를 인신공격했잖아! 통성기도라는 게 뭐야? 내가 교회 문턱 넘어가 본 적은 없었지만 들어서 아는데, 그게 중얼중얼 신음 비슷이 하는 말이라 하더만. 그러다가 자기 기분 컨트롤 못하고서 제멋대로 악을 쓰면서 생각 없이 아무 말이고 지껄이는 거. 그거 아냐? 그러니 같이 기도하던 교인들이 고래고래 소리 지르면서 발광하며 눈물 콧물 범벅이 되어 울부짖는 이놈의 여편네 가정사에 지금 무슨 문제가 있는지 모를래야 모를 수가 없는 것 아니겠어? 어쩐지 어디 식당 같은데 모임이 있어 가게 되면 나와 안면 있는 식사하던 어떤 사람은 나를 보자 얼른 외면을 하질 않나, 어떤 테이블에서는 나를 보자 저희들끼리 수근수근 거리질 않나. 그 숫자가 요 근래엔 하나 둘 늘어나더라구. 한동안은 이놈들이 왜 나만 보면 저희끼리 속닥이를 맞추는지 그 원인을 내가 어떻게 알 수 있었겠어? 내 술 잘 받아 먹던 X 하나가 어느날 은근히 내 귀에다 대고 ‘종잡은 소문이 있던데?’ 하고 얘길 해줬기에 알게 되었지... 그러니 어떻게 하겠어? 여전히 만나는 치들 술만은 잘 사주는 나인지라 아직 내 주변엔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 점점 그 숫자가 줄어드는 것만 같고 평판도 안 좋아지는 것 같아서 이놈의 과거 있는 늙은 여편네 그냥 확, 진작에 버릴려다 이제 차버리면 오도가도 할 데 없는 그 인생이 불쌍하고 내가 이나마 자리 잡아 살아가는게 한편으론 이 여잘 만난

인연 탓도 있고 해서 가정부 겸 안 버리고 데리고 살아 줬더니 그런 내 고운 인정도 모르고 제멋대로 굴어서 내가 이지경에 이른 것 아냐? 그냥 말썽 부리지 말고 집 구석에만 가만히 처박혀 몸이나 깨끗이 씻고 날 기다리고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근데, 가만있어 봐. 내가 왜 이런 생각을 하고 있지? ...여기가 어디야? 내가 왜 꼼짝도 못하고 지난 날 생각만 하며 이려고 있던 말이야? 왜 이렇게 어둡고... 날이 밝으려면 아직도 멀었단 말야? 그리고 공기가 왜 이렇게 탁해? 갈수록 숨쉬기가 불편해지네. ...이게 어떻게 된 일이야?)

거기까지, 아마도 나는 내가 걸어온 기억하고 싶지 않은 발자취를 거기까지만, 일부러 기억하려 하지 않았는데도 어쩔 수 없이 내 의지로서가 아닌 어떤 힘에 의해 반추하고 있었다.

그런데, 여기까지 생각난 현재의 단편적 기억만 가지고는 스스로 내 현재 처지의 원인을 정리 할 논리적 사고가 아직 나에겐 없는 것일까?

나는 다시금 아까보다 더 깊은 망각의 수렁 속으로 빠져만 들어가고 있었다.

얼마나 지났을까?

나는 다시 터널같이 긴 어둠을 통과 하여 점차 의식의 길로 다시 나오고 있었다.

그러나 눈은 뻗으나 보이는 것은 여전히 어둠뿐, 내가 왜 이렇게 어둠속에서 수족을 못 쓰고 누워만 있게 됐는지 그 원인을 아직 명확히 알 수가 없었다.

아마도 기억이라는 것은 가까운 현재에서부터가 아니라 맨 처음에서부터 거슬러 와야만 하는 것인지도 몰랐다. 단지, 내가 다시 눈을 떠도 보이는 않지만 어슴푸레 느끼고 있는 것은 내 과거의 언저리를 돌고 있는 이수상스런 기운이 얼마 전 내게 무언가 굉장히 역올한 일이 일어난 것 같다

는 불투명한 짓눌림 같은 오리무중의 답답함 같은 것이었다. 모락모락 모기향마냥 내 심연 깊숙이에서 역올한 항변으로 피어오르는 이 기운은 무엇일까? 이걸 아무래도 가까운 현실로 의식이 회귀하는 좋은 징조는 아닐까?

아, 그래. 이제 생각났어! 바로 그거야! 내일 모레 한인 사회의 한 부분을 대표하는 00회장 선거가 있는 날이잖아! 맞아. 내가 왜 그걸 여태 기억 못하고 있었지? 그래, 그거야. 그 동안 피나게 노력한 대가로 경쟁후보 없이나 혼자 그냥 무투표 당선이 되는 줄 알았는데 그래, 그 XX가 문제를 일으켰어! 후보자 등록 마감 한 시간 전인가 그 XX가 추천인 명부와 공탁금을 선관위에 들이민 거야. 바로 그 XX가 뒤늦게 나타나 가지고 날 생고생시켰어! 죽일 XX. 그래, 붙어보려면 붙어보라지. 지간 XX 세력 가지곤 어렵도 없을걸. 근데 말야, 하필이면 왜 그 XX야? 아, 그 XX 말야. 뷰티 서플라이 말아먹었을 때 내 마누라가 어, 아니지 내가 구제해 준 내 동네 친구 XX 말야! 아, 그 XX가 뷰티서플라이 샵 하나를 다시 차려 이런, 그 XX의 장사 밀천이 이 망할 여편네, 그때 나 모르게 내준 돈으로 기사회생하게 되었지 아마? 근근이 살아가고 있는 줄 알았더니 아! 글썸, 이 XX가 몇 년 안가 뼈까번쩍, 내 조국의 경제발전을 위해 무엇이든 메이드 인 코리아를 사야 한다며 현대 제네시스를 굴리며 내 앞에 나타났지 뭐야! XX, 너만 애국하니? 고장이 안 나야 애국도 하 거지 이 XX아! 그때 넘어졌을 때 모가지를 콧 누르는 건데 XX 내가 인정이 많아 탈이 나고 말았잖아! 내가 내 쪽 애들하고 일찌감치 샵페인을 딸 준비를 하며 기자들하고 당선소감 말할 시간만을 기다리고 있던 차에 내 꼴이 뭐가 됐어? 썩은 가지는 일찍 잘라냈어야 되는 건데 말야. 그 XX 뺨에 돈 더 쓰고 시간 뺏기고 그 XX가 날 환장하게 만들어 놓았잖아! 동포 방송에서 후보자 정견 발표할 때에도 말야. 아, 그럼 명실상부 동포사회의 한 귀퉁이를 대표하는 단체의 장을 뽑는 선거이니 정견 발표지, 그럼, 소견 발표겠어? 어쨌든 그때 말야, 그 XX 되게 웃기더라구. 아나운서가, 아니지, 사회자가 그 XX보고 후보께선 어떤 전략으

로 선거에 임하실 생각입니까? 하고 물으니까, 뭐? '참신한 도덕적 일꾼'이라나? 아니, 회장 선거에 나온 XX가 무슨 도덕을 찾고 있어? 지금 미국속의 한인 사회가 아무 문제 없이 그렇게 한가해? 늙어 꼬부라졌어도 시민권자 아니면 지금까지 영주권자에게도 주던 월페이 더 이상 주지 못하겠다고 정부에선 허리띠를 졸라맨다 아우성인데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 한인 노인네들이 영어를 제대로 하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겠어? 영어로 시민권 취득 시험을 치니까 걱정이지, 그럼 한국말로 시험 쳐서 미국 시민 되겠다고 할 수 있어? 거기다 이제 막 이민 와 시험 칠 자격이 안 되는 노인들은 어떻게 할 거야? 무슨 대책을 세워야 할 것 아냐? 거기다가 신문지상엔 선거철이 되어서인지 이구동성으로 전 미국에 실업률이 낮아지고 있다고 볼펜들 까고 있지만, 파산신고하는 한인들이 우후죽순이 아니라 울릉도 해변가에 오징어 널부러져 있듯 즐비한데 지금 도덕만 찾고 있을 때야? 어려움에 처한 동포들 구할 구체적 복안을 내놓아야 되는 것 아니겠어? 그리고 으음, 한번 생각해 보자구. 한인 사회에 웬놈의 단체들이 그리 많아? 물론 인간은 집단을 이루며 살아가는 동물이기에 사람이 모이다 보면 가까운 사람끼리 뭉치기 마련이고 그러다 보면 패가 형성이 되어 그러다 또 가지를 치게 되고 아무튼, 패들을 위해 해야 할 일도 많아지고 점차 전문성이 필요하게 될 거 아냐? 그러니 어떻게든 한인 사회를 대표하는 좀 큰 건물을 구입하여 한 건물 아래 이런저런 단체들을 규합하여 부속기관으로 한데 끌어모아 각 기관 소관대로 일을 추진해 나가면 여러모로 경비도 절감되고 현실적으로 이득이 배가되는 게 아니겠어? 여기서 할 말은 아니지만, 남는 예산이 있으면 그건 기타로 돌려쓰고... 아, 그런 걸 이슈로 내 걸고 회장 선거에 임해야 되는 거고 무슨 정견이든 소견이든 발표를 해야 되는 거 아냐? 거기에 비하면 내 쪽 구호는 어때? '높고 넓은 00회관 트락에 핀 무궁화꽃!' 글자수도 넷씩 넷씩 짝지어서 어감도 좋고 시적이며 이 얼마나 애국적인 표현이야! 높고 넓은 회관이라며는 큰 건물을 일컬음일 것이고 그러니 내가 당

선되면 모금 운동을 펼쳐서 그런 장소를 구입할 원대한 포부를 가지고 있다고 어필하게 되고 집이 있는데 왜 뜯어 없겠어? 그 뜯에다가 무궁화 꽃을 심어 한국인의 긍지를 나타내서 무궁화나무가 사시사철 푸르듯이 우리 한인 동포들 길이길이 보존하세 아니겠어? 건물 구입비는 내가 책임진다는 말 하지 말고 시작은 내가 해서 범 동포적 모금이 완료될 때까지 당대에서 아니면, 차기 아니면 차차기 회장단에서 마무리를 지으면 될 것이고... 이 정도는 돼야 회장감이지 굶어 죽게 생겼는데 무슨 도덕 타령만 하고 있으니 이 얼마나 한심한 XX이냐구. 뭐? 어려운 때일수록 도덕과 윤리를 찾아야 한다고? 이 XX 말하는 것 좀 봐. 표는 따놓은 당상이더라구. 그 XX은 하긴 나보다 더 배운 게 있어야 말이지. 서울 우리 동네 살다가 우리나라 지도 한귀땡이쯤으로 지 아버지가 낙향한 촌X 수순을 밟은 XX이니 뭘 알겠어? 그때도 봐! 사회자가 나보고 참으로 선거에 임하는 자세나 열정이 의미 깊게 와 닿는다고 내 얼굴 화안하게 해줬잖아. 내 운동원 하나가 밤새 워 노심초사 연구해 낸 글귀라고 입에서 침을 튕길 때 내 또한 가만히 있질 않고 입 닦을 손수건 하나 사라는 뜻으로 금일봉 하사했잖아. 그것 보라고, 내가 참모들 잘 쓰고 적시 적소에 심복들 짱박아 두고 하는 것이 내가 훨씬 더 지도자급으로서 자질을 갖추고 있는 것이 아니겠어? 짜식 두고 봐, 어마 어마한 표차로 당락이 결정될 터이니... 그런데 이놈의 여편네는 뭐? 나보고 보나마나한 결과일 테니 일찌감치 포기하고 진정으로 한인 사회를 위해서 뭔가 도움이 돼줄 마음으로 시작한 일이라면 선거에 쏟는 그 정열 지금도 늦지 않았으니 음지에 숨어 있는 한인들을 찾아 구제하는 뜻있는 사회 봉사나 하자고? 그리고 또 뭐라 했어? 나는 자식을 못 낳는 석녀이니 당신, 한국에 아들 하나 있는 것 같다고 했는데 그 아일 찾아 여태껏 하지 못한 아이 뒷바라지하면서 그 아일 위해 선대에서 지성으로 공덕을 쌓아야 당신 후대에 가서 복 받고 그 사회를 떠받치는 신실한 기둥하나 세워지는 것이라고? 이런 미친! 교회에서 염불도 하니? 교회 다니기 시작한 여자가 무슨

부처 같은 말을 하고 있겠어? 애 새끼야 있는지 없는지 정신 나간 XX하고 집 나가 알 수 없는 일이고 기둥을 세우라면서 그건 뭘로 세워? 나무? 씨멘트? 철근? 무슨 털 떨어진 말을 하고 있어? 그게 어디 그런 걸로 세워지는 거야? 사람들이 둔해서 내 머릴 못 따라오는 거지 내가 어디 원칙 아닌 걸 해본 적이 있는 사람이야? 어찌 됐건 악착같이 재력도 쌓고 이름도 날리고 해서 '샌드라'하고 아일 하나 낳아 내 성 물려주고 앤조이하다 남는 돈 있으면 가한테 주고 가면 되지 뭐가 지금 걱정이야? 그리고 말야, 내가 언제 자길 꼬드겼어? 지가 먼저 나한테 야밤에 전화했잖아? 자기는 내가 먼저 전화하겠다고 하지만 말야. 증거 있어? 녹음해 놔? 물증도 없이 누가 그걸 믿어? 누굴 치사한 놈으로 만들고 있어? 보다싶이 난 잘 굴리는 동그란 머리는 있어도 완력은 없는 사람이야! 내가 문을 열게 했는지 그건 기억에 없지만 난 진짜 문이 열리기에 들어간 것만큼은 틀림이 없어! 생각해 봐. 내가 곧 동포 사회의 한 단체장이 될 재목으로서 남편과 사별한 지 얼마 안된 미망인에게 어찌 그런 무모하고 치사한 짓을 동의 없이 저질렀겠어? 안 그래? 난 말이야, 똥개들처럼 냄새 피우며 쓰레기 더미에서 나뉘는 모습으로 그렇게 연명하고 싶지는 않아. 모름지기 사람을 기억케 되는 이름이란 것은 말야, 본인들에게도 죽어서도 미명으로 각 사람들에게 간직되고 마음속에 위인으로 각인되어 야지 절대 기억하고 싶지 않은 이름으로 살ashion 안 된다는 나만의 철학이 있는 사람이야. 난, 그렇게 처신해 왔고. 그러니 내가 이 동포 사회를 이끄는 한 단체의 대표가 되어봐? 기억 정도가 아니라 이 H시 한인 이민 역사에 길이 그 이름을 남기는 최고의 이력이 되지 않겠어? 다른 사람은 몰라도 적어도 나는 여느 사람들과 다르다고 생각해. 당신도 떠올려봐! 전임 회장들 중에 불철주야 수고 안 하신 분들이 어디 있어? 지금의 한 대표 기관이 되도록 그간에 분골쇄신 나름대로 헌신하여 지금의 역사적 첫돌을 놓으신 분들이잖아? 하지만, 뒤돌아 보면 명맥은 유지해 왔지만 단체 간판 이름 걸고 특출나게 무엇 하나 제대로 사업한 게 없잖

아? 의욕만 있으면 뭐해? 일구어갈 재정 능력이 없는 걸. 그러기에 내가 수 완을 발휘해 여러가지 사업을 보란 듯이 수행해 봐. 나는 그 누구보다도 더욱 빛나는 이름으로 이 도시 한인 역사에 기록될 테니까! 근데 가만 있자, 그래, 또 갑자기 기억나는 게 있어. 어저께야, 그저께야? 자꾸 시간 개념이 안 서는데 그 왜 내가 주관한 회장후보 후원의 밤 행사가 있었지? 그때 있었던 일이 이제 마악 떠올랐어. 내가 초대의 말씀 연설을 하고 나서 뒤이어 후원회장의 감사 인사말, 그리고 귀빈 누군가가 나를 입 껴지게 띄워주더라. 그리고 그 다음 순서가 뭐였지? 그래 맞아. 이런저런 인사말이 끝나고 식사 시간이었어. 내가 테이블마다 돌며 '저를 위해 이렇게 귀중한 시간을 내어 참석해 주시어 감사합니다' 인사하고 그 중에 안면 있는 몇몇이 따라주는 술 한잔씩 받아 마시면서 허리를 45도로 꺾으며 다닐 때였어. 그 전 직 신문기자 XX. 맞아, 그 X. 이제서야 그 X 생각이 났어. 내가 그 X이 있는 테이블로 갔지. 그 X이 그때 거기 있었어. 아, 근데, 이런 불경스러운 X이 있나,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악수를 청하니까 바로 그 X이 내 내민 손을 본체만체하고 얼굴을 판데로 돌리고 나몰라라 했었지! 이런, 후레이들X 같으니! 내밀어 기다리고 있는 내 포동포동한 빈 손. 그 순간, 얼굴이 화끈거려지는 게 가슴이 확 막히고 숨이 턱에 차오르는 게 현기증이 일어나 졸도할 것만 같더라구. 그래도 그 X이 신문사는 관두었지만, 내가 전부터 안면이 있는 X인지라 대인배인 내가 숨을 고르고서 "A기자, 오랜만에 뵙습니다. 악수나 한번 하시죠." 이랬지. 어찌면 비굴하게도 보이겠지만 때가 때인 만큼 이 얼마나 공손한 처세야! 그랬더니 그래 맞아, 이제 정확히 기억 나. 그 X이 이렇게 말했어. "당신 같은 사람이 내는 광고료로 신문사가 운영이 되고 내가 그 부스러길 먹는다는 게 하도 매스꺼워 난 신문살 진작에 관둔 사람이니 그 기자 소리는 빼쇼." 그랬지 그 X이. 그래, 이제서야 정확히 기억 났어. 그때 나는 그 X이 판 사람한테 하는 말인 줄 알았어. 감히 어떻게 나한테... ..그때 난, 한동안 어리둥절해 있었지. 그러

길래 내가 내 뒤를 따라 거기까지 온 참모들을 '아, 이 X이 지금 누구한테 하는 말이야?' 하는 표정으로 휘둘러 보지 않았겠어! 아, 그랬더니 이 친구들이 내 뒤 따라 오면서 얼마나 술들을 받아 마셨는지 얼굴들이 별게 가지고 아무말도 못하고서 어떤 X은 휘황찬란한 산데리아가 낙하하나 안 하나 그걸 확인하려 하는지 천장만 보고 섰고 또 어떤 X은 고개를 푹 숙이고서 발로 카펫을 스적스적 비비고만 서 있더라구. 그래 내가 정신차려 생각해 보니 그게 다른 사람이 아니고 바로 나를 지칭해서 한 말이었더라니까 글썩. 그 자리엔 그 XX 말고도 부인네들도 섞여 여나브 명이 빙 둘러앉아 식사들을 하고 있었는데 그들도 밥들을 먹다 말고 전부 약속이나 한 것처럼 밥그릇을 향해 고개들을 숙이고 있었고 말야. 왜? 전부 교회들을 다녀서 식사기도를 하고 있는 거야? 아니, 식사기돈 밥 먹기 전에 하는 걸로 아는데? 근데 왜 손가락에 밥알들이 붙어 있고 너나 없이 볼따귀들이 부풀어 있는 거야? 나는 그런 모습들을 보고 있다가 그 X에게 한마디 해줬지. 얼마나 당황스러웠던지 말이 다 틀니 사이로 새어 나오더라구. "여보! 이제보니 당신 교양이 시정잡배보다도 더 형편없구만. 그렇게 내가 싫는데 당신 여긴 왜 왔어! 직장 관두고 나서 돈 떨어지고 쌀 떨어져 오늘 저녁밥 공짜라니까 밥 먹으러 온 거야?" 하고 순간에 반격을 가했지, 그런말이 얼마나 상대방 자존심 구멍나게 하는 말인 줄 알아! 나는 그렇게 말했으니 이 X이 창피해서 바로 자리에서 일어나 꺼져줄 줄 알았지. 아, 그런데 그 X 그게 아니었어. 아주 당찬 X이었어. 바로 되받아치는 거 있지? "내가 오늘 여기 참석하게 된 것은 당신이 오늘 불출마 선언을 할 것이라는 확신이 섰기 때문이요. 나는 당신에게 여기서 구체적으로 말은 하지 않겠지만 자나깨나 어려운 이웃을 위하여 이름없이 헌신 하는 숭고한 정신의 우리 H시의 동포 여성 한 분, 그 분이 당신의 아내인 줄 알게 되었고 그분을 존경하는 마음에 그런 부인의 지아비라면 좋지 못했던 이 도시에서의 지난 과오를 뉘우치고 오늘 후보사퇴 성명을 내야 한다는 당신을 위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었소."라고

눈하나 깜박이지 않고 말하더라구. 그래 맞아. 그때 내가 그 말을 듣고 어떻게 됐겠어? 그래, 바로 그 자리에서 쓰러졌어. 나는 분명, 그 X이 말을 마칠 때까지 서 있었다고 기억되는데 그만 심장을 쥐고 쓰러지고 말았어. 피가 솟구쳐 내 숨통이 전기에 감전되듯 쥐어짜더니만 나는 그만 바닥에 깔려 있는 양탄자 위로 쓰러지고 말았어. 그리고 잠시 정신을 잃었던 것 같은데 잠시 후 이상하게도 나는 공중에 떠서 연회 장소를 둘러보다 거기서 나는 나를 봤어. 내가 바닥에 누워 눈을 반쯤 뜨고 나자빠져 있었고 내 주위로 당신과 부회장 입후보자 부부 그리고 선거 참모들이 웅성거리고 있었어. 그래, 그랬어! 그럼 여긴 어디야? 지금 여기가 어디야? 내가 지금 움직일 수조차 없이 갇혀 있는 이곳이 어디냐구? 가만있어 봐. 인제 손이 좀 움직이네. 어? 내 목에 걸려 내 가슴팍 위에 올려져 있는 이게 뭐지? 가만, 만져보니 십자가 목걸이 같은데 이게 왜 여기 있지? 마누라 십자가 목걸이? 그나저나 내가 지금 누워 있는 이 작은 공간..여기가 어디야? 병원? 병원이 라면 병실이 환하고 사람들도 보일 텐데, 그리고 왜 이렇게 좁은 침대에 움 째달짝 못하고 내가 누워 있는 거지? 여기는? 그럼, 여기는... 무덤? ...아 이구, 어머니! 어머니! 나 좀 살려주소 - 나 살아있소! - 여보! 여보! - 살아 있어! - 나 좀 살려줘! - 여보, 미안해! 그동안 내가 잘못된 게 너무 많았어! 그래, - 나, 다시는 남 해치며 살지 않을게! - 여보! 정말이야. - 여보! -여보! - 여보야! - 나 좀 살려줘! - 나 살아있어! -

나는 나오지 않는 목소리에 절망하며 그래도 온 힘을 다해 누군가가 나를 발견하여 어서 이곳에서 빠져나가게 되기를 정말이지 사력을 다 하여 고향을 내지르며 발버둥쳤다.

그 시각.

“미세스 주!”

“네?”

“차 좀 돌려서 서둘러 병원으로 다시 가주실래요. 제가 지금 잠깐 졸다 이상한 꿈을 꾸어서요.”

아내는 수시간 전 OO회장 선거 후보자 후원의 밤 행사장에서 남편이 삼장마비로 쓰러지자 급히 구급차를 불러 병원 응급실로 달려갔으나 결국엔 사망 선고를 받게 되어 남편 시신이 영안실로 실려 가는 걸 보고 난 뒤, 이른 새벽까지 같이 밤을 새운 같은 동네에 사는 부회장 출마자 부인의 차를 타고 귀가하며 잠깐 졸던 중, 꿈속에서 사망한 남편 목에 걸어 가슴위에 올려 놓아준 자신의 목걸이 십자가가 피를 흘리고 있는 꿈을 꾸게 되자 이상한 생각이 들어 다시 병원으로 서둘러 돌아가고 있었다.

생각해 보면, 첫 남편을 비명횡사로 떠나보내고 나서 누군가의 도움이 절박한 사업체 해결 문제가 있기도 했지만 그게 빌미가 되어 어쩌다 육신의 포로가 되어 현재의 남편과 부부의 연을 맺게 되었고, 그럴 줄 몰랐던 새 남편이란 인물이 도저히 용납될 수 없는 자신의 이득만을 탐하는 탈을 쓴 처세술로 살아가는 사람임을 알게 되어 그 날의 후회가 응어리진 무거운 죄의식으로 남아 그때쯤에서야 교회로 찾아들게 되었던 내 아내.

그 후 아내와 나는, 고국을 방문하여 여기저기 수소문 끝에 내 아이를 찾아 상봉하여 지금은 함께 살고 있고, 십자가에 못이 박이지 않아도 될 주께서 씻어도 벗겨지지 않을 그 많은 나의 죄, 그 죄 사함을 위해 스스로 재물이 되신, 믿지 않는 자 감히 상상도 못할, (...사실 그게 어디 믿기 쉬운 일이던가? 예수님을 3년이나 따라다니며 도저히 사람으로선 할 수 없는, 예수님이 행하신 그 많은 불가사의한 일들을 보았으면서도 그 무지막직한 십자가 처형으로 돌아가시자 발걸음 돌려 예전의 직업을 찾아 복음을 등지고 돌아섰던 제자들도 있었던 것을... 그런 뒤 주님의 부활을 보고 나서야 인류 구원의 역사를 써내려 가기 시작한 저 은혜의 사도들...) 그 깊은 구원자

의 나를 향한 사랑을, 간절히도, '주님은 우리들의 그리스도-이시라며 그 사랑을 전도해 준 아내의 기도를 가슴속 깊이 받아들여 세상만을 사랑했던 지난 날을 나는 뼈저리게 회개하고, 영육 간에 병든 내 이웃을 위해 정성과 최선을 다해 성심껏 돌보아주며 성경은 어느 한 나라 민족의 역사서로 보이지만 사실은 전 인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예언서가 아닐까? 깨닫고 내가 진 빛 값아 나가야 할 기회와 시간 다시 주심에 보답하고자 나는, 아내와 함께 이젠 우리의 생각까지도 다 주께 드리는 기도가 되어 주십사 소원하면서, 선한 삶을 살아야 할 그리스도인으로서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 주님께 쓰임 받는 자 되길 소망하고 매 시간 시간, 내 안의 탐욕을 버리고 언행일치 속 남은 시간 감사함 속에 살아가게 되었다.

'피해자는 아물지 않는 상처 그대로 안고 살다 갔고 살아가고 있는데, 가해자가 변해 있는 들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하는 가슴 쥐어짜는 회한이 있으나, '돌아갈 수 없는 길이라 한들, 그런들... 누구에게라도 그 값은 치러야 하는 것 아니겠는가? 그게 바로 내 몫인 내가 값아야 할 내 지난 인생이 진 빛인 것을.'

끝을 마주하고 나서야 겨우 내 삶의 방향을 알게 된 다시 주신 은혜의 이 뜻깊은 시간이 지나기 전에, 더 늦기 전에-



이여근 소설가, 시인. 아리조나 거주. 계간 『시대문학』 소설 신인상, 제1회 해외동포 문학상, 월간 『창조문예』 시 신인상, 제3회 모자이크 기독교문학상 수상. 시가고 한인 문인회장 역임, 국제펜클럽 한국본부 회원.

불타는 산

테리사 리

남편은 부엌의 원목 스툴에, 나는 타일 바닥에 앉아서 모닝커피를 마시는 중이었다. 그가 테이크아웃 해 온 에그 머핀은 느물거려 비위에 맞지 않고, 롱블랙 커피는 짜늘하게 식어 있었다. 남편이 싱크대 모서리를 잡고 일어나자, 균형을 잃은 스툴이 삐걱거리는 소리를 냈다. 그의 팔이 벤치탑 위에 올려놓은 서류봉투에 뻗어가다 냄비 뚜껑을 밀치고 말았다. 가스스토브 위의 빨간 범랑냄비 안에는 어제 종일 끓인 굴라쉬가 가득 들어 있었다. 알싸하고 시큼한 냄새가 코를 파고들었다. 그가 오스트레일리아 여권과 이혼 서류가 담긴 봉투를 집어 들며 말했다.

“보라 엄마, 갑시다, 사람들 몰려들기 전에.”

전날 게러지 세일까지 마쳤지만 집의 소유권은 며칠 더 유효했다. 하지만 세간이 사라진 실내는 헹헹그렁하고 을씨년스러웠다. 남편과 나는 각자 필요한 물건을 박스에 담아 임대 창고에다 미리 옮겨 놓았다. 대부분이 내 박스였고 내일이면 귀국하게 될 그의 것은 두 박스가 고작이었다. 남편이 곧장 현관문으로 걸어 나가자 나는 재킷을 걸치고 비닐 가방을 집어 들었다. 비닐가방 안의 우산을 확인하며 이렇게 혼잣말을 중얼거렸다.

“비가 올 것 같은데!”

한국 영사관 출입문에는 방문자를 위한 안내문이 붙어 있었다. 남편과 내가 목을 빼고 읽는 그 몇 분 동안 서로 아무 얘기도 오가지 않았다. 그가 서너 발 뒤로 물러나더니 평소 하던 대로 두 손바닥을 펴 보여 내게 물었다. 부부간의 암묵적 몸짓 언어, 우리는 아직 부부였다. 우리는 젊은 커플이 서로의 머리를 맞대고 휴대폰 영상을 들여다보고 있는 뒤로 가서 줄을 섰다.

오전 8시 30분이었다.

서류 접수를 하고 밖으로 나오자 제법 굵은 빗방울이 떨어졌다. 나는 비닐가방에서 3단 접이식 우산을 꺼내는 대신 눈앞의 역사로 뛰어들었다. 절뚝거리며 계단을 올라가다 고개를 돌렸을 때 남편이 따라오는 것이 보였다. 곧 2층 플랫폼에 시티 순환기차가 들어왔다. 내가 먼저 그가 뒤따라 승차했다.

세 정거장을 가다 하차하는 남편을 따라 내렸다. 그가 역과 연계된 3번 페리 선착장의 입구에 멈추어 서서 턱을 까딱까딱 두 번 추겨들었다. 나는 눈을 깜빡거리려 응답했다.

남편과 나는 한집에서 서로 말을 하지 않고 그림자처럼 살았다. 우리는 서로를 의식하지 않는다는 사실조차 알아차리지 못했다. 꼭 필요해서 주고 받는 말조차 일주일에 한두 번이 될까 말까였다. 그렇다고 딱히 불편함을 느끼지도 않았다.

매일 창가에 앉아 바깥을 응시하는 남편의 뒷모습 너머에는 말라죽은 꽃 나무들이 보였다. 남편은 마치 그것들을 살려내기라도 하려는 듯, 마른 줄기가 모두 보라의 다리인 듯 뚫어지도록 쏘아보았다. 오른쪽으로 기울어진 그의 어깨에서 보라의 고향이 터져 나올 것 같았다.

고개를 들자 남편이 페리 승선권을 내밀고 있었다. 동물원행 왕복 승선권이었다. 우리는 각각 다른 개찰구를 통과해 대기실 안으로 들어갔다. 내가 대기실 안을 살피는 사이 그는 어디론가 사라져버렸다. 나는 남편과 나눌 수 있는 대화가 더 이상 없다는 것이 애석하지 않았다. 서로의 얼굴을 마주 보는 일이 괴로운 것은 그도 마찬가지리라.

갈매기들이 힘차게 활공하다 쏜살같이 수면으로 내리 꽂힌다. 갈매기 한 마리가 내 발 앞에서 잘뚝대며 부스러기를 쪼고 있다. 발 하나가 잘리고 없다. 한 무리의 갈매기들이 페리 지붕의 강판을 그악스럽게 쪼아대는 것을 응시하는 내 시선을 뭔가가 강하게 잡아끌었다. 턱을 괴고 구석자리에 앉

아 있는 남편의 손이었다.

어제는 저 왼손으로 굴라쉬를 저었다. 상어를 처치하러 갔다 왼손잡이가 되어 돌아온 남편이 저었던 냄비에는, 냉장고를 끄기 전 쏟아져 나온 부식들이 한데 끓고 있었다. 토마토, 고추, 애호박, 쇠고기, 햄, 치즈, 김치..., 재료가 뒤섞여 끓으면서 풍기는 냄새가 활짝 열어놓은 현관 밖으로 알싸하면서 시큼하게 퍼져나갔다. 바람 한 점 불지 않는 후덥지근한 날씨 탓에 남편도 나도 맵고 뜨거운 굴라쉬에 손이 가지 않았다.

밖에는 게러지 세일을 앞두고 남편과 내가 각자 고개를 가웃거리며 가격을 매긴 물건들이 진열되어 있었다. 책상, 옷장, 소파, 페인트, 붓, 줄자, 타월, 수저, 화분... 주간잡지는 열권씩 묶음으로, 디너 접시는 세트로 가격을 정했다.

모두 처리했다고 자신했던 보라의 흔적들이 6년의 침묵을 깨부수며 구석 구석에서 튀어나왔다. 서핑보드, 아쿠아슈즈, 쪼리, 수영복, 의족..., '김치'하고 고른 치아를 내보이며 활짝 웃는 아이 사진을 벽에 걸린 내 반팔 재킷 주머니에 넣었다. 보라가 마지막까지 메고 다녔던 백팩에서 떨어진 사진이었다. 보라의 물건은 팔지 않기로 했다. 그동안 차분하게 짐을 정리할 시간, 정신적인 여유가 없었다. 내 머릿속도 마찬가지였다.

게러지 세일은 오전 9시부터 시작되었다. 롤러셔트 안팎의 세일 물품에는 \$1, \$2, \$5, \$10... 가격표가 위패(位牌)처럼 붙어 있었다. 인근의 전봇대와 신호등마다 붙여놓았던 A4 종이를 읽은 사람들이 시간 전에 모여들었다. 손님들은 영리한 눈초리로 잡동사니에서 용케 물건을 골라잡았다. 남편은 물건이 팔릴 때마다 양면 프린트한 다섯 장의 목록을 앞뒤로 뒤집어가며 왼손으로 줄을 그었다. 삐뚤삐뚤한 선이 보라가 처음 연필을 잡았던 때의 기억을 불러냈다.

부모를 따라온 별난 아이들이 두꺼운 방수포로 덮여 한쪽 구석에 숨겨놓은 보라의 물건들을 꺼내왔다. 한 아이가 상어가 물어뜯은 보라의 서핑

보드를 들고 왔다. 다른 아이는 보라의 의족을 들고 있었다. 남편이 무서운 표정을 지어보이며 아이들의 손에서 보드와 의족을 빼었다. 그가 달려가 다시 방수포를 덮고 그 위에 굵은 돌덩이를 올려놓고 돌아왔다.

정오 무렵이 되자 발길이 뜸해지더니, 오후 2시가 지나면서 물건은 더 이상 팔리지 않았다.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 남은 물건들은 옆집 이탈리아 남자가 트럭으로 두 번 자선단체 솜으로 배달했다. 남편이 삼성 프린트기와 다이소 접이식 의자 한 쌍을 남자에게 선물했다. 집 청소는 부동산 용역업체가, 명의 이전은 김 변호사와 ANZ 은행이 해결할 일이었다.

아이에게 서핑을 밀어붙인 건 나였다. 사고가 나던 날 아침, 방학 첫날부터 17살 먹은 아이가 게임에 빠져 있는 것을 나는 견디지 못했다. 시간을 쪼개어 공부해도 모자랄 대입 준비 시기였다.

“엄마! 날씨가 흐리잖아. 상어가 나타나면 어떻게 하라고.”

나는 보라의 손에서 게임기를 빼어 내던지며 서핑 장비를 안겨 억지로 바닷가에 태워다 주었다. ‘본다이비치’였다. 서너 시간 뒤, 점심을 먹이려고 게리지에서 차를 빼는데 전화벨이 자지러졌다. 저편의 목소리는 라이프 가이드였다. 전화는 짧았다. 그때 내가 무슨 대답을 했는지 도무지 지금은 기억할 수 없다. 보라가 실려 갔다는 병원을 향해 달렸다. 그 몇 십분, 세상은 천만 번 내 앞에서 뒤집혔다, 잿빛 하늘이 땅으로 곤두박질쳤다, 검은 구름 사이에서 음흉한 웃음소리가 쏟아졌다, “현실이 아냐. 이진 꿈일 뿐이야.” 빨간 신호등이 눈에 들어올 리 없었다.

페리가 몽롱하게 머리를 흔들면 다가오고 있다. 지난밤 꿈에서 목이 졸렸다. 목을 조르다 손톱이 파고들어 생긴 흉터를 만져본다. 어디 꿈뿐이겠는가. 현실에서도 죄의식에 목이 졸린다. 보라의 다리 한 쪽이 잘려나간 장면을 꿈속에서 본 날은 어김없이 목주 위에 피가 엉켜 있었다.

페리가 선착장에 들어서자 물이 아래서 위로 소용돌이친다. 삐걱거리는 선체 소리가 형체 없는 유령의 울부짖음 같다. 직원이 나일론 로프를 거칠

게 던져 말뚝에 고정시킨 뒤 갱웨이를 걸쳤다. 그러자 미처 하선하지도 않은 승객들을 밀치며 다투어 승선하려고 사람들이 달려들고 있었다. 나는 흔들리는 물살에 뜰기지 않으려고 발버둥치는, 말뚝에 하얗게 달라붙어 있는 따개비들을 응시하며 차례를 기다린다.

페리가 방향을 틀어서 몸체를 흔들며 출발하자 바다가 시커먼 속을 드러낸다. 비틀거리며 선내좌석으로 들어가 앉아 왼쪽으로 보이는 오페라 하우스를 응시한다. 페리가 오른쪽으로 보이는 거대한 철골 하버브리지 아래를 관통하자 검은 수면의 폭이 갑자기 넓어졌다. 음침한 수면 위로 보라가 사고를 당하던 날처럼 상어가 포획물을 노리며 솟구칠 것 같다.

자리에서 일어나 기우뚱거리며 갑판으로 나갔다. 신혼여행을 온 것처럼 보이는 커플이 비를 맞으며 부둥켜안고 있는 너머 멀리 지난 31년의 내 삶이 녹아든 시드니의 풍경이 흐릿하다. 빨간 지붕들, 빌딩들, 공원과 나무들, 타워와 요트들, 철골 다리 위를 미끄러져 가는 오렌지색 기차... 미항 시드니에 음모적이고 둔중하게 울리는 소음들. 우리가 길 잃은 나그네처럼 살았던 도시가 몹시 낯설다. 뒤늦게 결혼을 하고 갖은 시도 끝에 시험관으로 얻은 보라, 가족이란 공동체가 형성되자 나는 사력을 다해 현실에 투신했다. 그 당시 나는 평범하달 수 없는, 그렇다고 평범하지 않다고도 할 수 없는 성실한 40대였다.

나는 태어나기를 성실한 사람으로 태어났다. 성실하지 못한 것을 용납하지 않는 내 삶의 어디부터 잘못된 것인지. 누가 내게 대고 성실하지 않아서 삶이 막대기처럼 부러졌다고 말하면 나는 화를 내고 말겠지. 유학 5년 만에 석탄가스정제기술사 전문자격을 얻었을 때 페인트 일을 해 내 유학 뒷바라지를 해 주었던 남편이 심보 사나운 두꺼비처럼 볼을 부풀렸다. 내게 대고 숨을 훑 뱉는 그의 가슴을 때리는데 그가 눈가를 흠치기 시작했다.

허공을 가르던 잔바람이 내 재킷을 헤집는다. 옷깃을 끌어당기는데 호주머니에서 아이의 사진이 떨어졌다. ‘김치’하고 웃고 있는 보라 뒤에 불타는

산 안내판이 보인다. 보라가 현장학습으로 올랐던 산을 설명하던 들뜬 목소리가 살아났다.

“엄마! 육천 년 전 어보리진이 불을 피워서 손에 들고 산비탈에 서 있다 갑자기 나타난 악마에게 빼앗겼는데, 악마는 그 불을 들고 지하 깊은 곳으로 달아나버렸다고 해. 불은 자신을 알리려고 뜨거운 열기를 뿜어내며 아직도 지하에서 타오르고 있대.”

나는 보라에게 아무 대답도 하지 않고 혼자 생각했다. 전설이란, 과정을 과감하게 생략하고 단숨에 만들어진 이야기가 아닌가. 시작과 끝, 원인과 결과만을 한두 줄로 요약한, 인과관계를 따라 불가피하게 우리의 삶에 침투한 기쁘고 슬픈 요소들, 사소한 걱정과 하찮은 희망들, 무심코 지나친 사건들에 대한 아무런 설명 없이. 오늘 나는 육천 살 먹은 산을 찾아가 면전에 대고 따져볼 생각이다.

*

보라의 왼쪽 다리에 환지통 장애가 찾아왔다. 환지통이 닳치는 순간이면 보라는 양손으로 덜렁덜렁한 환자복 다리를 움켜쥐려고 했다.

“다리가 내 몸에 붙어 있어 엄마.”

“보라야, 진정해, 제발. 그러다간 목숨까지 위험해.”

내 말에 보라는 불신과 경멸, 조소가 뒤엉킨 얼굴로 노려보았다.

“왜 엄마 안 믿어. 내 몸에 다리가 있으니까 아프잖아. 다리가 없는데 어떻게 아파.”

보라가 다리의 상실을 인정하려 하지 않는 진실, 그것이 가장 끔찍한 진실이었다. 물리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다리가 여전히 있다고 느끼며 거기서 아픔을 느끼는 것이었다. 보라는 병원 침대에서 바닥으로 떨어져 분노와 공포, 당혹감과 혼란이 한데 섞인 얼굴로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고, 막무

가내로 자신의 없어진 다리가 있다고 떼를 썼다. 의사가 달려와 리코카인으로 가시인대에 국소마취를 한 뒤 상어가 떼어먹은 다리 화면을 보여주면 잠시 발작이 잦아들었다가 이내 이전으로 돌아왔다.

매일 소리를 질러대는 보라를 독방으로 옮기던 날, 보라의 발작을 지켜보던 남편이 병실을 뛰쳐나갔다. ‘내 손으로 해치우겠다. 목을 끊어놓기 전엔 돌아오지 않겠다.’ 그런 의미가 담긴 말을 남기고 떠났다. 그에게 돌아오라는 수십 통의 문자를 보냈지만 응답이 없었다. 그는 일이 터질 때마다 문제에서 도망치는 비겁자를 자처했다. 나는 매사를 투쟁하려하기보다는 깊은 동굴 속으로 숨어버리는 그의 꿈을 매일 꾸었다. 그가 상어의 목구멍으로 빨려들어 가는 장면에서 화들짝 놀라 깨어나면 환지통과 싸우는 보라가 눈앞에 있었다.

그날 아침은 극심한 복통으로 화장실을 들락거렸다. 다른 때보다 길게 변기에 앉아 보낸 뒤 복도를 걸어 나오는데 고함소리가 들렸다. 보라의 병실 문틈으로 터져 나오는 소리였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병실 바닥에는 거치대가 넘어지고 링거 수액이 터져서 수라장이 따로 없었다. 어쩔 줄 몰라 하던 간호사가 의사를 부르러 간 사이 병실엔 나 혼자였다.

“이대로 너랑 나랑 죽자!”

나는 보라의 머리카락을 움켜잡았다. 순식간에 머리카락 한 뭉텅이가 내 두 손에 남았을 뿐 보라는 바닥에 뒹굴었다. 나는 보라를 부둥켜안고 애원했다.

“보라야, 내가 얼마나 너를 사랑하는지 알잖니? 너를 이전으로 되돌릴 수만 있다면 나는 지금 당장 내 목숨을 내 놓을 수 있다. 제발 나를 용서해 다오.”

“사랑 따윈 필요 없어. 엄마나 실컷 가져.”

목숨으로밖에 증명할 길 없는 사랑이란 게 있었다. 보라에게 말로 하는 사랑은 무용했다. 나는 죽음으로 사랑을 증명하리가 마음을 굳혔다. 보라

가 이전으로 돌아갈 수만 있다면 수십 번, 수백 번, 죽는 건 문제가 아니었다.

보라가 독한 약물에 취해 남은 다리를 파르르 떨어가며 깊이 잠들이 있는 걸 보다 병실 밖으로 나갔던 날이었다. 창가에 섰을 때 멀리 주차장에 목발을 짚고 걷는 아이를 엄마가 부축하는 것이 통유리 너머로 보였다. 내가 사라지면 누가 보라를 돌볼 것인가. 그때 저만치서 남편이 오고 있었다.

“아니... 당신이... 당신...”

보라와 어깨를 나란히 걸어오는 남편, 눈을 비볐다. 긴 세월 페인트 작업을 해서 물음표처럼 꺾어진 거북목, 내리막길처럼 기울어진 어깨가 분명 남편이었다. 하지만 함께 걷고 있는 보라는. 급히 병실로 되돌아갔다. 보라는 악몽을 꾸는지 몸을 움츠리고 신음을 토하고 있었다.

가을과 겨울이 지나도록 보라는 환지통을 털어내지 못했다. 시간은 혹렬하고 희망은 가난하기만 했다. 마치 상어가 다리를 물고 놓아주지 않는 것처럼 보라는 사라진 다리의 환지통에서 놓여나지 못했다.

“엄마, 내 사라진 다리가 항상 쪽 뻘은 채 들러붙어 있는 것처럼 느껴지고 그리고 아파. 나도 알아. 결코 있을 수 없다는 사실을.”

계절이 흐르고 달 모양이 여러 번 바뀐 뒤 거짓말처럼 남편이 돌아왔다. 손목에 붕대를 감은 남편의 표정은 깃털처럼 편안해 보였다. 내게 위로하며 다가와 웃는 남편이 처음 만난 사람처럼 낯설었다. 그가 바다에 대해 입을 열지 않았지만 보라가 다리를 잃은 뒤 처음 보는 그의 미소는 상어를 처치한 것처럼 보였다. 붕대 속에는 바다 한가운데서 회갈을 휘두르다 신경이 마비되어버린 오른손이 있었다. 남편은 뒤늦게 보라를 살리려고 왼팔을 걸어붙였다. 바통을 넘겨준 나는 식음을 전폐하고 열흘을 내리 깊은 잠 속에서 악몽을 꾸었다.

남편이 수소문 끝에 저명한 신경의학 전문의를 찾아냈다. 대머리 의사는 곧바로 보라의 흥분성장애, 충동과잉, 상상력과잉 등의 치료를 시작했다.

용자를 받아서 병원비를 지불하려고 했지만 일자리를 잃은 우리부부에게 은행은 용자승인을 해주지 않았다. 보라의 돌 반지를 비롯해 집안의 금붙이를 긁어모아서 환전했다. 연금 일부를 소급 받고, 어렵사리 한국인 브로커의 도움으로 소액용자를 얻었지만 병원비는 턱없이 모자랐다. 집을 매각하는 일이 정해진 수순처럼 진행되었다. 변두리의 작은 집으로 이사했다.

남편과 나는 매일처럼 다투었다. 시도 때도 가리지 않고 서로의 심장이 멎어버릴 강도로 벌칙 화를 냈다. 그날은 복도에서 치료비 문제로 옥신각신하다 남편이 먼저 내가 뒤따라 병실로 돌아왔다. 자정이 가까워 오고 있었다. 아이는 예민한 안테나를 켜놓고 자는 것 같았다. 보라가 듣다 잠든 MP3로 다가가는 남편의 손을 제지하는데 사이드 테이블 위의 냅킨 한 장이 아래로 떨어졌다. 식사 때마다 나오는 미니 토마토케첩 소스를 모아서 그린 그림이 희미한 스탠드 빛에 드러났다. 언젠가 보라가 설명해 준 불타는 산처럼 큰 상어였다. 톱날처럼 촘촘히 박힌 이빨, 삼각형 코 위의 작은 눈, 목구멍으로 회오리치며 빨려 들어가고 있는 사람의 다리, 미완성 그림이 불타고 있는 것 같았다. 보라가 병상에서 두 팔을 휘저으며 괴성을 질렀다. 상어와 사생결투를 벌이는 걸까, 극도의 고통과 공포와 충격을 받으면 사람이 저리도 사나운 꿈을 꾸게 될까. 보라의 오른쪽 다리가 고통하게 떨어졌다. 지켜보던 남편이 돌아서서 벽을 짚고 어깨를 들썩거렸다.

병상을 집으로 옮긴 보라는 다리 사진을 SNS에 올렸다. 한 미디어의 인터뷰에 응하면서 보라의 태도가 달라지기 시작했고, 부성애에 힘입어 서서히 환지통에서 깨어났다. 물리 치료와 심리상담에도 열성을 다했다. 드디어 내가 바다로 떠날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다. 내 동공에 어룡지는 피안의 세계, 까끌까끌 피부에 달라붙는 소금기, 폐부까지 밀려드는 해초 냄새, 파도 소리가 귓전을 때렸다. 혀에 닿는 음식에서 짠맛만이 느껴졌다.

한 계절이 더디게 흐르고 보라는 의족을 할 수 있을 만큼 건강을 회복했다. 보장구 회사에 의족을 맞추러 가는 날 나는 내가 떠날 때가 되었음을

알아했다. 돌아오는 차 안에서 바다가 부르는 소리에 고개를 푹 숙이고 들릴 듯 말 듯 응답했다. “예, 떠날 때가 되었습니다.” 보라의 왼쪽 다리를 물어뜯은 상어에게 내 오른쪽 다리를 내 주는 영상이 머릿속에 그려졌다.

의족의 복잡하고 까다로운 공정은 인내심의 한계를 시험하는 것 같았다. 제작진과 씨름하며 꼬박 한 달을 이겨낸 뒤 의족이 완성이 되었다. 내 마음은 모친을 거슬러 오르는 심해어처럼 산란했다. 나는 보이지 않는 존재와 약조했다. ‘보라가 첫 걸음을 떼는 것만 보고 떠나겠습니다.’

보라는 외다리로 쭈뼛쭈뼛 뛰며 의족을 질질 끌다 포기해버리기를 반복했다. 보라가 의족으로 걷기 위해서는 보라를 괴롭혔던 괴물 환지통을 다시 불러와야만 했다. 그러나 보라는 떠나가 버린 환상사지를 불러들이지 못했다. 의족과 환지, 그 두 가지가 정확하게 일체감을 느끼지 못하면 걸을 수가 없었다. 보이지 않는 누군가 휘방을 놓는 것 같았다. 이전에 그토록 보라를 괴롭혔던 환지유령이 보라의 머릿속에서 자취를 감추어버렸다.

어렵사리 또 다른 신경의학 전문가를 찾아냈다. 인도출신 의사는 한번 떠나간 보라의 감각유령을 다시 불러오지 못했다. 그토록 집요하던 환상사지가 이제는 보라를 철저히 외면했다. 해병대에 복무했던 남편은 희망과 인내심을 잃지 않으려고 구호를 만들어 아이와 함께 외쳤다.

“웁지, 보라야! 그래, 잘 한다. 할 수 있어, 내일이면 반드시 돌아와.”

남편과 아이는 서로의 눈을 맞추다가도 갑자기 괴물처럼 서로 으르렁댔다. 그러다 일본도 못 되어 서로 부둥켜안고 영영 소리 내어 울었다. 하루에도 수십 번 같은 일이 반복됐다. 남편이 아이를 구타하는 것을 본 것도 그때가 처음이었다. 하지만 끝내 남편과 보라의 노력은 실패했다.

새로운 의사를 물색하는 동안 릴리필리는 보라가 연극 때 머리에 달았던 방울 같은 분홍 꽃을 피웠다. 꽃이 진 자리에 달린 앵두 같은 보라색열매를 깨물자 사과와 자두 맛이 뒤섞인 기적의 맛이 혀끝에 느껴졌다.

늦은 봄, 보라는 동양침술학회 권위자인 대만인 의사와 마주 앉았다. 의

사는 보라의 다리 신경 얼기에 감응전류자극 침술요법을 시도했다. 돌연 환상사지가 부활했다. 환상사지를 살려내려고 갓난아기의 엉덩이를 때리듯이, 찰싹찰싹 여남은 차례 세차게 때린 뒤, 그때를 놓치지 않고 날쌔게 의족을 끼워 넣고, 곧장 첫 걸음을 떼다. 환상사지가 되살아나는 순간은 번개처럼 짧았다. 의족을 끼울 때마다 절단되고 남은 대퇴부를 몸 끝까지 끌어당기느라 사색인 된 보라를 지켜보는 내 마음의 진자가 심하게 요동쳤다.

아이의 얼굴에 내일, 모레... 미래가 어둡게 그려지고 끝을 모를 상상이 겹쳐졌다. 장애자로 살아갈 삶, 엄마 없는 보라... 떠날 수 없었다. 마음을 돌려세운 나는 아이와 운명을 함께 하기로 했다. 나는 죽을 수 없었다. 죽지 않기로 했다.

어느 날 보라가 다시 종합병원에 입원했다. 의족으로 인한 가벼운 합병증 때문이었다. 나는 할 일 없이 병원 복도를 배회했다. 잠시도 가만히 있지 못하고 무엇에도 집중할 수 없었다. 다른 환자의 병실을 기웃거리다 손에 들고 있던 것을 자주 흘리고 다녔다. 보라에게 받은 어머니날 선물 동전지갑을 찾으려고 병실 밖으로 나갔다. 기억을 되짚으며 구석구석을 찾아다니다 비상구 앞의 휴지통을 뒤졌다. 그곳에도 없었다. 몸을 돌리는데 평소 내 시선을 잡아당기던 비상문에 달려있어야 할 체인과 맹꽂이 열쇠가 보이지 않았다. 어떤 환자가 뛰어내리는 사고가 난 뒤 이중 삼중으로 단단하게 잠겨있었던 문이었다. 어깨를 살짝 들이대자 문이 쉽게 열렸다. 체인과 맹꽂이 열쇠는 첫째 계단에 떨어져 있고, 계단 아래서 망치 소리가 올라왔다. 순간적으로 무언가가 내 마음을 잡아끌었다. 건잡을 수 없는 전인력이었다. 내 무의식적 충동이 전광석화처럼 치솟았다.

“거기 누구세요? 당장 나가세요. 어서요...”

계단을 뛰어 올라오는 투박한 발소리와 다급한 목소리가 들렸다. 빠르게 창틀에 숨었다. 날카로운 쇠창살을 잡고 한 발을 올리자 다음은 쉬웠다. 눈

부터 감았다. 몸을 날렸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두 손바닥으로 날카로운 돌부리를 쥐고 무릎을 세우며 일어나려 해도 일어날 수 없었다. 몸을 만지자 부러진 쇠창살이 손에 닿았다. 창살이 다리를 옥죄어 움직이면 비명이 터져 나왔다. 비명을 지르자 숨이 막혀왔다. 그러한 한편에서 살아있다는 내밀한 기쁨이 밀려왔다.

쇠창살에 깔리지 않은 남은 다리를 가능한 길게 폈다. 짧은 순간 보라의 고통이 떠올랐지만 곧 내 생명을 향한 갈망이 너무나 강렬했다. 그러다 서서히 의식을 잃어갔다.

중환자실에서 깨어났을 때 내가 그동안 싸운 것이 보라의 고통이 아니라 오롯이 내 고통이었고 내 목숨이었다는 사실이 모멸스러웠다. 남편은 보이지 않았다. 무릎 뼈가 뭉개져 평생 절름발이로 살아야 한다는 진단이 내려지던 날, 나는 남편이 바다에서 몸으로 싸운 대상이 상어가 아닌 그 자신이었음을 알 것 같았다. 나는 살아있다는 기쁨을 가슴 깊이 숨기며 죽지 않으리라 다짐했다. 나는 살아있음에 안도하며 수시로 내 피부를 꼬집어보았다. 남편이 내 몸 곳곳에 보이는 멍 자국을 보고 기함을 했지만 피부 감각이 사라진 나는 아픔조차 느끼지 못했다.

남편은 내 눈빛이 이상하다고 했다. 내 의식이 변했다. 다른 사람이 되어 버린 것 같았다. 보이지 않는 힘이 내 안에 숨어 있었다. 마치 죽었다 다시 태어난 것 같은, 이전에 한 번도 경험한 적이 없는, 경우에 따라 사람의 마음을 읽을 수 있었다. 남편에게 말하지 않았다. 믿을 것 같지 않아서였다. 일반 사람들이 듣지 못하는 마음의 소리를 듣기 시작하면서 그들이 하는 말의 의미를 다르게 해석하기 시작했다.

내가 목숨을 내어주지 못했으니 보라에게 내 사랑이 전해졌을 리 없었지만. 보라는 달라지기 시작했다. 죽음이 내게 손짓했을 때, 내 고통이 극에 달했을 때, 내 마음은 보라의 고통 근처에도 가지 못했다. 그리고 보라가

엄마의 진실을 잘못 알고 있는 것은 내게 그다지 문제 되지 않았다. 중요한 것은 오롯이 보라의 마음이었다. 또한 내가 진실을 입 밖으로 내는 순간 그 어떤 진실도 더 이상 진실이 아닐 터였다.

그러함에도 보라는 눈에 띄게 변해갔다. 적극적으로 심리상담을 받으며 자신에 집중했다. 삶에 의욕을 보이고 미래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다. 걷기 위해, 다시 세상으로 걸어 나가기 위해 매일 전력을 다했다.

매서운 바람이 진눈깨비를 흩뿌리던 겨울, 보라에게 의족으로 인한 두 번째 합병증이 찾아왔다. 파란 눈 의사는 보라의 희귀병명을 말해주지 못했다. 의사가 설명하는 어려운 병리학을 듣다말고 나는 두 손으로 귀를 막았다.

보라는 그냥 웃었다. 지독한 고통을 극복한 뒤 궁극적 정신으로부터 스스로 해방된 가련한 영혼은 윗몸조차 일으킬 수 없게 되자 그냥 누워서 간신히 미소를 지었다. 의사와 간호사가 약물조절을 시도했지만 보라의 몸은 더 이상 어떤 약물 주사도 빨아들이지 않았다. 의사가 보라의 두 손을 잡으며 용기를 가지라고 말할 때도 희미하게 웃었다.

“아빠!”

들릴 듯 말 듯 아빠를 불러놓고 말하지 못했다. 그러나 나는 보라의 마음을 듣고 있었다. ‘제가 죽는 것은 괜찮습니다. 엄마 아빠 마음 아파하지 않고 살았으면 좋겠어요.’ 보라는 삼십 분을 더 버티다 아빠에게 안긴 채 꺼지기 시작했다.

“보라야! 보라야!”

남편이 아이를 흔들자 아이의 몸은 마냥 출렁거릴 뿐이었다. ‘엄마 아빠가 보여준 사랑 잊지 않을 게요. 저는 기쁘게 죽어요.’ 보라의 마음이 내 안으로 파고들었다. 보라가 웃는지 우는지 숨이 가쁘지 얼굴을 일그러뜨렸다. ‘고마워요. 이제 저는 엄마 아빠의 가슴에서 영원한 불씨로 타오를 겁니다. 언젠가 제가 올랐던 육천 년을 불타는 산처럼 꺼지지 않고요.’ 나는

계속 보라의 말을 듣고 있었다. 보라의 숨소리가 점점 흐릿하고 약해지다가 끝이었다. 보라는 갔지만 보라의 말은 내 가슴에 남았다. 그것들이 진짜 들은 것이었는지 그저 내가 상상한 것이었는지 그런 것은 내게 하나도 중요하지 않았다. 나는 끝내 남편에게 보라의 말을 전하지 않았다.

*

페리가 동물원 선착장에 당도하자 사람들이 우르르 앞 다투어 썬웨이를 건너간다. 동물원으로 올라가는 가파른 계단이 내 앞을 막아섰다. 나는 고개를 숙이고 돌계단을 올라가는 남편의 뒤를 따라 절뚝거리며 계단을 오른다.

우리는 느릿느릿 동물원을 한 바퀴 돌아 철책에 갇힌 기린 앞에 닿았다. 기린이 고통을 호소하는 것처럼 아프게 울고 있었다. 내가 의심의 눈초리로 기린을 쳐다보고 있을 때 한국인 가족이 아이의 손을 잡고 우리의 앞을 지나갔다. 나는 고개를 모로 꺾고 시선을 피했다.

보라는 기린이 긴 목을 도리질하며 우는 모습을 즐겨 그렸다. 크레용으로 그린 그림에는 기린의 등에 엄마 아빠가 앉고 목에 아이가 위태롭게 서 있었다. 남편은 다섯 살 아이에게 빈센트 반 고흐가 환생했다고 추켜세웠다. 한국가족이 다가와 기린을 배경으로 사진촬영을 부탁했다. 내가 멈칫거리자 남편이 일어나 휴대전화를 눌러주었다.

동물원에서 나와 페리를 타러 돌아가는 계단 위에서 내 발길이 얼어붙었다. 불편한 내 다리는 오를 때보다 내려갈 때가 수십 배 더 고통스럽다. 내 다리는 온전할 때도 일반인들과 달리 올라가는 계단이 내려가는 계단보다 수월했다. 마치 썬거루처럼. 내려가는 계단은 두려움부터 앞섰다. 계단뿐만이 아니었다. 사다리가, 희망이, 성공이, 사랑이, 내 인생의 행로가 그랬다. 죽음의 얼굴을 보았지만..., 여전히 남아 있는 죽음이란 마지막 내리막

길이 그러하리라.

돌아가는 페리가 방향을 틀자 악취를 뿜어내는 물비린내에 토를 할 것 같다. 선내좌석의 빈자리를 찾아서 앉았다. 그새 남편은 어디에도 보이지 않는다. 그는 무슨 일이나 달아나기부터 했다. 하긴 오늘이 가기 전, 아니 3번 선착장에 돌아가게 되면 우리는 영원히 헤어질 것이다. 먼저 서로의 SNS계정과 전화부터 삭제하고, 다시는 못 만나겠지. 그런데 이혼하는 부부가 무슨 미련이 있어서 영화를 찍는 것처럼 함께 돌아다니고 있는가. 나는 목걸이에 달고 있는 결혼반지를 만지작대며 생각한다. 끈이 되어서 둘 사이를 연결해 주던 보라가 사라진 우리의 미래는 서로 죽었다는 소식조차 못 들겠지.

남편이 고국으로 귀화하자는 제안을 꺼낸 날이었다. 그때 뒷마당으로 난 부엌문 절반이 열려 있었다. 반쯤 닫혀있었던가? 짐트리 가지를 뚫고 나오는 석양빛이 둘 사이를 베어버릴 것처럼 날카로웠다. 남편과 비스듬히 등을 돌리고 서서 생각에 몰두하는 내 귀에 저음이 들려왔다. “각자의 길을 갑시다.” 나는 남편의 목소리에 동의하는 대신 “알아요.” 라고 나직하게 대답한 다음 이런 말을 차분히 덧붙였다. “거기 좀 앉아요. 가서 뭘 좀 가져올게요.” 나는 급작스러운 남편의 제안에 대답할 말을 찾아낼 시간을 벌어야 했다. 포트와인에 콜라를 반쯤 섞고 얼음을 띄워서 들고 되돌아왔다. 술 두 잔을 정원용 원탁에 올려놓고 가만히 숨죽였다. 내 머릿속은 그의 선택에 응급 대응할 처방전을 쓰느라 바쁘게 움직였다. 주방을 들락거리며 나는 생각했다. 정신적으로 무방비 상태인 내가 나의 관점을 내세워 그를 설득해 보았자 무용하리라는, 억지로 내 주장을 몰고 갈수록 더 큰 문제에 봉착하게 될 것이란 예감이 들었다.

우리는 계속 말을 아꼈다. 술잔 속 얼음이 달가닥달가닥 빙산 갈라지는 소리를 냈다. 네 잔째 술을 원탁에 올리는 동시에 야외 태양열 램프에 공감처럼 불이 들어왔다. 나는 꽃무늬 앞치마에 손바닥을 쓸어내려 습기를 완

전히 제거했다. 윗입술을 두어 번 훑은 다음 자포자기 표시로 두 손바닥을 펼쳐 올렸다. “알을 소실한 연어가 무슨 낫쪽으로 고국으로 돌아가 부모님들 얼굴을 봐요.” 고국으로 돌아가기보다는 이혼을 선택하겠다는 말이에둘러 나왔다. 그때 바람이 부엌문을 세차게 닫아버렸다.

돌아오는 페리는 숨 가쁘게 승객들을 실어다 주었다. 개찰구를 빠져나오는 뒤돌아보지 않고 절뚝거리며 계단을 올라갔다. 센트럴행 기차는 오랫동안 들어오지 않았다. 서두르지 않으면 오늘 불타는 산을 오르지 못할 것이다. 남편이 등 뒤에 있다는 걸 감지하며 휴대전화를 꺼내 시간을 보았다. 정오였다. 아침에 먹은 에그 머핀이 상했는지 배가 부글부글 끓어올랐다.

시티 순환 기차를 타고 가다 한 정거장 일찍 내리고 말았다. 배가 아팠다. 그가 어눌하게 따라 내렸다. 우리는 텅 비어 막히지 않고 계속 어디론가 이어지는 것 같은 골목길을 걸어갔다. 이리저리 헤매다 굽어 죽어가는 짐승의 창자처럼 어둡고 미끌미끌하고 꾸불꾸불 꼬인 골목에서 길을 잘못 든 걸 알아챘다. 발길을 멈췄을 때 한 백인 여자가 마주 오는 것이 보였다. 남편이 담배 피우는 여자를 향해 다가섰다.

“한 개비만...”

남편이 담배를 입에 물었다. 어슴푸레한 골목은 담배 피우기에 그만이었다. 나도 담배를 달라고 했을 때 남편이 담배를 떨어뜨렸다. 그도 그럴 것이 평소 나는 담배 피우는 남편을 가장 견디지 못하는 사람이었다. “엔조이” 여자가 불붙은 담배를 내밀었다. 나는 기침을 해가며 손가락이 타는 것도 못 느끼며 시큼텃텃한 담배를 빨아들이고 있었다.

담배를 빨아 비빈 뒤 우리는 여자가 가르쳐 준 길을 따라 걸었다. ‘시드니 홀로코스트’ 가는 방향으로 꺾어지다 횡당보도를 건너 빌딩 속을 걸을 땐 남편과 나는 제법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었다. 뭔가가 아랫배를 물어뜯는 것 같았다. 한 걸음도 더 뻔 수 없었다. 독한 담배 연기에 창자가 꼬였거나, 내 생일을 기억한 남편이 아침에 테이크아웃해 왔던 에그 머핀이 상했

던 모양이었다.

눈앞의 오래된 펌 안으로 뛰어들었다. 밖으로 나왔을 때 남편이 보이지 않았다. 벌써 세 번째였다. 잘 된 일이었다. 남편에게 말하지 않았지만, 센트럴 역에 도착하면 그와 헤어져 혼자 불타는 산으로 갈 계획이었다.

택시가 불타는 산으로 가는 기차 플랫폼의 가장 가까운 출구라며 계단 위에 내려주었다. 아래를 보는데 노랗게 현기증이 일었다. 내려가야 할 계단, 그를 처음 만났던, 까마득하게 잊고 살았던 계단이었다.

어느 겨울 오전 9시경, 서두르다 역 계단에서 아래로 미끄러졌다. 영어수업이 있는 날이었다. 마침 계단을 올라오던 한 낫선 사람이 재빠르게 내 팔을 잡아 주었다. 그의 손에서 신중한 힘이 느껴졌다. 짧은 스커트가 올라가 허벅지가 드러난 순간에, 그의 손가락관절 부위가 거뭇하게 튀어나와 있는 것이 보였다. 나는 어찌할 바를 몰랐고, 당황한 모습을 감추려고 꺾이하게 웃었다. 계단을 오르내리고 있던 수많은 얼굴들 앞에서 갑자기 넘어지는 것은 곤혹스러운 일이었다. 사람들의 탐색하는 시선과 짓궂은 표정이 내 마음을 아프게 찢었다.

“겁나게 가파르네요.”

“겁나게.” 나는 그의 말머리를 흉내 내며 웃, 하고 웃었다.

그가 따라 웃었다. 그는 ‘겁나게’라는 말이 해병대 복무기간 입에 붙어버렸다고 했다. 상대를 기죽지 않게 하려는 듯 그가 큰소리로 계속 웃었다. 18번 플랫폼까지 부축해주겠다고 했을 때 거절하지 못했다. 발목이 아렸다. 그 당시 거의 매일 오르내리는 가파르기로 악명 높은 계단은 내려갈 때마다 아찔했다. 매번 발을 헛딛어 곤두박질 칠 것처럼 조마조마했다.

의지해서 걷고 있는 낫선 남자 때문에 내 마음은 무척 산란했다. 빨간 울코트를 누르는 그의 손가락 감촉이 허리에 느껴졌다. 많이 아프냐고 묻는 그의 목소리에 나는 제대로 된 답을 못하고 얼버무렸다. 그를 똑바로 쳐다보고 얼굴을 살필 수 없었지만 그의 턱이 각지고 피부가 거무스름할 것 같

다고 상상했다. 아마도 그의 짧은 머리 때문이었을 것이다. 우리는 그렇게 시작되었다. 나는 유학 초기였고 그는 제대를 하자마자 호주에 왔다.

*

어제는 긴 시간 기차에 앉아 꼼짝 않고 깊은 생각에 빠져 있었다. 불타는 산을 품고 있는 도시의 기차역에 내렸을 땐 이미 바깥이 어두웠다. 가까운 호텔에 들어가 죽은 듯 잤다. 얼굴을 두드리는 햇살을 손차양으로 가리며 몸을 일으켰다. 창가로 다가가자 불타는 산위로 태양이 괴물의 알처럼 솟구치고 있었다. 샤워도 하지 않고 뛰어나갔다.

불타는 산 안내판 앞에 서서 보라처럼 포즈를 취하고 셀카를 찍었다. 산길을 오르며 전설을 곱씹었다. 저 산은 육천 년을 살았단다. 지금의 내 나이에 백을 곱하면 육천 년이 되는가. 붉은 혈색을 한 저 산은 도대체 어떤 기분으로 육천년을 타오를까. 우리 가족의 이야기를 산은 납득할 수 있을까. 하지만 그런 자문은 나에게 하나도 의미가 없다. 마음만 아플 뿐이다. 남편은 내게 이것도 인생이냐고, 이게 무슨 인생이냐고, 쏘아붙였다. 오전 10시, 어제로 남남이 된 남편은 지금 항공기 객실에 앉아서 어떤 미래를 그려보고 있을까.

나는 육십 년쯤 건디다보면 인생에 꽃길만 펼쳐지리라 믿었다. 삼단 우산을 펼쳐두고 떠도는 연기를 노려본다. 바람이 불 때마다 연기가 여러 갈래로 갈라져 각각의 줄기가 되어 이쪽과 저쪽으로 서로 흩어지고 있다.

정상에 서자 열풍이 정면으로 불어와 얼굴을 때린다. 보라가 한 마지막 말이 떠오른다. ‘엄마 아빠의 가슴에서 영원한 불씨로 타오를 겁니다.’ 나는 연기를 휘저으며 울타리를 훌쩍 뛰어 넘는다. 우산을 기울이고 몇 걸음 더 가까이 다가간다. 연기와 바람이 합세해 우산을 날려버리려고 하지만 나는 우산대를 꼭 붙들고 붉은 흙을 쏘아본다. 가까이 갈수록 산이 뿔어내

는 열기로 이마와 등골, 양쪽 겨드랑에서 뜨거운 땀이 흘러내린다.

불티가 무릎에 떨어진다. 아픈 다리가 갑자기 심하게 욱신거린다. 나는 아픔을 무릎 쓰고 고개를 치켜들고 불에게 따져 묻는다. 왜 너는 한번에 타 버리지 않는가? 요망스럽게도 육천 년이라니! 혼자만 오래 타오르면... 그것도 일종의 운명인가? 불이여 그것도 운명인가? 지금의 내 일들이 모두 운명이란 뜻인가? 처음 불이 옮겨지던 순간부터 타오르는 것이 너의 운명이듯, 내 운명이 이것인가.

뜨거운 흙 위에 보란 듯 자빠지고 말았다. 우산이 날아간다. 타서 재가 되어 버릴 것 같은 전율이 몸을 훑어 내린다. 나는 손바닥과 엉덩이를 털며 일어나 다시 산에게 따져 묻는다. 불아, 내가 뭘 그렇게 잘 못했는가? 불이 뿔어내는 매캐한 연기가 눈을 찔러 눈알이 따갑지만, 나는 결코 고개를 숙이지 않는다. 결코 멈추지 않는다. 누구의 운명이 더 기구한지, 나도 어디 버틸 수 있을 때까지 한번 버텨보리라. 육천 살이 넘도록 타는 산과 자식을 잃은 이혼녀, 어제로 육십이 된. 산은 말이 없다. 목이 탄다. 나는 반지가 걸린 목걸이를 벗긴다.

“나는 최선을 다했어, 누구도 나 이상을 해 낼 수 없어.”

불타는 산을 향해 반지를 높이 들어 올린다.



테리사 리 2013년 재외동포문학상 소설 부문 대상 수상으로 작품 활동 시작. 소설집 『비단뽕 쿠니야의 비밀』 『어제 오늘 내일』 『바닷가의 모지』 출간. 《호주동아일보》 신년문학상, 해외민초문학상 소설 대상 등 수상

한영국

모기가 사라져 간다.

모기의 극성 때문에 참 괴로웠다. 하지만 이제 모기는 보이는데 공격은 사라졌고, 그러면서 차차 모기 개체수도 줄어들고 있다. 그래서 살 만하나 하면 그건 아니다. 세상이란 모기 외에도 온갖 골칫거리들이 넘쳐나는 곳. 더구나 지금은 겨울이다.

꼭두쇠는 모기가 사라진 것이 '속임수' 때문임을 안다. 자기가 파는 신문 한귀퉁이에서 읽은 적이 있다. 모기에게 포만을 유발하는 먹이를 주어 굶겨 죽일 거라는 기사였다. 위장은 비었는데 배불러 죽는 것. 성공한 속임수의 미덕이다. 사람들이 위를 잘라내 포만감으로 자신의 배를 속이고, 식욕을 억제하는 약으로 자신의 뇌를 속이는 것도 같은 맥락이겠지. 인간은 스스로를 속이는 것을 기꺼이 선택한다. 외계인도 그렇게 하는지는 잘 모르지만.

유명 연예인이 운영하는 술집에서 벌어진 폭행 시비와 관련해 경찰이 피해자를 폭행했다는 내용의 국민청원이 게재됐다. 청원은 하루 만에 참여 인원 13만 명(2019년 1월 29일 오후 5시 기준)을 넘어섰다. 이날 자신이 해당 사건의 피해자 K(28)씨라고 주장한 청원인은 '경사 ***, 경장 *** 외 ***에서 뇌물을 받는지 조사 부탁드립니다'라는 제목으로 청원을 시작했다. 논란이 되는 사건은 지난해 11월 24일 클럽 '썸'에서 발생했다. 피해자라고 주장한 K씨는 당시 클럽에서 관계자와 보안요원에게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했고, 신고자가 자신인데도 출동한 경찰들에게도 폭행을 당하고 뒷수습이

채워져 연행되었다. (출처:한국일보)

이것이 오늘의 주요 기사다. 이 기사 때문에 오늘은 신문이 잘 팔린다. 뻔해. 경찰들이 무슨 오해를 해서 실수한 게 아니라고. 도리어 돌아가는 걸 너무 잘 알기 때문에 벌어진 일인 거지.

거리에 멈추어 선 행인들은 신문에 실린 사진과 길 건너에 있는 '썸'의 입구를 번갈아보면서 눈동자를 바쁘게 움직이고 있다. 갑자기 이쪽 길의 인기가 짙어지고, 지나가던 행인들이 새삼스럽게 '썸'을 바라다보며 발길을 멈춘다. 구경꾼들도 몰려온다. 그 덕에 모퉁이에 나타날 군밤 장수가 오늘은 한몫 잡겠다. 우리에게는 그것이 중요하다. 군밤 장수와 꼭두쇠는 용무가 급할 때 서로의 가게를 보여주는 공생관계다.

방송 차량들이 몰려와 길은 점점 더 복잡해진다. '썸'에서 한길을 건너면 바로 꼭두쇠의 간이 신문판매대여서 마이크를 잡은 사람들이 그에게 여럿 다가왔지만, 그는 인터뷰를 안 한다는 대꾸조차 하지 않는다. 손사래만 친다. 시간을 낭비한 방송사 직원들은 그가 청각장애자인가보다 생각하며 재빨리 다른 사람을 찾아 뛰어다닌다. 꼭두쇠는 말이 조금 맛을 잃어 길거리에 버려진 지 오래라고 생각하는 사람이다.

아, 장수 씨 오시네. 자기 집사람 수레 먼저 끌어서 두고 오는 게지.

군밤 장수는 손수레를 밀고와 그의 가게 바로 옆에 자리를 잡는다. 좀 떨어진 코너가 잘 팔리는데... 이 사람이야말로 청각장애자라서 오늘 돌아가는 분위기가 영 불안하다. 가게는 간이 매장이라고는 하지만 엄연히 유리창까지 달린 가건물인 데다 일이 끝나면 셔터를 내리는 국가 인정 신문판매대다. 그렇다고 신문만 파는 건 아니고, 껌을 비롯해 과자, 음료수, 잡지도 판다. 교통카드도 판다. 군밤만 빼고 무엇이든지 다 팔고 싶은 게 주인 의 심정이다. 꼭두쇠는 한평생 이렇게 살았다. 유리 밖 가판대에서 행인이 집어드는 물건값을 재빨리 받아야 해서 여름이고 겨울이고 앞 유리창을 활

짝 열어 두어야 한다. 대략 가로 세로 6자와 3자인 가게 안에 선풍기를 돌리고 전기히터를 켜며 견뎠다. 그는 가을이 좋다.

오늘은 반쯤할 신문도 없이 일찍 완판이다. 불안한 분위기에 겁을 먹은 군밤 장수는 그의 옆에 바짝 붙어 서서 그가 내민 신문을 들여다본다. 물론 꼭두쇠는 신문에 나온 그 모든 장면의 목격자다. 유일하게 열 수 있는 인도 쪽 유리창 말고 180도 뒤로 돌아서면 차도 쪽 창 너머로 길 건너 ‘썸’이 안 보려면 안 볼 수 없게 절로 보인다. 2018년 11월 24일. 꼭두쇠가 꼭두새벽에 신문을 받아 놓으려고 가게에 도착했을 때 이미 싸움은 벌어져 있었다. 눈발이 날리던 날이었다. 흰 후드티를 입은 청년이 사람들에게 매를 맞았고, 곧 경찰차 두 대가 나타났지만 경관들은 그 광경을 지켜보기만 할 뿐 차에서 내리지 않았다. 높으신 분들이 ‘썸’ 입구에 태양처럼 뜨신 다음에야 그들은 천천히 차에서 내려 맞고 있는 흰 후드티의 남자를 낚아채 수갑을 채웠다. 그리고 그를 연행해 갔다. 남은 사람들은 손을 탁탁 털기도 하고 담배를 피워 물기도 하고 침을 뱉기도 하며 여유를 부리다 사라졌다. 그게 지난 11월 사건에 대한 오늘의 기사 내용이다.

가관이네요.

꼭두쇠는 듣지 못하는 군밤 장수에게 말한다. 못 들어도 상관은 없다. 안 듣는 게 더 나을지도 모른다. 그는 장수에게 항상 문어체로 고상하게 말을 건네려 한다. 이 요지경인 세상에서 그와 자신의 인격을 유지하기 위한 유일한 언어구사다.

방송사들이 휩쓸고 지나간 자리에 이번에는 인플루언서들이 등장한다. 정말 누구에게, 혹은 무엇에게, 지대한 영향을 끼치는지는 잘 모르지만, 그들은 기자들보다 더 극성이다. 어떤 이는 꼭두쇠에게서 물을 사서 자신이 들고 온 빈 꼬냑 병에 붓는다. 카메라 앞에서 그걸 흔들며 저 안에서 파는 만수르 세트에 이게 포함되어 있다고 힘주어 말한다. 자신은 그걸 매일 마신다고도 떠든다. 그의 날개는 타조처럼 거대하게 부풀어 오르지만, 그 거

대한 날개로도 타조는 날지 못한다. 꼭두쇠는 군밤 장수를 내다보며 또 한 마디 던진다.

어디, 날아오르는지 두고 봅시다.

어떤 이는 사람들을 헤치고 ‘썸’ 로고 앞까지 간신히 진입해 먹방을 진행한다. 그는 “저 안에서 뭘 먹는지는 모르지만, 우리 같은 서민들은 이것도 충분히 맛있지 않습니까?”라며 남남 치킨을 뜯는다. 그가 그 말끝에 ‘?’를 붙일지 ‘!’를 붙일지는 뻔하다. ‘!’를 붙일 사람이라면 여기 오지도 않았다. 꼭두쇠는 그에게 바셀린을 한 병 팔았고, 그는 말라서 퍼석한 치킨에 그것을 정성껏 발랐다. 코스프레는 다양하고 치열하다. 다 저 ‘타오르는 태양’의 안쪽이 부러운 것이다.

참 애쓰며 사네요.

거리를 메운 사람들 때문에 차량 통행이 멈추었다. 사람들은 서로 부딪히고 떠밀고 또 용케 빠져나간다. 꼭두쇠는 쪽문을 열어놓고 일이 바쁜 군밤 장수를 도와 군밤도 판다. 손수레가 사람들에게 밀려 엎어지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 대 소란을 하나도 듣지 못하는 군밤 장수지만 그도 고요하지는 않다. 귀는 사방의 소리를 듣지만 눈은 전방만을 보여주는 법이다. 그는 자꾸 뒤를 돌아다본다.

“아하, 우리 아버지!”

군중 속에서 짜잔 하며 아들 상쇠가 나타난다. 일대가 다 막혀서 한참 걸었다고 투덜댄다. 꼭두쇠는 대답하지 않는다. 상쇠는 아방궁 앞에 초라하게 빌붙은 아버지의 초가집, 그 곁에 허접하게 기대 놓은 군밤 수레를 눈을 부라리며 발로 찰 기세다. 어디 이런 걸 감히 내 집 옆에다. 꼭두쇠가 때맞춰 벽력같은 “어딜!” 소리를 지르지 않았다면 뜨거운 수레는 군중들 사이로 엎어져 화상자와 부상자와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환자를 낳을 뻔했다.

상쇠는 아버지에게 좋지 않은 낯빛을 보인 적이 없다. 언제나 웃음으로 대한다. 사업을 네 번 말아먹었지만, 나이 탓인지 세월이 갈수록 더욱 웃음

이 카르마가 되어 가고 있다. 지금은 네 번의 사업 실패 끝의 다섯 번째 휴지기다.

“아버지, 인터뷰했어요? 텔레비전에 막 뜨던데, 인터뷰하려면 우리 아버지보다 더 적절한 인물이 어디 있겠어! 기자들이 오면 사양하지 말고 제까닥 응해요. 유명해지면 장사도 잘된다니까.”

꼭두쇠는 대꾸하지 않고 일부러 군밤 파는 데 더 열을 올린다. 아내가 살아 있을 때에는 그래도 사정이 좀 나왔다. 그와 아들 사이에 아내라는 범퍼가 있었으니까. 하지만 지금은 상쇠 녀석 얼굴을 마주 대하기도 힘이 든다. 그의 와이프를 보는 건 더 힘들다. 며느리는 노골적이고 아들은 위선적이다. 아들의 위선의 껍질은 아주 얇다. 그 얇은 껍질은 벗겨져도 문제고 안 벗겨져도 문제다. 벗기면 가게를 몰래라도 팔아야 하고, 안 벗기면 오늘처럼 흰소리를 들으며 울화를 참아야 한다. 왼쪽 허리 아래에 박힌 오래된 파편이 쑤신다.

아내가 가게를 돕다 죽었을 때 꼭두쇠는 사업에 실패하고 빈둥거리는 상쇠더러 자신을 좀 도와달라고 했다. 상쇠는 단번에 거절했다. 여름엔 덥고 겨울엔 추워서 싫었다. 마진율이 적고 허접해서 싫었다. 화장실도 마음 놓고 가지 못하니 건강에 좋지 않았다. 꼭두새벽에 일어나는 게 불가능했다. 여름사니 공부시키는 돈도 안 나올 거라고 했다. 6자 곱하기 3자 박스 안에서 자신의 인생을 낭비할 수 없었다. 그냥 몰래라도 팔아서 달랬다. 그리고 보니 아들의 마음속에는 이미 자연스럽게 빼도 박도 못하는 자기 것이었다. 이제 그는 그런 말조차 하지 않는다. 그냥 자기 것으로 생각하고 기다린다. 얼마 남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할 것이다. 꼭두쇠의 입장에서는, 아직 신문에 날 일은 일어나지 않았으니 효자라고 할 수 있다.

“불타는 태양, 불타는 썬! 버닝 썬!”

이 길에서 지금 제일 많이 들리는 소리가 “불타는 썬!”이다. 여기서 저기서 그 말이 공명한다. 상쇠도 무슨 구호처럼 “썬이 불타고 있다”며 자랑스

러운 듯 주위를 둘러본다. 오늘이 아마 그가 일생 중 가장 아버지를 존경하는 날일 것이다. 노인네가 명당을 보는 눈썰미는 있어서…。 그는 신바람이 난다. 꼭두쇠는 아들에게 “네 눈엔 그게 ‘썬’으로 보이냐?”라고 말한다. 헛 가르쳤다고도 생각한다. 실제 말을 한 건 아니고, 그냥 속말로 한 것이다.

그는 아들과 말을 섞지 않는다. 아들의 입장에서는 지관을 해도 돈을 만졌을 아버지가 천지가 개벽해도 어제나 오늘이나 그저 가판대 같은 거나 지키고 있다. 어찌 된 동업인지 오늘은 군밤까지 판다. 사람은 많고 날은 추워서 군밤은 잘 나간다. 이런 시점에는 더 도드라지게 드러나는 아버지의 고지식과 완고함이 답답하기 그지없다. 이제 바야흐로 팝 컬처 사적지가 될 게 뻔한 ‘썬’의 지하 입구! 진입로에서 셀카를 찍어 두어야 한다. VIP 입구가 따로 있다는데, 그곳도 탐사해야 한다. 사진은 자신의 가게와 각도를 잘 맞춰서 한 쪽에…。 그는 휴대전화를 높이 치켜들고 찌질한 대중들을 헤치고 나아간다. 그러기 전에 평소의 버릇대로, 가판대에 놓인 ‘맥심’ 최신힐을 하나 낚아채는 걸 잊지 않는다. 오늘은 군밤도 한 봉지 챙겼다. 요즘은 나이 드는 것이 자못 억울해서, 계제에 유행하는 초록색 공방패션으로 단장했다.

눈에 띄게 우쭐거리며 확보하는 아들의 뒤통지를 보며 꼭두쇠는 한숨을 쉰다. 군밤 장수의 주머니에 밤값을 찢러 넣으며 그가 중얼거린다.

민망합니다.

사람의 행동에 ‘적정 수준’이라는 게 있다면 이런 난장판이 없다. 모두를 말과 몸짓과 손짓과 속도의 범위를 잊고 마냥 요란하다.

듣지 않을 뿐 아니라 보지 않아도 좋을 듯합니다.

*

짧은 겨울해가 낫껏 질 때쯤 군밤도 다 나갔다. 군밤 장수는 꼭두쇠에게

진 신세를 생각해 마지막 군밤 봉지를 들고 가게로 들어와 나누어 먹는다. 점심 먹을 짬도 없었다. 꼭두쇠는 뜨거운 물을 끓여 대접한다.

이태 전 여름의 끝, 그들은 길에서 만났다. 학연도 아니고, 지연도 아니고, 그래서 아무것도 아닌 인연. 아내가 살아 있을 때여서, 일을 끝내고 부부는 전철역을 향해 걷고 있었다. 갑자기 머리가 핑 돌더니 세상이 기우뚱했다. 올 게 온 건가? 순간적으로 왼쪽 허리 아래 박힌 파편이 머리로 올라가 뇌를 휘젓나 싶었다. 갑자기 그림자처럼, 현재의 풍경이 지나온 잔상을 끌고 다녔다. 공간이 주변과 구분 없이 뒤섞이자 속이 메스거렸다. 그는 서 있을 수가 없어 땅에 엎드렸다. 아내가 속이 안 좋아 그러는 줄 알고 그의 등을 두드렸다. 네 발로 짙은 땅의 보드블록이 주위의 빛들과 섞여 휘돌았다. 땅이 어디고 하늘이 어딘지, 동이 어디고 서가 어딘지, 구분이 안 갔다. 그는 눈을 감은 채 바닥에 대자로 누웠다.

당황한 아내가 소리쳤다.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행인들이 있었지만 아무도 다가오지 않았다. 그는 눈꺼풀 속에서 고속 회전하는 어둠을 보며 생각했다. 이게 죽는 걸까? 대통령에 의해 ‘휴전선의 연장’이라는 애국의 담이 붙여져 떠난 외화벌이 전장에서 총에 맞았을 때에도 그는 이게 죽는 걸까, 생각하며 의식을 잃었다. 하지만 그건 진짜가 아니었다. 파편을 다 꺼내지는 못했어도 다시 살아났다.

갑자기 어두운 우주가 출렁, 하더니 그가 누군가의 팔에 들려 공중에 부양됐다. 방향을 못 잡는 머리 때문에 울컥 토했다. 그를 받쳐 든 두 개의 팔이 리듬을 타며 움직였다. 아내가 “저기 병원, 저기…” 했다. 새된 목소리가 알 수 없는 비명인지 고통인지를 지르며 걸었다. 자동차 경적이 여기저기에서 요란하게 울렸다. 단단하던 팔에서 걸음걸음마다 기운이 빠져나가는 게 느껴졌다. 꼭두쇠는 추락의 위기로 흔들리고, 그를 받쳐든 팔은 힘겹게 계단을 올라갔다. 어떤 문이 어렵게 열렸다. 한 번 더 토했을 때 그의 등이 단단한 무엇인가에 닿았다. 그러고는 기운이 다해 후들후들 떨리는 팔

이 그와 단단한 무엇 사이를 힘겹게 빠져나갔다. 여자 목소리가 들려왔다. 여긴 피부과예요, 피부과. 다른 병원… 새된 목소리가 다시 비명인지 고통인지 알 수 없는 괴성을 질렀다.

아내가 사정사정하고, 주사 한 방에 그의 우주가 상하좌우를 되찾았다. 그는 자기가 던고선 지구가 방향도 없고 기준점도 없고 지향도 없이 빈 공간에 끈 떨어진 풍선처럼 동실 떠 있는 걸 본 것 같았다. 별은 쏟아질 수도 있고, 멀리멀리 달아나 사라질 수도 있고, 영원히 그저 여기저기를 정처없이 떠돌아다닐 수도 있었다. 아내가 들고 온 신발을 신으면서 그는 문득 한기를 느꼈다. 종일 몰랐는데, 밤바람이 왔다.

며칠 지나자 장수가 옥수수 꺾수레를 끌고 가게를 찾아와 안부를 물었다. 꼭두쇠는 음료 냉장고에서 물병을 꺼내 뚜껑을 열어 그에게 내밀었다. 이 석충이라는데, 탈수가 원인이에요. 마시면서 일해요. 장수는 ‘화장실이 겁난다’고 휴대폰에 적어 보여주었다. 꼭두쇠는 그에게 물병 하나를 더 찢러 넣어 주며, 가까우면 교대해 줄 텐데, 했다. 그리고 그들은 그렇게 교대해주는 사이가 되었다.

세월이 가면서 장수는 가끔 자신의 답답한 속을 꼭두쇠에게 풀어 놓았다. 아이에 대한 고민이 제일 많았다. 학교가 쉬는 날에는 아이를 데리고 나오기도 했다. 아이는 푹푹했지만, 그만큼 울음이 잦았다. 어떤 것을 좀 길게 설명해야 할 때면 아이는 울기부터 시작했다. 티브이로 배운 남의 말을 자신이 쓰는 게 두렵고 싫다고 했다. 울다 시간이 지나면 아무 설명도 없이 다시 청각장애자처럼 조용해졌다. 아이는 여름에는 옥수수를, 겨울에는 군고구마와 봉어빵을 먹으며 자랐다. 비싼 밤은 특별한 날에만.

어느 날 아이가 학교를 빠지고 부모를 쫓아 나와 엄마와 함께 있었다. 장수의 말에 의하면 학교에서 문제가 생긴 것 같은데, 아이가 등교를 거부한다는 것이었다. 그의 휴대전화에는 일간 학교에 나와 달라는 담임선생님의 문자가 도착해 있었다. 엄마 곁에 있다가 심심해진 아이가 아빠를 찾아왔

다. 꼭두쇠는 아이에게 학교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살살 물어보았다. 아이는 대답 대신 울었다.

꼭두쇠는 선생님에게 전화를 걸었다. 장수의 부탁대로 할아버지라고 했다. 선생님은 조용하고 착하고 얌전하고 기특한 아인 줄 알았는데 이번에 정말 깜짝 놀랐다고 말했다. 너무 놀라서 심장이 뛰더라고 했다. 얼굴이 달아올라 그대로 수업을 진행할 수가 없었던다. 아버님을 만나 뵙고 처리할 문제였다.

English 시간에 단어들을 가르치고 있었어요. 하늘, 강, 산 그런 거요. sky는 아이들이 다 아는 word여서 그냥 지나갔고, river는 liver라고 발음해서 교정해 주느라고 시간이 많이 지체됐어요. 하나하나 시켜보는 게 저의 교육법이거든요. 다음에 mountain을 가르치는데, 아이들이 그새 산만 해져서 concentrate를 안 해요. 사실 mountain도 아이들은 이미 다 알고 있어요. 사교육이 문제라니까요. 그렇다고 건너뛸 수도 없고. 그래서 제가 interest를 좀 복돋으려고 조용하게 앉아 있는 지를 불러낸 거예요. 불러내서 mountain을 수어로 친구들에게 보여주라고 했어요. English는 내가 가르치고 수어는 지가 가르치고.

근데 지가 말을 안 듣고 가만히 서 있는 거예요. 처음엔 저도 웃으면서 얘기했는데, 말을 안 듣고 서 있기만 하니까 좀 다그쳤던 것 같아요. She's crying. 그러자 반친구들이 모두 조용해지면서 나와 지를 쳐다봤어요. 생각해 보세요. 내가 얼마나 난처했겠어요. 때린 것도 아닌데. 왜 우느냐고 물으니까 또 answer를 안 해요. 그래서 수어로 mountain을 아이들에게 보여주라는 게 그렇게 싫으냐고, hate하면 hate하지 울긴 왜 우냐고, 선생님은 생각해서 시켜준 건데 섭섭하다고 했죠. 그러자 지가 반항하듯 손을 들어 가운데손가락 욕을 하는 거예요, 글썸... 반 전체가 다 보는 데서요... grandfather라고 했죠? 생각해 보세요. 나, 참. 얌전한 아인 줄 알았는데...

꼭두쇠도 당황해서 알겠다고 하고 전화를 끊었다. 통화하는 동안 숨죽이

고 있던 아이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꼭두쇠는 야구르트 두 병을 꺼내 아이의 양손에 하나씩 쥐어주며 물었다. 이제 네 얘기를 해봐라.

아이가 벌떡 일어나더니 야구르트 병을 신문지 위에 올려놓고 자기 아버지와 등지고 섰다. 꼭두쇠는 장수에게 다가오지 말하는 신호를 보냈다. 아이가 아버지 안 보이게 가운데손가락을 들어 올리며 꼭두쇠에게 외쳤다. "이게 수어로 '산'이라 말이에요." 야구르트를 양손에 하나씩 들고 아이는 엄마에게 간다며 달려나갔다.

궁금한 장수에게 꼭두쇠가 얘기를 해주자 그의 눈이 옥수수 찹 화덕처럼 붉어졌다. 한이 된다고 했다. 아이에게 말을, 고운 말을, 예쁜 말을, 존댓말을, 진짜 진짜 말을, 가르치고 싶다고 썼다. 꼭두쇠는 장수에게, 장수의 아내에게, 장수네 지에게, 곱고 예쁘고 높디높고 진짜인 말을 쓰기로 작정했다.

말없이 돌이서 밤을 까먹으며 서 있는데 장수 안사람이 사람들의 난장을 요령껏 피해가며 가게 안으로 들어선다. 얼굴이 조막만 하고 키도 조막만 하고 피곤에 절었다. 여인은 말없이 고개를 깊이 숙여 인사하고 꼭두쇠도 마주 인사를 한다. 그녀는 다른 길가에서 봉어빵을 팔고 오는 길이다. 오늘은 그쪽도 경기가 좋았나 보다. 여인에게도 세상은 음향 없는 고요의 바다지만, 그곳도 마냥 고요하지만은 않다.

어서어서 들어들 가세요. 오늘은 일찍 쉬시게 됐네.

꼭두쇠는 어서 가라는 시늉을 하며 그들을 내보낸다. 팔을 휘휘 저으며 여기서 길을 건너지 말고 골목을 빙 돌아 우회하라는 말을 그들은 다 알아듣는다. 말이 아니라 말하는 사람 때문에 알아듣는 것이다. 녹슨 드럼통이 없던 수레 두 대를 밀며 그들은 '썸'의 반대쪽으로 서둘러 사라진다. 그들의 집에는 먹이고 씻기고 숙제를 챙겨줘야 할 딸이 있다.

가판대를 접고 물건을 안으로 다 들여놓는다. 히터를 바싹 당기고 의자에

앉아 있자니 졸음이 몰려온다. 이곳은 군중 속의 오아시스. 상쇠는 어디로 사라졌는지 보이지 않는다. 창을 닫았지만 이따금 사람들이 유리를 툭툭 치며 이것저것을 사간다. 빈집에 가봐야 딱히 할 일도 없어 좀 더 앉아 있기로 한다. 언 줄도 미처 몰랐던 몸이 차차 녹는다.

별을 보며 집을 나섰던 셀 수도 없는 새벽들이 있었다. 콘크리트 프라이팬에 올려져 지저지던, 지저지는 줄도 몰랐던, 무수한 여름이 있었다. 겨울에는 피부 속 3 센티미터까지를 열리는 공기얼음이 그를 따라다녔다. 얼려지다가 날이 풀리면 마이크로웨이브의 '녹이기' 버튼을 누른 듯 몸이 풀리고, 지저지다가 날이 선선해지면 티도 안 나게 입었던 화상이 꾸덕꾸덕 아물어갔다. 여름을 무사히 넘기고 겨울을 무사히 견딘 건 모두 몸 깊이 매장되어 있던 생이라는 석탄 때문이었다. 이제 그 석탄의 매장량이 바닥을 드러내기 시작한다.

아무런 원도 없소이다.

내일 천지가 무너져도 오늘 사과나무를 심겠다는 사람도 있다. 꼭두쇠는 내일 천지가 무너져도 꼭두새벽엔 집을 나설 것이다. 천지가 무너지기 전에 군밤 장수가 오늘처럼 군밤을 많이 팔기를 바라지만, 그것이 원한다 해서 되는 일이 아님을 알고 있다. 그들 내외를 제외하면, 그가 아는 거의 모든 사람들이 '썬'의 지하에 있는 아방궁으로 앞다투어 이사 들어가고 싶어 한다. 그것이 그들의 원이다. 거기서 양리 4세 그랑 샹파뉴를 매일 마시고 싶어 한다. 그렇게, 원하는 대로, 그대로 되시라...

모두들 몰려 들어간 아방궁으로 인해 지상은 텅 비었다. 하늘을 날던 새는 무료로 인해 방향을 잃고 떨어지고, 여우는 길어지는 우울증을 견디다 못해 굶고, 불면증에 시달리는 연어는 아예 회귀를 포기하고, 오랜 발자국으로 생겼던 길은 스스로 제 길을 닫고... 바람만이 그악스런 식물에 둘러싸인 이 가판대를 감싸며 휘몰아친다... 그 많은 사건들이 실린 신문이 산지사방으로 흩어진다. 그래도 그는 줄면서 거기, 가로 세로 6자 3자의 상

자 속에, 바람 속에... 앉아 있다. 살아 있는 건 그가 아니라 바람이다. 그는 풍장 중이다.

달리 무엇을 하겠습니까? 어디로 가겠습니까? 내 뛰어난 세상의 자리가 여긴데...

어찌 그리 힘들던지요...

그래도 말은 안 할지언정..., T를 S로 발음해 주지는 않을 참입니다...

그냥 고집 같은 거겠지만요... 아무것도 바뀌는 건 없는...

말이 소금기를 잃었으니, 세상을 직시하는 확실한 눈 하나는 남아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증인이나 목격자 같은 그런 거 말이에요. 이유는 모르지만, 그게 아주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돌맹이 하나, 언덕 하나, 청각장애자 하나, 노인 하나라도... 천지가 무너진 후 주인도 없이 물끄러미 서 있을 사과나무처럼... 옛 주인이 천지 간 어디에서, 어떻게, 왜 살았는지, 사과나무가 말해주지 않겠어요.

'썬' 앞에 긴 줄이 늘어서기 시작한다. 매스컴을 타서 그런지 오늘은 줄이 더 길다. 아직은 개장이 시간 반이나 더 남았는데도... 세상에는 온갖 사람, 온갖 사건들이 다 있다. 지금은 말을 은폐하는 말이 대세고, 태양처럼 빛나는 나쁜 놈 속에 내장된 부귀와 영화가 대세다. 단골손님은 일찌감치 VIP 입구로 입장했을 거고, 아방궁을 구경이라도 하고픈 하루치기들은 긴 줄을 참으며 음료수와 빵으로 자신의 재정을 축내고 서 있다.

“할아버지!”

이번에 창을 똑똑 두드리는 건 어름사니다. 부모가 최고의 교육을 시킨다는 핑계로 지리산에 있는 보딩 스쿨로 유배시킨 녀석이다. 종교계라 학비는 없고 기숙사비와 식비만 낸다는데, 입학 때의 열렬한 선서와는 달리 상쇠나 그의 아내가 종교 예식에 참석하는 걸 본 적이 없다.

“응, 얼른 들어와. 출겠다.”

겨울방학이 끝나면 어름사니는 학교로 돌아가야 한다. 때로 몰려다니며

무서운 아이들이 되기도 하겠지만, 꼭두쇠는 이 아이들의 위악이 차라리
괜찮다. 아버의 위선은 가볍고, 아이의 위악은 무게가 좀 있다.

“웬 줄이에요?”

설명을 해주며 묻는다. “너 보기에 저게 Sun이나, Tun이나?”

어름사니는 줄타기를 하듯 가볍게 밖으로 나간다. 사람들에게 가려 잘 보
이지 않는다면 자세히 보고 오겠다고 한다. 아이는 사진을 찍어 돌아온다.



“Tun인데…!”

“네 눈에도 Tun이지? 그런데 사람들이 하나같이 Sun으로 읽는다. 한 사
람도 T라고 항의하지 않아. Tun이 무슨 뜻이냐?”

“술통.”

Tun으로 쓰고 Sun으로 읽는 사람이 있고, 그 사람이 읽어 주는 대로
Sun이라 따라 읽고, 합창하고, 그러다 아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빼도
박도 못하는 Sun이 된다.

꼭두쇠는 가게 문을 닫고 셔터를 내리고 어름사니와 함께 식당에 가서 늦
은 저녁을 먹는다. 먹는 것보다 드러눕는 것이 더 고프다. 할아버지 집에
가서 자자는 꼭두쇠의 제안을 뿌리치고 어름사니는 할 일이 있다며 휘황한
어둠 속으로 사라진다.

*

또 한 번의 꼭두새벽.

지하로 들어가는 ‘썸’의 요지경 입구를 지나가는데 못 보던 새 간판이 보
인다. 위악이 응징해 바로 잡은 위선. 그래피티. 태양이 불타던 곳에는 커
다란 술통이 놓이고, Tun인지 Sun인지 위에는 알파벳 정자가 볼드체로 덧
입혀졌다. ‘Burning TUN’

아직 마르지 않은 페인트가 반짝, 가로등 불빛에 빛나고, 오늘의 첫 햇살
은 증인처럼 술통의 술을 익히기 시작할 것이다.

흠, 누군가는 새 단어를 배울 수 있으려나?



한영국 韓英菊 뉴욕문학 소셜 신인상. 미주 한국일보 시 신인상. 제1회 재외동포문
학상 대상.

천사의 도시

홍영옥

*

사람들은 로스엔젤리스 하면 사막 위에 선 빌딩들을 떠올린다. 그와 더불어 뜨겁고 강렬한 햇빛을 가리기 위해 선글라스를 쓴 각양각색의 얼굴들, 그리고 한눈으로 담을 수 없이 끝없이 펼쳐진 바다를 따라 해변을 거니는 사람들의 긴 그림자를 떠올리기도 한다. 이곳의 여름은 일찍 시작되고 오래 지속된다. 오랜 가뭄으로 물이 부족해 주 정부에서는 이웃 콜로라도 주에서 물을 사들이고, 집집마다 조경으로 가꾸는 잔디밭에조차 물을 줄 수 없는 법을 시행한다. 이곳 사람들은 이렇듯 척박하고 건조한 땅을 딛고 풍요로운 바다를 바라보며 살아간다. 땀 흘리며 몸은 늘어지는데 시간은 가파른 그런 삶이다. 태양만큼 열정적이고 바다처럼 즐기게 살아야 한다. 이런 삶을 살기 위해 아메리카 대륙 곳곳, 세계 곳곳에서 무수한 사람들이 모여 들어 있다. 백인, 흑인, 황인종... 유럽계, 히스패닉, 중국계, 한국계, 베트남계... 스포츠 선수, 영화배우, 유학생, 관광객, 불법체류자, 노숙자, 원정 출산자...

이곳은 여름에는 비가 오지 않고, 한 달이나 될까 싶은 짧은 겨울에 그해에 쓰일 비가 모두 내린다. 그 비 내림이 너무도 느닷없이 ‘도대체 이 비는 어찌라는 거지’ 하고 기이한 혼돈에 사로잡히기도 한다. 그런 겨울이지만 꽃과 나무들은 싱그러운 기운을 잃고 퇴색한다. 하지만 이곳 사람들은 우울해지는 법이 없다. 다운타운의 허공에 장대비가 날린다 싶은 그런 순간, 어느새 스키 장비를 지붕에 얹은 자동차들이 팍쭈리 가로수 길을 달려 외곽으로 빠져나가는 모습을 쉽게 볼 수 있다. 다운타운에 비가 내리면 멀리

남쪽 샌안토니오 산은 눈으로 덮이고, 마운틴 하이의 빅베어 스키장은 모처럼 북새통을 이루는 것이다. 그 산에 가끔 조난자가 생겼다는 기사가 뉴스시간을 채우기도 한다. 긴 가뭄과 갑작스런 겨울비, 넘치는 사람과 광활한 자연, 빈곤과 풍요, “Goddam!”과 “Why not?”이 서로 공존하는 이곳을 사람들은 천사의 도시라 부른다. 나는 이 도시에서 여전히 그 혼돈에 빠져 있다.

*

“이모님, 지금 퇴원 준비하고 있어요.”

수민의 목소리는 들떠 있었다. 이틀 전 첫 아이를 낳은 산모다. 창밖 풍경에 잠시 넋을 놓고 있던 나는 쌀뜨물에 담가둔 미역에 현미식초를 떨어뜨렸다. 그리고 거품이 나도록 미역을 조물조물 씻은 후 물이 잘 빠지라고 채반에 올려놓았다. 손이 자꾸 바빠진다. 커다란 냄비에 담겨 있는 잘게 다진 살코기를 가스레인지의 불로 달달 볶다가 탱탱하게 불린 기장미역을 넣는다. 이제 참기름을 둘러 볶아주다가 물을 알맞게 붓고 손수 담긴 간장으로 간을 맞추며 자글자글 오래 끓이면 된다. 마치 산모의 초유즙 되지 않을까 싶은 미역국의 보양 국물이 수민의 원기를 회복시켜 줄 것이다.

나는 어느 때보다도 산모의 보약이나 다름없는 미역국 끓이기에 정성을 쏟았다. 기장미역을 불리고 살코기를 볶는 사이사이 삼십 여 년 전 한없이 서글프고 막막하던 날이 떠올랐다. 다시는 발걸음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며 도망치듯 사라지는 기분이 그야말로 죽을 맛이였다. 나는 마음속 여기저기 떨어져 있는 돌부리에 계속 걸려 넘어졌다. 떠나는 사람은 절대 돌아보지 말아야 한다는 오래된 충고를 나도 모르게 내팽개치면서 수시로 고개를 돌렸다. 내 의지와 무관한 반사작용이었다. 내가 되돌아본 그곳에는 해산하고서 미역국조차 얻어먹지 못한 젊은 여자와 손목에 푸른 점이 돌아난

핏덩이가 있었다.

여느 산모와 달리 수민은 까마득히 떨어진 시간 속으로 나를 이끌었다. 그 과거로의 발걸음은 펴 잦았다. 그동안 산모를 심심찮게 접했는데 수민과 이어진 끈에는 향긋하면서도 알싸한 냄새가 묻어 있었다. 묘한 이끌림이었다. 수민은 출산을 목적으로 한국에서 날아온 산모였다. 호텔 커피숍에서 처음 봤을 때 그녀는 잔뜩 긴장한 상태였다. 만삭의 몸임에도 불구하고 애써 꼳꼳이 서 있는 모습에서 그걸 느꼈다. 하지만 얼굴은 그 반대였다. 긴장감이 견힌, 멍한 표정의 눈빛이 “내가 지금 믿을 사람은 당신뿐이에요”라고 말하고 있었다. 호칭만이라도 빨리 정해야 마음이 좀 놓이겠다는 듯 “제가 뭐라고 불러야 하지요?” 하며 다짜고짜 물었다. 다른 산모들처럼 그저 편하게 이모라고 부르는 게 좋겠다는 내 말을 수민은 유난히 반겼다. ‘이모’라는 호칭이 긴장과 불안을 해소해 주는 특효약인 듯 그 단어를 입에 올리는 순간 수민은 활기를 찾았다. 원래 성격이 그런지 그녀는 금세 수다스런 여자가 됐다.

호텔 커피숍에서 만나 산모와 산후조리사로 인연을 맺은 우리는 오렌지 주스로 목을 축이고 차에 올랐다. 산모를 맞이하려고 깨끗이 세차한 내 승용차였다. 시원하게 뚫린 도로를 달려 산후조리원처럼 사용하는 내 콘도에 닿았다. 수민이 거실이며 이 방 저 방을 살펴보면서 싱글벙글 감탄사를 내뱉었다. 앞으로 자기가 지낼 집안을 보는 순간 어떤 경계가 지워졌는지 소파에 앉아서는 다리를 쭉 뻗었다. 수민의 자유분방한 행동뉘네가짐을 보니 나도 안심이 되고 새 식구를 맞은 듯 설렘다.

“저의 남편은 조부모 손에서 자랐어요. 태어나자마자 그분들의 품에서 숨 쉬고, 먹고... 당연히 엄마의 얼굴도 이름도 모른대요.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났는데 엄마가 없다면 어떤 기분일까요. 애초부터 엄마라는 존재를 모르니까 아무렇지도 않을까요? 그래서 전 우리 남편이 가여워요. 형체가 없이 단어로만 존재하는 엄마라니...”

수민이 한숨을 내쉬며 내가 직접 갈아서 건네준 생딸기 우유주스를 조금씩 마셨다. 산모들은 대개 내가 만드는 음식을 좋아했다. 이런 맛을 고향의 맛, 엄마의 손맛이라고 하는 모양이라면서 꿀꺽꿀꺽 잘도 먹었다. 특히 그녀들이 즐겨 먹는 음식은 미역국과 생과일주스였다. 꿀을 한 스푼 넣은 생과일주스는 나만의 비법으로 맛을 낸, 가공 음료에 길들여진 산모들의 입을 홀리는 내 스타일의 수공 음료였다. 수민은 유독 바로 만들어주는 생과일을 넣은 우유주스를 즐겨 마셨다. 수민의 수다는 뭘 먹을 때 꽃을 피웠다. 아이를 임신하기까지의 과정을 들려줄 때는 자기도 모르게 감정이 북받치는지 목소리가 떨렸다. 수민의 시할머니는 광명의 기운이 넘치는 황금돼지띠의 2007년, 올해 꼭 아이를 낳아야 한다며 작년부터 성화였단다. 밝고 환한 기운을 듬뿍 받아야 아이의 인생에도 햇살이 뽀찐다는 거였다. 수민 부부는 마냥 임신을 미룰 수가 없어 그게 미신이든 뭐든 이왕이면 시할머니의 말을 따르기로 했다. 그녀는 원래부터 자연 임신이 어려웠다. 별 수 없이 인공수정을 선택한 부부는 아이를 갖기 위해 징검다리를 건너 듯 한 발 한 발 절차를 밟았다. 처음 수정란 세 개를 이식한 건 실패했다. 부부는 하늘의 뜻이라고 여기며 마음을 다독였다. 그 후 냉동 수정란을 이식해서 마침내 수민의 자궁에 귀한 생명을 들였다. 임신에 이르는 여정을 실감나게 들려주는 수민의 얼굴이 발강게 익어갔다. 사막이나 다름없다고 생각한 자신의 몸에서 생명이 자란다는 사실에 벽찬 감동을 느끼는 것 같았다.

*

이 세상에는 수많은 길이 있고, 사람들은 심사숙고해서 선택한 방향으로 발걸음을 옮긴다. 미국행 비행기에 몸을 실은 산모들이 연고자 하는 건 바로 독수리가 새겨진 여권이다. 아이의 이름 석 자가 찍힌 여권을 어떻게든 취득해서 반쪽 미국인으로 살게 하려는 것이다. 원정출산이라는 달콤한 유

혹에 깊이 빠져든 산모들은 어떤 위험도 감수하겠다는 각오로 비행기를 탄다. 방문 비자 여행객으로 위장하고 말이다. 그 유행은 들불처럼 번졌고 수민도 그런 특별한 여행길에 오른 산모였다.

“우리 아이가 커서 미국으로 공부하러 가면 그 유학비를 어떻게 감당해요. 이만불 투자해서 한 달만 고생하면 우리 아이가 미국 시민이 되잖아요. 내 새끼한테 물려줄 재산도 없으니 시민권이라도 만들어 주고 싶어요. 훗날 우리 아이가 기름진 환경 속에서 다양한 혜택을 누리고 살 수 있다면 부모로서 더 바랄 게 없지요.”

수민은 아이에게 ‘독수리여권’을 유산처럼 남겨주기 위해 은행 마이너스 통장에 신용카드 현금서비스를 받고, 친정언니한테 돈까지 빌려서 로스엔젤리스로 날아왔다고 했다. 수민의 말처럼 아이가 시민권을 취득하면 미국 공립학교에 진학할 수 있고, 당당한 미국 시민으로서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아이의 장밋빛 미래, 그 화려한 꿈에 벌써부터 대리만족을 느끼는 산모들은 미국에서도 분만 비용이 저렴한 로스엔젤리스로 모여들었다.

“입국 검색대를 통과할 때까지 얼마나 떨었는지 몰라요. 조금의 빈틈도 허락하지 않을 것 같은 나이 지긋한 흑인이 방문 목적을 묻는데 입이 안 떨어지는 거예요. 접촉제로 입을 딱 붙여놓은 것 같았어요. 출산 여행으로 밝혀지면 그 자리에서 바로 추방당하잖아요. 삼엄한 감시의 눈을 피해 길을 나선 피난민들의 심정이 이럴까 싶네요. 내 아이를 위해서라면 무슨 일이든 한다! 이렇게 속으로 기압을 주니까 그제야 머릿속에 저장해둔 말이 입 밖으로 나왔어요. 검색대를 통과하는데 온몸에서 힘이 쭉 빠지네요. 뱃속 아이도 콩닥콩닥 꿈틀거리고… 그날을 생각하면 지금도 손에 땀이 나요. 육 개월 체류할 수 있다고 허락한 스탬프를 보고 있자니 눈시울이 뜨거워지더라고요. 진짜 엄마가 된 것 같았어요.”

나는 시간이 갈수록 수민의 이야기에 빠져들었다. 어떤 날은 이야기를 듣다가 점심 챙겨 먹이는 걸 잊기도 했다. 원정출산이 목적인 산모가 공항 검색대

를 통과하는, 산모들에게나 스릴 넘칠 이야기야 지겹게 들었는데 수민의 경우는 달랐다. 마치 처음 듣는 것처럼 새로웠고 “그래서 어떻게 됐는데?” “흑인 눈빛이 어땠어?” 하며 맞장구까지 쳤다. 내가 마치 검색대 앞에서 있는 수민이 된 듯 완벽한 감정이입이었다. 이즈막에는 산후조리가 아니라 수민의 출산 스토리를 듣기 위해 밤낮 붙어 있는 것 같은 기분이 들기도 했다.

*

어젯밤 수민은 분만실에 있었다. 그녀는 예닐곱 시간 동안 진통과 싸웠다. 나도 분만실에 머물면서 그 고통을 끝까지 지켜봤다. 마치 내 딸이 자식을 낳는 것처럼 가슴을 졸였다. 수민은 이를 악물고 진통을 견디면서도 내가 있는 쪽을 자주 쳐다봤다. 나는 그때마다 여기서 한 발짝도 움직이지 않겠다는 듯 수민을 향해 고개를 끄덕였다. 몸이 바스라질 것 같은데 이상하게 머릿속은 명료해진다면서 수민이 파리한 손으로 내 허리를 휘감았다. 내가 담벼락이고 수민이가 담쟁이덩굴인 듯한 그 밀착감에 명치계가 뜨거워졌다.

“자아! 두 손은 허벅지를 꼭 잡아요. 이제부터 아주 세게 푸시해야 해요.”

“옳지, 옳지, 잘하고 있어요. 그렇지, 그렇지. 그렇게.”

“한 번 더, 더, 세계, 더, 그렇지, 다시 한 번만 더.”

“오우! 잘했어요! 아주 잘하고 있어요.”

두려워하지 말고 나만 믿으라는 듯 의사가 기운찬 목소리로 산모를 이끌었다. 수민은 의사의 지시대로 허벅지를 꼭 잡고는 힘을 쏟아냈다. 내 배가 뒤틀리는 것 같았다.

“이모님, 남편한테 전화 좀 해주세요. 지금 분만실에 있다고요.”

“그렇잖아도 벌써 통화했어. 아기 아빠가 멀리서 응원하고 있으니까 조금만 더 힘을 내. 아유, 이 땀 좀 봐.”

나는 수민의 손을 잡았다. 뜨겁고 축축했다. 수민의 등을 어루만지듯 쓸

어내리자 이번에는 산모의 눈이 촉촉해졌다. 의사가 작은 막대를 들고 툭 툭 분만대 모서리를 두드리며 이글스의 음악을 흥얼거렸다. 웰 컴 투 더 호 텔 캘리포니아! 분만실에는 한국인 간호사, 필리핀 간호사, 그리고 닥터 장이 있었는데 익숙한 일이라 그런지 그들은 덩덤한 표정으로 산모를 다뤘다. 마침내 태아의 까만 머리가 살짝 보이더니 몇 번 들락날락했다. 닥터 장이 아이의 머리를 오른쪽으로 돌리는가 싶더니 눈 깜짝할 사이에 핏덩이가 쭈욱 미끄러지듯 나왔다. 드디어 생명이 탄생한 것이다. 고통스런 산도를 뚫고 피투성이가 되어 나온 아이는 손을 허우적거리며 파르르 떨었다. 의사가 탯줄을 잘라 동여맸다. 아이의 울음소리가 우렁찼다. 수민의 볼을 타고 눈물이 줄줄 흘러내렸다. 생애 가장 감격적인 순간일 테니 저절로 감정이 북받쳤을 것이다.

“이모님, 아기 손발은 정상이지요?”

“그럼, 갓난아기 손은 어쩔 이렇게 예쁠까. 신생아 손을 그렇게나 많이 봤는데 볼 때마다 신기하고 신비해.”

닥터 장이 미소를 흘리며 수민의 품에 생명체를 안겨줬다.

“아기를 꼭 안아 주세요. 엄마의 심장 소리를 들어야 아기가 뱃속인 줄 알고 마음을 놓아요.”

닥터 장은 한국에 뿌리를 둔 의사다. 오래 전 미국으로 건너와 의사가 됐는데 유쾌하고 친절해서 산모들이 좋아한다. 한국의 산모들에게 유독 다정한 걸 보면 고국이 그리워서 그런가 싶기도 하다. 닥터 장이 수민에게 안겨준 경이로운 생명은 손짓, 발짓으로 존재감을 드러내며 앙앙했다. 수민은 남편에게 아기의 울음소리를 들려줘야 한다면서 휴대전화를 찾았다.

“오빠, 지금 막 우리 아기랑 만났어. 응, 아기도 나도 모두 건강해. 아기 울음소리 들려? 얼마나 씩씩하게 우는지 몰라. 아기가 오빠랑 꼭 닮았어. 붕어빵이야, 붕어빵.”

간호사들이 아기의 몸무게, 머리둘레, 키를 재어 서류에 적고는 발바닥

도장을 찍었다. 아기에게 배냇저고리를 입히고, 얇은 포대기로 감싼 후 앙증맞은 모자까지 씌웠다. 간호사가 다시 아기를 산모에게 안겨줬다. 아기는 수민의 품에서 금세 잠이 들었다.

“아가, 나오느라고 힘들었지. 이제부터 엄마는 너를 위해 살 거야. 니가 원하는 것이라면 뭐든지 해줄 거야. 넌 건강하게 자라주기만 하면 돼.”

이제 마지막으로 산모의 뱃속에 남아 있는 태를 꺼내야 했다. 의사는 능숙한 손놀림으로 핏덩어리를 플라스틱 양동이에 쏟아냈다. 그리고는 아기가 방금 빠져나온 길을 꺾매려고 바늘을 집었다.

“이제 다 됐어요. 아이 낳느라고 수고 많이 했어요. 건강하게 잘 키우세요.”

닥터 장이 웰 컴 투 더 캘리포니아를 흥얼거리며 경쾌하게 걸어 나갔다. 생명이 탄생하는 순간이면 나는 언제라도 울컥했다. 수민의 출산은 한층 더 감격스러웠고 아울러 깊은 감회에 젖게 했다.

*

마가렛 꽃을 머리에 얹고 웨딩마치를 올린 날은 햇빛 찬란한 오월이었다. 명동성당에서의 결혼 미사는 지쳐가는 내 몸을 다시 기쁜 성령으로 일으켜 세웠다. 나를 더욱 벅차게 한 것은 신혼여행지에서 새 신랑 Y가 나를 위해 노래를 불러준 일이었다.

저 새벽이슬 내려 빛나는 언덕은
그대와 함께 언약 맺은 내 사랑의 고향.
참사랑의 언약 나 잊지 못하리.
사랑하는 애니로리 내 맘에 살겠네.

셋별 같은 그 눈동자 아름다운 얼굴.

이 세상의 아무것도 비할 수 없도다.
어여쁜 네 모양 다 잊지 못하리.
사랑하는 애니로리 길이길이 살겠네.

스코틀랜드의 존 스콧 부인인 작곡했다는 노래 〈애니로니〉였다. 누군가가 우리 가사를 붙였겠지만 나는 그 감미로운 노랫말을 Y의 고백으로 새겨 들었다. 내가 죽은 후에도 그 노랫말은 내 머릿속에 새겨져 있을 것이다.

“이 노래의 주인공은 실제 귀족의 딸이었어. 그녀는 사관생도와 사랑에 빠졌는데 결국 부모님의 반대로 다른 남자와 결혼해. 사관생도는 실연의 상처로 괴로워하다가 시를 썼대. 훗날 시에 곡이 붙여졌고. 크림전쟁 때 스코틀랜드 군인들이 이 노래에 취해서 더욱 유명해져 민요로 자리 잡았다는 이야기야.”

Y는 마치 달콤한 사탕을 빨아 먹듯 그 사연을 입안에서 굴리며 말꼬리를 이어갔다.

“산과 바위들이 변함없이 자리를 지키고 있는 것처럼 나도 당신 곁에 끝까지 남아 있을 거야.”

Y가 듬직한 산처럼 나를 품으며 굳게 약속했다. 그의 다짐에 힘을 실어 주듯 감미로운 봄바람이 얼굴을 감쌌고, 새들도 명랑하게 지저귀며 우리 주변을 맴돌았다. 그날의 공간과 시간, 그리고 그 속을 가득 채운 냄새, 소리, 바람, 빛깔 등을 내가 어찌 잊을 수 있을까. 그 추억은 세월이 흐를수록 선명해지는 태몽, 또는 내 신체의 일부 같은 거였다.

*

1971년 12월 25일 오전, 서울 충무로에 자리한 대연각 호텔에서 불길기 솟았다. 이층 커피숍 주방에서 프로판가스 폭발로 일어난 불은 동남풍을 타고

삼시간에 위층으로 솟구쳤다. 불은 겨울 강풍과 호흡을 맞추면서 보란 듯 몸집을 키웠다. 독성 가스와 화염, 열기로 가득한 실내에서 투숙객들은 대피 수단을 찾지 못했다. 크리스마스 아침에 일어난 화재 소식은 온종일 전파를 탔다. 모두 충격에 빠졌다. 불은 일곱 시간 만에 꺼졌다. 인명 피해나 재산 손실이 막대했다. 사망자는 166명이었고 Y도 그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출장을 가기 위해 탑승하려던 항공편이 하루 지연되는 바람에 항공사에서 제공한 숙소에 머문 것이 화근이었다. 아침 첫 비행기라 아무래도 호텔에서 이동하는 게 여러 모로 편리하겠다는 짐을 풀었는데 변을 당하고 만 것이다.

시아버지는 외아들의 사망을 불이 아닌 며느리 탓으로 돌렸다. 여자가 잘못 들어와서 집안에 참극이 벌어졌다며 노골적으로 감정을 드러냈다. ‘너는 며느리가 아니라 살인자다!’ 시아버지의 눈빛이 그랬다. 살인죄를 뒤집어쓴 나는 창살 없는 감옥에서 시름시름 앓았다. Y가 신혼 여행지에서 불러주던 〈애니로리〉가 아니었다면 나는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었을 것이다. Y의 숨결이 축축이 배어 있는 구슬픈 노래, 나를 죽이기도 살리기도 한 애니로리.

Y가 세상을 떠난 이듬해 나는 오랜 진통 끝에 아들을 낳았다. 난산이었다. 내 새끼라는 사실을 증명하듯 아이의 손목에는 파란 점이 돌아나 있었다. 작은 생명체가 꿈틀거릴 때마다 그 파란 점이 별빛처럼 반짝였다. 사람들의 몸에는 왜 점이 있을까. 저마다 감춰둔 사연, 또는 앞으로 펼쳐질 일들이 응축되어 까맣게 맺혀 있는 게 아닐까. 우리 아이는 어떤 사연을 안고 태어났을까. 나는 그 파란 점을 눈여겨보며 아이의 운명을 점쳐보곤 했다. 시부모는 자기 집안의 핏줄만 남기고 내가 사라져주길 바랐다. 그것이 영원불변의 진리라고 말하는 듯한 Y의 부모 앞에서 나는 병어리가 되어버렸다. 마음속에서 소용돌이치는 말들이 밖으로 나올 엄두를 내지 못하고 사그라졌다.

출산하고 아흐레가 지나서 나는 통통 부은 몸을 이끌고 미국행 비행기를 탔다. 나로서는 과거를 지우기 위한 최선의 선택이었다. Y가 그렇듯 갑자기 증발해 버린 후 나는 절망과 환상 속에서 허우적거렸다. 절망과 환상은

내게 출구를 보여주지 않았기에 스스로 생을 마감하고 싶었으나 결국 용기를 내지 못했다. 그렇다면 하루라도 빨리 삶의 스위치를 켜야 했다. 숨을 쉬려면 어쩔 수 없었다. 나는 결혼하기 전 간호사로 일했다. 만약 독신으로 살았더라면 그 길을 계속 걸었을 것이다. 한국에서의 간호사 경력을 인정받아 나는 미국에서 일자리를 얻었다. 병원에서 환자들을 돌보는 와중에도 갑자기 눈시울이 뜨거워지곤 했지만 꾀없이 견뎠다. 그렇게 버티는 나를 순식간에 무너뜨리는 게 있었다. 그건 바로 아기 손목에 새겨진 파란 점이였다. 아이의 팔뚝이 무슨 장식품처럼 내 머릿속에 놓여 있었는데 거기에 돌아난 파란 점은 도무지 흐려질 줄을 몰랐다. 의식적으로라도 지워보려 했지만 그건 내가 어떻게 해볼 수 있는 영역이 아니었다. 떠오르면 떠오르는 대로 뇌두는 게 상책이었다. 파란 점은 나로 하여금 욕망을 잠재우게 했다. 가고 싶은 곳, 또는 갖고 싶은 것이 생각나다가도 이내 사라졌다. 욕망이 줄어든 만큼 양보하고 배려하는 자리가 넓어졌다. 그 마음의 변화가 나를 그나마 지탱해준 것이다.

*

나는 로스엔젤리스에서 간호사로 일하며 경제적 기반을 다졌다. 미약하나마 일에 대한 보람이 있어 한결같이 자리를 지킨 것이다. 내게 물질과 안정을 안겨준 일터였으나 어느덧 중년에 접어들면서 회의감에 젖어들었다. 항상 웃는 낯으로 환자들을 대해야 하는 일이 어느 순간 부담스럽고 힘에 부쳤다. 갱년기라는 불청객도 간호사 생활에 종지부를 찍는 데 일조했다. 나는 병원에 사표를 낸 후 발 빠르게 움직였다. 언제부턴가 내 안에 차오른, 신생아만을 돌보고 싶은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였다. 어떤 식으로도 갇을 길이 없는 부채의식을 조금이나마 털어버려는 심산인지도 몰랐다. 결단과 정리는 신속하게 이루어졌다. 나는 로스엔젤리스 한인 타운에 일자리를

얻었다. 산후조리사였다.

미국에서 활동하는 산후조리사들의 주요 고객은 한국 산모들이다. 영국이나 남미, 홍콩 등에서 거주하는 한국인 산모들이 찾아오기도 한다. 산모는 출산 예정일이 두 달쯤 남았을 때 미국으로 들어온다. 산모와 산후조리사는 두 달 동안 함께 지내며 출산을 준비한다. 산모들은 출산하고 이십일이 지나면 미국에서 태어난 아기의 출생증명서와 미국여권을 가지고 각자 자기 나라를 향해 출국한다. 나는 원정출산업체와 손을 잡았다. 산모들은 그 업체를 통해 내게로 인도돼 내 집에 짐을 풀었다. 비록 작은 집이지만, 오랫동안 간호사로 일하며 차곡차곡 모은 돈으로 다운페이하고 은행 론을 보태 장만한 터라 나름대로 궁전처럼 우아하게 꾸며 산모를 맞았다. 물론, 한국에서 도의적으로 문제가 되는 원정출산 산모들을 대상으로 한다는 데 대한 죄의식이 없지는 않았지만 그건 내게 사치였다. 나는 고국의 신생아를 내 눈으로 보고 내 손으로 만지고 안아주고 싶었다. 나는 그들의 심신을 다독여주기 위해 친정집 같은 분위기를 연출했다. 내 진심어린 손길과 마음이 산모들의 입을 통해 퍼져서 업체의 연락이 잦은 것은 물론이고 이곳에 사는 한국인 출산자들도 산후조리원으로 알고 내 집을 찾아들었다. 산모들이 이젠 이목구비가 반들반들해진 아기를 안고 집으로 돌아갈 때까지 나는 친정엄마 같은 산후조리사로 최선을 다했다.

*

수민이가 우리 집, 그러니까 산후조리원에 머무는 동안 나는 각별한 손길로 수민을 돌봐줄 참이었다. 그리고 싶었다기보다 왠지 그래야 할 것 같았다. 그동안 산후조리사로 일하면서 여러 산모를 만났는데 필요 이상으로 수민에게 마음이 쏟렸다. 나처럼 한스러운 젊은 시절을 보냈거나, 의지가 지없는 고아 신세이거나, 도피를 목적으로 미국 땅을 밟은 것도 아닌데 마

음이 쓰였다. 내가 정말 수민의 친정엄마가 된 기분이었다. 수민을 위해 음식 솜씨를 발휘하고, 모유 수유를 시작했으니 젖이 잘 나오도록 마사지도 자주 해주고, 충분한 수면을 취하라고 밤에는 내가 아기를 데리고 잤다. 우리 집 창밖에는 푸릇푸릇한 대나무가 울타리처럼 모양을 이뤄 쪽쪽 뻗어 있었는데 수민이가 그 풍경을 좋아했다. 나는 그림 같은 풍경을 마음껏 즐기라고 햇빛 흔들리는 소리가 잘 들리는 위치에 폭신한 의자를 갖다 놔다. 나의 배려로 수민은 대나무 숲이 안겨주는 단아한 정취를 흠뻑 느끼는 눈치였다. 이런 애정 어린 관심은 산모가 지불한 돈만큼 편의를 제공해주는 서비스와는 거리가 멀다. 혹여 수민이가 심한 산후우울증으로 소리 없이 사라진다 해도 나는 그녀를 특별한 인연으로 머릿속에 담아둘 것이다.

늦은 나이에 아이를 낳았다는 공통점이 수민에게 무척대고 끌리게 하는 걸까. 그날 분만실에서 꼼짝 않고 수민을 지키다가 문득 나이를 헤아려 봤다. 수민과 나는 출산 나이가 비슷했다. 당시 결혼적령기를 훌쩍 넘겨 면사포를 쓴 터라 나는 서둘러 아이를 가졌다. 임신한 나이는 비슷했지만 우리의 처지는 확연히 달랐다. 남편이 없는 상태에서 출산했다는 공통점도 있다. 하지만 그 부재의 성격은 하늘과 땅 차이다. 수민은 풍요로운 삶을 위해 미국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고, 나는 쫓기듯 한국을 떠난 출발부터가 다르다. 생각해 보니 중요한 차이는 또 있다. 출산 후 미역국도 제대로 먹지 못한 여자와 정성껏 끓인 미역국을 맛있게 얻어먹은 여자. 그해 봄 나는 미역국은 커녕 아직 부기도 빠지지 않은 꼴로 고국을 등졌다. 귀한 핏줄을 안겨줬는데 미역국 한 그릇 대접 받지 못한 처지가 마냥 서글펐다. 나도 모르게 미역국을 의식하다 보니 입안이며 뺨속이 바싹바싹 마르는 것 같았다. 미역국만이 해결할 수 있는 갈증이었다. 지금처럼 편의점에서 즉석 미역국을 판매했다면 나는 아마 진열되어 있는 제품을 모조리 사서 먹었을 것이다. 산후조리사로 일하면서 나는 대리만족인지 뭔지 미역국 만큼은 최고의 맛을 냈다. 산모들이 미역국을 맛있게 먹는 모습을 보면 그 시절의 갈증

이 조금이나마 가시는 것 같았다. 수민에게 먹일 미역국은 더욱 공을 들였다. 수민을 과거의 나, 그러니까 아이를 낳자마자 버림받은 산모라고 여기며 정성을 다해 미역국을 끓인 것이다. 애뜻한 사연이 담긴 미역국이었으니 맛도 특별했을 터였다.

수민이의 몸을 빌려 세상 밖으로 나온 아기는 두 시간 간격으로 깨어 젖을 먹었다. 그건 나도 어쩔 수 없는 일어서 수민이가 잠을 설치야 했다. 그때 말고 아기는 거의 내 품에서 놀았다. 수민은 제 몸을 철저히 다스렸다. 귀국할 때까지는 자식인 너보다 엄마인 내 몸이 훨씬 중요하다고 온몸으로 말하는 것 같았다. 그런 무언의 당당함, 빈틈없는 육체 관리가 미쁘게 보였다. 수민은 젖몸살을 심하게 앓았다. 젖이 돌덩이처럼 딱딱하게 멍쳐져 별걸개 열이 났다. 산모의 고통이 깊어 손을 댈 수도 없었다.

“이모님, 저는 아기를 낳는 것보다 젖몸살이 훨씬 아파요. 아기가 젖을 빨려고 입을 대면 온몸에 전류가 흐르는 것 같거든요. 아니, 그보다 더 심한데 표현을 못하겠어요. 젖몸살을 생각하면 두 번 다시 아기를 낳기 싫어요.”

나는 물에 적당히 적서 따끈하게 데운 순면타월을 수민의 젖가슴에 대고 살살 동그라미를 그리듯 마사지를 해줬다. 양배추까지 동원해서 뜨겁고 딱딱한 젖몸우리를 풀어줬다. 젖몸살이 잠잠해지는가 싶더니 이번에는 이유 없이 특하면 눈물 바람이었다. 어찌나 서글프게 우는 지 나까지 덩달아 콧날이 시큰해졌다. 산후우울증은 아이를 내보낸 육체가 겪어야 하는 이별의 아픔과도 같았다. 핏덩이를 뒤로 한 채 미국에 동지를 튼 나는 스스로 끼니를 해결하지 않으면 당장 굶어죽을 판이라 산후우울증이라는 몸의 하소연을 들어줄 겨를이 없었다.

“이모님이 친정엄마 같아요. 우리 엄마보다 더 진짜 엄마 같아요.”

“아이고, 친정어머님이 들으시면 서운하시겠다. 그런 소릴 들으니 나야 눈물겹게 고맙지만.”

“사실 원정 출산을 결심했을 때 걱정을 많이 했거든요. 타국에서 아이를

낳는 건 두렵지 않은데 낯선 사람이랑 한집에서 지낼 일이 심란하더라고요. 그것도 두 달 썩이나 말이에요. 제가 워낙 낮가림이 심하거든요. 근데 이모님을 보는 순간 그런 걱정이 바로 녹아버린 거예요. 지금까지 살면서 그런 감정 처음이었어요.”

수민의 과분한 애정에 민망하기도, 또 고맙기도 해서 나는 그저 미소만 짓고 있었다. 나도 네가 단순한 산모, 그러니까 돈벌이 대상으로 여겨지지 않았다, 너에게서 젊은 시절의 나를 만났다, 내 아들이 결혼했으면 너 같은 아내가 있겠지, 너는 내 딸 같기도 며느리 같기도 하다… 이런 말을 들려주고 싶었지만 말을 아꼈다. 미국에서 몸보다는 마음의 한파를 견디며 이만한 살림을 꾸린 것이 다 참거나 삼킨 덕분이었다. 그 답답하고 어리석은 인고(忍苦)가 몸에 스며들어 나는 지금도 감정을 잘 드러내지 못한다. 그저 손짓이나 눈빛으로 상대에게 마음을 전할 뿐이다. 하지만 귀국한 후에도 이따금 소식을 전해달라는 부탁을 수민에게 하고 싶은데 그 말이 입 밖으로 나올지 모르겠다.

*

오늘 수민이는 기분이 좋은 모양이다. 내가 베란다 가까이 가져다 놓은 의자에 앉아 대나무 숲을 오랫동안 바라보고 있더니 콧노래를 부르며 마치 안주인처럼 집 안을 살피고 다닌다.

“아기 목욕 시키려고요? 오늘은 저랑 같이 해요.”

수민이가 나를 뻘뻘 쳐다보더니 옷소매를 걷는다. 나는 세면대를 말끔히 닦고서 그 위에 수건을 깔았다. 한쪽 손으로 아기의 귀를 움켜잡고, 다른 손으로는 배냇저고리를 벗긴다. 따스한 물로 머리를 감기고, 가제 손수건으로 얼굴을 꼼꼼히 닦는다. 아기는 어느새 나의 손에 길들여져 눈을 슬슬 감는다. 한 몸이 된 것 같은 아기와 나, 오래 전 싹만 틔웠지 활짝 피지 못

한 모성애가 몽글몽글 피어나는 순간이다. 하지만 나는 이내 울적해진다. 이제 아기의 왼팔을 봐야 하기 때문이다. 나는 처음 목욕시킬 때부터 아기가 추울까봐 배냇저고리를 다 벗기지 않았다. 오른쪽 배냇저고리 먼저 벗겨 씻기고 다시 왼쪽 배냇저고리를 벗겨 씻기는 식으로 춥지 않게 조심조심 다뤘다. 그렇게 목욕을 시키다가 어느 날 아기의 왼쪽 손목에서 파란 점을 발견했다. 순간 나는 목석이 되었다. 그 상징적인 무늬가 나를 순식간에 삼십 여 년 전으로 데리고 갔다. 누군가가 파란 점을 보여주면서 너는 죽을 때까지 쫓겨야 한다면 무형의 채찍을 휘두르는 것만 같았다. 어떤 드라마에서 보니까 아이는 엄마를 끝까지 찾아온다더니 이렇게라도 저를 기억하게 만들려고 그러나. 이제 왼쪽 배냇저고리를 벗겨 그 파란 점을 봐야 한다. 파란 점이 새싹처럼 돋아난 팔을 씻기지 않을 수도 없고… 나의 과거를 선명하게 재생시키는 파란 점… 나는 어쩔 수 없이 아이의 배냇저고리를 마저 벗겼다.

“저는 우리 아기 손목에 박힌 이 파란 점을 보면 신기하다 못해 신비스러워요. 손목의 점이 시대 유전이래요. 아기 아빠 손목에도 파란 점이 있거든요. 어떻게 이런 콩알만 한 점이 할아버지의 손목에도 아버지의 손목에도 아들의 손목에도 생겨날까요. 이 파란 점을 보고 있으면 어느 누구도 끊을 수 없는 단단한 핏줄이 느껴져요.”

내 마음속으로 묵직하고 습한 무언가가 툭 떨어진다. 동시에 내 몸이 휘청거린다.

“이모님, 오늘은 황태미역국이 먹고 싶어요. 귀국하면 이모님의 미역국을 못 먹을 텐데, 벌써부터 아쉬워요. 그렇게 맛있는 미역국은 앞으로 어디에서도 먹어보지 못할 거예요. 저의 남편도 이모님이 끓인 황태미역국을 먹어보면 훌쩍 반할 걸요? 아기를 낳고 보니까 자기를 열 달 동안 품고 있던 엄마의 얼굴도 이름도 모르는 남편이 더 안쓰러워요.”

*

사람들은 로스엔젤리스 하면 사막 위에 선 빌딩들을 떠올린다. 뜨겁고 강렬한 태양, 끝없이 이어진 팜추리와 바다는 덤이다. 이곳의 여름은 일찍 시작되고 오래 지속된다. 그 속에서 꽃봉오리가 터지듯 꾸준히 생명이 탄생한다. 내 아이를 태양만큼 열정적이고 바다처럼 즐기찬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 엄마들은 로스엔젤리스 하늘을 독수리처럼 날아다닌다. 그러는 사이 짧지만 겨울이 찾아온다. 꽃과 나무들은 기다렸다는 듯 퇴색하지만 이곳에 모인 사람들은 오히려 싱그러워진다. 자식을 위해서든 스스로를 위해서든 악착같이 견디며 살아가야 하기 때문이다. 이런 삶을 살기 위해 아메리카 대륙 곳곳, 세계 곳곳에서 무수한 사람들이 모여 들어 있다. 백인, 흑인, 황인종... 유럽계, 히스패닉, 중국계, 한국계, 베트남계... 스포츠 선수, 영화배우, 유학생, 관광객, 불법체류자, 노숙자, 원정 출산자... 이들은 긴 가뭄과 갑작스런 겨울비, 넘치는 사람과 광활한 자연, 빈곤과 풍요, "Goddam!"과 "Why not?"이 서로 공존하는 이곳에서 혼돈에 빠져든다. 나도 여전히 그 혼돈 속에 있다. 긴 여름과 짧은 겨울 속에서 새 생명의 울음소리가 메아리치고, 건조한 땅에서 평생 땀을 흘리다 꽃이나 바람이 되는 곳, 사람들은 이곳을 천사의 도시라 부른다.



홍명옥 본명 이영옥. 경희사이버대학교 졸업. 2002년 미주크리스찬문인협회 단편소설, 2012년 경희해의동포문학상 단편소설, 2017년 『문학나무』 신인상 단편소설 당선. 2023년 현재 미주한국소설가협회 회장, 한국디카시인협회 로스엔젤리스 지회장. 소설집 『어디에 있는 무엇을 원하든』(2018) 등.

특별기고

평론

김중희

한민족 디아스포라 문학의 선 자리와 갈 길

김중희(문학평론가, 한국디지털문인협회 회장)

1. 문학의 정체, 영혼의 숨겨진 보화

매일 아침 신문을 받아 들면, 거기에 늘 정치나 경제의 얘기가 표면에 떠올라 있고 문학은 보이지도 않는다. 한 주에 한 번, 그것도 저 깊은 내지 쪽에 잘 숨어 있는 것이 문학 기사다. 이를 바라보는 세상의 통념도 문학에 큰 비중을 두지 않는 현실을 대수롭지 않게 여긴다. 그렇게 문학은 우리 사회의 소수자에 해당한다.

그런데 이와는 생각이 다른 사람들이 있고, 알고 보면 그 숫자 또한 만만치 않다. 문학이 인간의 정신이나 영혼을 다루는 영역이므로, 매우 소중한 뿐만 아니라 우리 삶의 근본을 담당한다는 인식의 소유자들이다. 글을 쓰는 사람들, 문학을 사랑하지만 그것을 본령으로 삼고 있지 않는 사람들의 경우에도, 각기의 삶 속에 진귀한 보화처럼 문학을 숨겨두고 있는 사례가 많다.

기실 문학은 외형적으로 눈에 보이지 않는 상상의 세계를 바탕으로 축조된다. 그림자를 단순히 어둡다고 보지 않고 반사된 빛의 일종으로, 미래의 가능성에 대한 폐기를 인생에 대한 새로운 태도의 시발로 볼 수 있는 것이 문학이다. 이를테면 문학적 발상의 방식은 일상적 사고의 유형과 다르고, 또 달라야 문학적 창의력의 공간이 마련된다. 노드럽 프라이가 문학의 언어를 일상어 및 공용어와 구분하여 상상어라 언명한 것은 그 다른 방식의 언어를 지칭한다.

문학이 자유분방한 상상력의 텃밭에서 움트는 것인 만큼, 거기서 거두어 들일 수 있는 수확은 여러 모양으로 볼품이 있다. 자기만의 작고 단단한 서재를 가진 문학가는 셰익스피어나 괴테, 도스토옙스키 같은 세계사적 문호(文豪)들을 그 서재의 초대 손님으로 모실 수도 있고, 때로는 스스로의 글쓰기를 돕는 조력자로 거느릴 수도 있다. 그들의 작품을 읽거나 음미하는 도중에, 그리고 그렇게 습득한 문학적 정보를 스스로의 글쓰기에 원용하는 과정에 그러한 역사(役事)가 자연발생적으로 일어난다.

문학이 자유분방하다는 것은, 상상력을 발휘하는 문학 주체의 방종을 의미하지 않는다. 그것은 세계를 바라보고 가늠하는 문학의 다양한 시각, 동시대의 타자와 약자에 대한 정신적 온정주의, 더 나아가 길이 없는 곳에 새 길의 가능성을 예비하는 진보적 의식 등 다른 분야의 정신 활동으로 수행할 수 없는 문학만의 특징적 성격과 그 적용을 말한다. 이는 그 활동의 종류가 많다는 것과는 상관이 없으며, 시각이 다양하다는 것은 각자가 가진 관점이 독창적 방향성을 갖고 서로 다른 입지점 위에 설 때 비로소 형성되는 개념이다.

우리가 가장 먼저 경계해야 할 점은, 이처럼 분방하고 다양한 문학을 한 우리에게 가두려 하거나 하나의 통합적인 용어로 정돈하려는 시도다. 문학은 그것을 정의하는 용어의 수량만큼 다기한 의미 체계를 가진다. 상상력을 근간으로 문학을 설명하는 신화문화론과 사회사적 구조를 중심으로 문학에 접근하는 문학사회학은, 문학이라는 이름 아래에서는 하나의 공통분모를 보여주지만 그것이 실제의 읽기 또는 글쓰기에서 구현되는 각론에 이르면 전혀 다른 갈래로 전개되어 나간다.

문학은 늘 사소하고 무언가 모자라며, 수시로 갈팡질팡하거나 넉지시 도매금으로 넘어가려 할 때가 많다. 세상사 모든 데에 정확한 금을 놓아 셈하기를 원하는 이에게, 문학은 허황되고 못 믿을 품성을 지닌 자의 전유물이다. 그런데 어찌 하겠는가, 그 불확실성의 자식인 문학에 명운을 걸고 문학

으로부터 받은 소명에 일생을 투척하는 철부지들이 목전에 준비한 사태를 어찌 하겠는가 말이다.

뿐만 아니다. 가만히 귀 기울여 들어보면 그 문학의 눈 먼 주의주장이 세 상살이의 연륜이 깊어질수록, 각박하게 보낸 어려운 날들의 교훈이 은연중에 가슴을 압박할수록, 그다지 틀린 언사가 아니라는 속살거림이 자분자분하다. 그래서 문득 그간의 이로(理路) 정연한 쟁론을 던져버리고 문학 쪽에 손을 드는 이들이 발생하는 것이다.

그런 연유로 문학은 봄날처럼 젊은 날의 꿈이기보다는, 쓸쓸한 가을빛의 조명 아래 더욱 그 열매가 잘 영그는 운명적 존재양식에 입각해 있다. 그렇게 아프고 슬프고 외로운, 그러나 끝까지 판도라의 상자 맨 밑바닥에 남은 소망처럼 꺼지지 않는 불꽃이 곧 문학의 다른 이름이겠다. 여기에서는 문학의 이와 같은 근원적 의미를 전제하고서, 여러 문학의 유형 가운데서도 비극적이며 인도적 차원의 고찰이 필요한 디아스포라 문학에 접근하도록 하겠다.

2. 한민족 디아스포라 문학의 의미

정전 70년에 이른 남북한의 문학은, 그 시대 전체의 성격을 아울러 ‘분단 문학’이라 통칭할 수 있다. 동시에 남과 북으로 나누어지고 중국·중양아시아·일본·미국 등으로 분화 및 확산됨으로써, ‘한민족 디아스포라’의 형성을 노정하기에 이른다. 근자에 많이 쓰이는 디아스포라(diaspora)라는 용어는 그리스어에서 온 말로, 분산 또는 이산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다.

그 개념이 적용되는 원래 영역은 유대인의 역사 위에 놓여 있는데, 팔레스타인 외역(外域)에 살면서 동일한 종교 규범을 가진 유대인 및 그들의 거주지를 가리키는 말이었다. 이후의 역사 과정에 있어서 헬레니즘 시대와

초기 기독교 시대를 통해 그리스 근역(近域)과 로마를 중심으로 한 유대인의 이산을 지칭하는 것이 되었다. 이 어휘의 적용 범주와 성격은, 한민족의 역사·문화적 상황과 너무도 많이 닮아 있다.

근대 이후 일제의 침탈과 강점기 그리고 남북 분단을 거치면서 발생한 중국 및 중양아시아로의 집단 이주, 징병·징용과 관련된 일본으로의 이주, 궁핍한 생활 속에서 노동자 수출로 시작된 미주로의 이주 등은 명징한 디아스포라의 모형이다. 동시에 각기의 지역에서 우리말을 상용하고 우리말 문학을 생산하면서 확보한 민족공동체의 형성, 그로 인한 지역 내 이민족의 배타적 혐오감 또한 디아스포라적 삶의 유형이 갖는 공통된 특성에 해당한다.

필자는 한민족이 중국·중양아시아·일본, 그리고 북한과는 거리가 멀지만 한국과는 친연성이 큰 미국 등지에서 축적한 해외 동포 문학을 ‘한민족 문화권의 문학’이라 호명한다. 오늘날과 같은 글로벌 시대에 있어서 이 다양한 디아스포라 문학의 분포에 주목하는 것은 미상불 당연한 일이 아닐 수 없다.

남북한 관계의 지형도가 민족적 삶의 내면을 규정하는 상황에 있어서, 북한문학과 연동된 한민족 디아스포라 문학의 경과와 추이를 고찰하는 일은 그래서 뜻이 깊다. 뿐만 아니라 서로 다른 문화권 내에 기식하고 있으면서도 독자적 문화의 성향을 유지하고 있는 경계의 문학은, 그 입지점을 활용하기에 따라 만만찮은 문화적 효용성을 발양할 수도 있다.

3. 중국·중양아시아의 한민족 문학

중국으로 한민족이 대거 이주하기 시작한 것은 19세기 후반부터이고, 1910년 한일합방 이후 일제의 수탈로 인해 만주 등 접경지역으로의 이주

는 더욱 가속화 되었다. '조선족'이란 이름으로 중국 내부의 소수민족 가운데 하나가 된 이들은, 20세기 이후부터 문학활동을 전개하였다.

1930년대 조선족은 중국 공산당과 더불어 항일 무장 투쟁을 벌였고, 문학 동인 단체인 '북향회'를 발족하고 《북향》이라는 문예지를 발간하기 시작하였다. 그 문학운동의 중심에 『북간도』를 쓴 안수길이 있었고 향토 문인으로 작가 김창걸과 시인 리옥 등이 나왔다. 이 무렵 중국으로 건너간 강경애가 거기서 작품을 썼고, 최서해는 거기서 얻은 체험을 국내로 돌아와 작품화했다.

중국 조선족 문학을 대표할만한 작가로 꼽히는 『격정시대』의 김학철은, 항일 투사였던 그의 자전적 기록을 소설에 담았고 그와 같은 작품의 내용은 한민족 디아스포라 문학의 한 전형이 되었다. 현재 수많은 한글 문학이 창작되고 있는 중국 동북3성의 조선족 거주민은 200만 명을 넘는다.

구소련 지역으로 한민족이 이주해 간 역사 시기도 중국의 경우와 비슷하여, 1860년대를 시작으로 160년에 이른다. 제정 러시아와 소련, 독립국가 연합이라는 그 지역 역사의 격변기와 1937년부터 중앙아시아로의 강제 이주를 거치면서 이민족과의 동화는 생존을 위한 선택이었을 것이다. 그런데도 지금까지 한글 신문이 간행되고 있는 것은 민족 정체성을 잃지 않으려는 눈물겨운 노력의 소산이라 할 것이다.

이주 후 '고려인' 집단을 형성한 이들이 한글 신문 《선봉》의 문예란을 통해 작품을 발표하기 시작한 것은 1920년대 초반이었다. 프로문학에 『낙동강』 등의 작품으로 일찍이 이름을 높였으며, 소설보다 더 비극적인 삶을 산 조명희가 그 문단 형성의 모태요 중심이었다. 그는 1928년 일제의 탄압을 피해 동경하던 소련으로 망명했으며 연해주에서 《선봉》을 창간하고 대작 『만주의 빨치산』 등을 썼다. 1938년 일본 간첩이라는 혐의를 받고 처형되기까지 많은 제자에게 문필을 가르쳤다.

북한 정권 수립에 일조하고 문화선전성 제1부상을 지냈으나 결국에는 축

출되어 말년을 카자흐스탄 알마티에서 보낸 정상진은 정률이란 필명을 가진 문학평론가요 문필가였다. '북한이 버린 천재 작곡가'란 호칭을 가진 정추는 월북하여 평양음대 교수를 지냈으며 모스크바 유학 중 다시 소련으로 망명했다. 그는 여러 차례 살해 위험을 넘기며 지난 6월까지 카자흐스탄 음악계의 거장으로 살았다.

역시 모스크바 유학생으로 탈북한 양원식은 알마티 《고려일보》 주필을 지내며 시를 썼는데, 2006년 원인 모를 피습으로 사망했다. 알마티에는 이들 외에도 한진, 리진, 연성용, 라브렌티 송 등 그 지역에서 소중하게 인정받는 문인들이 많다. 소련 국적 고려인으로 세계적인 명성을 얻은 작가는 우화소설 『켄타우로스 마을』, 『다람쥐』 등을 쓴 아니톨리 김이다. 『해바라기 꽃잎 바람에 날리다』의 작가 미하일 박도 널리 알려져 있다. 이제 후대 5·6세에까지 이른 이 고려인 사회는 그 인구가 50만 명을 넘었다.

중국은 현재 북한에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치는 나라이며, 중앙아시아는 과거 구소련 지역으로 오랜 기간 동안 북한을 배후조정 하던 경력을 가진 곳에 속해 있었다. 그 영향력의 강도는 옛날과 지금이 다를 수 있으나, 그래도 지구상에서 북한에 대해 발언권을 갖고 있고 그것을 통해 어떤 변화를 이끌어 내는 데는 매우 유효한 정치 공동체에 해당한다.

문학을 통해 남북한 또는 한민족 디아스포라의 소통을 시도한다면, 이 지역의 한글 문학과 창의적이고 다양한 교류 및 협력을 염두에 두는 것이 옳겠다. 특히 중국의 경우에는 조선족 사회의 존재를 자랑하고 있으나, 중앙아시아 지역은 한글 문학이 점차 위축되고 있음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

4. 일본·미국으로 확장된 민족 문화

중국과 중앙아시아의 경우는 국경이 연결해 있고 역사적 삶의 수난 속에

서 육로를 통한 이주가 가능한 지역이었다. 그러나 일본과 미국으로 확장된 디아스포라는 이와는 성격이 다르다. 일본으로 가자면 현해탄을 건너야 하고 미국으로 가자면 태평양을 건너야 한다. 지금에 와서는 그것이 순식간의 일이지만 근대 이전에는 참으로 지난한 교통수단에 의지해야 했고, 그 탑승의 전제에 나라의 국권을 잃고 궁핍한 시대의 억압에 구속당한 민초들의 삶이 입립(林立)해 있었다.

어느 나라 어느 지역을 막론하고, 디아스포라적 삶의 양식은 그렇게 곤고한 형용을 가진 것이다. 특히 일제강점기와 해방 및 분단이라는 한민족의 특수한 상황은, 근대 이후에 일본에 거주하게 된 재일 조선인의 디아스포라적 정체성을 확정하는 데 주요한 동인(動因)이 된다. 해방 이전 장혁주와 김사량의 문학 활동을 본격적인 재일 조선인 문학의 시작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이며, 해방을 전후하여 등장한 김달수와 이은직 등이 그 뒤를 이어간다.

김달수와 더불어 대표적인 제1세대 작가로 꼽히는 작가가 김석범이다. 그는 1925년 일본 오사카에서 태어났으나 부모의 고향인 제주도를 자신의 고향으로 삼고, 조국을 대변하는 상징적 존재로서의 제주도 문제와 4·3 사건에 끊임없이 천착한다. 그의 대표작 『화산도』는 그러한 인식과 노력의 소산이다.

일본이 경제적으로 위력을 보이던 1960년대 후반에 제2세대 작가들이 나타나, 민족적 정체성과 재일의 현실성 사이에서 갈등하는 문학적 외연을 노정한다. 이회성과 김학영으로 대표되는 이들은, 일본에서 출생하고 성장한 탓에 한국어가 거의 불가능하거나 아니면 이를 후천적으로 습득한 세대다.

그 뒤를 이어 이양지와 이기승 같은 새로운 세대의 얼굴이 보이고 다시 유미리와 가네시로 가즈키 등의 제3세대 작가군으로 넘어간다. 이들은 아쿠다카와 상을 비롯한 유력한 상의 수상자나 후보로 두각을 나타내는 등

일본 주류 문단에서 그 성과(聲價)를 인정 받으면서, 거의 모두가 자신의 이중적 신분을 넘어 실존적 자아 확립으로 나가는 길을 고민했다.

여기서 언급하고 살펴본 문인들은 일본 주류 문단에서 스스로의 이름을 거양하고 문학적 성과를 인정받은 사례에 해당한다. 그러나 한글로 된 재일 조선인 문학의 절대 다수는 조총련계를 중심으로 한 ‘문학예술가동맹’에서 생산했다. 이는 분명한 실체를 가진 사실이므로 무턱대고 외면할 수 없는 문제다. 이들의 문학을 한민족 문학사의 한 각론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앞으로의 과제 중 하나가 될 것이다. 그 배면에 100만 명에 달하는 재일 조선인 디아스포라가 자리하고 있기 때문이다.

재미 한인의 세대적인 구분은 한국에서 태어나 청장년기에 미국으로 이주한 이민 1세대와 어린 시절에 부모를 따라간 1.5세대, 그리고 미국에서 태어나고 성장한 2세대 이후로 구성된다. 국권 상실기에 이루어진 초기 이민이 비교적 타율적인 것이었다면, 해방 또는 전쟁 이후에 이루어진 이주는 주로 경제적·사회적 상승 욕구에 의한 자율성을 가지고 있었다.

이들이 사용하는 이중 언어의 현실에 있어서도, 대체로 세대의 구분에 따라 제1언어를 모국어로 하느냐 현지어로 하느냐의 기준이 달라진다. 자연히 창작 활동에 있어서도 1세대는 한국어를, 1.5세대 이후는 영어를 중심 언어로 한다. 조국의 해방 이후, 이민 1세대가 주축이 된 재미 한인들은 문학단체를 조직하여 한국어로 작품 활동을 하며 동포로서의 결속을 다졌고 이방 생활의 애환을 함께 나누었다.

오늘날까지 이어져 오는 《미주문학》, 《뉴욕문학》, 《워싱턴문학》 등의 문예지는 바로 그러한 노력의 결과다. 한편 1.5세대와 2세대 및 3세대의 문인들은 특정한 문학단체에 소속하기보다는 개별적인 작품 활동에 주력하였으며, 비록 부모의 나라와 의식적으로 절연하려 시도해도 결국은 그것이 무망하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했다.

그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원형질의 뿌리와도 같은 것이었다. 중요한 것은

8만 리 태평양 너머 미국에서의 새로운 세대, 미국에서 성장하고 미국식 교육을 받았으며 미국문화에 익숙해 있지만 이들이 영어로 쓴 한국에 관한 이야기, 1세대의 한글 창작에 비해 훨씬 더 큰 파급효과를 미국 사회에 미칠 수 있었다는 사실이다.

1세대 이후 김용익·김은국·차학경·노라 옥자 켈러·이창래·수잔 최·캐시 송 등으로 연면히 이어지는 이들 문학적 계보의 이름은 그래서 더욱 소중하다. 그리고 이들의 뒷그림자로 200만 명이 넘는 재미 한인 디아스포라의 세계가 펼쳐져 있는 것이다. 이들의 문학이 한민족 문학사의 뒷받침에 핀 귀한 꽃무리라면, 이들을 잘 가꾸고 또 그 전통을 이어가도록 할 책임은 ‘한국문학’에 있다 할 터이다.

5. 미국 현지어 문학의 민족 정체성

5-1. 확장된 보편성의 민족의식 - 김은국의 『순교자』

김은국의 『순교자(The Martyred)』는 1964년 영문으로 발표되었고, 미국과 한국은 물론 몇몇의 다른 언어로 번역되어 세계 각국에서 높은 평가를 받은 작품이다. 한글 번역은 세 차례에 걸쳐 이루어졌으며, 1964년 장왕록이 삼중당에서, 1978년 도정일이 시사영어사에서, 그리고 1990년 작가 자신이 을유문화사에서 번역 출판하였다. 작가는 자신의 뜻이 정확하게 전달된 한국판 정본이 갖고 싶어 ‘우리말 결정판’을 내고자 했다고 밝혔다.

이 소설은 한국전쟁을 배경으로 신과 인간, 인간과 인간 사이의 갈등과 고뇌를 깊이 있게 매설하면서, 진정한 인간 구원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진지하게 성찰한 작품이다. 진실을 밝혔을 때 그 결과에 대한 대가의 지불이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진실 그 자체를 밝히는 데 무게를 두어야 한다는 이

대위, 그리고 비록 신의 뜻과 배치되어 보이나 할지라도 현실적 고통의 극점에 있는 인간을 먼저 구원하는 것이 오히려 신의 뜻이라는 신 목사의 주장은, 종교적 인간 구원의 근본에 대해 서로 다른 방향성을 갖고 충돌한다.

5-2. 해체된 형식 속의 민족의식 - 차학경의 『딕테』

차학경의 『딕테(Dictee)』는 1982년, 작가의 다른 작품 『아파라투스』와 함께 뉴욕에서 출간되었고 미처 이 작품이 유명해지기도 전에 작가가 피살당함으로써 많은 안타까움을 남겼다. 『딕테』는 미국 주류문학에서도 보기 드문 강렬한 형식실험을 보여준 작품이며, 그 성과를 인정받아 버클리대에서 소수민족 관련 강의 교재로 쓰였다. <휘트니 미술관>은 1993년과 1995년 두 차례에 걸쳐 차학경 회고전을 열어 그 작품세계를 기렸고 버클리대는 학교 박물관에 작가의 모든 유물과 작품을 소장하고 있다.

우리말로 ‘받아쓰기’란 의미의 표제어를 가진 이 작품의 작가 차학경은, 미국 이민 1.5세대 다. 미국 소수민족 계열의 작가들이 대부분 그러하듯이, 미국문화에 적응해가는 이민자의 삶을 다루고 있으며 작품 가운데는 작가의 자전적인 요소가 많이 드러난다. 기술 언어에 있어서도 영어와 불어를 혼용하고 있고 형식상으로는 포스트모던한 기법을 도입함으로써 동시대의 미국문학과는 전혀 다른 분위기를 보여준다. 요컨대 이 작품은 소설도 시도 수필도 아닌 탈장르 또는 융합 장르의 문학이며, 이해할 수 없을 것 같은, 모든 가능한 설명을 넘어설 것 같은 텍스트다.

5-3. 자기 갱신과 극복의 민족의식 - 노라 옥자 켈러의 『중군위안부』

노라 옥자 켈러의 『중군위안부(Comfort Woman)』는 1977년 미국 펭귄 북출판사에서 간행되었고, 한국어판은 20년 후인 1997년 박은미 번역으

로 밀알출판사에서 간행되었다. ‘중군위안부’란 번역 용어 자체에 대해서는 적지 않은 논란이 있으며, ‘중군’이라는 어휘가 지시하는 자발성 문제, 그리고 ‘위안부’라는 어휘가 상기하는 완곡어법 문제 등이 구체적으로 지적되어 왔다. 이는 자칫 비인도적이고 비극적인 역사적 사실의 호도나 은폐의 혐의가 있을 수 있다는 인식에 근거한다. 그만큼 이 주제는 근대사의 어두운 과거를 절실하게 반영하고 있는 상황에 있다.

작가 노라 옥자 켈러는 한국인 어머니와 독일계 미국인 아버지 사이에서 태어난 혼혈아이며, 유아였던 3세 때 미국으로 이주한 1.5세대로 하와이대학과 캘리포니아주립대학(UCSC)에서 수학했다. 이후 대학에서 미국 문학을 강의하며 작가로 활동해왔으며, 그 작품세계는 이민 생활을 시작하면서 겪는 1세대들의 삶에 대한 관찰과 자신의 이민 후계 세대로서의 기억 및 체험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더욱이 이 작품은 역시 이민자이면서 과거 중군위안부였던 황금주 할머니의 실제 경험을 원용하여 썼다는 점에서, 제2차 세계대전을 전후한 한민족의 민족의식을 밀도 있게 반영한 경우다.

5-4. 정체성의 자각과 극복의 의지 - 이창래의 『네이티브 스피커』

이창래의 『네이티브 스피커』는 1995년에 발표되어 미국 언론의 큰 주목을 받으며 PEN 상, 헤밍웨이 상, 아메리칸북 상 등 미국 문단의 6개 주요 문학상을 수상했다. 국내 언론도 이와 같은 상황을 대대적으로 보도했고 뒤이어 번역도 이루어졌다. 이 소설은 재미교포 2세인 사립 탐정 헨리 박, 박병호라는 인물이 다른 교포 존 황이라는 인물을 추적하면서 자신의 민족 정체성을 확립해가는 즐거리를 담고 있다. 헨리는 미국 이민자 2세 거의 모두가 그러한 것처럼 영어를 모국어로 생각하고 모국어로 구사하기 위해 애쓰지만, 끝내 원어민 발음자의 사고 체계를 보유할 수 없음을 자각하는 과정을 그린다.

헨리가 추적하는 존 황은 성공한 이민자의 후세, 이민 사회에서 성공한 한국인의 표본에 해당하는 인물이다. 헨리는 황을 존경의 대상으로 바라보고 자신을 그에 동일시하려 시도하면서 그로부터 한국인의 민족 정체성을 탐색한다. 소설의 중국에 황은 헨리에 의해 몰락하고 헨리는 별거 중이던 미국인 아내와 다시 결합한다. 민족 정체성의 자각과 미국 사회현실의 동화 의지가 동시에 작동하고 있는 소설이다. 이와 함께 백인 중심의 사회에서 소수민족의 일원으로 겪어야 하는 의식의 혼란, 이중언어 사용자가 당면할 수밖에 없는 문화적 갈등 등이 함께 표출된다.

5-5. 전쟁·사랑을 통한 정체성 회복 - 수잔 최의 『외국인 학생』

수잔 최의 『외국인 학생』은 1998년에 발표되었으며, 같은 해 《LA타임즈》에 의해 토니 모리슨 등의 작품과 함께 ‘미국에서 가장 좋은 소설 베스트 10’에 선정되었고 국내에는 이듬해 번역 출간되었다. 이 소설은 창이라는 한국인 유학생의 미국 생활을 표면에 두고 그의 의식을 통해 과거와 현재를 넘나드는 구조로 이루어져 있다. 이러한 과정을 거치면서 재미 한인 2세대의 민족 정체성 혼란과 그에 대한 탐구, 그리고 그것을 넘어 인종 간 화해의 길로 나아가는 인물 유형을 보여주는 작품이다. 미국 유학생 창은 한국전쟁을 겪으며 남북이 아닌 제3의 세계 미국을 선택하지만, 그곳에서도 이방인의 불행한 삶을 벗어나지 못한다.

이 작가가 창의 궁벽한 현실 가운데 새롭게 매설하고 있는 탈출의 길은 캐더린이란 여자와의 사랑이다. 캐더린은 불륜으로 인해 미국 사회에서 소외되어 있는 인물이며, 이처럼 소외의식에 침윤한 양자가 함께 조합함으로써 독자적인 길, 곧 창의 정체성 회복 및 극복의 방안을 찾아 나가는 이야기의 방향성을 보여준다. 그러므로 이때의 사랑은 창이 미국 사회에 동화되는 것을 말하지 않으며, 그 나름대로 이민 2세대의 민족 정체성 문제에

대해 창의적 해법을 제기하는 모티프로 작용한다. 창은 여전히 두 문화가 접촉하는 회색지대에 중간자의 존재로서 있다.

5-6. '두 개의 나'와 정체성의 충격 노출 - 이민진의 『백만장자를 위한 공짜 음식』

이민진의 『백만장자를 위한 공짜 음식』은 두꺼운 단행본 두 권 분량의 장편소설이며, 2007년에 출간되었고 이듬해인 2008년 한국에서 번역되었다. 미상불 이 작품은 그 제목부터 의미심장하다. 삶의 본질적 의미가 그 바탕에서부터 내부 충돌을 일으키는 미국 이민자 1.5세대의 정황을 매우 효율적으로 드러내주기 때문이다. 이 소설을 쓴 작가 이민진이 그와 같은 상황에 당착해 있고, 소설 속의 중심인물 '케이시 한'이 작가의 현실적 상황을 상당 부분 작품 가운데로 수평 이동시키고 있다.

작가의 의식과 행위의 방식을 비교적 충실하게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작중인물 케이시 한은 컬럼비아대학 로스쿨의 입학허가를 받아 장차 변호사로서의 부와 명성이 보장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맨해튼에서 세탁소를 운영하는 고달픈 가정의 딸이다. 대학의 후원 장학금 없이 사회에 나간 그녀가 설 자리는 남아 있지 않다. 아버지 조셉에게 반항하면서 얼굴에 매를 맞고 집을 나간 케이시 한의 실타래처럼 얽힌 생각과 엉겨주춤하기 이를 데 없는 행동 양식을 통해, 작가는 자신의 체험이 투영된 한인 1.5세대의 혼란스러운 정체성을 하나씩 보여준다.

6. 문학 6자회담과 새로운 가능성

이 글에서는 이제까지 문학이 가진 내면적 지향과 성찰의 특성을 전제로

하여, 해외 한민족 디아스포라 문학과 미국에서의 현지어 문학 작품을 살펴보고 있다. 이와 더불어, 그리고 시각의 방향을 좀 바꾸어 남북한 문학, 남북 월북 문인 문제 등을 디아스포라적 차원에서 검토할 때, 다시 강조해서 언급해야 할 중요한 과제가 있다.

앞서 중국·중앙아시아의 한글 문학과 관련해서 살펴본바, 이 한민족 문화권의 논리와 그 의미망 가운데로 해방 이래 한국문학과 궤(軌)를 달리해 올 수밖에 없었던 북한문학을 초치하는 일이다. 실제적이고 물리적인 남북 관계에 있어서도 그렇지만, 북한문학에 대결 구도의 인식으로 접근해서는 접점이나 문화통합의 전망을 마련하기 어렵다.

그렇다면 어떤 방안이 있을까? 지금껏 우리가 논의한 한민족 문화권의 개념을 원용할 수 있겠다. 이는 남북한 문학을 포함하여 재중국 조선족 문학, 재중앙아시아 고려인 문학, 재일 조선인 문학, 재미 한인 문학 등 재외 한국문학의 전체적인 구도 속에서 남북한 문학의 지위를 자리매김 해 나가자는 논리다. 그리하여 남북한 문학이 무리 없이 만나고 대외적 확산을 도모하며 통일 이후에 개화(開化)할 새로운 민족문학의 장래를 예비하자는 것이다.

이는 한반도를 둘러싼 비핵화 논쟁의 논의 당사국들이 벌이는 6자회담을, 문학의 이름으로 옮겨놓은 것과 그 구도가 꼭 같다. '사람'이 있는 곳에 '힘'의 충돌이 있었기 때문이다. 필자는 6자회담이란 정치적 이슈가 등장하기 전부터 남북한과 네 지역의 디아스포라 문학을 합하여 '2+4시스템'으로 불러왔다.

이 길이야말로 남북한 문학, 더 넓게는 한민족 디아스포라 문학의 소통과 교류를 내다보는 새 통로이며, 정치나 국토의 통합에 우선하는 문화통합의 추동력이 될 수 있다고 본다. 모든 일의 첫 걸음은 하나의 작은 아이디어이며, 그것을 소홀히 하지 않을 때 약속되는 미래가 예상보다 훨씬 더 창대할 수도 있다.

이와 더불어 한국문학의 범위를 어디까지로 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에 있어서도 보다 유연하고 확장된 인식이 필요하다고 본다. 디아스포라 문학이 재외 한국문학인 만큼, 그 '재외'라는 어휘가 표방하는 바와 같이 문학의 창작이 이루어지는 강역(疆域)에 대한 규정이 요구되는 것이 현실이다.

그래서 과거에는 한국 내에서 산출된 문학이 아니면 한국문학이 아니라는, 매우 경직된 '속지주의(屬地主義)'의 생각이 정설로 되어 있었다. 해외 동포의 숫자가 700만 명을 넘고, 이 가운데 한국 국적을 가진 이에게는 선거권이 주어지는 실정이고 보면, 이제 속지주의를 주장할 수 있는 근거는 점차 빛을 잃고 있다.

동시에 디아스포라 문학의 창작자가 누구냐, 어느 나라 국적이냐를 분별하는 창작주체의 문제가 있으며, 이를 '속인주의(屬人主義)'라 호명하는데 이 또한 앞의 기준과 동일한 형편에 있다. 마찬가지로 그 창작에 소용된 언어가 무엇이나, 모국어이나 아니냐를 분별하는 '속문주의(屬文主義)' 또한 사정이 마찬가지이다.

한국인이라는 법적 지위와 한국어라는 모국어에의 국한은, 기실 '소탐대실(小貪大失)'의 형국을 초래할 수밖에 없도록 국제적 환경이 변하고 있음을 직시해야 한다. 더 나아가서는 작품의 중심 주제가 무엇이나, 그 작품을 읽는 수용 층이 누구냐 같은 부대적인 문제까지 제기될 수 있다.

중요한 것은 이와 같은 외형적 구분에 얽매이지 않고 보다 포괄적이며 활달하게 펼쳐지는 문학적 시야가 필요하다는 점이다. 각기의 영역에 한국문학으로서의 자격이 있느냐 없느냐를 따지는 '가부'의 판단이 아니라, 각기의 영역에 한국문학적 요소가 얼마나 포함되어 있는가를 따지는 '정도'의 측정에 방점이 주어져야 한다는 뜻이다.

한민족 디아스포라 문학에 대한 열린 시각의 접근과 가치 평가를 수행하는 일은, 이제는 결코 강 건너 불 보듯 할 수 없는 지점까지 와 있다. '지구마을'이라는 표현이 전혀 생소하지 않은 만큼, 오늘날의 인류 사회는 서로

다른 삶의 범주와 언어의 변별을 넘어 그 공동체적 연대가 지근거리로 좁혀지는 체험을 쌓아간다.

사정이 그러하다면, 세계 각지에 산포되어 있는 한민족 디아스포라 문학을 '민족 문화' 또는 '민족 정체성'이라는 개념을 연결고리로 하여 하나의 께미로 연계하는 일의 이해 및 공유가 우리의 면전에 있다. 그것은 곧 디아스포라 문학의 미래지향적 가능성이요, 다음 세대로 이첩되어 가야 할 중차대한 과제라 하지 않을 수 없다.



김중희 경남 고성 출생, 경희대학교 국어국문학과, 석박사 졸업. 경희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교수 재직. 1988년 『문학사상』 신인상 평론 당선. 이병주기념사업회 공동대표, 한국디카시인협회 회장. 김환태평론문학상, 김달진문학상, 편운문학상, 유심작품상 등 수상. 평론집 『문학과 예술혼』, 『문학의 거울과 저울』, 『영혼의 숨겨진 보화』, 『한민족 디아스포라 문학』 등. 현재 황순원문학촌 소나무마을 촌장, 중국 연변대 석좌교수.

미주한국소설가협회

미주한국소설가협회는 미국, 캐나다 등에서 활동하고 있는 한인작가들의 모임이다. 1998년 LA에서 결성해 현재 60여 작가들이 함께 하고 있다. 정기적으로 『미주 한국소설』을 발간해 2024년 제14호를 낸다. 한국문인협회, 국제펜한국본부, 한국소설가협회 등과 긴밀히 협조해 모국의 문단과 함께하고 있다.

임원진

회장 **홍영옥**

부회장 **백해철**

감사 **연규호**

회원 명단 및 이메일 주소(2024.6.30. 현재)

LA 지역

- 강금순 : hyo5522@hanmail.net
- 김명선 : jenk6419@gmail.com
- 김상분 : sangboonkim@yahoo.com
- 김영강 : kaykim1211@gmail.com
- 김인자 : kiminja41@gmail.com
- 김일형 : edwardk@gmail.com
- 김일홍 : ilhongkim71430@gmail.com
- 김태영 : taeyoung4802@gmail.com
- 김영희 : younghee323@hotmail.com

- 김줄리 : joo1165@yahoo.com
- 민원식 : minwons35@gmail.com
- 민유자 : yujaster@yahoo.com
- 박계상 : kesangpark@gmail.com
- 박하영 : elenapark3@gmail.com
- 박장복 : johnpark12@gmail.com
- 박휘원 : jshp12014@gmail.com
- 백남규 : nampeak@gmail.com
- 백해철 : haecheolbaek@gmail.com
- 손예숙 : yesookahn@gmail.com
- 신영철 : a1825@naver.com
- 연규호 : kyuhoyun@gmail.com
- 윤금숙 : yoonkumsook@gmail.com
- 윤명도 : myungdoyoon@msn.com
- 이건숙 : gunsook08@gmail.com
- 이성렬 : lapoetsungyi@hotmail.com
- 이연호 : leeonho@hotmail.com
- 이용우 : novelyonglee@hanmail.net
- 이윤홍 : bruhong@gmail.com
- 이선하 : sunha4817@gmail.com
- 장소현 : sochangusa@gmail.com
- 전상미 : sangmee415@yahoo.com
- 전준성 : jchun6784@gmail.com
- 정해정 : hejungla@hanmail.net
- 제봉주 : bongjuje@gmail.com

홍승주 : hong1010617@hanmail.net

홍영순 : 18388 mount stewart cir. Fountain Valley

홍영옥 : esk002@hanmail.net

(이상 정회원)

고선길 : 213.321.9268

조성환 : duccube@hanmail.net

이주희 : po box 3168 Beaumont, CA 92223

권소희 : soheekwon@hotmail.com

박경숙 : pksook@naver.com

성민희 : janelyu36@gmail.com

최유혜 : yuhea09@gmail.com

조정희 : chowo43@gmail.com

오사무엘 : ohoksan88@gmail.com

김보경 : bokim137@gmail.com

남철 : nam17chu137@gmail.com

이동휘 : dongle@cyberpacific.com

박은주 : minarico@yahoo.com

시카고 지역

정종진 : eric_jeong@hotmail.com

박봉금 : bongkumpak@hotmail.com

신정순 : jeongsoonlee@gmail.com

배효석 : ginasa@hanmail.net

박종진 : parkjjsa@gmail.com

주숙녀 : sooknyujoo@yahoo.com

텍사스, 달라스, 엘파소 지역

카치용희 : rjyonghi@hotmail.com

박혜자 : hyejapak@gmail.com

박인애 : nadainae@naver.com

임영록 : arceco@hotmail.com

시애틀 지역

이매자 : maijadevine@gmail.com

이보라 : enjoyusa@naver.com

뉴욕, 뉴저지 지역

김형규 : hyungkyu2@hanmail.net

임혜기 : haeky33@yahoo.com

홍남표 : nampyohong@hotmail.com

정은실 : chungunsil@gmail.com

한영국 : littlesongforu@yahoo.com

필라델피아 지역

조순자 : redhen45@gmail.com

이산해 : notebookswriter@gmail.com

박숙자 : sukzah@yahoo.com

송성호 : 4282 Candletick Montclair VA, 22026

최영숙 : youngsookbang@gmail.com

유타 지역

이월란 : adelalee1228@naver.com

하와이 지역

김수자 : intledec@yahoo.com

아리조나 지역

이여근 : dennis45.lhee@gmail.com

플로리다 지역

한혜영 : ashleyh@hanmail.net

캐나다 지역

강기영 : kykang44@hotmail.com

김외숙 : jean53@hanmail.net

박은숙 : wkyla01@gmail.com

이준호 : runner.kcwa@gmail.com

신순호 : samsmam8008@daum.net

호주 시드니 지역

테리사 리 : kuysoonlee@gmail.com

2nd Generation(2세대)

이혜리 : Reese Kwon

『미주한국소설』 제15호에 수록할 회원 여러분의 작품을 기다립니다. 또한 회원 여러분의 수상, 출간 등 근황을 들려주시기 바랍니다. 미주에서 소설가로 등단한 작가분의 회원 가입도 적극 환영합니다

■ 원고 마감 : 2025년 1월 31일

■ 보낼 곳 : 흥영옥 koamnovelist@gmail.com

백해철 haecheolbaek@gmail.com

회원 소식

- 박은숙 회원이 2023년 재외동포문학상 단편소설 부문(「바다로 가는 길」)에 가장 입상했습니다.
- 성민희 회원이 단편소설 「운정」으로 한국소설가협회에 발행하는 『한국소설』(2023년 8월호) 신인상에 당선했습니다.
- 박혜자 회원이 2024년 재외동포문학상 단편소설 부문(「말복 씨의 여름」)에 입상했습니다.
- 시드니에 거주하는 테리사 리 회원이 2024년 소설집 『바닷가의 묘지』(천년 의시작)를 출간했습니다.
- 손용상 회원이 2023년 1월 9일 지병 악화로 작고하셨습니다. 삼가 명복을 빕니다.

미주한국소설 2024

(통권 제14호)

초판 1쇄 발행 2024년 10월 4일

지은이 미주한국소설가협회

펴낸이 임현경

펴낸곳 곰곰나루

출판등록 제2019-000052호 (2019년 9월 24일)

주소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서로 221 굿모닝탑 201동 605호 (목동)

전화 02-2649-0609

팩스 02-798-1131

전자우편 merdian6304@naver.com

ISSN 2671-4272

책값 16,000원

미주한국소설가협회

P.O. BOX. 3285

Cypress, CA, 90630

Tel 213.700.6667 Email esk002@hanmail.net

회장 홍영옥 부회장 백해철 감사 연구호

- 이 책의 저작권은 작가에게 있습니다.
- 잘못된 책은 바꾸어 드립니다.